

신학적 강해의 대가 데이비스 박사의  
전선지서 주해 시리즈 4



사무엘상 주해

# 중심을 보시는 이



저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  
역자 이창배

키드바로 주경연구소

# 1 SAMUEL

## Looking on the Heart

By

Dale Ralph Davis

Translated by

Chang Bae Lee

Copyright © Dale Ralph Davis ISBN 978-1-85792-516-6

This edition published in 2000,

reprinted in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2017 and 2019

in the 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Series by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Ltd., Geanies House,  
Fearn, Ross-shire, IV20 1TW, Great Britain

[www.christianfocus.com](http://www.christianfocus.com)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Chang Bae Lee

## 저자 소개

데일 랄프 데이비스(Dale Ralph Davis)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콜럼비아에 위치한 제일 장로 교회 목사였고 그 이전에는 해티스버그에 있는 우드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였다. 그는 전에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 핵심 주해(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시리즈 가운데 **여호수아**(ISBN 978-1-84550-137-2), **사사기**(ISBN 978-1-84550-138-9), **사무엘상**(ISBN 978-1-85792-516-6), **사무엘하**(ISBN 978-1-84550-270-6), **열왕기상**(ISBN 978-1-84550-251-5), **열왕기하**(ISBN 978-1-84550096-2)에 대한 주해도 썼다.

## 역자 소개

이창배 목사는 국제대학교 영어영문과(B.A.),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M.E.), 총회신학연구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A., Ph.D.)를 졸업했다. 역자는 한국에서 총회신학연구원, 개혁신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에서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Evangelia University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다. 역자는 엘리스 알 브로츠만의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와 데일 랄프 데이비스의 **구약 내러티브의, 어떻게 분석하고 강해할 것인가?** 그리고 **여호수아 주해와 사사기 주해**를 번역하였고, **룻기 원문주석, 십계명 주해, 이사야 53 장 주해,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교본, 아람어 문법**을 썼다.

## 목차 (Contents)

서문 (Preface).....	vi
역자 서문 (Translator's Preface).....	viii
약자 (Abbreviations) .....	x
서론 (Introduction) .....	1
<b>제 1 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지자 (A Prophet from God's Grace)</b>	
1. 요람과 왕국 (삼상 1:1-2:10 Cradle and Kingdom) .....	4
2.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삼상 2:11-36 Judgment Begins at the House of God) .....	19
3. 선지자의 유익 (삼상 3:1-4:1a Prophets Profit) .....	32
4. 호부(護符) 신학 (삼상 4:1b-22 Rabbit-Foot Theology) .....	40
5. 언약궤학의 발견 (삼상 5:1-7:1 Arkeological Discoveries) .....	48
6. 새로운 자비 (삼상 7:2-17 New Mercies) .....	60
<b>제 2 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왕 (A King in God's Place)</b>	
7. 왕에 대한 일 (삼상 8 장 The King Thing) .....	71
8. 분실과 발견 (삼상 9:1-10:16 Lost and Found) .....	80
9. 잃어버린(?) 왕 (삼상 10:17-27 A Lost King?) .....	92
10. 희망찬 시작 (삼상 11 장 Hopeful Beginning) .....	100
11. 언약—질책과 격려 (삼상 12 장 Covenant—Accusing and Assuring) .....	108
12. 왕관의 변색 (삼상 13 장 Tarnish on the Crown) .....	117
13. 슬픈 성공 (삼상 14 장 Sad Success) .....	128
<b>제 3 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God's Heart)</b>	
14. 선택받은 자를 버리심 (삼상 15 장 Rejecting the Chosen) .....	140

15. 중심을 보심 (삼상 16 장 Looking on the Heart) .....	154
16. 지극히 높은 곳과 땅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쿵! (삼상 17 장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Thud!) .....	166
17. 전능자의 그늘 (삼상 18-19 장 The Shadow of the Almighty) .....	181
18. 안전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삼상 20 장 How Do You Spell Security?) .....	192
19. 절박 (삼상 21:1-22:15 Desperation) .....	204
20.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삼상 22:6-23 Even Now Many Antichrists Have Come) .....	213
21. 공급하시는 하나님 (삼상 23 장 The God Who Provides) .....	222
22.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상 24 장 This is the Day! Or Is It?) .....	233
23. 예방적인 섭리 (삼상 25 장 Preventive Providence) .....	242
24. 창이 요점을 말한다 (삼상 26 장 The Spear Makes the Point) .....	254
25. 하나님이 없는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삼상 27:1-28:2 What Can a God-less Text Teach Us?) .....	265
26. 때는 밤이었다 (삼상 28:3-25 And It Was Night) .....	275
27. 블레셋 사람들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삼상 29 장 Accepting the Philistines as Your Personal Savior) .....	286
28. 크게 다급했을 때 (삼상 30 장 When the Bottom Drops Out) .....	294
29. 끝인가? (삼상 31 장 The End?) .....	307

## 서문 (Preface)

사무엘서, 특히 사무엘상에 대한 주석을 쓰는 것은 골리앗과 마주하는 것과 같다. 매우 엄청난 질문들과 난제들이 길을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들, 곧 논문들과 단행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주눅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읽고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이다. 게다가, 수많은 본문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의 손상과 제 4 쿨란 동굴에서 발견된 본문의 단편들이 더 훌륭한 독법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실로의 전승들, 언약궤 내러티브, 사울 이야기, 다윗의 등극의 역사 등과 같은) 가상의 문서들과 편집 과정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최신 구약 연구의 보편적인 마스코트인 신명기적 역사라는 문어가 사무엘서 자료들을 둘러싸고 있는 축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도입되는 것과 이에 대한 얼핏 보기에 상충되는 태도와 같은 역사적 문제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어쩌면 골리앗이 다윗의 돌을 흠쳐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이고 더 긴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 그것들에 대해 무지해서도 아니고 학문성을 비하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사실, 나는 그런 문제들과 씨름하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격분하곤 했다.) 그러나 더 논의를 하지 않는 데는 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선, 사무엘상은 긴 책이어서 나는 그런 세부 사항에 빠져들고 싶지 않다. 독자들은 많은 주석들의 서론, 구약 총론을 다루는 책들, 혹 표준적인 성경 백과 사전들의 기사에서 이런 비평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역사적이고 비평적인 문제들에 집중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재미있게 놀며 보낼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날 달걀을 보는 대신 케이크를 먹고 싶다. 그러므로 중심을 바라보는 것은 내러티브의 문학적 특성, 특히 본문의 신학적 증언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의 책은 신학적(혹은, 당신이 선호한다면, 강해적) 주석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신앙적 혹은 설교적 주석이 아니다. 내가 설교 형태로 강해를 하는 것은 그것이 이해와 일관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해들은 예화, 적용, 권면 등이 나오더라도 설교가 아니다. 나는 설교자 못지 않게 주석가도 본문의 진리와 삶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일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내가 사무엘상의 많은 단락들을 설교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설교들은 이 주석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자주 행해졌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대한 나의 이전 책들에 대한 고무적인 반응에 감사한다. 나는 아이다호에서 뉴질랜드에 이르는 주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독자들이 이 주석을 사용할 때 성경을 곁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많은 영어 번역본들을 사용해왔다. 만약 영어 번역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성경 본문의 번역은 내가 직접 한 것이다.

이 책을 우리 세 아들 누가, 셋, 요엘에게 바친다. 그들이 나에게 준 즐거움과 훈련에 감사하고 그들이 각자 고백한 믿음 안에서 계속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나의 아들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계속 강건해라(딤후 2:1).

대림절 1992

## 역자 서문 (Translator's Preface)

온 세상이 Covid-19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데이비스 박사의 사무엘상 주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힘든 일이었지만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다.

데이비스 박사는 서론에서 사무엘서 저자의 요약 구절(삼상 7:15-17; 14:47-52; 삼하 8:15-18; 20:23-26)을 책 구분의 중요한 단서로 여기며 삼상 7 장과 14 장의 요약 구절에 따라 사무엘상을 크게 세 부분(1-7 장; 8-14 장; 15-31 장)으로 나눈다. 그는 책의 전체 구조뿐만 아니라 각 부분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책의 부분들을 합친 문학적 구조를 제시할 때도 저자가 남긴 문학적인 단서들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삼상 28:4(결전의 장소: 수넴)과 삼상 29:1(집결의 장소: 아벡)의 지리적 설명은 삼상 27:1-28:2(가드의 다윗과 아기스)과 삼상 29:1-11(아벡의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 시간적으로 더 늦게 일어난 삼상 28:3-25(수넴의 블레셋, 길보아의 이스라엘)이 먼저 배열된 것을 알려준다. 아벡에서 이동하여 수넴에 진을 친 블레셋과 길보아에 진을 친 이스라엘의 결전을 앞두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울의 딜레마(삼상 28:3-15)가 하나님의 적들과 함께 있는 다윗의 딜레마(삼상 27:1-28:2)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것은 연대순을 무시하고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전하는 속보처럼 먼저 제시된다. 그런 다음 다윗과 사울의 결과도 대조된다. 다윗은 삼상 29 장에서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 위기를 모면하지만 사울은 삼상 31 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멸망당한다.

데이비스 박사는 신학적 주해에 치중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할 교훈을 잘 지적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섭리(providence)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다양한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제공하시는**(provides) 자주 신비롭고, 항상 흥미로운 방식을 뜻한다." 하나님은 나발의 종과 아비가일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다윗을 충동적인 어리석음과 잘못으로부터 제지하셨다. 사울의 손에 곧 잡혀 죽임당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에 블레셋 침략 소식은 사울의 다윗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곳은 "[셀라 하마흘르코트, 분리의 바위] 셀라하마느곳"이 되었다.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사로잡아간 아말렉 사람들을 찾는 데 있어서 아말렉 주인이 병들어 없다고 버린 애굽인 종을 만난 것은 작은 섭리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고 섭리가 필수적인 것을 잘 보여준다. 적그리스도로서 사울은 도액을 시켜 에봇 입은 자 85 명을 죽이도록 하였다. 사울과 도액은 이 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엘리 가문의 멸절 예언: 삼상 2:30-36)이 성취되게 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배운 요나단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비롭고 흥미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힘을 얻는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분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묘사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일 수밖에 없다. 이 과업은 사람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었다. 엘리는 여호와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사무엘은 또 하나의 사울 곧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길에 나발과 그 집의 남자들의 피를 바르려 했고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피하다가 지쳐 블레셋으로 망명해 하마터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할 뻔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경건한 자들을 통제하시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 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 아비아달보다 더 크신 분, 나발처럼 거역하는 자들의 적개심을 참아내신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쉬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한 사무엘보다 더 크신 분, 어둠 속에서도 비추는 빛이 되시려고 자기 백성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분,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한 요나단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개시하셨고 지속해 가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에 충실한 남은 백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2020 년 대강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 약자 (Abbreviations)

- BDB Brown, Driver, and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 IDB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 IDB/S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ume*
- ISB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 JB Jerusalem Bible
- JSO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 KJV King James Version
- LXX The Septuagint
- MLB Modern Language Bible (New Berkeley Version)
- MT Masoretic Text
-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 NEB New English Bible
-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 NJB New Jerusalem Bible
- NJPS Tanakh: A New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Hebrew Text (1985)
- NKJV New King James Version
-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 TDOT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 TEV Today's English Version
- TWOT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 ZPEB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 서론 (Introduction)

우리는 어디를 잘라 나눌 것인가? 그것은 통닭이었고 우리 결혼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내 아내는 훌륭한 요리사였고 자주 닭을 굽거나 튀켰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나 이미 각 조각으로 잘라진 닭이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아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닭을 토막내는 방법이 있었는가? 그래서 바바라는 장로교 주택을 나서서 옆집 침례교 이웃에게 문의를 했다. 제니 부인은 농장에서 여러 계절을 보낸 베테랑이었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물샘은 과로로 인해 슬프지 않을 때에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초보 요리사가 통닭을 조각내는 적절한 방법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슬프지 않았고 매우 즐거워했다. 그러나 성경 자료는 닭보다 더 중요하며, 성경 저자(또는 편집자)가 특정한 지점이나 이음새 부분에서 그의 자료를 자른다면,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고 존중해야 한다. 사무엘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자료들이 원래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잠깐 “통닭”같은 사무엘상하를 한꺼번에 보아야 한다. 사무엘상하의 저자 또는 편집자는 이 방대한 양의 자료 전반에 걸쳐 네 개의 요약 구절을 배치했다. 이 요약들은 그의 구분 표지로서 사무엘상하의 전체 구조에 대한 지표이다.<sup>1</sup>

장 구분	주된 초점	요약 구절
삼상 1-7 장	사무엘	삼상 7:15-17
삼상 8-14 장	사울	삼상 14:47-52
삼상 15 장-삼하 8 장	다윗 I	삼하 8:15-18
삼하 9-20 장	다윗 II	삼하 20:23-26
삼하 21-24 장	왕국	

---

<sup>1</sup> 나는 테리우스 외에 이 요약 구절들에 대한 인식을 추적할 수 없었다. C. F. D. Erdmann, *The Books of Samuel*,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77;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18-20 을 참고하라.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267, 271-272)는 그것들의 구조적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내가 찾은 바로는 H. M. Wolf ("Samuel, 1 and 2," ZPEB, 5:254-64)가 이 구조가 저자의 자료 사용을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부수적으로 사무엘상하 전체에 서로 멋지게 상응하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예를 들어, 초두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삼상 1 장)은 말미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미래 부지(삼하 24 장; cf. 대상 21:1-22:1)와 상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단락이 시작 부분(삼상 2:1-10)과 끝 부분(삼하 23:1-7)에 나오며 서로 상응한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의 경우 저자의 주요 부분 표시들은 7 장과 14 장의 끝에 나온다. 나는 이 구분 표시를 따라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I.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지자, 삼상 1-7 장
- II. 하나님 자리에 있는 왕, 삼상 8-14 장
- III.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삼상 15-31 장

책 전체, 요약, 개요에 대한 것은 이로써 충분하다. 실로에 울고 있는 한 여자가 있다. 거기서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보자.<sup>2</sup>

---

<sup>2</sup> 우리는 사무엘상하의 저자나 저작 연대를 모른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유수나 그 이후에 현재 형태의 본문과 같은 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매우 복잡한 구성의 역사를 주장한다(Georg 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1968], 217-226 참조). 다른 학자들은 (삼상 27:6b의 논평과 같은) 소수의 변경을 제외하고 "사무엘상하의 다윗 통치의 끝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William Sanford LaSor,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illiam Bush, *Old Testament Survey: The Message, Form, and Background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2], 229). Wolf, "Samuel, 1 and 2," 261 도 보라.

## 제 1 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지자  
(A Prophet from God's Grace)

사무엘상 1-7 장

## 1. 요람과 왕국 (삼상 1:1-2:10 Cradle and Kingdom)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사실, 이것은 매년 일어났다. 영이 소생하는 때가 다가온다. 그러나 종교 행사의 축제 분위기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 뿐이었다. 갑자기,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는 성막 입구에서 그녀를 보게 된다. 우리는 지켜보지만 방해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한나는 기도하기를 원한다. 쏟아지는 커다란 흐느낌이 가라앉았다면 그녀는 기도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나는 주전 1100 년에 이스라엘 여성이 바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편 엘가나(삼상 1:1 에서 그의 뿌리가 어떻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지 주목하라), 적당한 부(삼상 1:2, 두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을 만한 부), 진정한 애정(삼상 1:5, 8), 그리고 신실한 경건(삼상 1:3a; cf. 제사장 홉니와 비느하스의 괴상한 행동이 [삼상 1:3b] 경건을 심히 시험하고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은 그들을 참아야만 했음) 등이 있었다. 문제는 한나가 엘가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공유했다. 그것도 자식이 있고 말이 많고 항상 고통 거리인 브닌나와 함께 공유했다(삼상 1:2, 6-7). 우리에게 이 가정적인 갈등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된다.

### I. 하나님의 일의 시작 (삼상 1:1-8 The Beginning of God's Work)

습 자손의 라마에<sup>1</sup> 있는 집의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삼상

---

<sup>1</sup> 여기 "라마"로 번역한 이름은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에 "라마다임"으로 나온다. "라마다임"은 "두 언덕"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라마다임 다음에 나오는 (독법이 어려운) "소빔"이 "습 사람(들)"으로 고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엘가나의 라마[삼상 1:1]와 베냐민의 라마[수 18:25]가 구별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습 자손의 라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어떤 이들은 습 자손의 라마가 에브라임 산지의 서쪽 비탈에 있는 리다에서 북동쪽으로 9 마일 떨어진 지금의 렌티스[Bergen(63): 텔 아비브 동쪽으로 16 마일; 막 15:43 의 아리마대]라고 생각한다. W. H. Morton, "Ramah," *IDB*, 4:8 을 참고하라. [역자 주] Youngblood(45)와 Vannoy(43)는 여기 라마다임의 어머니 [아임]이 양수처럼 보이지만 처소격 어머니로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라마다임은 삼상 1:19; 2:11; 7:17 등에서 간단히 라마로 불린다. 저자는 습 자손의 라마와 베냐민 자손의 라마를 구별하기 위해 라마다임에 소빔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NIV 는 소빔을 베냐민 지파의 동명의 장소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엘가나의 조상을 가리키는 종족 어머니로 보았다. 새번역과 현대어 성경은 NIV 와 비슷하게 번역했다. 개역개정/우리말성경/쉬운성경은 KJV/NASB/ESV 와 비슷하게 라마다임 소빔(Ramathaimzophim)으로 번역했다. 다음 번역들을 비교해보라.

1:2b) 여호와와 그녀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다(삼상 1:5b).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는데, 특히 그녀가 실로에서 제사드릴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한나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한나가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불임 여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래/사라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는 창 11:30 의 말씀이 그 다음 열 개의 장에 걸쳐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을 기억한다. 창 25: 20-21, 26b 에 의하면 리브가는 결혼 후 처음 20 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다. 창 29:31-30:24 는 라헬의 불임을 둘러싸고 소용돌이치는 연속극 같은 소동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여호와와 출산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의 태에서 힘센 삼손을 출생시키셨다(사사기 13 장). 늙고 자식이 없는 엘리사벳이 세레 요한을 낳으리라고 누가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눅 1:5-25)?<sup>2</sup> 불임의 여성들은 구속사에 있어서 약속된 씨(이삭)나, 이스라엘의 아버지(야곱)나, 이스라엘의 구원자나 보존자(요셉, 삼손, 사무엘)나, 위대하신 왕의 선구자(세레 요한)와 같은 핵심 인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 같다.<sup>3</sup>

그러므로 한나는 불임 여성의 대열에 합류한다. 바로 이 불임 여성의 대열을 통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역사의 새로운 장이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시작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 무능을 그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경향을 보이신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무기력은 그분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전적 무능은 자주 그분이

---

개역개정/우리말성경: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ESV: There was a certain man of Ramathaim-zophim o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ose name was Elkanah ...

NIV: There was a certain man from Ramathaim, a Zuphite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ose name was Elkanah ...

새번역: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솥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현대어성경: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는 솥씨 집안이 모여 사는 라마다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sup>2</sup> 우리는 이 목록에 왕하 4:8-37 에 나오는 수넴 여자를 추가할 수 있다.

<sup>3</sup> 이 시리즈에 동정녀 임신과 예수님의 탄생이 추가되어야 한다. 유형은 다르지만 “난이도”는 비슷하다. 가브리엘은 임신 가능성이 희박했던 엘리사벳의 6 개월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마리아의 신앙을 북돋았고(눅 1:36) 추가 격려를 위해 사라의 경우를 암시했다(눅 1:37 은 창 18:14 을 반영한다). 동정녀 탄생은 단지 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전적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임을 보여주는 징조이다!

다음 행동을 위해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 소품이 된다. 이 문제는 성경의 불임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을 넘어선다. 우리는 여호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에 직면해 있다. 자기 백성이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인간적 계획도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손을 내밀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흔히 시작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일은 불임에서뿐만 아니라 괴로움에서도 시작되었다(특히, 삼상 1:6-7). 자식이 없는 것은 한나에게 충분한 낙인이었지만,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브닌나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기회를 이용해 한나를 격분시켰던 것처럼 보인다(삼상 1:3-4). 브닌나 자신은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명백한 애정에 화가 났을 것이다.<sup>4</sup>

---

<sup>4</sup> 삼상 1:5 은 어렵다. 우리는 מִצְּאֵן תְּמָס נֶפֶשׁ [마나 아하트 아파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이 "갑절"을 의미한다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을 주었다"는 뜻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칠십인역(LXX)을 따른다면, 이 구절은 그가 한나에게 "한 몫을 주었지만, 그래도 그는 한나를 사랑했던" 것을 말한다. See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7-8 을 보라. 최근에 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보다 더 확실한 결론엔 이르지 못했다.

[역자 주] KB 1:76-77 에 의하면 단수 [아프]는 "코, 얼굴, 분노, nose, region of nose = face, anger"의 의미로 쓰이고, 양수 [아파임]은 "콧구멍, 얼굴, 분노, nostrils, region of nose = face, anger"의 의미로 쓰인다. 칠십인역의 독법은 תְּמָס נֶפֶשׁ [마나 아하트 "한 몫"]만 함께 가는 것으로 보고, מִצְּאֵן [아파임]을 οὐκ [에페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서 뒤따르는 [키]와 함께 가는 것으로 간주하며 πλὴν ὅτι 로 번역한 것이다. 다음 칠십인역과 브렌톤의 번역을 보라.

LXX 1:5a καὶ τῇ Ἄννα ἔδωκε μερίδα μίαν, ὅτι οὐκ ἦν αὐτῇ παιδίον, πλὴν ὅτι τὴν Ἄνναν ἠγάπα Ἐλκανὰ ὑπὲρ ταύτην. Brenton: And to Anna he gave a prime portion [one portion], because she had no child, only Helkana loved Anna more than the other;

Youngblood("1, 2 Samuel", *REBC* 3, 51)는 Ferdinand Deist 가 칠십인역처럼 [에페스]로 고쳐 읽는 대신 "살찐, fattened"의 의미를 갖는 הַפִּיּוּט [아부싸]로 읽고 "one portion of fattened meat"로 이해하며 타르쿰에 근거하여 "one selected portion"로 번역한 것을 소개한다. 그는 또한 David Aberbach 가 [아파임]을 그대로 유지하되 무게의 단위 [핌] (세겔의 삼분의 이)으로 보고 "one portion, a pim in value"로 번역한 것을 소개한다. Youngblood 는 히브리어에서 신체의 부분이 "time, 횡수, 배수"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주 쓰였다고 설명하고 [마나 아하트 아파임]을 "one portion two times" 곧 "a double portion"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annoy(*1-2 Samuel*, 46-47)는 [아파임]의 "both nostrils, anger, face; 두개의 코, 분노, 얼굴" 등의 의미를 따라 [마나 아하트 아파임]이 "one portion for two persons (i.e., faces), 두 사람을 위한 몫" 혹은 "a double portion 두 몫"(NIV, NASB, ESV, Keil, 개역개정, 새번역, 우리말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

"애들아, 너희 모두 음식을 받았니? 애들아, 너희가 너무 많아서 추적하기가 힘들구나."

"엄마, 큰 엄마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애야, 뭐라고 했니?"

"큰 엄마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말했어요."

"아, 한나 큰 엄마? 아, 그래, 맞아. 큰 엄마는 아이가 없어."

"큰 엄마는 자식을 원하지 않아요?"

"아, 아니, 큰 엄마는 아이를 아주, 아주 많이 원해! 한나 형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낮은 목소리로] 형님도 아이를 가졌으면 하고 바라지요?"

"아빠는 큰 엄마 한나가 아이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요?"

"아니, 아빠는 정말 큰 엄마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셔. 그러나 한나 큰 엄마가 계속 아빠를 실망시키고 있단다.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단다."

"왜 그러실 수가 없는데요?"

"응 그건, 하나님께서 큰 엄마에게 아이 갖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큰 엄마 한나를 좋아하시지 않는가요?"

"글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참, 한나 형님, 내가 또 임신했다고 말했나요?! 한나 형님, 당신은 언젠가 꼭 임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브닌나는 한나를 화나게 하고, 한나가 흐느껴 울 때까지 약 올리고, 들들 볶아 한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다.<sup>5</sup> 어찌됐든, 그것은 한나를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로, 여호와와의 면전으로, 열렬한 간구로 인도했다. 한나의 열렬한 간구를 통해 한나는 결국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 한나(아니, 우리 자신)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무거운 슬픔을 펴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의 또 다른 서막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절망을 누그러뜨리자.

---

"a portion of the face" in the sense of a portion of honor", 즉 "a worthy portion(KJV, Targum) 가치 있는 한 몫" "one only choice portion(NLT) 가장 좋은 한 몫"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고 설명한다. 공동번역은 단지 "한 몫"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는 칠십인역의 독법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sup>5</sup> 이 마지막 구의 표현을 위해 C. F. D. Erdmann, *The Books of Samuel*,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77;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49 을 보라.

## II. 하나님 임재의 자유 (삼상 1:9-18 The Freedom of God's Presence)

제사를 드린 후 함께 먹는 식사(레 7:11-18; 신 12:5-14 참조)가 끝났다. 갑자기 한나는 성막 입구, 곧 뜰로 달려갔다. 그녀는 늙은 엘리(삼상 1:9b)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들여다보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가슴이 쓰라린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삼상 1:10). 때때로 눈물 자체가 분명히 기도가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눈물 소리(시 6:8)"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달리 돌아설 데가 없었다. 그녀는 브닌나의 잔인한 조롱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엘가나의 선의가 있으나 불충분한 동정심(8 절)에서 위안을 찾지 못했다(삼상 1:8). 제사장마저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늙은 엘리는 그의 아들들의 악한 행위를 알고도 용납하였지만, 술에 취한 여인에게는 여전히 짜증을 낼 수 있었다(삼상 1:12b-14). 한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삼상 1:11)"께만 의지할 수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의 우주적인 통치가 "하늘과 우주와 땅의 모든 세력이나 군대를 포괄하는"<sup>6</sup>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한나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그분은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마스코트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거주 지역의 명예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바로 이 칭호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전능하심을 붙들게 한다.

한나의 간구는 다소 놀랍다(삼상 1:11).

(삼상 1:11 개역개정)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sup>7</sup>

그녀는 우주의 통치자요 모든 권세의 주재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무명의 여자의 상한 마음이 그분에게는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신자들은 그들의 최고 논리 중 일부를 기도에 사용한다.)

---

<sup>6</sup> John E. Hartley, *TWOT*, 2:750. See also Walther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 1:192-94.

<sup>7</sup>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이 표현은 이 아이를 새로운 삼손으로 보게 하는가? 샏 13:3-5 와 나의 책 *Judges: Such a Great Salvation* (rpt. Fearn: Christian Focus, 2000), 173, n. 10[=**사사기 주해**, 140 각주 11 (17 장 III. 여호와의 종의 약점)]에서 논의한 것과 비교하라.

여기 한나의 간구를 출 3:7 에 나오는 여호와와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나는 백성 공동체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고난도 보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가정했다. 한나는 또한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실 경우 그가 유명해지거나 탁월해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여호와의 소유가 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시는 아마도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자유일 것이다. 그 장면을 다시 보라. 여기에 너무나 심한 고뇌에 빠져 있는 한나가 있다. 그녀는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만 말하고 있었다(삼상 1:13).”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녀의 간절함을 술 취한 것으로 오인했다. 또 다른 술 취한 여자, 제사 드린 후 식사하며 반쯤 취한 여자라니! 그러나 엘리의 날카로운 책망을 듣자 한나는 슬픈 고백을 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입니다(삼상 1:15).”

한나가 알고 있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처럼) 그녀는 괴로운 심정을 가진 여자로서 여호와 앞에 그녀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시 142:2)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녀는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그녀의 고뇌를 쏟아냈다. 여호와는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교회에는 종종 다음과 같은 근거 없는 말이 나돌고 있다.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우리의 기도에서 자유와 개인적 접근이 없었다. 그들의 예배는 의식이 자발성이나 강렬한 영성을 죽이는 매우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나가 들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것이다. 한나가 여전히 사무엘상 1 장에 있고 히브리서 4 장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녀가 동일한 은혜의 보좌를 찾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로 동일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한나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대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 곧 우리의 슬픔과 흐느낌과 당혹감을 그분의 발에 쏟아 붓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루실 수 있다. 여러분이 그분의 발 앞에 여러분의 괴로움을 내려놓아도, 그것이 그분을 초조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 III. 하나님의 선물의 봉헌 (삼상 1:21-28 The Dedication of God's Gift)

마침내 엘리가 한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의 비난은 축복으로 바뀌었다(삼상 1:17). 한나는 문제 해결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삼상 1:18). 한나가 여호와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삼상 1:11 [즈하르타니 < 자하르])”라고 간구한 대로, 여호와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삼상 1:19 [바이즈크레하 < 자하르]).<sup>8</sup>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다(삼상 1:20).

삼상 1:21-28 의 주된 관심사는 한나가 여호와께 아들을 바쳐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서약(삼상 1:11 참조)을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 때까지 기다리길 원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젖 떼는 데 3 년(cf. 마카비 2 서 7:27)이 걸릴 수 있었다.<sup>9</sup> 엘가나는 조심스럽게 동의한다(삼상 1:23). 젖을 떼 후 한나는 수소 세 마리<sup>10</sup>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그를

---

<sup>8</sup> [역자 주] 개역개정은 삼상 1:11, 19 에 나오는 [자하르]를 “기억하다”와 “생각하다”로 조금 다르게 번역했다. 같은 단어인 것을 고려하여 새번역이나 우리말성경처럼 1:19 의 [자하르]도 “기억하다”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sup>9</sup> [역자 주] 마카비 2 서 제 7 장은 안티오쿠스가 모세 율법을 어기며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한 명령을 거역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을 고문하며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머니는 일곱째 아들에게 뱃속에서 9 개월, 젖 떼는 데 3 년,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한 것을 말한 후, 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으며 형들처럼 기꺼이 순교를 당하라고 말한다. 일곱째 아들은 안티오쿠스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길 빌고 형들과 자신이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원하며 어머니의 말대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어머니도 죽임을 당한다.

Cf. 2 Maccabees 7:27 NRSV: But, leaning close to him, she spoke in their native language as follows, deriding the cruel tyrant: “My son, have pity on me. I carried you nine months in my womb, **and nursed you for three years**, and have reared you and brought you up to this point in your life, and have taken care of you.”

<sup>10</sup>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삼상 1:24 에서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을 따라 “3 년된 수소 한 마리”로 읽는다. 이 독법은 삼상 1:25a 에 한 마리의 수소만 잡았다고 명시적을 말한 것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스미스(R. Payne Smith, *I Samuel*, The Pulpit Commentary [London: Funk and Wagnalls, n.d.], 13)는 민 15:9 에 의하면 여기 밀가루 “한 에바”가 소제로 요구되는 양보다 3 배쯤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웬햄(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9], 79)도 스미스와 같은 입장이다. 세 마리의 수소는 (거의) 분에 넘치는 예물이었을 것이지만 (두 아내를 둘 수 있는) 엘가나의 재력과 한나의 감사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바친다.

한나가 엘리에게 어린 사무엘을 드릴 때, 우리는 삼상 1:27-28 절에서 한나가 사용한 단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녀는 히브리어 어근 [샤알]("묻다, 청하다, 구하다, to ask")을 4 번 사용한다. 이 사실은 매끄러운 흐름을 위한 영어 번역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더 거친 번역을 용인한다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를 위해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가 그분에게 구한 저의 구함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여호와께 구해졌던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가 사는 평생동안 그는 여호와를 위해 구하여진 자입니다.<sup>11</sup>

한나의 말은 엘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삼상 1:17)"고 말한 것을 그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샤알] 함이더라(삼상 1:20)"에서<sup>12</sup> 그녀의 명백한 언어유희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삼상 1:27-28 을 다시 보면, 한나의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을 말하면서 그 선물을 온전히 여호와의 처분에 맡긴다. 새예루살렘성경(NJB)이 삼상 1:28 을 번역한 것처럼 "그는 여호와께 넘겨졌다/양도되었다(He is made over to Yahweh)."

사무엘의 위치에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시기(삼상 3:19-20)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될 운명이다. 그는 구속사의 주요

---

<sup>11</sup> "For this child I prayed, and Yahweh gave me my asking which I asked from him; and I also have given back what was asked to Yahweh; all the days he lives he is one that is asked for Yahweh." 이것은 스미스(Smith, *I Samuel*, 13)의 번역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다. "'구해졌던 것을 돌려드립니다'라고 번역된 활용은 문자적으로 '구하도록 만들다' 그리고 그래서 '구해진 것을 주다 혹은 빌려주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한나가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을 돌려주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나가 자신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데 바치기 위해 구한 것이다."

<sup>12</sup> "사무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 혹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삼상 1:20 에 나오는 한나의 진술의 요점은 사무엘과 [샤알]("구하다") 사이의 언어유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그녀의 말에서 "여호와께"라는 어구가 히브리어 본문에서 강조되며 한나의 주된 요점(즉,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태를 닿으셨던[삼상 1:5-6]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P. Kyle McCarter, Jr., *I Samuel*,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62, 그리고 Lyle M.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I Samuel 1-12* [Sheffield: Almond, 1985], 83 을 보라.

임무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과 한나와 엘가나는 모든 신자들과 같은 수준에 서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공유한다. 주님과 언약을 맺고 살고 있는 모든 부모는 정확한 실천 면에서는 다르더라도 일반적 원리에서는 한나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엄숙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각 어린이가 “여호와께 넘겨지기를” 바라야 한다. 그분의 선물은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한 두 번 부재중일 때가 있었다. 그런 때는 어머니께서 저녁에 가족 예배를 인도하셨다. 나는 늘 그게 좀 두려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으면, 엄마는 우리 다섯 형제들을 위해, 특별히 그리고 상세하게, 큰 형으로부터 막내인 나까지 각각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 좀 두려워한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들을 듣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위해서 기도를 받은 나에게 그것들은 항상 새로웠다. 당연히 여덟 살, 열 살, 열두 살짜리 소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남자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강인한 것은 힘든 것이었다. 여기에 그녀가 아는 것—아니 어쩌면 알지 못한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아들들을 주님께 “넘기는” 기독교인 어머니가 있다. 그들은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다.

#### IV. 하나님 나라의 관점 (삼상 2:1-10 The View of God's Kingdom)

한나는 실로(삼상 2:1a)에서 다시 기도한다. 삼상 2:1-10 에는 여호와의 선물에 대한 그녀의 반응, 즉 그녀의 찬양의 기도가 있다. 나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한나의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한나의 노래는 1-3 절, 4-8 절, 9-10 절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삼상 2:1-3 은 여호와의 특별한 구원, 즉 고난 중의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한 그녀의 승격을 표현하고 있다.

##### 삼상 2:1-3 개역개정

1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삼상 2:1 에 반복된 인칭대명사("나의," "내가")는 한나가 자신의 경험으로 노래를 시작한 것을 나타낸다. 그녀는 삼상 2:2 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삼상 2:3 에서 한 마디 찬고를 한다. 삼상 2:3 의 조언은 특별히 브닌나를 향한 것이 아니다. 3 절의 처음 두 히브리 동사((알) 타르부 트다브루 "너희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가 ("너희의 입에서[미피헴]"에 나오는) "너희의"라는 인칭대명사처럼 복수형인 것을 고려하면, 이 조언이 특별히 브닌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급자족한다고 자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다. 한나는 자신의 위기에서 주어진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 찬양한다. 우리는 이것을 "미시(微視)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삼상 2:4-8 절에서 한나는 그 문제에 대해 확장한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구원하신 방식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방식의 특징이다.

#### 삼상 2:4-8 개역개정

-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 5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 6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 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데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 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특수한 것(삼상 2:1-3)에서 일반적인 것(삼상 2:4-8)으로 이동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위해 하신 것은 단순히 그분의 방식의 경향을 반영한다. 존 칼빈은 아내 이델레트가 죽었을 때 친구 윌리엄 파렐에게 이렇게 썼다. "주 예수님께서 ... 이 힘든 고난 아래 있는 ... 저를 지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옹드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지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힘든 고난이 분명 나를 압도해 버렸을 것입니다."<sup>13</sup> 칼빈은 분명히 압사당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옹드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지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었다. 주님께서 다시 칼빈의 슬픔 중에서 그분의 품성대로 행하셨다. 그것이 한나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곤잘 넘어졌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는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로 출산하게 하셨다. 나는 가난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와 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삼상 2:9-10 에서 지평선이 넓어지고 시야가 확장된다. 우리는 한나의 경험(1-3 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방식(4-8 절)을 거쳐 여호와께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눈에 띄게 다스리시는 것(9-10 절)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시(微視) 구원"에서 여호와와 의 특징적인 방식들을 거쳐 "거시(巨視) 구원"에 이르렀다.

#### 삼상 2:9-10 개역개정

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sup>13</sup> Thea B. Van Halsema, *This Was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59), 155.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sup>14</sup>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고 행동하실 때(삼상 2:4-8) 일어날 일이 있다. 여기에 최종 결과인 웅장한 피날레가 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의 구원, 여호와와 대적들의 산산이 깨어짐, 땅 끝까지의 심판이다.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왕, 곧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한다.<sup>15</sup>

여러분은 한나의 기도의 논리를 파악해야 한다. 사무엘상의 이러한 시작 장면들에 다음과

---

<sup>14</sup> 마지막 두 행은 소원 또는 기도로 번역되어야 한다. 동사들은 단순 와우(waw, 바브)를 가진 미완료로서 직설법이 아닌 것을 거의 확실히 나타낸다. 이것은 J. J. Owens 의 세미나에서 지적된 요점이다. 영어 성경들은 이 두 행을 직설법의 진술로 번역한다. 그러나 클라인(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3)과 맥카터(McCarter, *1 Samuel*, 68)는 모두 가정법으로 번역한다. 역자 주: ESV 와 Klein 그리고 저자의 번역을 비교해 보라.

ESV: he will give strength to his king and exalt the horn of his anointed.

Klein: May he give strength to his king; may he raise the horn of his anointed monarch.

Davis: may he give strength to his king; and may he lift up the horn of his anointed one.

<sup>15</sup> 주석가들은 거의 한결같이 삼상 2:10b 때문에 한나의 노래를 한나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니면 적어도 그들은 한나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삼상 2:10b 를 한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한나는 여호와와 "왕"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인 견해는 편집자가—어느 정도 적절하게, 틀림없이—한나의 입 안에 다소 늦은 시기의 시편을 넣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29, 3 을 보라. 그러나 왕정을 암시하기 전에 왕정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항상 타당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견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래 전에 커크패트릭(A. F. Kirkpatrick,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6], 55–56)은 한나의 입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왕에 대한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의 후손(창 17:6) 가운데 일어날 왕에 대해 말했다. 모세 율법은 왕의 선택 방법과 의무를 규정한다(신 17:14-20). 기드온은 세습 군주제를 세우도록 초청받았었다(삿 8:22). 기름 부음은 또한 왕직에 들어서는 정규 의식으로 인정되었다(삿 9:8). 국가의 만연한 무정부 상태와 심화되는 분열 속에서, 내부 부패와 외부의 공격 속에서, 왕에 대한 열망은 아마도 대중의 마음에 확실한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이다." 고든(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3)은 이 시를 한나의 것으로 간주하지만, 삼상 2 장 10 절 후반절의 기도는 시 51:18-19 이 시편 51 편에 덧붙여진 것처럼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본다.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노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272–73 과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99–102, 110–12 과 Willem A. Van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Books, 1988), 206–7, 215–16 등을 참고하라.

같이 피상적으로 반응하기 쉽다. “뭐가 그렇게 큰 문제지? 이제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고 그건 좋은 일이지.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 우쭐했던 대적 브닌나는 수욕을 당해야 했어. 그래서 라마다임소빔에 있던 엘가나의 집에 상황이 조금 진정된 것뿐이야.” 아니, 정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그분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방식의 표현이다. 한나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삼상 2:4-8)과 여호와께서 그분의 나라를 충만하게 가져오실 때 일하실 방식(삼상 2:9-10)의 표본이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주신 구원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웅장한 스타일로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축소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각각 이 점을 자신의 생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렁에서 들어올려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표본이 되고, 마침내 여러분의 것이 될 온전한 구원, 곧 거시 구원의 계약금이 된다.

사실, 그러한 작은 구원은 최종 구원의 표본 혹은 표시일 뿐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은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혹은 결혼 밴드를 착용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그녀는 반지가 남편이 그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징표나 표시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녀는 반지는 단지 표시 혹은 상징일 뿐이고 분명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체는 그것의 표시나 상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그 반지를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반지가 단지 상징일 뿐이므로 차고 세일에 그것을 파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반지가 상징하는 더 깊은 실상 때문에 그것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이 작은 구원들을 경멸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들이다.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하늘에 앉히시는 기묘한 방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지만 분명한 증거들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적 도움을 베푸신 모든 에피소드를 숙고해 보라. 그것은 여러분이 눅 12:32의 말씀을<sup>16</sup> 믿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sup>16</sup> 역자 주: (눅 12:32 개역개정)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어쩔 수 없이 고향 프랑스를 떠나게 된 젊은 존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나 심지어 바젤까지 이르기를 바라며 동쪽으로 여행하고 있었다. 그의 소망은 연구하고 글을 써서 새로운 개신교 신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안식처를 찾는 것이었다.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직선은 전쟁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때는 1536 년이었고, 프란시스 1 세와 황제 찰스 5 세가 세 번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대포, 수레, 장비들이 도로를 가로막았다. 칼빈은 남쪽으로 우회해서 리용을 통과해야 했다. 그는 어느 날에 로잔에 도착하기를 바랐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다. 거기서 작고 육중하고 불같은 윌리엄 파렐이 젊은 학자 칼빈을 붙잡고 제네바에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sup>17</sup> 우리가 칼빈이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을 프란시스 1 세와 찰스 5 세에게 빚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인간적으로 말하면, 칼빈이 제네바까지 가도록 만든 것은 그들의 전쟁이었다.

나는 그렇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프란시스와 찰스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제네바의 은인이 된 것이 아니었는가? 사무엘상으로 돌아가 보면, 같은 의미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브닌나에게 빚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비뚤어진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브닌나의 괴롭힘, 조롱, 악의가 없었다면, 한나는 절박한 기도로 나가도록 그녀를 움직인 마음의 산란함으로 내몰렸을까? 한나가 슬픔에 짓눌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본다. 한나에게 이것은 끔찍한 개인적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기도하도록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그분의 온 백성을 보호해 줄 한 어린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시고 그 효과를 확대시킨다. 한나의 혹독한 시련은 온 백성의 구원으로 이어졌음이 판명되었다. 브닌나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브닌나에게 빚진 것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브닌나의 능글맞은 미소와 빈정거림과 독설까지 취하시어 그것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종으로 요람을 채우신 하나님께 그것을 빚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의 위로를 볼 수 있지 않는가?

---

<sup>17</sup> Van Halsema, *This Was John Calvin*, 59–60, 76–78.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불임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받은 성경 이야기들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격려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당신의 삶의 지금 단계에서 이것의 연관성을 고려해보라.
2. 나는 “불가능한 자들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인간의 책략”으로 대체하는 위험에 빠져 있지 않는가?
3. “우리의 실망이 ... 하나님의 능하신 일의 또 다른 서곡일 수 있다.” 성경과 경험에서 이에 대한 예들을 찾아보라.
4. 기도에서 논리가 차지하는 자리를 고려해보라. “주님, 주께서 ...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그것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가?
5. 당신의 자녀들, 손자들, 조카들에 대한 당신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명예인가, 번영인가, 아니면 경건인가?

## 2.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삼상 2:11-36, Judgment Begins at the House of God)

대각성의 해인 1740 년 미국 식민지들의 영적 부활은 불가능해 보였다. 중부 식민지의 사무엘 블레어는 “종교는 죽어 가고 있고 이 지역의 가시적 교회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려고 하고 있다.”라고 썼다.<sup>1</sup>

우리는 사회 전반의 적대를 예상한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 살금살금 다가오는 죽음이 스며들 때,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앙에 무관심하고 삶에 거룩함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상의 빛이 어둠의 일부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암울한 시간이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지도자로 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 그러나 그 때에도 여호와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 그분은—심판과 은혜, 둘 모두 가운데—거기에 계셨다.

### 1. 하나님의 사역의 은밀한 방식 (삼상 2:11-26 The Secret Manner of God’s Work)

여호와와는 너무 조용히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지만, 실로의 혼란은 너무 눈에 띄어서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혼란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참으로 놀랍다! 한나의 기도(삼상 2:1-10)는 교만한 자들(3 절), 용사들(4 절), 악인들(9 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10 절)을 암시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자들이 있다! 예상대로 가나안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다.<sup>2</sup>

실로에서 예배는 웃음거리였다. 한 예배자가 화목제를 드린 후 그와 그의 가족이 함께 즐길 식사를 위해 제물 중 그의 몫을 요리하고 있다. 어디에나 모습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사환이 그의 악명높은 세 살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예배자의 냄비에나 솥에 찢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손수레에 싣고 제사장들의 숙소로 가져간다(삼상 2:13-14). 제사장은 이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레 7:28-36)를 그의 몫으로 받았지만 실로에 갈고리를 든 사람을 보내 갈고리로

---

<sup>1</sup> Iain H. Murray, *Jonathan Edwards: A New Biograph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159.

<sup>2</sup>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24.

건져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오게 했다.<sup>3</sup> 사태가 더 나빠졌다.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레위기 3 장 참조) 제사장의 종이 나타나 예배자에게 날 것(익히지 않은 것)을 요구했다(삼상 2:15). 예배자가 제단 위에서 기름을 먼저 태워 여호와께 합당한 경외심을 나타내야 한다고 제사장의 종에게 상기시켜 주면, 그 젊은 종은 깡패로 돌변해서 날고기를 강제로 빼앗겠다고 위협하곤 했다(삼상 2:16). 홉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얼마나 깡그리 멸시했던가! 그들의 제사에 대한 범죄는 그렇게도 큰 것이었다.

그러나 실로에서는 더 많은 것이 썩어 있었다. 도덕적 범죄가 있었다(삼상 2:22).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홉니와 비느하스는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출 38:8 참고)과 동침하였다.

그들은 악당이였다(삼상 2:12; 히브리어 [브네 블리야알] "men of Belial").<sup>4</sup> 삼상 2:12b 은

---

<sup>3</sup> 나는 삼상 2:13-14 이 제사장들의 범죄 중 하나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삼상 2:15a 에 나오는 히브리어 불변화사 [감]은 추가 사항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것이 충분히 지저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심지어 이런 일도 하였다."라고 말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번역본들 중에 NEB 는 13-14 절이 15 절에서 저지른 범죄와 함께 가는 필요한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

[역자 주]

NEB: 13 The custom of the priests in their dealings with the people was this: when a man offered a sacrifice, the priest's servant would come while the flesh was stewing 14 and would thrust a threepronged fork into the cauldron or pan or kettle or pot; and the priest would take whatever the fork brought out. This should have been their practice whenever Israelites came to sacrifice at Shiloh; but now under Eli's sons, 15 **even** before the fat was burnt, the priest's servant came and said to the man who was sacrificing, 'Give me meat to roast for the priest; he will not accept what has been already stewed, only raw meat.'

Cf. ESV: 15 **Moreover**, before the fat was burned, the priest's servant would come and say to the man who was sacrificing, "Give meat for the priest to roast, for he will not accept boiled meat from you but only raw."

새번역: 15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 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sup>4</sup> 역자 주: [브네 블리야알]은 개역개정에서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신 13:13[MT 14]; 사 19:22; 20:13; 삼상 10:27 에는 "불량배"로 번역되고, 왕상 21:10, 13 에는 "불량자"로 번역되고, 대하 13:7 에는 "잡배"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삼상 2:12 은 풀어서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되어 있다.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여기고 책망할 때 한나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악한 여자[바트 블리야알](삼상 1:16)"로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히브리어 [블리야알]은 [블리]("not , 아니다, 없다")와

“그들은 여호와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았다. 혹은 그들은 여호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NJB, RSV).”라고 묘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의 뿌리를 밝히고 있다. 히브리어 본문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그러한 말로 하나님 백성의 영적 지도자를 묘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 뿌리를 감안할 때 누가 그 열매를 내다보지 못하겠는가? 그러한 경우에 공적 예배의 지루함과 사생활에서의 부도덕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단지 비극일 뿐이다.

그러나 실로의 이러한 예배적이고 도덕적인 수령의 한가운데서도 신중한 독자는 희망의 기미를 감지할 수 있다. 홉니와 비느하스의 행위와 조용한 대조를 이루는 어린 사무엘에 대한 짙은 설명들이 본문 전체에 흩어져 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공급에 대한 침묵의 증언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사무엘의 섬김, 2:11

예배적인 죄들, 2:12-17

사무엘의 섬김, 2:18-21

도덕적인 죄들, 2:22-25

사무엘의 성장, 2:26

심판의 예언, 2:27-36

사무엘의 섬김, 3:1a

사무엘에 대한 이러한 짧은 설명들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롭고 경건한 지도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구호도, 캠페인도, 연설도 없다. 모두 매우 조용하다. 성장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새로운 지도자를 키우고 계셨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모든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었다. 교만하고 냉소적이고 비도덕적인 제사장들, 경건함을 가르치는 것보다 최상의 제물 고기를 즐기는 제사장들, 여호와의 양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보다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던 제사장들 아래서 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선될 여지나 밤이 떠나갈 기미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모든 본문은 계속 "사무엘을 잊지 마라.

---

[야알]("worth, 가치")이 결합된 것으로 가치 없고 아무 쓸모 없고 불량한 것("worthless, good-for-nothing, base fellows")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무엘이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것이 여호와와 그의 방식이다. 여호와와 가장 어두운 순간들의 한가운데에서도 조용히 다음 순간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 해 전에 리더십(Leadership)이란 저널에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한 독일 도시에 대한 B-17 폭격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나치 대공포가 폭격기의 가스 탱크를 쳤다. 폭발이 없었다. 공습 다음 날 아침에 조종사는 팀장에게 가스 탱크에 부딪힌 포탄을 달라고 청했다. 그는 그것을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팀장은 가스 탱크에 11 개의 폭발되지 않은 포탄이 있다고 말했다! 포탄은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병기공에게 보내졌다. 그런 다음 정보 요원들이 그것들을 집어 들었다. 병기공들은 포탄에 폭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비어 있었다. 그것은 체코어로 쓰여진 말아 올린 쪽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 요원들은 기지에서 체코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번역은 이렇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다."

나치의 전쟁을 위해 군수품 공장에서 일하도록 동원된 체코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 공장을 폭파시키거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이 생산한 일부 포탄에 폭발물을 넣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매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한결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자주 이와 같다. 그분의 역사하심이 모두 시끄럽거나 극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고요한 방식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결론짓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 모른다. 이것은 자주 구속사에서 여호와와의 방식이다. 우리는 그것을 식별해야 한다.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 실로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한, 우리는 홉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아주 낙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 II. 하나님의 은총의 분명한 증거 (삼상 2:19-21 The Clear Evidence of God's Kindness)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어린 사무엘에 대한 설명(삼상 2:18)에 이어서 한나가 성장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 매년 작은 겹옷을 지어다가 주는 것(삼상 2:19), 여호와께서 다른 "후사"를 사무엘의 부모에게 주시도록 엘리가 축복하는 것(삼상 2:20), 여호와께서 한나와 엘가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신 것(삼상 2:21)이 연달아 나온다.

우리는 삼상 2:19-21 과 삼상 2:22-26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유쾌한 장면인 반면, 다른 하나는 불길한 장면이다.

삼상 2:19-21

어머니의 사랑, 19

엘리의 축복, 20

여호와와 공급(생명), 21a

사무엘의 성장, 21b

삼상 2:22-26

아버지의 슬픔, 22

엘리의 책망, 23-25a

여호와와 목적(죽음), 25b

사무엘의 성장, 26

두 장면 사이에는 분명한 병행법이 있지만 병행되는 상황들은 그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여기(삼상 2:19-21)에서 여호와와 생명을 주고 계셨고, 거기(삼상 2:22-25)에서 여호와와는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

삼상 2:19-21의 주안점은 한나에게 다섯 자녀를 추가로 주신 여호와와의 너그러운 은총이다. 엘리는 이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한나는 사무엘을 구했지만,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구했다.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께 그를 바쳤다. 그를 바친 한나는 "은혜 위에 은혜(요 16:16)"를 받았다. 그것은 전형적이거나,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빈티지 여호와"이다. 어떤 희생도 여호와와의 종들 중 하나를 궁핍하게 하는 것 같지 않다(막 10:28-30). 우리는 결혼 관계에서 한 유추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아내와 혼인 서약을 맺었을 때, 나는 대가를 치렀다. 그 헌신으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렀다. 나는 어떤 특권과 자유를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 그것들 중에는 상냥한 동반자 관계, 헌신적인 애정, 매일의 도움, 영적인 (그리고 활기찬) 토의, 항우울제의 화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와 그녀의 남편은 이제 우리 이야기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 집에 가득 찬 떠들썩한 자녀들(참조, 시 127:3-5)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약 1:5 헬라어[투 디돈토스 세우])"의 증인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 III.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위험 (2:22-25 The Fearful Peril of God's Judgment)

소년 사무엘은 자라고 있었지만(삼상 2:21b) 엘리는 매우 늙었다(삼상 2:22a). 엘리는 아들들의 명백한 부도덕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다(삼상 2:22b).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여호와와 모든 백성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삼상 2:24). 홉니와 비느하스는 성막을 사창가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성막은 죄가 고백되는 곳이 아니라 죄가 저질러지는 곳이 되어버렸다. 엘리는 그들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여호와와에 대한 무모한 거역은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상 2:25a).<sup>5</sup> “그러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삼상 2:25b).”

우리는 삼상 2:25의 하반절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마치 홉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읽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읽은 것이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홉니와 비느하스의 저항은 여호와와의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그분의 심판의 **결과**였다. 완벽하게 정의로운 심판이었다. 우리는 홉니와 비느하스의 뻔뻔함과 부도덕에 대한 이전 이야기와 삼상 2:25을 관련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상 2:25의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지속적인 반역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고, 따라서 그들이 엘리의 탄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반역을 아주 확고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반역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므로 그가 심판의 경고나 회개의 간청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블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홉니와 비느하스는 빛에 대해 고의로 죄를 짓고, 정욕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 어떤 것도 그것들과 맞서 싸우도록 유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을 경험했다. 그들은 너무 굳어져서 회개가 불가능해졌고, 그들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완전한 보응을 받아야 했다.<sup>6</sup>

---

<sup>5</sup> 삼상 2:25a에 나오는 엘리의 진술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명된 인간 판사들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당사자가 하나님과 인간인 경우, 끼어들 수 있는 무슨 제 3의 힘이 있겠는가? 이 싸움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당신의 상대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을 벌하실 것이다(R. Payne Smith, *1 Samuel, The Pulpit Commentary* [London: Funk and Wagnalls, n.d.], 41).” 그리고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35도 보라.

<sup>6</sup> 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45. 신약성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다. 롬 1:18-32에서 “이방인”의 상태를 논의할 때,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3회, 롬 1:24, 26, 28),” 하나님은 그들이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고집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가르침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주의하라.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비가 부족하시다고 주장하며 여호와를 기소하는 검사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화의 역학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며 죄가 진행되는 과정의 어떤 정확한 시점에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비난하는 자들이나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나 둘 모두 잘못되었다. 우리의 입장은 의문시하거나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바로 그 부르심에 귀머거리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것이어야 한다.

#### IV. 하나님의 말씀의 자비로운 간섭 (삼상 2:27-36 The Merciful Meddling of God's Word)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삼상 2:27)"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에게 왔다.

엘리는 적어도 아들들의 도덕적 죄를 질책했다(삼상 2:22-25). 우리가 삼상 2:23-25 로부터는 식별할 수 없지만, 십중팔구 엘리는 그들의 제사와 관련된 죄도 질책했을 것이다(삼상 2:13-17). 어쨌든 그는 흠니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직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엘리는 항변할 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들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 교회의 권징은 없었다.

그것의 구조에 따라 분해하면, 우리는 선지자의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그의 메시지를 나누는 데 단서가 되는 것들은 그것의 도입부("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

---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더러운 행실과 타락한 태도가 인간의 사악함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롬 1:24 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원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롬 1:18 절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용하고 있다("나타나고 있다"는 현재 시제로서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갖는 것을 유의하라). 하나님의 진노는 논의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작동하고 있는 힘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작용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는 여러 가지 죄의 속박에 남자와 여자들을 묶이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조용히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 당신이 선택한 "자유" 속에 참담하게 뒹굴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교리는 때때로 사법적 경화(judicial hardening)라고 불리며 기독교 회중들에게 냉철한 경고를 담고 있다(참조, 히 3:13). 존 번연은 그의 **천로역정**에서 철장 안에 갇힌 남자인 배교자(Backslider)라는 인물을 통해 그것을 묘사했다. 배교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독교도(Christian)에게 "나는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마르 아도나이]”, 삼상 2:27), 삼상 2:29 의 “어찌하여, 왜 [라마]”, 그리고 삼상 2:30 의 “그러므로 [라헨]”이다.

은혜의 회고, 삼상 2:27-28

범법에 대한 고소, 삼상 2:29

심판의 선언, 삼상 2:30-36

과거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삼상 2:27-28)는 언제나 현재의 죄(삼상 2:29)를 아주 충격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집(삼상 2:27; 아마도 = 아론)”에게 제단에서 봉사하고, 분향하고, 예뿌을 입고(참조, 출 28 장), 모든 화제를 그들의 몫으로 받아 즐기는(삼상 2:28) 제사장직의 특권을 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특권과 선물에 비추어 볼 때, 엘리는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범죄 때문에 [cf. 개역개정: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삼상 2:29)?”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sup>7</sup> 그것이 중심적인 기소이다. 삼상 2:30 의 “그러므로”는 심판의 상세한 선언을 인도한다. 그 심판은 엘리 가문의 소멸을 위협하고(삼상 2:30, 32, 36 “네 집”),<sup>8</sup>

---

<sup>7</sup> 삼상 2:29 의 첫 번째 동사(קָבַץ [티브아투] < [바아트], 히브리어 어근 [바아트]는 “건어차다 to kick at”는 의미로 “저항 혹은 경멸의 행위”를 나타낸다. 신 32:15 을 보라.)는 “너희가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에서 보는 것처럼 2 인칭 복수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행위를 나타내지만, 뒤에 나오는 동사(קָבַץ [트하베드] < [카바드] “존중하다 to honor”)는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에서 보는 것처럼 2 인칭 단수로 엘리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처소”를 의미하는 מִצֵּיט[마온]을 “범죄 때문에”라는 뜻의 מִצֵּיט[메아본]으로 고쳐 읽은 호스트 씨바스(Horst Seebass)를 따르는 에스링거(Lyle M.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uel 1-12*) [Sheffield: Almond, 1985], 133)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범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물과 예물을 명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sup>8</sup>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약속된 제사장의 특권을 잃었다(삼상 2:30). 삼상 2:31 에 나오는 “내가 네 팔(히브리어 [즈로아]는 여기서 “힘”의 상징)을 끊을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위협은 그의 모든 후손의 대표로서 엘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본문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히 삼상 2:32 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심판은 엘리의 후손들이 때 이른 죽음으로 죽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삼상 2: 31, 32). 이것은 생존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절박한 궁핍에 빠지고(삼상 2:36) 대다수의 “남자”가 젊어서 죽을 것임을 의미한다(삼상 2:33b, 이 구절에 대하여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40 을 보라).

자비가 억제되는 것을 포함하고(삼상 2:33),<sup>9</sup> 예언의 진실성을 시험할 수 있는 확실한 표징, 곧 엘리의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을 것이라는 표징을 명시하고(삼상 2:34),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족을 대신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선지자의 말씀의 중심에 나오는 삼상 2:29의 고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와의 예배를 계속 남용하고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중히 여기고 있었다.<sup>10</sup> 그가 구두로 그들을 책망하였을 것이지만(삼상 2:23-24), 그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를 때 그는 사사로서(삼상 4:18)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것을

---

<sup>9</sup> 스미스(Smith, *I Samuel*, 56)는 삼상 2:33a을 "그러나 내가 내 제단에서 네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끊지는 않고 네 눈을 쇠잔하거나 네 영혼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라고 번역하고, "다시 말하면, 네 형벌이 아무런 위로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후손이 비록 수는 줄어들고 가장 높은 지위는 빼앗겼을지라도, 여전히 내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맥케인(William McKane, *I & II Samuel: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rch Bible Commentaries [London: SCM, 1963], 40)은 "네게 속한 모든 사람" 대신에 "내가 끊지 않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그 "한 사람"이 아비아달(삼상 22:17-20)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역자 주] 삼상 2:33a에 대한 다음의 번역들을 비교해 보라.

NIV: Every one of you that I do not cut off from serving at my altar I will spare only to destroy your sight and sap your strength,

NASB: Yet I will not cut off every man of yours from My altar so that your eyes will fail from weeping and your soul grieve,

HCSB: Any man from your family I do not cut off from My altar will bring grief and sadness to you.

ESV: The only one of you whom I shall not cut off from my altar shall be spared to weep his eyes out to grieve his heart,

개역개정: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우리말성경: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 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네 눈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쉬운성경: 나는 한 사람을 남겨 놓아 내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새번역: 그러나 나는 네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 버리지 않고 살려 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sup>10</sup> 엘리 자신은 자기 아들들의 남용의 결과를 즐겼을지도 모른다(삼상 2:29b에 나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함으로써"라는 말씀에 유의하라. 그리고 삼상 4:18의 "그가 비둔하였다."라는 묘사도 참고하라). 그러므로 엘리는 아들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을 싫어했을지도 모른다.

막을 수 없었을 것이지만(삼상 2:22-25) 그들이 제사장으로서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감미로운 합리화의 죄, 곧 죄를 기꺼이 용인하고, 하나님의 영예가 뒷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고, “나의 하나님”보다 “나의 아들들”을 더 좋아하는 죄를 책망한다. 엘리에게는 피가 충성보다 더 진했다.

모든 사람은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예배와 예배자들에 대해 가졌던 멸시를 알고 있었다(삼상 2:13-17). 그들의 성적 착취는 널리 퍼진 주문이었다(삼상 2:22-25).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와 제사장으로 봉사했다.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있다.” 달콤한 합리화는 정말로 냄새를 풍긴다.

여기에는 심지어 개별 신자에게도 적용되는 진리가 있다. 엘리에 대한 이 예언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누구도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하고 싶고, 다정한 것(niceness, 좋은 게 좋은 것)을 사랑과 동일시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본질적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용기없는 동정심을 발휘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우리가 인간의 감정들을 아껴주려고 할 때,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영예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요점을 지적하고 싶다. 나는 이 부분을 “여호와와 말씀의 자비로운 간섭”이라고 불렀다. 이제 나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실로에 공개적이고 수치스러운 죄악이 있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었으나 통제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구두 권면 외에)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와 제사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다. 여기에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죄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침공이나 다름없는 것이 있다. 만약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한다면,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심판의 일이다. 그것은 가혹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구원하는 말씀, 자비로운 말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다. 참된 교회가 보존되려면 거기서 거짓 종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비로운 간섭인 것이다.

## v. 하나님의 목적의 완강한 승리 (삼상 2:35 The Stubborn Triumph of God's Purpose)

인간의 저항과 불순종은 여호와와 그의 목적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격한 반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엘샤다이)을 무기력한 좌절의 상태로 보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는 특정 지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들과 별도로 혹은 그들에게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때가 되면 심판을 통해 흠니와 비느하스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대신할 충실한 지도자를 제공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삼상 2:35 개역개정)<sup>11</sup>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가 사무엘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분명코 이것은 인접 문맥을 고려하면 그럴듯한 입장이다. 그러나 사무엘상 3 장은 사무엘을 탁월한 선지자로 소개한다. 나는 이 선지자적 역할을 삼상 2:35 의 제사장 기능으로 바꾸어 억지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나는 왕상 2:26-27, 35 에 비추어 사독과 그의 제사장 계보가 “충실한 제사장”에 대한 예언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 솔로몬이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을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왕상 2:27).” 왕상 2:27 은 아비아달의 파면이 엘리 집의 몰락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충실한 제사장”의 정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높임으로써(왕상 2:35), 암시적으로 사독을 그 “충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임명하였다.<sup>12</sup>

논쟁의 와중에 주요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문맥상 삼상 2:35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호와와 그의 나라와 백성은 거만하고 부도덕하며 뉘우치지 않는 제사장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sup>11</sup> 한나의 노래에서처럼(삼상 2:10), 삼상 2:35 은 왕정(“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140 을 보라.

<sup>12</sup> “충실한 제사장”에 대한 해석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C. F. D. Erdmann, *The Books of Samuel*,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77;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82-84 에서 다루어진다. 어드만 자신은 사무엘이라고 주장하지만, 토이(C. H. Toy)는 역자의 주에서 사독과 그의 후손을 지지한다. [역자 주: [https://biblehub.com/commentaries/lange/1\\_samuel/2.htm](https://biblehub.com/commentaries/lange/1_samuel/2.htm) 참고하라.]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분은 그것을 고집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하는 구원의 끈질김 같은 것을 갖고 계신다.

아버지는 맏형과 그의 망가진 장난감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셨다. 월트 형은 아주 어렸을 때 다양하게 파손된 장난감 자동차들과 트럭들을 갖고 있었다. 바퀴 하나가 없거나 바퀴 두 개가 없는 것 같은 종류의 장난감들이었다. 문제는 월트 형이 집의 마루 바닥에서 그것들을 "운전"할 때 그것들은 그 바닥을 파거나 긁거나 다른 방식으로 훼손하곤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마침내 조치를 취하셨다. 아마도 월트 형이 없는 동안 아버지는 그 모든 고물 장난감들을 격자와 현관 아래로 던져 버리셨던 것 같다. 나중에—아마도 며칠쯤 지나서—아버지는 어린 월트형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는 현관 아래에 있었다. 그는 그의 장난감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어쨌든 그는 격자 아래로 기어들어 갔지만 다시 기어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아버지는 당연히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셨지만, 월트형은 빠져나오기 전에 부품이 없거나 부서지거나 파손된 장난감 차량을 하나 하나 빠짐없이 아버지께 건네주었다.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 장난감들은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나는 여기서 어떤 긴밀한 유추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집이 때로는 긍정적이고, 신선하며, 상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삼상 2:35 에 나오는 여호와의 고집이 매우 아름다운 이유이다. 이스라엘은 타락한 제사장들 밑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여호와는 단호하시다. 그분은 자기 양 떼를 위해 적절한 지도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는 단호한 주장을 하신 것처럼(마 16:18) 그분의 집을 지으실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한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안전을 찾는다. 그들은 그들의 신뢰를 그분의 끈질기심에 둔다.

## V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당신은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것을 배웠는가 아니면 당신은 항상 하나님께서 극적 혹은 소란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가?
2. “어떤 사람은 그의 반역에 너무 확고하게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그 안에 내버려두실 것이다.” 당신은 회개의 시급성에 대한 충분한 설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3. 피가 총성보다 진할 수 있다는 것은 냉철한 생각이다. 마 10:37 에 비추어 이것을 생각해보라.
4. 우리는 다정한 것, 곧 좋은 게 좋은 것을 사랑으로 혼동할 수 있는가? 성경적 사랑은 단순히 다정한 것에는 없는 어떤 특성들을 갖는가?
5.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완강함을 보여주셨고(삼상 2 장),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대하실 때 완강함을 보여주셨다(마 16:18). 당신은 빌 1:6 또한 이것을 제안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헌신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와 같은 개별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가?

### 3. 선지자의 유익 (삼상 3:1-4:1 a Prophets Profit)

제네바 교회를 위한 교회 조례(1541)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매주 일요일에는 생 피에르와 생 제르바이에서 동틀 무렵에 그리고 정규 시간인 오전 9 시에 설교가 있을 것이다. ... 정오에 세 교회 모두에서 교리 문답, 즉 어린 아이들의 교리 교육이 있을 것이다. ... 오후 3 시에 두 번째 설교 ... 이 이에도 ... 주중에는 생피에르에서 세 차례 곧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설교가 있을 것이다.<sup>1</sup>

“어둠 후에, 빛”은 개혁 제네바의 모토였다. 설교 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사이에 자유롭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빛이 온다는 칼빈과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섯 번의 설교가 있었다.

구약도 동일한 가정을 지니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상적인 수단은 예언이었고, 통상적인 도구는 선지자였다. 이런 통상적인 패턴이 일상화되는 것은 사무엘의 부름에서 비롯되었다.<sup>2</sup> 사무엘상 3 장의 주장은 여호와의 백성은 선지자 없이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는 예언을 통해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음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 1. 선지자의 임재를 통한 은혜 (삼상 3:1, 19-4:1a The Grace in the Prophet's Presence)

“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삼상 3:1b).” “이상, 환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sup>3</sup>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는 드문 예(삼상 2:27-36)를 제외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

<sup>1</sup> Thea B. Van Halsema, *This Was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59), 143. 이 규례의 전문을 위해 J. K. S. Reid, 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vol. 22 of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Westminster, 1954), 56-72 을 보라.

<sup>2</sup> 델리치(Franz Delitzsch, *An Old Testament History of Redemption* [1881;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0], 82-83)는 사무엘의 사역을 “새로운 시대의 설립”으로 지칭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고, 모세가 율법의 중보자인 것처럼, 사무엘은 왕정과 선지자직의 아버지이다.”

<sup>3</sup> 예를 들어 호 12:10, 미 3:6, 할 2:1-3 을 보라, 그리고 민 12:6-8 도 보라. 잠 29:18(KJV: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은 오해로 인해 자주 인용될 수 있다. 그것은 창의적이고 지력이 풍부한 기획자가 조직체나 대의명분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방치될 때 그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RSV 의 번역 “Where there is no prophecy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제지에서 벗어난다.”와 비교해 보라.

전달하지 않으셨다. 실용적인 미국인은 이것에 대해 의아해할 것이다. 그의 반응은 "문제될 것 없다. 신학교와 성경 대학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거나, 선지자 직업 학교를 열면 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면, 그것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희귀했다는 뜻이다.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그 말씀을 강요하거나, 제조하거나, 조작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 신학교나 종교학과를 통해 더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은 이 사실을 바꾸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실로 시대에는 그것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왜 희귀했는지 계속 물어보아야 한다. 그분은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가? 그분은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어쩌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제사장들의 지도력으로 인한, 또는 삼상 7:3-4 이 암시하는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었다. 그 심판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의 빛을 철회하시고, 이스라엘로 자신들이 분명히 선호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하신 것이다.<sup>4</sup>

이 주장을 지지하는 다른 구절들도 있다. 여호와께서는 아모스(주전 760 년경)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땅에 기근을 보내실 것이라고 위협하셨다.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갈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암 8:11-12). 시편 74 편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진노 아래 약해졌다. 그것은 특히 적에 의한 성전 파괴(시 74:3-8)에서 드러났지만 "선지자가 더 이상 없는(시 74:9)"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여호와의 성소가 연기에 휩싸여 있는 것은 충분히 비극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두움 속에서 걷도록 하시는 때도 충분히 비극적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어두움은 참을 수 없다. 시편 74 편에서 선지자의 권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비참함의 일부이다. 사무엘상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신호임을 입증할 것이다(삼상 28:6, 15).

그러나 사무엘상 3 장의 좋은 소식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침묵을 깨고 계신다는 것이다.

---

<sup>4</sup> 굿브로트(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33)는 이렇게까지 멀리 가는 것을 망설인다. 그는 본문(사무엘상 3 장)이 하나님의 상대적인 침묵은 그분의 심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침묵이 자기 백성의 삶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단축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인정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삼상 3:19-4:1a 개역개정)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여호와의 침묵은 깨질 것이다. 이제 그분의 말씀은 더 이상 드물거나 간헐적이지 않을 것이다(참조, 사 6:7-10; 삼상 2:27-36). 여호와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공인된 현직 선지자가 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자유롭게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란 점에 주목한다. 그것이 사무엘상 3 장의 가르침이다. 현대 신자들이 사회 활동, 위원회 모임, 멋진 프로그램 등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성경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하는 강단 사역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이다.<sup>5</sup>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당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기록된 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걸 잘못된 생각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는가?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받는 쪽의 문제 때문에 희귀해질 수 있다(사 6:9-10). 몇 년 전만 해도 내 머릿속의 물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 내 귀가 맑아지지 않는 것 같았다. 내 외이도(혹은 다른 어느 부위)의 액체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고, 주위를 조금 휘감고, 청력을 떨어뜨리고, 선천적인 과민성을 자극했다. 친절하 의사 선생님이 나를 어떤 펌프나 장비에 연결시켜 주었다. 여러분은 청력이 급격히 감소할 때까지 수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머릿속에 모일 수 있는 오물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희귀하게 되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다(막 4:9). 사실을 말하면, 듣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막 4:10-12)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청각 장애로

---

<sup>5</sup> J. A. Motyer, *The Day of the Lion: The Message of Amo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4), 187 을 보라.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희귀해질 수 있다. 굶주림은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욕 부진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되고, 전파되고, 환영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징표다.

## II. 선지자의 하나님의 친절하심 (삼상 3:2-10 The Kindness of the Prophet's God)

여호와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삼상 3:2-10의 으뜸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그 음을 치는 데 한두 순간이면 족하다. 그것은 “그 때에 ...(삼상 3:2a)”라는 시간 설명으로 시작한 다음에 엘리가 있던 곳과 그의 시력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고(삼상 3:2b), 성막의 등불이 아직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하고(삼상 3:3a), 사무엘의 잠자리를 알려 주고(삼상 3:3b),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주된 동작을 강조하는 주동사(“[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를 우리에게 준다(삼상 3:4a). “부르다”라는 이 동사(히브리어로 [카라])는 삼상 3:4-10에서 11번 나온다. 따라서 이 단락의 주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을 처음 읽는 사람은 여호와의 부르심이 성공할 것인지 궁금해할 것 같다.<sup>6</sup> 분명히 여호와의 부르심은 매우 똑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어린 사무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겠지만 실상을 파악하는 데 왜 그렇게 느린 반응을 보였는가? 그는 왜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삼상 3:7은 사무엘이 단서를 놓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진술은 그저 설명한다. 그것은 비난하지 않는다. 그 함의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랐다”고 하는 삼상 2:12의 함의와 완전히 다르다. 요점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사전 실습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부르심이 그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사무엘은 가보지 않은 땅에 있었다. 그러나 엘리가 상황을 깨달았을 때(삼상 3:8b)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렇지만 삼상 3:2-10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현대 신자들이 사무엘과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선지자였던 것처럼 선지자가 결코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삼상 3:10)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삼상 3:2-10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한 것은 아니다.

---

<sup>6</sup> Lyle M.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uel 1-12* (Sheffield: Almond, 1985), 150.

그렇다면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자. 삼상 3:2-10 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대신 삼상 3:2-10 이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보통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이 부분의 제목에서 내 자신의 대답을 제시했다. 그 제목처럼 삼상 3:2-10 은 선지자의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보여준다. 사무엘의 경험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말고 여호와와의 성품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호와와의 친절하심과 온화하심을 본다. 여기에 사무엘을 위한 새로운 단계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서두르지 않으신다. 사무엘이 알아들을 시간이 있다. 하나님은 격앙된 한숨을 내쉬지도 않으시고, 사무엘이 너무 머리가 나쁘다고 꾸짖으려 하지도 않으시고, 사무엘이 어떻게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않으신다.

어떤 문제들은 시간과 인내심을 요구한다. 나는 5 학년 때 내가 동사를 식별하는 데 그런 끔찍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동사의 정의를 알고 있었지만, 한 문의 단어들에 그 정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내가 한 문에 나오는 동사 밑에 두 줄을 그으라는 지시를 받을 때마다, 그것은 마치 당나귀 꼬리 달기 게임의 문법적인 버전을 하는 것과 같았다. (오직 나만, 불행하게도, 당나귀였다.) 그런 다음 기적이 일어났다. 동사가 잘 이해되었다.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것은 갑자기 그리고 뚜렷한 설명을 할 수 없이 일어났다. 다음 해에 나는 동사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동사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것이 없어졌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느닷없이 나는 동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했다.

여기서 사무엘과 함께 우리는 여호와와의 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에게 그분을 이해할 시간을 주신다. 그분은 스톱워치를 들고 계시면서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면 그와 끝장을 낼 것이라고 위협하지 않으셨다. 아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조건에 맞게 그분의 교육을 조정하신다. 성육신하신 여호와(= 성자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요 16:12)."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릴 것이다. 존 칼빈은 그의 찬송가 "나는 나의 확실한 구원자이신 주를 경배합니다"의 두 행에서 주님의 성품의 이 요소를 잘 포착했다.

주는 참되고 완전한 온유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는 냉혹하심도 없고 신랄하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주님, 곧 우리의 주님을 묘사한다. 그들의 하나님을 거칠고 유능하고 조급한 상사의 이미지를 갖는 새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 III. 선지자의 임무의 긴장 (삼상 3:11-18 The Tension in the Prophet's Task)

여호와와 어린 사무엘에게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삼상 3:11)" 말씀을 주시며, 엘리에게 집안 대항 위협적인 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실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셨다(삼상 3:12). 엘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그가 그의 아들들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였기 때문이다(삼상 3:13).<sup>7</sup> 그래서 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삼상 3:14). 심판의 메시지, 그것도 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그것에 대한 책임이 맡겨진 어린 소년을 상상해보라!

사무엘이 이 말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서 두려워했다(삼상 3:15b).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엘리와 사무엘 사이에 깊은 애정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삼상 3:6, 16a 에서 엘리가 사무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라).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에게 상당한 수고를 덜어주었다. 엘리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란 저주 아래 사무엘을 놓이게 했다(삼상 3:17). 그 위협 아래 사무엘은 아무 것도 숨기지 않고 말했다(삼상 3:18a).

그러나 사무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담, 압박, 갈등, 고통을 강조한다. 사무엘이 선지자의 임무를 맡도록 부름을 받자마자, 그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그는 진정한 선지자만이 아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참된 선지자는 여호와와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말할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삼상 3:15). 그는 진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심판을

---

<sup>7</sup> 삼상 3:13 의 경우 히브리어 본문이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나는 칠십인역의 독법(ὅτι κακολογοῦντες Θεὸν οἱ υἱοὶ αὐτοῦ = because his sons spoke evil against God)을 따랐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43-44 과 C. McCarthy, "Emendations of the Scribes," *IDB/S*, 263-64 을 보라.

[역자 주] 삼상 3:13 의 맛소라 본문은 서기관들의 정정(tiqqune sopherim)이 이루어진 18 곳(긴스버그: 창 18:22; 민 11:15; 12:12; 삼상 3:13; 삼하 16:12; 20:1; 렘 2:11; 겔 8:17; 호 4:7; 합 1:12; 슥 2:12; 말 1:13; 시 106:20; 욥 7:20; 32:3; 애 3:20) 중 하나이다. 서기관들의 정정이란 서기관들이 원래의 어구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본문을 고친 것을 말한다. 삼상 3:13 은 "하나님[엘로힘]을 모독/저주하는 것, blaspheming/cursing God"을 "그들 자신[라헬]을 경멸스럽게 하는 것, making themselves contemptible"으로 고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브로츠만 저, 이창배 역, **구약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113-115 를 참고하라.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동정심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움찔하며 그것을 말하기가 민망스러울 것이다.

앤드류 보나르는 포도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는 소년의 놀라운 그림을 그린 한 그리스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포도는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칭찬하도록 그 그림이 포럼에 올려졌을 때 새들은 포도가 진짜인 줄 알고 포도를 쪼아 뺐다. 그 화가의 친구들이 그를 거듭거듭 칭찬했지만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보다 더 잘 그렸어야만 했어. 새들이 감히 가까이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년을 실물에 아주 충실하게 그렸어야만 했어!"라고 말했다.<sup>8</sup> 다시 말하면, 그는 그것에 끌어들이는 매력뿐만 아니라 쫓아버리는 반발성을 동시에 표현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이런 긴장이 있으며, 그 말씀의 진정한 전달자는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산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비판 아래 두지 않고, 결코 여러분의 죄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위로만 잔뜩 준다면, 여러분은 그가 가짜인지 의심해야만 한다. 그의 설교에 심판의 설명만 들어 있고 위로와 격려가 거의 없다면, 여러분은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그것이 심판에 관한 것일지라도)와 교회의 문제들을 둘 다 깊이 고려한다면, 그는 성경 말씀에 적절한 긴장을 유지할 것이며, 편안한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를 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 IV.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책임 (3:19-4:1a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phet's Word)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실로 혼란과 격변의 시대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책임도 말했다. 사무엘이 "여호와와 선지자로 확증되었다(삼상 3:20)."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즉시 신 18:15-19 에 약속된 선지자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 18:15, 18)가 될 것이고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친히 벌을 줄 것이다(신 18:19)."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사무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sup>9</sup> 그러나 신 18:20-22 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선지자의 계보나 계승 또한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사무엘이 그 선지자 계승의 아버지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선지자는 더 이상 가끔 찾아오는 방문자(삿 6:7-10; 삼상 2:27-36)가 아니라 세움 받은 확고한 존재이다. 우리는 사무엘의 경우를 두고 현존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할 수

<sup>8</sup> Marjory Bonar, ed., Andrew A. Bonar: *Diary and Life*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0), 466.

<sup>9</sup> 나는 구약 시대 전체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신 34:10-12 이 이 문제를 정의하는 바대로는 없었다.

있을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반복해서 나타나시며 “여호와와 말씀으로”(삼상 3:21)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여호와와 말씀인 동시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될 것이다(삼상 4:1a). 이것은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무시무시한 책임이고, 반가운 혜택인 동시에 두려운 책임이다. 이스라엘이 듣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신 18:19 참조)?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신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히 1:1-4; 2:1-4)? 아마도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올바른 출발점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을 나는 굶어 살필 것이다. 곧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을 나는 굶어 살필 것이다(사 66:2).”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때를 숙고하는 것은 우리로 그분의 말씀을 더욱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해 준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가?
2. 기아가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욕 부진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은 냉철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식욕은 여전히 왕성한가? 여러분은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집에서 읽고 교회에서 듣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3.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보통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떤 성경 구절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기 전에, 내가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가?
4. 하나님의 속성들 중 일부는 계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참으심은 분명히 이것들 중 하나이다. 여러분은 다른 속성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실하심은 어떠한가?
5. 참된 설교가 편안한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를 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 4. 호부(護符) 신학 (삼상 4:1b-22 Rabbit-Foot Theology)

저자는 사무엘상 3 장 다음에 페이지를 가로지르는 굵은 선을 긋는다. 실제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삼상 4:1a 은<sup>1</sup> 사무엘상 3 장을 마감하는 말이다. 여기서 첫 부분이 끝난다. 우리는 7 장까지 사무엘에 대해 더 이상 듣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상 1 장에서 3 장까지 사무엘은 점점 더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삼상 4:1a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며 그에 대한 문학적인 빛이 꺼진다. 저자는 새로운 지도부(삼상 7 장)로 돌아가기 전에 옛 체제의 제거(삼상 4 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지도아래 회개하기 전에 "언약궤학"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주실 것이다(삼상 5-6 장). 사무엘은 갑자기 가려지고, 세 장에 걸쳐 언약궤가 각광을 받게 된다.

사무엘상 4 장은 두 주요 부분, 곧 1-11 절과 12-22 절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전투를 보고하고 두 사람(=훅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끝난다. (사실, 전투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지만, 저자에게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중요한 죽음이다.) 두 번째 부분은 전투 소식과 관련이 있고, 마찬가지로 두 사람(=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보고로

---

<sup>1</sup> 칠십인역은 삼상 4:1b 의 서두에 "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모여 있었다."라는 절을 갖고 있다. 이 절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다(NEB 를 보라). 그러나 칠십인역은 또한 삼상 3:21 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나는 그것이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삼상 4:1 의 본문상의 어려움은 사무엘이 내러티브에서 갑자기 빠지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역자 주]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는 개역개정과 칠십인역과 NEB 의 삼상 3:21-4:1 은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삼상 3: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삼상 4: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칠십인역(Brenton): (삼상 3:21) And the Lord manifested himself again in Selom, for the Lord revealed himself to Samuel; and Samuel was accredited to all Israel as a prophet to the Lord from one end of the land to the other: **and Heli [was] very old, and his sons kept advancing [in wickedness], and their way [was] evil before the Lord.** (삼상 4:1) And it came to pass in those days that **the Philistines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gainst Israel to war;** and Israel went out to meet them and encamped at Abenezar, and the Philistines encamped in Aphec.

NEB: (삼상 3:21) So the LORD continued to appear in Shiloh, because he had revealed himself there to Samuel [*prob. rdg, Heb adds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삼상 4:1) So samuel's word had authority throughout Israel. **And the time came when the Philistines mustered for battle against Israel,** and the Israelites went out to meet them. The Israelites encamped at Ebenezer and the Philistines at Aphek.

마무리된다. 사무엘상 4 장의 초점은 (12 번 언급되는) 언약궤이다. 우리는 언약궤의 관점에서 사무엘상 4 장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언약궤의 도착, 1-11
  - 전투, 1b-2
    - 언약궤를 “가져옴”, 3-4
      - 언약궤의 도착에 대한 반응:
        -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5
        -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 6-9
  - 전투, 10
    - 언약궤를 빼앗김, 11
- 언약궤의 소식, 12-22
  - 이중 보고:
    - 성읍 사람들에게, 12-13
    - 엘리에게, 14-17
  - 이중 반응/결과:
    - 엘리의 치명적인 추락 18
    - 며느리의 치명적인 출산, 19-22

사무엘상 4 장의 가르침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지리적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아벡은 블레셋 도시들의 북쪽 해안 고속도로에 있었고, 실로의 서쪽으로 (까마귀가 날아갈 때) 약 22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는 에벤에셀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삼상 4:1; 참조, 삼상 7:12). 아마도 전투는 아벡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을 것이다.<sup>2</sup>

## I. 여호와와 백성의 오류 (The Fallacy of Yahweh’s People)

지금까지는, 너무 안 좋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첫 번째 교전에서 “침을 당했다.”

---

<sup>2</sup> 삼상 4:2, 10 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총 3 만 4 천명의 군사를 잃었다. 구약에 나오는 “큰 숫자”의 문제는 우리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관심있는 독자들은 다음 문헌들에서 이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할 수 있다. Ronald B. Allen, “Number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0), 2:680–91; William Sanford LaSor,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illiam Bush, *Old Testament Survey: The Message, Form, and Background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2), 166–70; John W. Wenham, “Large Numbers in the Old Testament,” *Tyndale Bulletin* 18 (1967): 19–53, as well as Wenham’s condensation[그리고 웬함의 요약], “The Large Numbers of the Old Testament,” in David and Pat Alexander, eds., *Eerdmans’ Handbook to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73), 191-92.

여호와께서 능동적이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와는 “잘못된” 방식으로 계셨다.<sup>3</sup> 그분은 이스라엘을 “치셨다(삼상 4:3a).” 장로들은 옳은 질문을 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삼상 4:3)?” 그들은 너무 성급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그 질문이 좀 더 오래 머물며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허용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아마도 레 26:17과 신 28:25의 위협이 떠올랐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삼상 4:3b).” 언약궤는 거룩하고 금으로 입힌 이동식 상자라, 길이 3 ¾ 피트, 너비 2¼ 피트, 높이 2¼ 피트였다. 고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지 않는 한, 언약궤는 두꺼운 휘장 뒤에 지성소(출 25:10-22; 37:1-9)라 불리는 곳인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 처소에 안치되어 있었다. 첫째, 언약궤는 여호와와의 통치권을 암시했다. 그것은 “그룹 사이에 계신[NJPS: “enthroned,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와의 언약궤”로 불린다. 그룹들은 언약궤의 뚜껑에 부착된, 날개 달린 초인간적인 피조물의 표상이었다. 둘째, 언약궤는 계시를 암시하였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들을 담고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시를 주기 위해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셋째, 언약궤는 화목을 암시했다. 전통적으로 “시은소[역자 주: 속죄소]”라고 불리는 언약궤의 뚜껑에는 매년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 레위기 16장을 보라.<sup>4</sup> 그러므로 언약궤는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었다.

언약궤는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표징, 특히 전투에서 적들을 상대로 싸우시며 백성을 이끄시는 표징이기도 했다(민 10:35). 장로들이 아벡 근처에서 그 어두운 날 이스라엘의 패배를 곰곰이 생각할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어쩌면 그들은 언약궤가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수 3-4장) 여리고를 파멸시키는(수 6장) 데 얼마나 중심적이었는지를 기억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여호와와의 옛 구원들 중 하나를 경험하기 위해 옛 방식, 즉 옛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결정하였다.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삼상 4:3).”

<sup>3</sup> 삼상 4:3 에 대한 그의 설명 전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Lyle M.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uel 1–12* (Sheffield: Almond, 1985), 166 에 의해 바르게 지적된 요점이다.

<sup>4</sup> 자세한 연구를 위해 Marten H. Woudstra, *The Ark of the Covenant from Conquest to Kingship*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5)을 보라.

사실, 장로들의 말은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 그들의 마지막 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그분(=여호와)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자."<sup>5</sup> 앞에서 나는 그것이 마치 **언약궤**에 대한 언급인 것처럼 "**그것**으로 ... 구원하게 하자."라고 번역했다. 히브리어는 두 가지 번역을 모두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번역을 선택할지라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똑같다. 그들의 가정은 "우리가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언약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호와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고, 당연히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예가 위태롭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것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궤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갖는 것이다. 언약궤는 그들의 비장한 종교적 무기이다.

여덟 살이나 아홉 살이었을 때 나는 아버지께서 형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배운 기억이 난다. 형은 소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저녁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았다. 정해진 저녁이 되자, 아마도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형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데이트가 있음을 암시하며 차를 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나는 간접 관찰자에 불과했고 항상 다른 방에 있었지만, 좋은 귀는 필요 없었다. "데이트를 요청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여기 와서 차를 달라고 하지 마. 나는 그런 고압적인 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먼저 차를 달라고 요청하고, 너의 데이트를 해라!" 이것은 몇 년 후에 나의 많은 수고를 덜어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압적인 술수를 알고 계셨다. 만약 형이 모든 계획을 세운 후 차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 나쁜 쪽은 누구이겠는가? 무슨 아빠가 그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가정에 깔린 생각을 알고 계셨다. "제가 이 모든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아버지 편에서 하실 일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명성은 뺄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가정을 했던 것 같다. 여기에 압박 전술, 즉—여러분이 표현을 양해해 준다면—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방식이 있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다. 그것은 내가 호부/부적(護符/符籍)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기독교인이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고,

<sup>5</sup> [역자 주] ESV 와 NIV 는 동사 אָבַד(브)야보]의 의미상 주어를 각각 언약궤와 여호와로 다르게 보았다.

ESV: Let us b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here from Shiloh, that **it** may come among us and save us from the power of our enemies."

NIV: Let us bring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Shiloh, so that **he** may go with us and sav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거룩함보다 종교적 마술을 선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열렬한 환영(삼상 4:5,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기 진작에 좋으심)과 블레셋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실패했다. 모든 과대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삼상 4:10의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는 짧은 글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다(삼상 4:11). 전투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오직 한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패배를 당하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대로 행하실 수 없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와도 패자였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암시를 주입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과 거짓된 관계를 지속하도록 허용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수치를 당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실망하도록 허용하실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실망이 여러분에게 그분이 참으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일깨워준다면 말이다.

현대 신자들은 자신이 이 호부/부적 신앙으로부터 면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교회의 24시간 작정 기도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진지하게 사귀고 싶고, 어떤 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소망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정해서 그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상황이 더 나아진다"는 것을 관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매일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의 배후에 있는 추진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인가, 아니면 "상황"이 더 나아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인가? 교회가 "주는 훌륭하십니다(worthy)."라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고, "주는 유용하십니다(useful)."라고 읊조리기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궤가 다시 빼앗겼다는 것을 알 것이다.

## II. 여호와의 위협의 성취 (The Fulfillment of Yahweh's Threat)

처음에는 힌트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의 모사들은 승리에 대한 영감받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 언약궤를 가져왔다. 저자는 언약궤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보살핌 가운데 있었다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삼상 4:4). 이 사실은 저자에게 중요하다. 자연스레 엘리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따라 전투에 뛰어들었다. 삼상 4:11에서 전투 결과를 요약할 때, 저자는 홉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마지막 그리고 아마도 절정적인 위치에

놓는다.<sup>6</sup> 모든 독자들은 즉시 여기에 여호와와의 말씀, 곧 그분의 결정(삼상 2:25)과 그분의 위협(삼상 2:34)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여기 삼상 4:1-11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열쇠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계획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흡니와 비느하스를 죽이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셨다.

그 아이러니는 더 깊이 나아간다. 모든 소식통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바로 그 표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의 패배로 여호와께서도 패배하셨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었다. 수치스럽게도 여호와는 패자였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어왔다면, 그 이상한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삼상 2:12-17, 22-25, 29-30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 날에, 사실상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이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에서 (잠깐 동안) 멸시당하실지 모르지만 실로에서는 더 이상 멸시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는 방식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스라엘 패전의 피비린내, 궤를 빼앗긴 비극, 여호와와의 명성에 대한 오점에 휩싸이는 것은 너무 쉬우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하지만 조용하게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사실, 이 말씀을 이루심에 있어서 심판을 내리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길을 잃게 한 거짓 목자들을 제거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엘리의 죽음으로(삼상 4:18) 한 시대 전체가 사라질 것이다. 옛 지도력의 경력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사람, 사무엘을 위해 지워질 것이다.

### III. 여호와와의 떠나심의 비극 (The Tragedy of Yahweh's Departure)

그는 측은한 모습이였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삼상 4:18) 노인이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삼상 4:13). 그는 응시하지만 보지 못한다. 멍한 눈으로 뻥히 바라보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삼상 4:15). 그가 몹시 중요하고 있는 것을 보는 데 점술이 필요하지 않다. 아마도 그는 눈에 뿔 정도로 떨고 있을 것이다. 확실히 그의 마음은 떨고 있었다(삼상 4:13). 그는 재난이 닥쳐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아직 그 재난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울 수 없었다. 그는 발이 빠르게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전령의 찢어진 옷이나 더러운 머리를 볼 수 없었다(삼상 4:12). 누군가가 그에게 소식을 전할 때까지 그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

<sup>6</sup>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174 을 보라.

그리고 전령이 그에게 말을 걸기까지는 그건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삼상 4:12-16). 그러나 그는 성읍 소동을 듣고(삼상 4:14)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대답이 왔다. "이스라엘은 도망쳤습니다 ... 큰 살륙이 있었습니다 ...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삼상 4:17)." 훌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아니라 언약궤의 빼앗김이 그에게는 치명타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언약궤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었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었다.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삼상 4:18).

이 소식은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너무 벅찼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몸을 구푸려 해산했다(삼상 4:19). 그러나 그녀의 침실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었다. 여자 친구들의 선의의 격려조차도 그 암울함을 끊을 수 없었다(삼상 4:20). 그녀는 출산하다가 죽었다. 그녀의 마지막 행동과 말은 그 어두운 날을 요약한다(삼상 4:21-22). 어쩌면 그녀는 비느하스가 평생 동안 했던 것보다 그녀가 죽어갈 때 더 많은 신학을 가르쳤을지 모른다.<sup>7</sup>

아기의 이름인 이가봇(삼상 4:21)이 "영광은 없다."라는 의미이든,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미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녀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삼상 4:21)." 아니, 더 좋은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망명을 떠났다(삼상 4:22)."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엘리슨은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삼상 4:19-22)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다음과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틀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다. 영광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가 빼앗겼던 것이다.<sup>8</sup>

나는 엘리슨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가봇과 사무엘상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서 떠나셔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가봇"이 우리 교회의 많은 성소에 정당하게 기록될 수

<sup>7</sup> 엘리의 죽음에 대한 보고와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을 통해 저자는 진정한 비극이 엘리나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긴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Antony F. Campbell, *The Ark Narrative (1 Sam 4-6; 2 Sam 6): A Form-Critical and Traditio-Historical Study*, SBL Dissertation Series 16 (Missoula: Scholars, 1975), 83 을 보라.

<sup>8</sup>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51.

있는가?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4장의 예 이외에도 하나님께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다른 성경적 예들을 들 수 있는가?
2.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강요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심판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들을 들 수 있는가?
4. 엘리슨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가 빼앗겼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삼상 4:22 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5. 언약궤학의 발견들 (삼상 5:1-7:1 Arkeological Discoveries)

아스돗. 블레셋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세 도시 중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도시. 그 당시 블레셋의 5 대 도시 중 제일가는 도시. 지중해로부터 3마일 떨어진 내륙 도시.<sup>1</sup>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학을 접하게 된 첫 도시.

### I. 여호와와의 지고[至高]하심 (삼상 5:1-5 The Supremacy of Yahweh)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 다곤 신상 앞에 두었다.<sup>2</sup> 이 사실의 요점을 파악하는데 독자의 통찰력이 예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한 복음에 따르면 (언약궤가 대표하는) 여호와가 패배한 신으로서 승리한 신 다곤 앞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다곤 신은 전리품을 아주 즐기기도 전에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여호와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었다(삼상 5:3).” 이 모습은 다곤이 여호와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저자의 멋진 필치는 계속 이어지는 묘사에 있다. 저자는 가장 사실적으로 쓰며 눈을 깜박이고 (혀끝으로 얼굴을 부풀리듯) 놀림투로 신랄하게 비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취하여(들어 일으켜)<sup>3</sup>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삼상 5:3 하).” 이것은 급소를 찌르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상상해 보라. 다곤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곤을 다시 세워주어야만 했다는 것을! 무슨 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해 세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인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의 유일한 반응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가 실소(失笑)를 금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일으켜 세움을 받은 다곤 신의 상황은 더욱 더 나빠졌다. 다음 날 아침 다곤은 여호와와의 궤 앞에 또 다시 그 얼굴을 땅에 박은 자세로 엎어져 있었고, 그 머리와 두 손은 잘려 문지방에

---

<sup>1</sup>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으로 35 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런 진술이 비행기나 자동차 여행에 익숙한 현대 독자의 위치 파악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건널 시내와 넘을 산들이 많았던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sup>2</sup> 다곤은 아마도 식물 혹은 곡식의 신이었을 것이다. 다곤은 우가릿에서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널리 숭배받았다. H. A. Hoffner, Jr., “Dagon,” *ZPEB*, 2:2 를 보라.

<sup>3</sup> 히브리어 동사 [라카흐](to take, 취하다, 들다, 일으키다)는 사무엘상 4 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여호와와의 궤가 취해진(“빼앗긴”) 것을 표현할 때 6 번 사용되고, 삼상 5:1-2 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한(“빼앗아 가진”) 것을 표현할 때 2 번 사용되었다. 이 동사가 삼상 5:3 에 다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이 다곤을 취했다([라카흐] “일으켰다”)”는 표현에는 좀 더 강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다곤을 “취하여(“일으켜!”) 다시 세워야만 했다.

널려 있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삼상 5:4). 접착제가 없는 보통의 험프티-덤프티의 상황과 흡사했다. 다곤은 자신으로부터 그의 신성이 완전히 빠져나간 버린 것처럼 동강나 있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곧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을 “신의 자리에서 몰아내셨다(out-godded)”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삼상 5:7). 그래서 “패배한” 하나님이 “승리한” 신의 홈구장에서 그를 패배시키고 계셨다. 다곤의 “경배”(삼상 5:1-3), 다곤의 “속수 무책”(삼상 5:3 하), 그리고 다곤의 “파멸”(삼상 5:4-5)로 이루어진 삼상 5:1-5의 시나리오는 얼마나 통렬한 풍자인가!

그러나 여호와와는 그의 백성이 단지 웃는 데 그치지 않고 생각하기를—다시 말하면, 망가진 다곤과 달리 여호와와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시 세워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심을 깨닫기를—의도하고 계셨다. 그분은 혼자서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으셨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격려나 환호가 전혀 필요 없으셨다. 그분은 전적으로 홀로 그분의 궤가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사건은 유머이지만 교훈적인 유머이다. 그것은 여호와와의 자족하심과 지고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진지한 유머이다. 이스라엘이여, 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행운의 부적처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삼상 4 장), 네가 그분을 부축해서 옮겨 드려야 필요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삼상 5 장). 어떤 옮기는 일이 행해져야 한다면 그분이 너를 업거나 안고 옮길 것이다(참조, 사 46:1-4).

이교도의 신앙에서 신들이 인간에 의존하는 것은 공리와 같다. 고대 바벨론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에 홍수 이야기가 들어 있다. 배를 타고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우트나피시팀이 그 재앙이 끝났을 때 제사를 드린다. 그는 신들이 그의 제사의 고기와 술 냄새를 맡고 어떻게 “그 신들이 제사드리는 자 위에 파리들처럼 모여들었는지”를 말한다.<sup>4</sup> 만일 신들과 여신들이 (그들의 숭배자들의 제사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갖지 못하면, 그들은 여느 사람과 같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홍수로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우트나피시팀이 홍수 기간 동안 배에 머물러 있던 때, 신들은 적절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수주일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우트나피시팀의 제사에 대하여 그렇게 탐욕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관습적인 이교도의 신앙이다. 신들이 그들을 부양할 사람에 의존한다는 이교도 신앙의 가정에 유의하라.

삼상 5:1-5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러한 생각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지고하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지고하심이 전적으로 그의 백성과 무관하고 독립적임을

---

<sup>4</sup> Alexander Heidel, *The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s* (Chicago: Phoenix Books, 1963), 87.

가르치고 있다. 그의 숭배자들에 의하여 꺼안기고 보호받고 떠받쳐야만 되는 속수무책의 다곤과 이와 비슷한 종류의 신들과 비교하면, 여호와와는 전적으로 다르시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어리석은 이교도들이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유머스럽고 역사적인 관심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이교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어쨌든 그가 나를 필요로 했다.”라고 조용히 부르는 노래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어라고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의 뜻을 행하시는 데 “손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손”을 갖고 계시고, “발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발”을 갖고 계신다고 말하는 시적 가사들은 어떠한가? 나는 그런 감상적 표현들 속에 일말의 진리가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묻혀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찬송가의 다음 가사는 어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그의 왕국이 오래 지체되고 있다.

형제애의 날을 도래하게 하라.

그리고 잘못의 밤을 끝내라.

이것은 매우 선동적이고 아마도 매우 거만하게 느껴질 것이다.<sup>5</sup> 나는 우리가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그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다곤과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기독교인의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다시 사 46:1-4 을 보라.). 그렇다고 내가 그분이 우리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라.

## II. 여호와의 엄중[嚴重]하심 (삼상 5:6-6:16 The Severity of Yahweh)

여호와는 블레셋 사람들이 “정복하고” 길들일 수 있는 신이 아니셨다. 언약궤가 그들의 손에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떨어진 것이었다. “이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했고 그가 그들을 내리치셨다(삼상 5:6).”<sup>6</sup> 여호와는 아스돗과 그 이웃

---

<sup>5</sup> 나의 비평의 근거를 위해 George Eldon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103 을 보라.

<sup>6</sup> 삼상 5:6, 11 에 사용된 동사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4:21-22 에 나오는 명사 “영광[카보드]”와 어근이 같다. (“무겁다”와 “무게 있다”는 얼핏 생각하는 것만큼 “영광”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무게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거나 영광스러운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은 몇년 전에 한 미국 청소년이 “그것은 무겁다[That’s heavy].”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언급된 사물이나 대상이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의 말이였다.) 비록 “[카보드] 곧 영광”은 이스라엘로부터 떠났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블레셋 사람들을 “[카베딩, 곧] 엄중하게 치고” 있었다.

지역의 사람들을 독종의<sup>7</sup> 재앙으로 치셨고(삼상 5:6 하),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공포에 질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삼상 5:9, 11-12). 우리가 삼상 6:5 에서 “땅을 해롭게 하는 쥐들”에 대하여 듣기 때문에 독종은 쥐가 옮기는 것으로 거드랑이, 서혜부, 목 옆에서 부어오르며 선(腺) 페스트 증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sup>8</sup> (칠십인역은 삼상 5:6 에도 쥐를 언급하고 있는데 NEB 는 이를 따르고 있다.) 선 페스트이던 다른 병이던, 어쨌든 여호와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계셨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과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삼상 5:7).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언약궤는 가드로 옮겨졌다. 거기서도 재앙과 공포가 일어났다(삼상 5:8-9). 가드 사람들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지만 에그론 사람들은 성읍 경계 지점에서<sup>9</sup> 그 궤를 옮기는 자들을 만나 “아니, 안 됩니다. 당신들은 우리 성읍으로 그것을 옮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삼상 5:10). 일어났던 일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이제 그들은 아스돗의 사람들이 다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기 때문에 장례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빴던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그론에 질병과 죽음이 임했다. 이것은 블레셋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엄중했고 매우 매우 엄중했다(삼상 5:11).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문 기간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나긴 일곱 달이었다(삼상 6:1). 여론은 분명해졌고 그것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돌려보내느냐는 것이었다. 당연히 블레셋 방백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사제 집단에 의지해야만 했다.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들에게 속건제물 혹은 보상제물이 돌려보낼 언약궤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제사장들이 준 지시 사항들은 삼상 6:4-9 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sup>7</sup>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단어 [오팔림]은 “산, 언덕”을 뜻하는 [오펠]의 복수형으로 어떤 종류의 부어오르는 것을 나타내므로 많은 경우 “독종(tumors)”으로 번역된다(RSV, JB, NEB). 히브리 서기관들은 쓰여진 [오팔림] 대신에 읽어야 할 단어로 [테호르]의 복수형 [트호림]을 여백에 실어 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백에 있는 독법이 [오팔림]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치질(hemorrhoids)을 뜻한다고 생각한다(NASB, NJPS). 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보다 점잖은 용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요 주석들을 참고하라.

<sup>8</sup>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714-15 을 보라.

<sup>9</sup> 가드의 위치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가드가 텔 에스 싸피와 동일하다면 아스돗의 동쪽/남동쪽으로 약 10 마일 떨어져 있었을 것이고 에그론이 텔 엘 무케나와 동일하다면 가드(텔 에스 싸피)의 북쪽으로 5 마일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A. F. Rainey, “Ekron,” and “Gath,” *ISBE*, rev. ed., 2:47-48, 410-13 을 보라.

블레셋에 다섯 방백이 있기 때문에 금 독종 다섯과 (삼상 6:18 에 설명이 추가되긴 하지만) 금 쥐 다섯을 제물로 삼아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독종과 쥐들의 금 형상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기발한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했는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당신의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어느 것으로 당신의 모델을 삼을 것인가?)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창의성 발휘로 인해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삼중의 공격(삼상 6:5 하반절, 즉 그들의 몸들과 신들과 땅에 대한 공격) 아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삼상 6:6).<sup>10</sup>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저항해서는 안 되었고 다만 그분의 심판이란 조롱 아래서 압도되었다.

거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새 수레 하나가 만들어졌다. 새 수레를 끌 두 암소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만 하는 젖나는 암소들이고 전에 멩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들이었다(삼상 6:7 상). 언약궤는 수레 위에 놓일 것이다. 금 쥐와 금 독종은 상자에 담아 언약궤 곁에 둘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할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삼상 6:8).

복술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친 주체가 정말로 여호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줄 상황을 꾸몄다. 그들은 암소들이 언약궤와 금 독종과 금 쥐를 담은 상자를 실은 수레를 끌고 곧장 그 궤가 본래 있었던 곳의 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암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그분(여호와)의 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삼상 6:9). 그들은 우연히 재앙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재앙을 당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도는 여호와께 그들의 상황들을 가로질러 그분의 서명을 쓰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능한 한 어렵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성읍의 소년들조차도 바른 모성애가 있는 암소들이라면 어느 암소라도 본성적으로 (그것들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낸) 젖 먹어야 할 새끼들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

<sup>10</sup> 여호와의 출애굽을 통한 구원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지식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4:8 을 보라)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출 15:14 에 비추어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것의 어느 것도 한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참조, 행 26:26).

알고 있었다(삼상 6:7 하). 아무도 그 암소들이 보이지 않은 손에 붙잡힌 듯이 그 본성을 거스리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 만일 정상적인 암소라면 하지 않을 것을 그 암소들이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sup>11</sup> “암소들이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삼상 6:12).” 여기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신 암소들을 통한 계시가 있었다. 우리는 그분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일어났던 일을 목격하였다(삼상 6:9, 12, 16). 여호와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분명 그분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암소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토라 전부는 주지 않으셨지만 참으로 어떤 중요한 진리를 주고 계셨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들이 실제로 받은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다. 여호와와 자신을 낮추시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들에게 그분이 친히 그들의 신, 그들의 땅, 그리고 그들의 몸들을 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이제 그 계시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적어도 이 명백하게 실존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거나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아스돗으로 돌아가 다곤을 가지고 수리를 위해 우상을 취급하는 지역 가게로 갈 것인가? 혹시 그들은 다섯 방백들에게 로비를 하며 쥐들을 죽이는 쥐약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자금을 댈지도 모른다. 상류층의 어떤 이들은 그들의 수레들에 “1070 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라는 범퍼 스티커를 붙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그것이 끝나서 기쁘다.”라고 말할 것이다. (블레셋인이든 아니든) 우리 죄인들이 고통에만 반응하고 상황이 보여주는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일은 너무 쉽게 일어난다. 우리의 당면한 두려움들은 경감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머리가 더 현명해지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지도 않는다. 애굽인들이 우둔함을 독점하지는 않았을 것인데도 말이다(삼상 6:6).

그러나 이러한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있다. 왜냐하면 제한되고 한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요 언약 밖에 있는

---

<sup>11</sup> 이 상황은 열왕기상 18 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있었던 신의 대결과 좀 비슷한 데가 있다. 엘리야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는 일을 세 번이나 반복하게 하여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차게 함으로써(33-35 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이 가능한 한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신다면 그분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이 될 것이다(38-39 절).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분명함과 확실함이 더욱 더 크다.

사람들에게조차도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분은 메시아의 피에 의해 멀리 있는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날을 아예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엡 2:13).

### III. 여호와와 신성[神聖]하심 (6:13-7:1 The Sanctity of Yahweh)

여호와와 엄중하심이란 주제가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우리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한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엄중하심을 알게 된다. 여호와와 치심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특히 언약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했을 때) 언약 백성에게도 임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삼상 6:19 에 집중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삼상 6:19 의 히브리어 본문은 전승 과정에서 혼동이 일어났다는 징후들이 있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헤쳐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몇 명을 쳐서 죽이셨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은 오만 칠십(NASB) 곧 문자적으로 “칠십 명의 사람들, 오만 명의 사람들(70 men, 50,000 men)”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 생략되어 있고 벤세메스 마을의 인구가 그렇게 많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처럼 “칠십 명의 사람들”로 읽는 것이 더 좋다.

둘째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칠십 명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셨는가 하는 문제이다.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는 영어 역본들(참고, NIV, TEV, RSV, NASB)은 거의 한결같이 “그들이 여호와와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히브리어 동사와 뒤따르는 전치사가 보이는 문자적 결합은 “보다/응시하다(to look/gaze at)”이지 “들여다 보다(to look into)”가 아니다. 죄의 근원은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그 내부를 본 것에 있지 않고, 언약궤를 살펴보는 것 혹은 응시하는 것—말하자면 조사하는 것—에 있었다.<sup>12</sup> (궤가 도착했을 때 적절히 덮여 있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아니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덮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그 행동은 민 4:1-20 에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주셨던 규례들을 무시하고 행해진 것이었다.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인 고핫 자손들에게조차도 들어가서 거룩한 기구를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적절하게 그것을 덮어야만 했다(민 4:17-20). 기구를 덮은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고핫 자손들의 각자에게

<sup>12</sup> BDB, 907-8, sect. 8a, under *rā āh* 를 보라.

그의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해야 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조처였다. 여호와께서는 고향 자손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6 장으로 돌아오면) 벰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의 신성함을 침범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이전에 공표하셨던 규례에 따라 벌을 받았던 것이다.

셋째는 벰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아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 죽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본문과 매우 다른 독법을 갖고 있다. “여고냐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보았기 때문에(혹은 . . . 보았을 때) 벰세메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았다. . . .”<sup>13</sup> 여기에 느닷없이 “여고냐의 아들들”이 나온다. 이 칠십인역 본문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번역자가 밤에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있다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인가? 아니면 그가 보다 적절한 히브리어 대본을 그 앞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인가?

---

<sup>13</sup> 영어 역본들이 어떻게 삼상 6:19 상을 다루는지를 주목하면 당혹스럽다. 많은 역본들(NIV, TEV, RSV, NASB 등)은 칠십인역의 다른 독법에 대한 언급을 각주나 여백에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역본들(NEB, JB, NJB 등)은 그저 칠십인역 본문을 따르기만 하고 그것이 맛소라 본문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역자 주 <http://www.ellopos.net/elpenor/greek-texts/septuagint/chapter.asp?book=9&page=6>]

(삼상 6:19 LXX) Καὶ οὐκ ἠσμένισαν οἱ υἱοὶ Ἰεχονίου ἐν τοῖς ἀνδράσι Βαιθσαμύς, ὅτι εἶδον κιβωτὸν Κυρίου· καὶ ἐπάταξεν ἐν αὐτοῖς ἑβδομήκοντα ἄνδρας, καὶ πεντήκοντα χιλιάδας ἀνδρῶν, καὶ ἐπένθησεν ὁ λαός, ὅτι ἐπάταξε Κύριος ἐν τῷ λαῷ πληγὴν μεγάλην σφόδρα.

(Brenton 역) *And the sons of Jechonias were not pleased with the men of Baethsamys, because they saw the ark of the Lord; and [the Lord] smote among them seventy men, and fifty thousand men: and the people mourned, because the Lord had inflicted on the people, a very great plague.*

[역자 주 [http://www.catholic.org/bible/book.php?id=9&bible\\_chapter=6](http://www.catholic.org/bible/book.php?id=9&bible_chapter=6)]

(삼상 6:19 JB) Of the people of Beth-Shemesh *the sons of Jeconiah had not rejoiced when they saw the ark of Yahweh, and Yahweh struck down seventy of them. The people mourned because Yahweh had struck them so fiercely.*

[역자 주 [http://biblehub.com/multi/1\\_samuel/6-19.htm](http://biblehub.com/multi/1_samuel/6-19.htm)]

(삼상 6:19) וַיִּךְ בְּאַנְשֵׁי בֵּית־שֵׁמֶשׁ כִּי רָאוּ בְּאֲרוֹן יְהוָה וַיַּךְ בְּעַם שְׁבַעִים אִישׁ מִשְׁמִים אֶלְף אִישׁ וַיִּתְאַבְּלוּ הָעָם כִּי־רָאוּ אֶת־יְהוָה : בָּעַם מִכָּה גְדוֹלָה :

(삼상 6:19 NASB) He struck down some of the men of Beth-shemesh *because they had looked into the ark of the LORD. He struck down of all the people, 50,070 men, and the people mourned because the LORD had struck the people with a great slaughter.*

이 시점에서 칠십인역을 따르는 것을 찬성할 만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로, “여고냐의 아들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독법은 원래의 독법을 반영하는 것 같고 날조된 세부 사항이 아니다. 둘째로, 이 단락이 규칙적으로 새로운 주어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무엘상 6 장 13 절에서 벤세메스 사람들이, 14 절에서 수레가, 15 절에서 레위인들이, 그리고 16 절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주어로 나온다. 칠십인역의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러한 새로운 주어 소개의 패턴과 잘 어울린다. 셋째로, 여고냐의 아들들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13 절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언약궤는 이중의 반응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sup>14</sup>

본문의 독법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본문의 교훈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가?

본문의 관심은 여호와와 거룩하심(6:20), 곧 그분의 신성하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자신을 모독한 자들을 쳐서 죽이셨다. 그러나 어떻게 여호와와 신성하심이 침해당했는가? 우리가 칠십인역을 따르면 그 대답은 무관심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삼상 4:3 과 정반대되는 극단의 반응을 보게 된다. 여고냐의 아들들의 반응은 “여호와와 궤가 돌아왔다고! 그래 그게 어쩐다는 거야!”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사무엘상 4 장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임재의 보증으로서 언약궤의 능력을 과장했다면, 여기서 여고냐의 가족들은 여호와와 임재의 징표로서 언약궤의 중요성을 무시해 버렸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그들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냉담. 70 명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삼상 6:19 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울지 모른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관심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운다. 동일한 이유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내려질지 모르지 않는가? 우리가 뻔뻔스러운 범죄의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즐거워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질지 모르지 않는가? 우리의 가장 큰 범죄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인지 모른다.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의 삼상 6:19 을 따르면 벤세메스 사람들은 민 4:1-20 에 주어진 규례와 경고를 어기며 언약궤를 조사한 것, 즉 신성 모독의 행위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블레셋

---

<sup>14</sup> 나는 전에보다 지금 훨씬 더 기꺼이 삼상 6:19a 의 칠십인역 본문이 원래의 독법이라고 간주한다. 사실, 나는 여기서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보다 칠십인역에 약간 더 우위를 두는 입장을 취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지 않던 이방인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갖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다.)

벤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에 대하여 확실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의 반응은 삼상 6:20 에 기록된 대로 두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반응은 매우 적절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두 번째 반응은 빛나간 것이다. “(직역)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실까?” 새영어성경(New English Bible)은 그들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다. “아무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분을 떠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로 보낼 수 있을까?” 훨씬 더 나중에 거라사인들도 동일한 해결책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돼지들을 파멸시키신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보여준 유일한 선택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길 간청하는 것이었다(막 5:1-20). 벤세메스에서도 그러했다. 자기 성찰이 없었다. 문제의 핵심을 찾는 일이 없었다. 언약궤가—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는 여호와의 능력이—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언약궤가 없지만, 우리도 벤세메스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 방식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고 한 마디로 말해 다르시다는 사실과 여호와께서 쉽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스스로없이 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새겨 만든 이미지를 부수어 버리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이 관용의 본체임에 틀림없다고 선언한다. 우리 문화에 따르면 그분은 거룩하시기보다는 사귄 성이 있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나의 아버지라기보다는 명색뿐인 높이 계시는 분이다. 우리의 희한한 자동차 번호판들이 “하나님은 나의 동료 운전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한, 우리는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요나단 에드워즈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경건한 두려움”의 부재이다.

우리가 벤세메스 사람들의 태도의 절반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이 위험스럽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올라가시길” 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동시에 우리의 최고의 위험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intimate) 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무간해(無間해 familiar) 질 수 없다는 뜻이다. 친밀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다. 친밀함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삼상 6:19 을 어느 쪽으로 취하든 그것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 야구팀 다저스가 브루클린에 있던 1950 년 대에 다저스의 여러 선수들이 속도 위반으로 한 경찰관에 의해 정지 명령을 받았다. 유격수 피 위 리즈가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공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처리해야만 했다. 그는 그 경찰관에게 사과를 했고, 자신을 다저스의 피 위 리즈라고 밝혔고, 차례로 가리키며 듀크 스나이더, 칼 어스킨, 그리고 루브 워커라고 밝혔다. 그 경찰관은 몹시 기뻐하며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그들을 그냥 가게 했다. 그들이 브루클린 다저스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벌금을 피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곧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의 심판을 내리시고(5:1-6:12)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천벌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6:19-7:1). 그분의 엄중하심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둘 모두에게 임했다. 벤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면제받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 심판 아래 서 있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심판의 공의를 굽히게 하지 않았다. 여기에 장로교인들 그리고 다른 죄인들을 위한 말이 들어 있다.

사무엘상 5-6 장에 나오는 언약궤학에 대한 공부의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은 발견물들은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들을 파괴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지고하심(5:1-5)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속수 무책의 신이 결코 아니신 것을 본다. 우리가 여호와의 엄중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숨어 계시는 신이 아니시고 비록 그의 요점을 주지시키시기 위해 시끄럽게 우는 암소를 사용하셔야만 하셨을지라도 그가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증명하시는 것을 본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성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가 경배드리면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스스럼없이 대할 수 있는 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 언약궤학이 우리의 새긴 이미지들을 타파한다면, 그것은 정말 유용한 학문이다.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급자족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섬기는 데 은혜롭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2.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 때 이집트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분명히 들었고, 그것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심판과 우리가 그분의 길로 갈 때 은혜로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가?
3. 하나님은 젓소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그분이 동물을 통해 말씀하셨던 다른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가? 민수기를 보라.
4. “우리의 가장 큰 범죄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인지 모른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기를 원하기 때문인가? 2 장의 연구를 위한 질문 4 를 보라.
5.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친밀(親密)함과 무간(無間)함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 6. 새로운 자비 (삼상 7:2-17 New Mercies)

아마도 여러분은 사무엘을 그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이야기에 심취한 나머지 그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설교하고 있다(삼상 7:3). 이것은 삼상 4:1a 이후로 사무엘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세 장에 걸쳐 사무엘을 보지 못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은혜의 표시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에 다시 나타난 그의 존재는 이스라엘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자비와 일치한다. 여기서 사무엘은 선지자 겸 중보자로서 그토록 혹독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일깨워 회개하도록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의 사역에서 여호와의 자비를 추적해 보려고 한다.

### 1. 하나님의 자비를 위한 준비 (삼상 7:2-6 The Preparation for God's Mercy)

감정과 느낌이 없다면 삶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울 것이다. 어떤 것에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하거나 아니면 활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것이다. 언약궤가 기랴트여아림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오던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영적인 활력의 징후가 있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삼상 7:2).”<sup>1</sup> 사무엘은 그리워하며 자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설교(삼상 7:3)를 했다. 삼상 7:3은 사무엘의 활동을 요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무엘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설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고(삼상 7:4) 이스라엘이 “공적인 모임을 갖고”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공식적이고 집단적으로 갱신할(삼상 7:5-6)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죄에 대한 눈물과 흐느낌과 슬픔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삼상 7:2). 회개는 자주 그런 슬픔과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의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보다 더 실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인 의식과 의례를 통해 회개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한 의식이 현실을 반영하고 종교적인 걸치레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한 그렇다.<sup>2</sup>

---

<sup>1</sup> 나는 여기 히브리어 동사 [바이나후]가 자주 쓰이지 않은 “통곡하다, 애도하다, to wail, lament”를 뜻하는 어근 [나하]에서 온 것으로 간주한다. BDB, 624 를 보라. 그리고 거기 실린 그것의 동족어 명사(들)을 보라.

<sup>2</sup>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삼상 7: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겪는 현세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의 상징적인 표현”인가(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73 과 Erdmann [in Lange's Commentary]을 보라; 참고, 수 7:5; 시 22:14; 애 2:19)? 아니면 그것은 그 때의 자기 부정, 곧 생활의 이 필수품조차도 자신에게서 없애는 이스라엘의 자기 부정을 반영하는가(Robert P. Gordon; [역자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프랑스 지하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는 독일인들의 방해 없이 프랑스 전역을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었다. 몇몇 충성스러운 프랑스 경찰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독일 순찰대는 항상 그를 죄수로 생각했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회개는 때때로 그렇게 위장할 수 있다. 우리는 눈물이나 괴로움을 회개의 확실한 표시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됨이 없이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다.

사무엘의 설교(삼상 7:3)는 어떤 거품 같은 회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단지 감정에 불과한 반응을 넘어서라고 압력을 가했다.

(삼상 7:3 개역개정)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강조된 어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진정한 회개는 **실감할 수 있는** 회개라고 말한다. 그것은 눈물과 울음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간다.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창 35:2-4의 야곱과 수 24:14-15의 여호수아가 말했던 동일한 요구를 보라.) 참된 회개는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전적인 충성에 대한 여호와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다.<sup>3</sup> 여기 사무엘의 요구는 단지 제 일 계명(출 20:3)의 재천명이었다. 그것은 일 세기의 한 유대인이 대담하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마 10:37-38)."고 말한 것과 동일한 요구이다. (제 일 계명이 요구하는 헌신을 자기 자신에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서 그리고 그 자비하심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요구이다(롬 12:1의 문맥). 교회가 기독교인의 삶이 그토록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듯이, 그것은 교회의 지속적인 필요이다(계 2:4-5).

사무엘은 또한 이스라엘을 **어려운** 회개로 부르고 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

주: Bergen, 107; 참고, 온 3:7; 삼하 23:16; Firth, 107; Tsumura, 234)? 아니면 그것은 공동체의 죄책을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가(Joyce Baldwin)?

<sup>3</sup> 우리는 또한 그러한 회개가 이상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만이 이것 아니면 저것, 혹은 전부 아니면 전혀 아님에 대한 요구를 하신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남신들과 여신들은 그렇게 까다롭고 편협하지 않았다. 한 이교도 신자가 여러 남신과 여신에게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환영을 받았다.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우리가 이 질투심 많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경쟁자들과 포용하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는 뜻이다.)

제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널리 퍼져 있는 다산 숭배의 남녀 신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가나안 종교는 그 예배의 일부인 성적인 의식으로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했다.<sup>4</sup> 쾌락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 곳에 예배 처소와 행음 처소를 두는 편리함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와 성 행위의 조합이 매우 잘 어울린다고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분비선을 산 제물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는 것에 대한 요구와 승인을 하는 가나안 숭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작물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드러야 할 예배”였다.<sup>5</sup> 차라리 굶어서 덩굴 옷나무 피부염을 완화시키려고 해보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피상적이지 않은 회개—오직 초자연적인 회개—만 그런 속박을 깨뜨릴 것이다. 오직 확고한 마음만이 그들을 회개의 길에 계속 있게 할 것이다(“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해 확고하게 하라,” 시 51:10 참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적절한 준비다. 회개가 그런 자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회개에는 공로가 없지만, 그런 회개 없이는 구원의 도움은 없다. 회개는 여호와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조건일 뿐이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에 있다는 것을 안다(을 2:14 과 욘 3:9 의 문맥을 보라).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젖은 눈, 감동된 느낌, 동요된 감정을 넘어서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은 우상을 내던지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매달릴 것이다. 카우퍼가 그의 찬송가 “오, 하나님과 더 가까운 동행을 위해”에서 그러한 회개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다.

오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돌아오십시오.  
 안식의 달콤한 사자여, 돌아오십시오.  
 주를 슬프게 하고  
 주를 나의 가슴에서 몰아낸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중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 나를 쳐서 쓰러뜨리는 것은 바로 다음 연이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우상,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주의 보좌에서 그것을 떼어내 버리고,

<sup>4</sup> 가나안의 다산 숭배에 대한 설명을 위해 나의 *Such a Great Salvation: Expositions of the Book of Judges* (1990, rpt. Christian Focus, 2000), 31-33[= **사사기 주해**, 16-19]을 보라.

<sup>5</sup> 이방 종교의 매력에 대한 블레이크(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88-89)의 설명을 참고하라.

주만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II.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체험 (삼상 7:7-10 The Experience of God's Mercy)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알고 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삼상 7:7). 그들에게 미스바 집회는 회개보다는 반란을 의미했다. 그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sup>6</sup> 이스라엘은 그들의 긴급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삼상 7:8).”

이스라엘의 곤경은 분명 애처롭지만, 그들은 사무엘상 4 장의 위기에서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기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언약궤를 가짐으로써 여호와의 힘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과 자기의 무력함을 보고 필사적인 기도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이의 대조를 간파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무엘상 4 장과 7 장은 서로 나란히 가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장에는 형식적인 병행, 대조를 드러내는 병행이 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라.

사무엘상 4 장	사무엘상 7 장
이스라엘 “침을 당한(히브리어 [나가프])” 블레셋에 의해 2, 3, 10 절	블레셋 “침을 당한(히브리어 [나가프])” 이스라엘에 의해 10 절
책략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라,” 3 절 블레셋이 듣다, 6 절	회개 “그분으로 구원하시게 하라,” 3, 8 절 블레셋이 듣다, 7 절
결과: “이가봇,” 21 절	결과: “에벤에셀,” 12 절

여기 사무엘상 7 장에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마술(삼상 4 장)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여호와의 자비에 매달리고 있다. 그들은 의지할 곳이 전혀 없지만, 사무엘의 설교에서 단서를 얻어(삼상 7:3c) “그분(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삼상 7:8).”라고 말하며 사무엘의 입장을 공유한다. 그들의

<sup>6</sup> 미스바는 아마도 지금의 텔 엔나스베와 동일한 것 같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 마일 떨어져 있고 남북 분기점 도로에 있다.

유일한 무기는 기도이고,<sup>7</sup>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보좌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조차도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뿐이었다(삼상 7:9).<sup>8</sup> 그러나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전능에 매달릴 때 결코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을 치셨다(삼상 7:10b). 그것은 그분이 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뿐이다(레 26:8; 신 28:7).<sup>9</sup> 한나는 몇 년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삼상 2:10a).

이스라엘의 자비 체험의 중심에는 자신의 무력함과 자원 고갈이 있다. 기도는 그들의 유일한 호소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곤경이 교회와 개인 신자들의 곤경에 견줄 수 있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교단 또는 개별 회중)는 종종 이스라엘의 진정한 상태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적어도 서양에서는 교회가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거나, 효과적인 책략을 쓰거나, 입증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이 복음주의적인 영리함에 의해 살아간다고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더 많고 더 나은 행정이나 더 밝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형태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하는 것을 빼앗으시며 우리가 도움을 위해 그의 맨손만 의지하도록 강요하시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신자의 개인 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제한된 자원에 우리를 가두시고, 우리의 모든 부차적인 도움과 지원이 하나 하나 빼앗기는 상황에 우리를 놓으셔서, 결국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의 자비에만 기대도록 만드실 수도 있다.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박함의 길, 곧 기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경건한 변명(책임 회피)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합리적인 행위로 여길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중보 기도(삼상 7:8-9; 참조, 삼상 12:23; 렘 15:1)에서 우리의 대체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직분(눅 22:31-32; 롬 8:34)에 대한 그림을 본다고

<sup>7</sup>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68.

<sup>8</sup> 동사 [자아크]("외치다, 부르짖다, to cry, cry out")에 대해서는 G. Hasel, "zā'āq," TDOT, 4:115-16, 119-22 를 보라. 성경 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울부짖는 것"에 대한 용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항상 있는 고통과 절망을 잊어버릴 수 있다. 성경적 기도는 자주 능력의 한계에 달한 백성의 외침이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쉽다.

<sup>9</sup> Cf.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55.

덧붙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우리의 견고함의 진정한 비밀이 있다. 우리는 그의 기도가 항상 효과적이신 다른 한 분(Another = Christ)의 기도에 의존한다. 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감동적인 것은 없다.

### III.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억 (삼상 7:11-14 The Memory of God's Mercy)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파한 후(삼상 7:11), 사무엘은 (아마도 미스바의 서쪽 어딘가에)<sup>10</sup>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도움의 돌")이라고 부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삼상 7:12). 사무엘은 확실히 그 당시의 여호와의 도움을 기념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그의 "여기까지/이 시점까지"에는 기억되는 일련의 모든 자비로운 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진술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의 고마운 일들을 모으고 있다(아마도 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한 공급, 애굽에서 해방된 것, 광야에서의 보존, 가나안 정복 동안의 진압 등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편 105 편을 보라). 동시에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그때의 소망을 안내한다. 왜냐하면 그의 "여기까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 오신 성품 그대로 앞으로도 항상 계실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사무엘상 4 장의 사건들이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말 그것들은 어울리는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언약궤가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살륙하고 노략물을 약탈하고 있었을 때도, 여호와께서는 과연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던 것인가? 블레이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 모든 것을 사무엘은 잘 고려했다. 실로의 황폐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돕고 계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알도록 돕고, 그들의 죄를 알도록 돕고, 그들이 죄의 쓴 열매와 비참한 형벌을 알도록 돕고 계셨다. ... 사무엘의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긴 사슬의 고리들은 모두 한 종류만이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자비의 형태를 가졌고, 어떤 것들은 징계의 형태를 가졌다.<sup>11</sup>

---

<sup>10</sup> 삼상 7:12 은 문자적으로 "미스바와 "이빨/바위 [센] 사이에" 사무엘이 그의 에벤에셀을 세웠다고 말한다. 센은 아마도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암석의 노출 부분이나 지형적인 경계표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삼상 7:11 의 뱀갈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 여기 묘사된 대로 뱀갈은 미스바의 서쪽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집을 향해 언덕을 통과하여 허둥지둥 도망가던 곳이란 것만 알 수 있다.

<sup>11</sup> W. G. Blaikie, *First Book of Samuel*, 104.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도움은 어둠 속에서도 찾아왔다. 그것은 삼상 2:11-4:22 의 사건들도 포함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주시기 위해 불경건한 지도력을 제거하셨을 때, 그것 또한 확실히 "도움"이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의 에벤에셀 기념비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억을 과거와 가장 최근의 여호와와 그의 자비하심에 고정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는 감사를 생생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기억이고, 감사가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대학시절 아내와 내가 교제를 시작했을 때, 나는 종종 그녀에게 껌 반쪽을 주곤 했다. (입냄새에 대한 편집증이 있어서 항상 껌 한 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반자에게 일부를 주지 않고 먹는 것은 좋은 예절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각자 반쪽짜리 껌을 씹었다.) 그 당시 나는 몰랐지만, 바바라는 항상 껌을 간직하고 있었다. 몇 년 후 나는 그 방법을 알았다. 그녀는 담갈회색 방울을 하나 하나 붙여 놓은 가로 8 인치, 세로 12 인치 크기의 종이판을 두세 장 가지고 있다. 그녀는 각 덩어리 밑에 그것을 받아 씹은 날짜를 입력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1963 년 3 월 11 일"이라 적고, 그 위에 껌 조각을 붙였다. 그녀는 한 장에 20 개 정도의 그런 기입 사항을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초기 연애를 기억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굳어버린 껌 조각을 하나 하나 떼어서 다시 씹을 필요는 없다. 다행히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녀의 껌 종이판들은 정말 기억을 자극하고, 기억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며 감사를 낳는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와 그의 행적에 대한 기념비들이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신앙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사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전부일 수 있다. 여러분은 절망하도록 유혹을 받고, 한계점에 거의 다다른 정도로 압박을 받고, 너무 피곤하여 신경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조차도 물러가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상할 수 있다. 여러분은 구멍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재생 버튼을 누른다. 여러분은 승인된 버전, 즉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상당수가 하나님 백성의 곤경에 대한 기록이다.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그 백성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듣는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사 63:9 개역개정).

아니면 여러분은 경험적 버전을 돌이켜볼 수 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러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교회”에 베푸신 섭리와 자비를 보여주는 일련의 이야기이다. 그것들을 항목별로 적어보라. 그 도중에 많은 에벤에셀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성경과 경험을 통해 아는 것처럼, 여호와와 반복적인 공급과 구원은 여러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어 숙고하게 한다(눅 2:19 참조).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나를 포기하시며 버리시려고 지금까지 줄곧 나에게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이 어구는 미래가 알려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미래를 위한 확신을 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훨씬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도들이 여호와와 자비를 기억하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를<sup>12</sup> 노래할 수 있으려면 과거에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에서 있지만 미래를 위해 굳건히 살 수 있도록 과거에 머물러 있다.

몇 달 전에 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변화를 제안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찬상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나는 우리가 그 비문의 하단 가장자리에 두 개의 고리를 끼워 넣고 적절하게 조각된 또 하나의 말씀을 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내가 제안한 말씀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이었다. 그것은 완전히 적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때(롬 8:32)보다 더 결정적인 “여기까지/지금까지”가 어디에 있겠는가?<sup>13</sup>

---

<sup>12</sup> [역자 주] “O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는 새찬송가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세 번째 절의 첫째 소절이다. 직역하면, “오, 은혜에 너무나 큰 빛진 자, 매일 나는 부득이 되네.”이다.

<sup>13</sup> 삼상 7:13-14, 특히 삼상 7:13 에 대한 한두 가지 해설을 하고자 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삼상 7:13a).”라는 주장은 사무엘상 13 장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라. 첫째로, 사무엘상 저자나 편집자는 분명히 우리만큼 분별력이 있었고, 만약 그가 그것을 그렇게 보았다면, 그는 그 모순을 인식했을 것이다(참고, Gutbrod, *Das Buch vom König*, 55-56). 분명히 그는 그런 큰 충동을 보지 않았다. 둘째로, 삼상 7:13b 은 삼상 7:13a 을 수식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그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진술은 계속되는 갈등이 있었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삼상 7:13-14 은 요약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부 사항까지 전부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넷째로, 삼상 7:13a 와 같은 진술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왕상 6:23b 과 왕상 6:24

#### IV. 사무엘에 대한 요약 구절 (삼상 7:15-17 Summary)

삼상 7:15-17 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선을 긋고 사무엘의 경력을 간략하게 마무리한다. 사무엘은 매년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속한 장소/성지들을 순회했다.<sup>14</sup>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샤파트]."라는 말을 세 번(삼상 7:15, 16, 17) 듣는다.<sup>15</sup> 이 동사는 분명히 정의를 실행한다(참고, RSV 7:17 "administered justice")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상 7:15-17 의 [샤파트]의 용법을 앞에 나오는 삼상 7:6 의 용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삼상 7:6 에서 [샤파트]가 애통, 고백, 회개의 경우에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것은 예배 인도와 영적 지도가 결합된 종교적 활동이었다.<sup>16</sup> 그렇다면 사무엘의 지속적인 사역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망과 교훈과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는 사무엘과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엘을 동시에 보는 것은 유익하다. 주님의 종은 보통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흔히 일상적인 임무를 훨씬 더 많이 수행한다. 결정적인 돌파구(삼상 7:3-6)는 흥미진진하지만, 그 영향이 보존되려면 꾸준한 강화(삼상 7:15-17)가 필요하다. 새로운 헌신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교훈을 필요로 한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순회하는 것은 미스바의 부흥만큼 결코 화려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길이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그분의 제단들도 갖고 계셨다.

---

사이의 경우와 비슷하다(A. F. Kirkpatrick, *The First Book of Samuel*,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6], 90). 다섯째로, 삼상 7:13b 의 "사무엘의 모든 날들"을 엄격히 따진다면, (즉 사울의 왕정 이전의 그의 일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그의 활동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면,) 사무엘상 13 장과 14 장은 여호와와 손이 사무엘의 모든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막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따라서 13-14 장은 7:13 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7:13 을 설명한다. 우리는 저자가 삼상 7:13-14 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기를 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방패였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안전에 있어서 사무엘이 (백성이-곧-갓기를-바라는-왕이 된) 사울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참고, D. F. Payne, "1 and 2 Samuel,"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Grand Rapids: Eerdmans, 1970], 290).

<sup>14</sup> 나는 여기에 나오는 길갈을 여리고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고 생각한다. 벤엘, 미스바, 라마는 모두 베냐민 지파의 중부 고원에 있다.

<sup>15</sup> 동일한 어근([샤파트])이 사무엘상 8 장의 초반부에 5 번(1, 2, 3, 5, 6 절) 사용될 것이다.

<sup>16</sup> Moshe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A Literary Study of Comparative Structures, Analogies and Parallels* (Jerusalem: Rubin Mass, 1990), 66-67.

<sup>17</sup> Cf. Joyce G.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81;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319.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회개가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면 믿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2. 회개가 초자연적이라는 생각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인가?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란 걸 감안할 때,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이 실체가 될 수 있겠는가?
3.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접근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심적인가?
4.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행위들을 회상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지 않겠는가?
5.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보통의 떨기 나무”가 “하나님으로 불탄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오늘 많은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을 보고 소박한 임무에서 그분의 은혜를 보려고 노력하라.

## 제 2 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왕

(A King in God's Place)

사무엘상 8-14 장

## 7. 왕에 대한 일 (삼상 8 장 The King Thing)

나는 간이 차고 뒤쪽에 있는 창고를 청소하며 정리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가 살던 미시시피 주의 집들은 보통 지하실이 없어서 실제 차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여분의 물건들은 창고에 놓아야만 했다. 당연히 그 안은 덥고 끈적끈적하고 더러웠다. 물론 바닥에는 물건이 널려 있었다. 확실히, 무언가를 집으려고 몸을 돌릴 때마다 나는 다른 무언가에 부딪히고 그것은 아래로 떨어지곤 했다. 아마 독자는 그 느낌을 알 것이다. 당신은 막다른 골목에 거의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알 것이다. (좌절이라 부르는 것이 더 좋은) 세련된 타락(?) 가운데서 당신은 말싸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 감히(아니 희망적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어주었으면 한다. 아, 그때 이러한 여자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게 신호였고,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더럽고 심술궂은 사투리로 나는 으르렁거리며 "뭐라구?!"라고 소리쳤다. 그 "목소리"를 찾으려 간이 차고로 갔을 때, 내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옆집에 살던 멋진 침례교 여인임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었는지를 상상해 보라. 속일 수 없었다. 그래도 진실은 아픈 법이다. 나는 아내가 날 부르는 줄 알았다고 자백해야만 했다! 더 나쁜 것은, 내가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막되게 구는 것을 개의치 않았음을 순순히 자백해야 했던 점이다. 그러나 가장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내가 노출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내 이웃은 진짜 나를 보았다. 숨을 곳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한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다. 성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시한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8 장의 기능이다. 사무엘상 8 장은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대한 여호와의 분석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출은 피하기 쉽다. 단지 이스라엘의 왕정이란 역사적 문제에만 몰두하라. 그러면 당신은 본문이 주고자 하는 주요 타격을 쉽게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길을 붙잡도록 하자. 그러면 사무엘상 8 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계시할 것이다.

### 1. 대체자에 대한 우리의 열정 (삼상 8:5-8 Our Passion for Substitutes)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c 개역개정).” 그것은 장로들의 요청/요구였다. 그것은 타당해 보였다. 사무엘은 늙었고 확실히 과도기가 오고 있었다(삼상 8:5a).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악당들이었고, 아무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았다(삼상 8:2-3, 5b).<sup>1</sup> 해결책은 새로운 형태의 정부였다. 왕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1 군사 공격의 위협은 그들의 주장에 들어있는 또 다른 측면이었다. 삼상 12:12 을 보라.

여호와께서는 삼상 8:7-8 절에서 왕에 대한 백성의 요청을 평가하신다. 이 본문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여호와의 분석을 맞서 대하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이 너[=사무엘]를 버림이 아니요 나[=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7b, 히브리어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음)". 이스라엘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사무엘]게도 그리하는도다(삼상 8:8)." 왕은 사무엘을 대신하는 자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를 대신하는 자이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것은 새롭게 왜곡된 낡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우리는 왕에 대한 요구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완벽하게 허용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17:14-20 에 따라서 허용되었다. (나는 신명기의 저작 연대를 사무엘 이전을 본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게 될 때가 올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엄격한 규례에 유의한다면 그것은 관참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때때로 학자들은 장로들의 요청의 잘못이 "모든 나라와 같이(삼상 8:5 개역개정)" 되기를 원한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약간의 진실은 있다(우리는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신 17:14 은 이스라엘이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개역개정)"<sup>2</sup> 왕을 원하는 소원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명기 17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같은" 왕을 갖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왕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신 17:15a)이어야 하고, 타국인이 아니라 형제 이스라엘 사람(신 7:15b)이어야 하며, "많은 병마, 많은 부인, 많은 은금" 등 관습적인 왕실의 특권이 없어야 하고(신 17:16-17), 여호와의 율법의 통치에 복종해야(신 17:18-20)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8 장에서 잘못된 요청의 사실이 아니라 요청의 동기에 있었다. 요청을 오염시킨 것은 바로 요청 그 자체가 아니라 요청의 배후에 있는 것이었다.<sup>3</sup>

---

2 [역자 주] 삼상 8:5, 20 과 신 17:14 에 나오는 [콜 고임]이 개역개정에서 사무엘상의 경우 "모든 나라"와 "다른 나라들"로 번역되고 신명기의 경우 "모든 민족들"로 번역되어 있다. 영어 성경은 대체로 "all the nations(cf. NIV: all the other nations)"로 번역되어 있다. 신 17:14 에 나오는 히브리어 원문의 단수 "나"는 NIV 와 한글 성경에서 "우리"로 의역되어 있다. ESV/NASB/KJV/HCSB 의 "... and say " I will set a king over **me**, like all the nations that are around **me**,"와 NIV "... and you say, "Let **us** set a king over **us** like all the nations around **us**,"를 비교해보라.

3 사무엘상 8-12 장 안에는 왕정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사무엘 자신조차 격렬하게 반대(삼상 8:6)하면서도 열렬하게 지지(삼상 10:24)하는 등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판적 토론에 대한 훌륭한 개관을 위해 J. Robert Vannoy, *Covenant Renewal at Gilgal: A Study of 1 Samuel 11:14–12:25* (Cherry Hill, N.J.: Mack, 1978), 197–239 을 참고하라. 반노이

우리가 얼른 사무엘상 12 장으로 가보면, 삼상 8:7-8 에서 하신 여호와와 판결이 옳다는 것이 확인된다. 거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행위들을 자세히 말한다. 첫 번째 사례: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로 있었다.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구원자로 보내셨다(삼상 12:8). 두 번째 사례: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 압제자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간구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룹바알 등을 보내셨다(삼상 12:9-11). 세 번째 사례: 이스라엘은 암몬 왕 나하스가 그들에게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을 본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를 다스릴 [인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라고 여호와께 말하였다(삼상 12:12). 현재의 위급상황에서 구원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은 전혀 없고 오직 왕을 세워 달라는 요구만 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대체이다. 지금 그들의 도움은 여호와의 능하신 이름에 있지 않고(참조, 시 124:8), 새로운 형태의 정부에 있었다. 악당처럼 나쁜 것은 바로 왕정이 아니라 왕정에 대한 신뢰이다(참조, 시 118:8-9; 146:3).

이 시점에서 멈추고 사무엘상 8 장을 더 살펴보자. 앞에서 나는 사무엘상 12 장이 어떻게 제 8 장에 대한 **해설**인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거부였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사무엘상 7 장이 8 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위급함과 무력함 (그리고 왕이 없는 상태) 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과거에 도움이셨던 분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다. 강력한 왕은 없었고, 다만 충실한 중보자만 있을 뿐이었다. 사무엘상 7 장이 8 장과 대조를 이룬다면, 사무엘상 4 장은 8 장과 **병행**을 이룬다. 유의할 것이 있다. 사무엘상 7 장은 기도가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

자신의 글은 그의 책 227-232 쪽에 나온다. 나는 오랫동안 구약 본문이 결코 왕정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행사되는 왕정의 종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 입장을 지지해 주는 연구들을 보는 것은 상쾌하다. 예를 들어, David M. Howard, Jr., "The Case for Kingship in Deuteronomy and the Former Prophet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2 (1990): 101-15 을 보라.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한 논평인 Gerald Eddie Gerbrandt's *Kingship According to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tlanta: Scholars, 1986]을 보라. 사무엘상은 다른 형태의 지도 체제보다 왕정을 더 나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제사장들에 의한 지도력은 홉니와 비느하스에 이르렀을 때 실패했다. 사사직은 적어도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맡겨졌을 때 성공하지 못했다(Moshe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A Literary Study of Comparative Structures, Analogies and Parallels* [Jerusalem: Rubin Mass, 1990], 62-64 을 참고하라). 만약 누군가가 왕정을 폄하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대안들을 교묘하게 설명함으로써 더 나은 사례를 만들어 볼 것을 기대할 것이다!

적절하게 회개와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돌아서며 동일한 실수를 저지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기계적인 공급을 신뢰한다. 사무엘상 4 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미신("우리 가운데 언약궤")으로 나타났고, 사무엘상 8 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치적 것("우리 위에 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우상 숭배다. 지혜는 아직 잉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길을 보여준다. 잠시 멈추어 숙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첫째로, 우리는 문제를 영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첫 번째 충동은 우리의 기술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손질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활기찬 복음주의자들조차도 새로운 마음을 위해 부르짖지 않고 새로운 술책을 찾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둘째로, 우리는 도움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실 때 취하셔야 할 방법을 명시하는 데 있다(따라서 우리는 그 방법을 신뢰한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구원하셔야 한다고 지시하고 싶어한다.

셋째로,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요청이 우리 자신에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다(삼상 8:7a, 9).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그분의 호의가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의 표징일 수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가장 큰 친절은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다(시 106:15 참조).

넷째로, 현재의 상황(삼상 8:1, 3, 5a)과 위험(삼상 12:12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그분의 왕권에 대한 거부로 간주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안과 해결책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분명히 논리적이고, 명백히 그럴듯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불경건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내 동생이 한 수저의 바닐라 추출물을 나에게 주었던 때를 생각나게 한다. 부모님이 외출했을 때 부엌은 내 형제들의 소유였고, 그들은 푸딩이든 다이버이든 잡다한 다른 실험물이든 종종 디저트를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그 작품들에 무엇이 들어있든, 바닐라가 필요했다. 짐은 나에게 맛을 보라고 했다. 그는 내가 그 재료를 냄새 맡아보도록 했다. 나는 그

냄새가 좋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매우 좋아하는 다른 혼합물에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았다. 모든 것이 예라고 말했고, 삼킬 때까지 나도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였다.

우리의 우상 숭배 중 일부는 매우 정교하고,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므로, 그것은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안개 속도 꿰뚫어 본다(삼상 8:7-8). “사무엘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경험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눅 19:14).’”<sup>4</sup>

## II.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반감 (삼상 8:5, 19-20 Our Aversion to Holiness)

내가 말하는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반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달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섞이려고 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위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소망 그 자체, 심지어 “모든 민족들과 같은” 왕 조차도 (논평한 대로, 신 17:15-20 이 이스라엘 왕정이 이방 민족들의 왕정을 닮지 않도록 막기 위한 규제 사항들을 두고 있을지라도) 신 17:14 이하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들과 같이”는 표현 이상이고, 그것은 열정이 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모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엄숙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끔찍하지도 않고 계속 왕을 요구하였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삼상 8:19-20 개역개정).” 이스라엘은 왕과 함께라면 우리가 모든 나라와 걸맞을 것이고 소속감을 느끼고 마침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지금은 철기 시대이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의상 독특했다. 신명기 4 장 32-40 절을 읽어보라. 태초 이래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에서 실제 동사와 형용사와 명령형을 사용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처럼 듣고 생존하였는가? 냉정하고 무정한 압제자들을 원초적인 힘(강한 손과 편 팔)과 순전한 공포로 굴복시켜 자기 백성을 다른 민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우리도 역시—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명령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도 달라야 한다(레 19:2).” 통상적인 번역은 “다른(different)”이 아니라 “거룩한(holy)”을 사용하지만

---

4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72.

여러분은 내 번역의 요점을 파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와 보조를 맞추고 우리 사회의 틀에 맞추기를 선호한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대의 한가운데서 누가 눈에 띄고 싶겠는가? 왜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개별적으로 성공의 다른 정의를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의 관점에 특정한 분리가 있어야 하는가(히 11:13-16 을 본따라서)? 왜 우리의 대화에 매력적인 순수성이 있어야 하는가? 왜 결혼에 충실해야 하는가? 아니면 왜 결혼 전에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가? 왜 무력한 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거나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의 흐름을 추구해야 하는가? 왜 오락보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가? 왜 성취 후에 탐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하는가?

맥클라렌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건전하게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잘 표현했다.<sup>5</sup>

### III. 지혜에 대한 우리의 면역 (삼상 8:11-18, 21-22 Our Immunity to Wisdom)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삼상 8:9).” 이것은 사무엘이 받은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삼상 8:11-18).

사무엘이 왕의 길에 대해 밝힌 것(삼상 8:11-18)은 왕권의 보기 드문 남용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정하건대, 남용적이거나 남용될 수 있는) 왕권의 통상적인 관행을 묘사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왕정이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알아야 한다.

왕의 길에 대한 사무엘의 요약은 간단하다. “그는 취할 것이다 ... 그는 취할 것이다 ...” 사무엘은 히브리어 동사 [라카흐] (“취하다, to take”)를 네 번 사용한다(삼상 8:11, 13, 14, 16).<sup>6</sup> 그는 또한 백성으로 왕이 자신을 위해 무슨 귀중한 소유물을 징발할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동사의 직접적인 목적어들에 중점을 둔다.<sup>7</sup>

5 Alexander Maclaren,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 Deuteronomy, Joshua, Judges, Ruth, and First Book of Samuel*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n.d.), 295.

6 [역자 주] 개역개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11 절),”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13 절),”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14 절),”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16 절)”처럼 동사를 다르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라카흐]를 모두 “취하여”로 통일하여 번역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7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67.

마치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 같다. 여러분의 아들들을 생각하라! 왕은 그들을 징발해서 기병, 마병, 천부장과 오십부장, 농장 노동자, 무기 생산자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의 딸들은 어떤가? 집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왕은 그녀들을 징발해 향수 제작자, 요리사, 제빵사로 삼을 것이다. 정부의 일을 생각해보라. 여러분의 재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왕은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왕이 여러분의 당신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농작물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궁중 관리들과 종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 여러분은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왕에게 바쳐야 한다. 왕은 심지어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노비와 가축을 끌어다가 사용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적절한 단어가 있다. 그건 바로 노예 제도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애굽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을 것이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삼상 8:19).”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삼상 3:19), 틀림없이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혜가 그들이 간절히 저지르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들이 자기 말을 듣기를 거절했지만(삼상 8:19)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만 했다(삼상 8:22).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나 진리가 그 자체로 변화시키거나 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 사회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 현대의 사회적 또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라.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대답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현재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거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

[역자 주] 삼상 8:11, 13, 14, 16 은 불변화사 [에트] + 직접 목적어(들) + 동사 [이카흐 < 라카흐]의 어순을 갖고 있다.

<sup>8</sup> 학자들은 관례적으로 삼상 8:11-18 이 매우 늦은 시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권의 (나중에) 실패를 겪어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무엘의 설명에 더 많은 호소력과 권위를 주기 위해 이런 비판적 견해가 사무엘의 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왕의 길에 대한 사무엘의 설명은 왕정 아래 살아본 확장된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왕정은 주위 모든 곳에서 규범이었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사무엘은 다양한 가나안 왕들이 그들의 도시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무엘의 설명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이에 대한 잘 알려진 연구를 보려면 I. Mendelsohn, "Samuel's Denunciation of Kingship in the Light of the Akkadian Documents from Ugarit,"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43 (1956): 17-22 을 참고하라.

교육 오류이다. 그 오류는 사람들이 무언가가 자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내버려 두며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것은 결코 본질적인 어리석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교육은 명확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다.

만아들이 겨우 한 살이었을 때 화장실 변기에서 물을 튀기고 노는 데 문제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며 (보통) 물일 뿐이었다. 그러나 부모는 특정 위생 기준(물)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똥)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변기에서 노는 것을 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기저귀로 몇 번 가볍게 엉덩이를 맞았다. 어느 날 나는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손을 맛있게 적시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혼잣말로 “아니, 아니,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했다. 진리를 갖고 있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살후 2:10). 진리를 사랑하는 것만이 진리에 순종하게 만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지만, 그들은 가르칠 수 없다. 무엇이 하나님의 현재 백성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 잘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정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의 오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 부르짖도록 인도할 수 있는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잠 12:15, 개역개정).”

이스라엘의 저항이 가르치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요청이 우리 자신에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므로(삼상 8:7, 9, 22),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비가 숨어 있을지 모르지 않는가! 그분의 거절은 무관심이 아니라 친절일 수 있다.

사무엘상 8 장은 여러분의 거울이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여러분을 드러낸다. 여러분은 신뢰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너무나 쉽게 신뢰한다. 여러분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과 맞지 않는 말에 너무 저항적이다. 거기서 당신의 민낯이 속속 드러난다.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강력한 왕은 없고 다만 충실한 중보자가 있을 뿐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2. 기독교인들이 왕과 중보자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분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3.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같은 형태를 취하기를 기대하게 되었는가?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4.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유혹이 있는가?
5.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아니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그 응답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알게 된 때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 8. 분실과 발견 (삼상 9:1-10:16 Lost and Found)

누구나 아는 한 그날도 농장의 또 하나의 날에 불과했다. 그날 사울은 약간 지쳐 있었고 힘을 얻기 위해 음식을 먹고 있다. 기스는 나귀들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조금 흥분한 상태로 헛간에서 돌아온다.<sup>1</sup> 사울이 종을 데리고 가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농장 생활의 사소한 짜증거리들"의 또 하나의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잃어버린 나귀들, 헛된 수색, 종의 제안, 선지자의 환대, 거룩한 기름.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기스의 농장에서 그날은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판에 박힌 그저 그런 삶과 같았다. 그러나 사무엘의 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었다.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겠다...(삼상 9:16)." 여호와께서는 자주 우리 삶의 세부 사항을 그의 자비의 통로로 확대하신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보다 앞서 가고 있다.

인물 소개 부분(삼상 9:1-2)부터 다루어 보자. 먼저, 우리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만난다(삼상 9:1).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좋은 혈통을 갖고 있는, 상당히 부유한 농부였다. 그리고 우리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난다(삼상 9:2). 얼마나 잘 생긴 젊은이인가! 미스터 이스라엘 대회 같은 것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스터 이스라엘로 뽑았을 것이다. 기브아 고등학교에 농구 경기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사울은 그의 큰 키에 힘입어 유명한 센터가 되었을 것인데 참 아쉽다. 저자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삼상 9:1-2 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이러한 묘사, 즉 그의 이상적인 외모와 신체적인 인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을 잘 정리해 두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이야기에서 훨씬 나중에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삼상 9:1-10:16 을 살펴보기 위해 나는 이 단락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제시할 것이다.

### 1. 섭리 (삼상 9:3-27 Providence)

"섭리"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것은 섭리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다. 여기서 내가 "섭리"란 용어를 사용할 때, 나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놀랍고 이상하고 신비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방식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

<sup>1</sup> 우리는 나귀 몇 마리가 달아났는지 모른다. 대부분의 현대 서구 독자들은 나귀들에 대한 큰 애정도 없고 더구나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스의 손실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귀들은 기스의 부와 재산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것은 도시에 사는 독자가 여러 장의 급여 수표를 잃어버린 것이나 농부가 건초 마차나 픽업 트럭을 잃어버린 것과 유사한 것이다.

자주 우리 삶의 가장 흔한 것(심지어 우리의 의지의 편견조차도 포함)을 넘어서, 그것 아래서, 그것 주위에서, 그것을 통해서, 혹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섭리를 행하신다.

여기 흔한 것들이 있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것, 수십 명의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혹시 ...을 본 적 있으세요?"), 중앙 산간 지역을<sup>2</sup> 두루 돌아다니는 것(삼상 9:4-5a), 성과 없는 수색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삼상 9:5b),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의해 보자는 제안(삼상 9:7-8), 선지자에게 드릴 사분의 일 세겔의 은을 갖고 있는 것 등등. 그것은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평범하다. 맥클라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울을 작은 성읍으로 데려온 일련의 평범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라. 나귀 무리의 방황, 그것들을 추적하는 일의 실패, 수색에 지쳤을 때 우연히 습 땅에 있게 된 것, 종의 제안 등등.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손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가 알지 못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밀고 있다.<sup>3</sup>

모든 것이 아주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계획된 것임을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나타난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과 왕국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sup>4</sup> 그것은 우리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개입은 삼상 9:15-17 에 일어난다. 내가 이 구절들을 개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들이 정말로 개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9 장을 14 절까지 읽고 나서 곧바로 18 절로 가더라도, 여러분은 이야기가 완벽하게 연결되고 이야기가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삼상 9:15-17 은 이야기의 흐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 뿐이다. 삼상 9:15 의 첫 번째 자리에 나오는 강조적인 "여호와"란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말해질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

---

<sup>2</sup> 우리는 삼상 9:4-5 에 언급된 지역/장소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도움이 될 만한 재구성을 위해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rev. ed. (New York: Macmillan, 1977), 59 (map 86)을 살펴보자.

<sup>3</sup> Alexander Maclaren,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 Deuteronomy, Joshua, Judges, Ruth and First Book of Samuel*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n.d.), 300-301.

<sup>4</sup> "찾은 나귀들, 발견한 왕국(Asses Sought, a Kingdom Found)"은 삼상 9:1-10:16 에 대한 클라인(Ralph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80)의 제목이다.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개역개정)”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는 일의 비밀을 듣는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것은 일들에 전혀 다른 모습을 띄게 한다! 지금까지 무덤덤하고 우연한 일로 보였던 것은 실제로 여호와의 감독 아래 크게 좌우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울은 여호와에 의해 보내지고, 지정되고, 공개된다. 때때로 비밀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여호와의 섭리는 구원의 역사에서 주요 인물들의 일에만 작용하는가(이 경우 사울), 아니면 그의 (대부분) 보이지 않는 지혜가 나의 길을 따라오고 있는가? 여호와는 그분의 나라에서 주요 에피소드만을 감독하시는가, 아니면 그분의 지배는 자기 백성의 개별적인 삶으로 확장되는가? 물론 후자가 정답이다. 지혜서는 이를 증언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잠 20:24)?" 따라서 여호와의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섭리는 나라의 일부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특권이 아니다. 아무리 명백하게 흔한 일이더라도 그것은 그분의 백성 각자에게 확대된다. 그러나, 사무엘상 9 장과 달리, 그분은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훨씬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분이 해오셨던 일의 흔적들을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잃어버린 나귀들을 계속 찾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임무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계속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입, 특히삼상 9:16 에 나오는 개입에 머무르며 좀 더 다루어야 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섭리가 그분의 동정심을 발휘한 것임을 명심하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고 계신 이유는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을 일으키시는 이유에 대하여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고 설명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삼상 9:16b 를 보고 그것을 친왕정적이라고 부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삼상 8:7-8 과 같은 본문은 반왕정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실을 말하면, 삼상 9:16b 는 친자비적이다.

논의 중인 사무엘상 9 장에서 잠시 물러나 좀 더 큰 그림, 즉 사무엘상 8-14 장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있는 그대로 이 장들을 보면 세 가지 별도의 집회들이 있고, 각 집회

다음에는 사건을 다루는 내러티브가 나온다.

집회, 삼상 8 장

사건, 삼상 9:1-10:16

집회, 삼상 10:17-27

사건, 삼상 11 장

집회, 삼상 12 장

사건, 삼상 13-14 장

어떤 면에서 각 집회를 다루는 부분은 이스라엘을 비난한다(삼상 8:7-8; 10:19; 12:12, 17 참조).<sup>5</sup> 그러나 각 사건을 다루는 부분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거나 구원하시는 자비를 보여준다. (삼상 9:1-10:16은 미래의 구원자를 따로 세우시는 자비를 보여준다. 삼상 11 장은 사울이 나하스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자비를 보여준다. 삼상 13-14 장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자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거부는 여호와의 섭리를 마비시키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달라고 외치는 소리(삼상 8:7-8)에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보시지만,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9:16)에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들으신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여호와의 동정심을 시들게 할 수는 없다.

이른바 친왕정 부분과 반왕정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진리의 역설을 보는 것을 가로막을 뿐이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겨도 안 되지만, 우리가 감히 여호와의 자비를 최소화해서도 안 된다. 삼상 9:15-17은 삼상 9:1-10:16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8장에 비추어 여호와의 자비를 돋보이게 하는 렌즈이기도 하다. 이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동정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죄에 대해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라.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악함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비에 있어서 “완강하시고(노새 같으시고)”,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동정심의 샘을 마르게 하지 않고, 그분의 연민이 자기 백성을 내버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

5 사무엘상 8장에서 일차적 비난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삼상 8:7-8). 이 구조 체계를 작성한 후에, 나는 맥카시(Dennis J. McCarthy)가 삼상 13-14 장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미 비슷한 구조 체계를 제안했음을 발견했다. 맥카시의 제안은 V. Philips Long, *The Reign and Rejection of King Saul: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Coherence*, SBL Dissertation Series 118 [Atlanta: Scholars, 1989], 175 에 인용되어 있다.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시편 103:11 개역개정)."<sup>6</sup>

"내가 나의 백성(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이다.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애굽에 있을 때 겪었던 이스라엘의 속박과 유사함을 주목하라. 출 2:23, 25; 3:7 참고). 블레이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을 따라 말씀하신다. 그분은 억압받는 자들의 괴로움을 그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외침도 그의 귀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분은 외침이 높아질 때까지, 절박한 호소가 그분께 들려질 때까지, 완전한 무력감을 자각하고 사람들이 그의 발등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억압받는 자의 외침에 동정하신다는 것은 매우 복된 진리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는 단순한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것은 매우 부드러운 동정심, 그들이 겪은 모든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개입하시려는 결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슬픔과 고난에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신다.<sup>7</sup>

그러므로 ... 섭리이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 움직이시는 온정의 섭리이다.

## II. 확증 (삼상 10:1-9 Assurance)

사울의 종을 먼저 떠나보낸 후,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나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삼상 10:1 의 어느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한다. 칠십인역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칠십인역은 사무엘이 삼상 10:1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사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여호와와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분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sup>8</sup>

---

<sup>6</sup> 시 103:11 에 대한 NJB 의 "As the height of heaven above earth, so *strong* is his faithful love for those who fear him."라는 번역은 적절한 번역이다. 동사 [가바르]는 능력, 힘의 개념을 담고 있다. 시편 기자는 첫 번째 행에서 측정할 수 없는 거리의 차원을 도입하고 두 번째 행에서 그것을 추측할 수 없는 힘의 범주로 바꾼다.

<sup>7</sup> 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136.

<sup>8</sup>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78 을 보라. NIV 와 NASB 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지만

징조에 대한 사무엘의 언급에 유의하라. 사실,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삼상 10:7, 9 참조).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징조들을 알려주었다. 그날은 매우 특이한 날이 될 것이었다. 먼저,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sup>9</sup> 사울은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기스의 나귀들은 찾았고 (사울이 짐작했던 대로, 삼상 9:5) 그의 아버지가 짐승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사람들에게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해줄 것이다(삼상 10:2). 다음으로, 다볼(벤엘로 가는 길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어느 지역)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사울은 벤엘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희생 제물로 각각 염소 새끼 세 마리,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삼상 10:3-4). 마지막으로, 기브아(삼상 10:5, cf. 삼상 10:10)에 이를 때에, 그는 산당에서 막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sup>10</sup> 그들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내려오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

내 생각으로는 RSV 가 바르게 칠십인역을 따르고 있다. [역자 주: 다음에 나오는 NASB 와 RSV/ESV 를 비교해 보라.]

NASB: Then Samuel took the flask of oil, poured it on his head, kissed him and said, "Has not the Lord anointed you a ruler over His inheritance?"

RSV: Then Samuel took a vial of oil and poured it on his head, and kissed him and said, "Has not the Lord anointed you to be prince over his people Israel? **And you shall reign over the people of the Lord and you will save them from the hand of their enemies round about. And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that the Lord has anointed you to be prince over his heritage.**

ESV: Samuel took a jar of the special oil and poured the oil on Saul's head. Samuel kissed Saul and said, "The Lord has anointed you to be the leader over the people who belong to him. **You will control the people. You will save them from the enemies that are all around them. He has anointed you to be ruler over his people. Here is a sign that will prove this is true:**

<sup>9</sup> 창 35:16, 19-20 은 이 위치와 상반되지 않는다. 창세기 본문은 라헬이 에브랏(즉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벤엘에서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 장사되었다고 말한다. 현대의 여행객들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일 마일쯤 떨어진 예루살렘-베들레헴 도로에서 "라헬의 묘실"을 볼 수 있다. (현재의 구조물은 십자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IDB*, 4:5 을 보라.) "라헬의 묘실"은 라헬의 묘실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다.

<sup>10</sup>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는 E. J. Young, *My Servants the Prophets* (Grand Rapids: Eerdmans, 1952), 85-87 그리고 A. A. MacRae, "Prophets and Prophecy," *ZPEB*, 4:891-93 을 보라.

예언할 것이다. 참으로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삼상 10:5-6)<sup>11</sup>

이 모든 징조가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일어났다(삼상 10:9b). 그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들이 너무 기이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행운 과자의 글귀와 같이 단조로운 일반화가 아니다. 그것들은 상세하다. 두 사람이 정확한 장소(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매우 특별한 메시지(찾은 나귀, 아버지의 걱정 등)를 사울에게 전한다. 다불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사울과 마주친다. 한 명은 염소 새끼 세 마리, 한 명은 떡 세 덩이, 한 명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갖고 있다. 한 명은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준다! 사무엘이 아무리 예리한 선지자였을지라도, 그러한 징조들은 인간의 예견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한 세부 사항은 여호와에게서만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징조들이 사울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왕정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왕권에 대한 여호와의 승인(삼상 10:1)과 여호와의 임재(삼상 10:7)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징조들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확증의 설명을 균형이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삼상 10:6-7)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의 지시(삼상 10:8)도 받아야 한다. 삼상 10:8 에 대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분명하다. 즉 여호와의 힘을 약속받은 왕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칠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 것입니다(삼상 10:8).” 여호와의 영은 능력을 주시지만, 그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행사되어야 한다.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눅 6:46)을 짓밟으며 주님의 주님되심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무슨 권리로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과 성령의 결합은 현대 교회에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힘의

---

<sup>11</sup> 사울은 “새 사람”(삼상 10:6)으로 변하며, “새 마음”(삼상 10:9)을 받는다. 나는 이 변화를 에스겔 36 장이나 요한복음 3 장의 중생과 동등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삼상 10:6 에서의 변화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찰라흐]” 결과로 생긴 것이다. 이 동사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갑자기 임함” 것에도 사용되었다(삿 14:6, 19; 15:14). 각각의 경우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중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에 사용되었다. 삼상 11:6 의 사울도 마찬가지다. 삼상 16:13 의 다윗을 참조하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강하게/갑자기 임함”은 그가 지도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인 것을 암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은 전에 갖지 못했던 것을 받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역자 주: [찰라흐]에 대해 NIV 는 “come upon powerfully”, ESV 는 “rush upon”, NASB 는 “come upon mightily”로 통일해서 번역했다. 그러나 개역개정본은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 “강하게/크게/갑자기 임하다//크게 감동되다”처럼 다양하게 번역했다.)

극적인 징조를 갈망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일상적인 순종을 위한 열정은 거의 없다.

### III. 채비 (삼상 10:10-13 Equipment)

우리는 삼상 10:9 을 통해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이 묘사한 세 가지 징조가 모두 사울에게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들의 성취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 징조를 제외하고는 삼상 10:9 의 요약으로 충분하다. 저자는 세 번째 징조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쪽을 택한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포함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면 사울이 다가오는 임무를 위해 실제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채비를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이 일으킨 동요를 상상할 수 있다. 분명히 그 고향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시골 청년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삼상 10:11)?"

자주 토의되는 질문은 이곳 마을 사람들이 선지자들 그리고/혹은 사울을 긍정적으로 본 것인가 부정적으로 본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논평은 우리에게 모호해 보인다. 나는 긍정적인 표와 부정적인 표를 모으는 데 관심이 없다. 독자는 다른 주석들을 펴서 보고 의견들을 집계할 수 있다. 나는 지역 주민들의 주된 반응이 놀라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놀라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울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은 너무나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삼상 10:12b)?"라는 속담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기브아의 누군가가 훗날에 아주 특이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할 때마다, "글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람이라면 "기이한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브아 주변에서 그들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외쳤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 주민은 설명할 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말을 시작하며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었다. 다시 말하면, "근원을 고려하라."고 말했다. 그가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찬양 중에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려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붙잡아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하실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 같다.<sup>12</sup>

그렇다면, 우리는 익숙한 성경적 논쟁에 도달한다. 여호와께서는 자주 인간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가장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효과적으로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사울이 채비를 갖추도록 하신다.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조지 맥도널드는 그의 한 소설에서 글래스톤에 있는 성공회 소속 지역 교회의 보좌 신부인 토마스 윙폴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다.<sup>13</sup> 이상하게도 윙폴드를 이 탐구 과정에 세우고 그 과정을 인도하는데 사용된 인간 도구는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영지 공원의 문지기 조셉 폴워스였다. 폴워스는 난쟁이였고, 더구나 기형적인 존재로 천식이 들끓고 슬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역 성직자에게 왕국을 열어줄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단지 소설의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나라의 실화에 매우 자주 나오는 방식이다. 그분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에 그분은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수 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 IV. 은폐 (삼상 10:14-16 Concealment)

이 내러티브는 사울이 그의 삼촌과 나눈 짧은 대화로 마무리된다. 어디로 갔더냐?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아 그래, 사무엘이 뭐라고 하더냐?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삼상 10:16)." 이렇게 대화가 끝난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삼상 10:16b)." 이렇게 내러티브는 비밀로 끝난다. 사울의 삼촌은 아무 것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모든 사람이 몰랐다. 이 부분 전체의 매혹적인 특징 중 하나는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모른다는 것이다. 마치 비밀스러운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사무엘은 알고 있다. 그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스와 사울과 종은 단순히 길 잃은 가축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무엘의 말(삼상 9:20)은 분명 사울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여전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키가 큰 낫선

---

<sup>12</sup> Cf. C. F. D. Erdmann, *The Books of Samuel*,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77;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155–56.

<sup>13</sup> George MacDonald, *The Curate's Awakening*, ed. Michael R. Phillips (Minneapolis: Bethany House, 1985).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영예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일에 대한 단서를 전혀 갖지 못했다(삼상 9:22-24). 사울의 종은 먼저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앞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삼상 9:27). 물론 그는 향기로운 기름이 사울의 머리 위에서 무슨 작용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의아해했을 것이다. (사울의 머리가 가려졌어도 냄새는 시력이 할 수 없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는 사무엘이 사울에 무슨 말을 했을까 하고 궁금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울이 선지자들의 노래에 동참한 것(삼상 10:10-13)은 분명 파문을 일으켰지만, 무엇이 사울 위에 임했는지 알아내려는 것 외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축 우리 곁에 있는 집에 사울의 삼촌이 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더냐?" 사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길 잃었던 동물들을 가리키며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라의 일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sup>14</sup>

이 모든 비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서 "찾다, 발견하다, to find"는 뜻의 동사 [마차]가 12 번 나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다. 사울과 그의 종은 나귀들을 "찾지(삼상 9:4, 두 번)" 못했다. 종은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을 "발견했다(삼상 9:8)." 사울과 그의 종은 성읍에서 물을 길어오려고 성읍에서 나오는 소녀들을 "발견했다(=만났다, 삼상 9:11)." 소녀들은 그들이 선견자를 "발견할(=만날, 삼상 9:13, 두 번)" 수 있도록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귀들을 "찾았다(삼상 9:20)"고 확실하게 말했다. 사울이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발견한(=만난, 삼상 10:2)" 두 사람도 사울에게 나귀들을 "찾았다(삼상 10:2)"고 말했다. 세 사람이 다볼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사울을 "발견할(=만날, 삼상 10:3)" 것이다. 사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힘으로 아마도 이스라엘의 적들을 칠 기회들을 "찾을(삼상 10:7)" 것이다. 사울은 삼촌에게 "사무엘이 암나귀들을 '찾았다(삼상 10:16)'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다."라고 전했다.

[마차]라는 동사는 꽤 흔한 동사이므로 나는 이 요점을 더 밀어부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비밀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축, 사람들, 돈, 그리고 기회들을 "찾았다." 왕정도 마찬가지로 찾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호와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셨지만,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언젠가 북서부 주들 중 한 곳에 위치한 마이너리그 야구팀의 포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난다. 그는 재미 삼아 좀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심판이 다음 투구를 스트라이크가

<sup>14</sup> 이 내러티브에 들어있는 신비와 비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70-72, 그리고 Robert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9), 90-91 을 보라.

아니라 볼이라고 불렀을 때, 그 포수는 격앙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심판을 향하여, 전형적인 격렬함으로 "당신이 옳습니다! 그 투구는 볼입니다!"라고 소리쳤다. 심판은 당혹스러웠다. 포수는 그의 "장광설"을 계속했다. 관중들은 당연히 그가 심판의 오심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하고 심판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심판이 관중을 선동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포수를 퇴장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포수는 (흙을 걷어차고 계속 투덜대면서) 포수인 자신이 심판의 판정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꾸했다. 심판의 얼굴에 화난 표정을 보고 그가 내뱉은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저는 당신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판정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투구가 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무렵 군중은 불운한 심판에 대한 편파적 소동에 휘말렸다.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홈 플레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단서가 없었다.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자주 그분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다. 아니, 나는 장난꾸러기 야구 포수가 되려는 뜻이 전혀 없다. 하지만 내 말의 뜻은 그분의 실제 일은 자주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분은 은밀하게 일하신다. 우리는 잃어버린 나귀들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들을 분명히 볼 수 있으며,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식별하는 전부일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주 그분의 나라를 은밀하게 비밀리에 유지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진정한 종들은 항상 그것에서 가장 큰 격려를 찾을 것이다.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아주 평범한 것들이 놀라운 섭리의 패턴으로 합쳐진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본 적이 있는가?
2. 우리가 그분의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왜 불손한 것인가?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분리되면 저녁 뉴스까지 만들어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4. 성경에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생각할 수 있는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주의 왕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5. “우리는 잃어버린 나귀들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들을 분명히 볼 수 있으며,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식별하는 전부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해주는가? 우리는 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삶의 사건들에 관한 한 그런 분별력을 구하고 있는가?

## 9. 잃어버린(?) 왕 (삼상 10:17-27 A Lost King?)

엄숙한 행사들이 어떤 예상치 못한 방해로 인해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설교하고 계셨는데 쥐 한 마리가 그의 다리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으로 그것을 강하게 내리치셨다. 우리에게는 이런 집안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의 모든 전통도 그렇게 할 것이다). 물론 교회의 정규 예배는 아니었다. 이스라엘 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미스바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이와 같은 종류의 일이 일어났다.<sup>1</sup> 왕은 뽑혔으나 보이지 않았다. 기스의 아들은 아버지의 나귀들처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왕에 대한 공황 상태를 잊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왕을 짐보따리들 사이에서 찾아 데려온 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에피소드가 주는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한다.

### I.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끈질긴가! (How Relentless God's Word Is)

우선, 여호와와 말씀이 그냥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사무엘은 여호와와 책망으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두들김으로써 그들의 죄를 인정하도록 그들을 자극하려고 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삼상 10:18-19)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삼상 8:6-22 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힌 바 있다. 미스바 집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뽑거나 가려내는 특별하고 공식적인 행사였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왜 사무엘은 그렇게 부정적인 어조로 그것을 시작했는가? 왜 시간을 낭비했는가? 비록 여호와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좀 더 기교 있게, 상황에 좀 더 민감하게 전달될 수는 없었는가?

18 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의 교회에는 심각한 불의가 있었다. 총회(전국 기구)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노회(지역 기구)가 그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교구에 목사를 강제로 임명하곤 했다. 1773 년에 한 번은 총회가 노회와 그 모든 목사들을 참석시키고 데이비드 톰슨 씨를 스텔링 근처의 교구 목사로 추대할 것을 명령했다. 공식적인 임무는 노회의 의장인

---

<sup>1</sup> 나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스바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 마일 떨어진 남북 도로의 텔 엔 나스베와 동일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A. F. Rainey, "Mizpah," *ISBE*, rev. ed., 3:387-88 을 보라. 나는 삼상 10:17-27 이 삼상 9:1-10:16 과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삼상 9:1-10:16 은 사적인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하는 반면, 삼상 10:17-27 은 앞에 나온 사적인 행동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선택을 다루고 있다.

로버트 핀들리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핀들리는 관례대로 설교하는 대신에 톰슨 씨를 앞으로 불러 그러한 상황에서 거의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에게 말했다. 핀들리는 톰슨에게 그들이 어떤 의회보다 우월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총회의 권위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핀들리는 톰슨에게 600 명의 가장들과 60 명의 상속자들, 그리고 교구의 장로들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톰슨이 지난 7 년 안에 끈질기게 현재의 교구에 정착하려고 애쓸 때까지 좋은 인격을 유지했다고 인정했다. 그런 다음 핀들리는 그에게 "그것을 포기하라"(임명 받으려는 것에서 물러서라)고 호소했다. 톰슨 씨는 낮은 목소리로 핀들리에게 "상회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지시했다. 핀들리는 일반적인 공식이나 그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간단히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나는 스털링의 노회 의장으로서 총회의 후기 문장의 참된 의미와 정신에 따라 당신, 데이빗 톰슨씨가 성 니니안 교구 목사가 된 것을 승인합니다. 이로써 당신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핀들리는 지역 교구, 목사, 노회 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시편 몇 줄을 노래한 후에 회중을 해산시켰다.<sup>2</sup>

글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절과 교양에 신경 쓴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진리는 예절보다 앞에 와야 한다. 때때로 로버트 핀들리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다정하기보다는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무엘이 싱겁게 웃으며 펼친 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다"고 외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좋은신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다. 만약 어떤 좋은 기회가 당신의 관심을 끌고 당신을 회개하게 만든다면, 심지어 그분은 그 좋은 기회도 망치게 하실 수 있다.

## II. 하나님의 선택은 얼마나 분명한가! (How Clear God's Choice Is)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나와 제비 뽑기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그는 모든 지파에서 시작하여 제거를 통해 사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좁혀질 때까지 계속했다(삼상 10:20-21). 여호와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잠 16:33).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적으로 먼저 밝히셨던 것(삼상 9:15-17)을 이스라엘에게 공적으로 선언하셨다(삼상 10:20-21).

---

<sup>2</sup> Thomas M'Crie, *The Story of the Scottish Church from the Reformation to the Disruption* (1875; reprinted., Glasgow: Free Presbyterian, n.d.), 503-4.

사울이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이제 그의 공적인 선택에서 승인된다.<sup>3</sup>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은밀히 행하셨던 일을 지금 소리 높여 선포하신다.

이 공개적인 확인은 물론 절대적인 필요조건이었다. 매튜 헨리는 오래 전에 이렇게 지적했다.

[사무엘]은 그 백성의 까다로움을 알고 있었고, 선택이 자신의 유일한 증언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지파와 선택된 지파의 모든 가족이 그에 대한 기회를 갖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그들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백성에게 ...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 그것은 또한 모든 분쟁과 예외를 막아줄 것이다.<sup>4</sup>

그래서 여호와의 선택은 분명했고, 필연적으로 그랬다. 그것은 사울 이전에 혹은 사울과 함께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작은 지파”라고 불렀을 때(삼상 9:21), 그는 결코 아주 겸손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의 초기에<sup>5</sup> 이스라엘과의 내전으로 인해 거의 전멸을 당했기 때문이다(사사기 20-21 장을 보라. 특히 사 20:42-48 을 참조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약한 것을 선택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성품에 걸맞다.

### III.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의존적인가! (How Dependent God's People Are)

나는 삼상 10:21c-24 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 아마도 (이 부분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의미는 의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본문은 그들이 사울을 찾을 수 없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볼 곳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사울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고 만세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의도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렇게

---

<sup>3</sup>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88: "일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비 뽑기에 의한 선택은 사무엘상 9 장에서 사무엘에게 주어진 계시와 그에 따르는 은밀한 기름 부음에 대한 기적적인 확인으로 보인다."

<sup>4</sup>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334. 헨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구속사적인 관찰을 포함시켰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을 때, 그들은 쉽게 그들이 곧 다시 약해질 가족을 세우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죽어가던 야곱이 예언의 영으로 유다의 왕권을 함의했기 때문이다." (헨리는 창세기 49 장을 가리키고 있다.)

<sup>5</sup> 사사 시대의 초기라는 추정에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여전히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사 20:27-28)에 근거하고 있다.

간단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내리겠지만, 여기에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삼상 10:21 의 마지막 단어들 흥미롭다. “그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비는 사울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그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의 내러티브(삼상 9:1-10:16)에서 같은 동사 [마차] (“발견하다, 찾다”)가 계속해서 12 번 나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다. 거기서 [마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수색도 포함되었다. 내가 삼상 10:21 의 끝 부분에서 [블로 님차] (“그러나 그는 발견되지 않았다.”)를 읽었을 때, 나는 삼상 9:1 이하에서 [마차]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 특히 삼상 9:4 에서 “발견하지 못한” 나귀에 대해 2 번 사용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묘한 아이러니가 의도된 것인가? 사울과 그의 종이 나귀를 찾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 그들의 왕을 찾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삼상 10:17-27 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상응하도록 이 구절들에 경첩을 달았다.

소집, 17

비난, 18-19

선택, 20-21b

좌절, 21c

계시, 22

발견, 23

환호, 24

지시, 25a

해산, 25b-27

그렇다면 삼상 10:22 은 이 에피소드의 초점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디서 사울을 찾을 수 있을지를 알려 주셔야만 했던 것을 보면, 백성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의 나머지는 사무엘의 활동(삼상 10:17, 18a, 20a, 24a, 25a, 25b)을 계속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상 10:22 이 여호와의 계시를 강조할 때, 그것은 틀림없이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제안하는 것은 삼상 10:21c-24 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왕이 선택되었어도 그들이 그 왕을 찾을 때 여호와의 계시에 의존해야만 할 정도로 말이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가장 간단한

일들에서도 여호와를 제외하고서는 잘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한 어떤 신학적 여파를 발견할 수 있다(요 15:5).<sup>6</sup>

#### IV.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필요한가! (How Necessary God's Law Is)

"그때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권의 권리와 의무(RSV; cf. 개역개정: 나라의 제도)'를 말했다(삼상 10:24)." "권리와 의무"는 여기서 히브리어 [미시파트]를 잘 번역하고 있다. 사무엘은 이 [미시파트]를 두루마리 위에 기록하여 성소에 두었다. 우리는 이것을 삼상 8:9, 11 의 "왕의 [미시파트](참고, 개역개정 "왕의 제도")"와 대조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왕의 일반적인 방식과 왕들이 주장하는 권리들과 왕들이 관례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러나 여기(삼상 10:25)에 나오는 "왕권(혹은 왕국, 나라)의 [미시파트]"는 삼상 8:9, 11 의 "왕의 [미시파트]"에 반대되는 입장이다. 여기서 왕권의 [미시파트]는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문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미시파트"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왕권의 [미시파트]"는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이다.<sup>7</sup> 나는 그것이

---

<sup>6</sup> 사울이 자신을 숨긴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로 누가 알겠는가? 많은 주석가들은 그것을 암전하고 겸손한 것으로 여기는데(예: Keil, Kirkpatrick, Gordon), 이를 찬성할 만한 점이 있다(삼상 15:17 NASB/NIV 참조). 아니면 사울은 소심함을 드러내며, 심지어 임명된 임무에 대한 저항까지도 드러낸 것인가? (V. Philips Long, *The Reign and Rejection of King Saul: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Coherence*, SBL Dissertation Series 118 [Atlanta: Scholars, 1989], 215-18 을 보라. 여기서 Long 은 McCarter 를 인용한다.) 굿브로트(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76-77)는 사울이 자신을 숨긴 것과 그의 인상적인 외모(삼상 10:23b-24)의 결합은 이스라엘에게 왕정의 과시적 요소가 항상 겸손과 결합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넌지시 사울이 이러한 "겸손한 위엄"과 이러한 "고귀한 낮아짐"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문한다.

<sup>7</sup> 반노이(J. Robert Vannoy)는 그의 *Covenant Renewal at Gilgal: A Study of I Samuel 11:14-12:25* (Cherry Hill, N.J.: Mack, 1978), 231 에서 이 문제를 아주 잘 설명했다. (아래 [ ] 안에 나오는 것을 그의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다.) "이 행동(즉, 삼상 10:25)에서 사무엘은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부적절하게 왕을 요구한 것과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는 것이 사실상 여호와의 의도였다는 것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을 해소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미시파트 하مل루하 "개역개정: 나라의 제도, RSV: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kingship 왕권의 권리와 의무"]의 목적은 백성과 왕 지명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 왕의 기능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와 특권에 대한 이러한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묘사는 이스라엘의 왕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진 주변 국가들의 왕정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은 국가에 대한 여호와의 지속적인 주권과 엄격하게 양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고 모압 평지에서 갱신한 [미시파트 하멜레흐](삼상 8:9, 11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규범적인 것이 아니고

신 17:14-20 에 나오는 것과 매우 유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실제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와 율법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하는 부왕이다. 그 율법에 대한 왕의 복종은 폭정과 왕권 남용을 막아줄 것이다.

존 낙스가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상대로 살인죄와 간음죄 혐의를 제기하도록 한 것은 바로 왕족도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바로 이 생각이었다. 당시(1560 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권자인 왕이 법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낙스는 주권자도 법 아래 있으므로 법에 의한 재판과 국민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sup>8</sup>

원리를 확장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사울의 입장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이며, 그래야 한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율법 아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실수가 아니었다. 출 20:2 이 출 20:3-17 보다 먼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여러분은 결코 율법을 잘못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힘만이 바로를 멸망시켰고, 나의 어린 양이 너를 파멸에서 보호해 주었고, 나의 손이 바다를 갈라 놓았다. 이제 네가 자유로워졌으므로, 여기 자유로운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법, 곧 나의 계명들이 있다. 너는 자유를 얻기 위해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나의 선물이다.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 자유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는 그것들을 지킨다.

나는 내 차 안에 볼티모어 시와 카운티에 대한 지도 소책자를 보관하고 있다. 오십 내지 육십 페이지쯤 된다. 매우 상세하고 정밀하고 정확하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한다면 그 지도책을 통해 나는 그 위치와 나를 거기로 데려다 줄 거리들과 도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도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며, 까다롭다. 그러나 나는 지도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 비록 지도들이 나의 (정상적인)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나의 자유를 보존한다. 그것들은 내가 목적지를 찾으려고 애쓰며 그곳 전체를 방황하는 것, 지시받지 않은 감정을 신뢰하는 것,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데서

---

[미시파트 하믈루하](삼상 10:25)가 규범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언약법에 명시된 모든 규정과 의무와도 엄격하게 양립되어야 했다. 한마디로 그것이 사무엘의 의도였다.”

[역자 주] 삼상 8:9, 11 의 [미시파트 하멜레흐]와 삼상 10:25 의 [미시파트 하믈루하]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왕의 제도” vs. “나라의 제도”

RSV/ESV: “the ways of the king” v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kingship”

NASB: “the procedure of the king” vs. “the ordinances of the kingdom”

<sup>8</sup> Otto Scott, *James I: The Fool as King* (Vallecito, Calif.: Ross House, 1976), 49.

오는 좌절감 등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것들 나름대로 지도들은 법과 계명이지만, 그것들에게 복종하면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다.

다시 사무엘상 10 장으로 돌아가보자. 사울은 왕권을 통제하는 법 아래 있다. 그 법은 그의 왕권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와 율법과 계명들 아래 있다. 그것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저해하고 안 좋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하고 외적 속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12-15 장, 갈라디아서 5-6 장, 에베소서 4-6 장, 골로새서 3-4 장, 또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대체로 기독교인의 삶에 계명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한 가르침의 목적은 백성을 삶의 순결, 욕망의 거룩함, 말의 호감, 쓰라림의 부재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의 목적은 균형 잡힌 관계, 영적 전쟁, 구체적인 동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율법은 더 이상 무서운 저주가 아니라 기쁜 순종이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면 말이다.

#### v. 하나님의 종은 얼마나 잘 분열을 일으키는가! (How Divisive God's Servant Is)

때때로 모임 후에 일어나는 일은 모임에서 일어난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들었다(삼상 10:24).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새로 선출된 왕에 대해 두 가지 뚜렷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본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다(삼상 10:26b). 이 대표단은 참으로 큰 지지와 격려가 되었음에 틀림없다(눅 22:28 참조).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계속 물었던 무익한 사람들(직역, "벨리알의 아들들" = 불량배들)이 있었다. 이 시골뜨기, 이 베냐민 시골 농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왕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왕은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거절을 당하고 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추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합법적인 유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울이 일종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는 임명된 **직분**(왕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불량배들은 사울을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왕으로서 그의 직분에서도 배척하고 있었다.

사실, 예수님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다(문맥상으로 눅 12:51 을 참고하라).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요 6:42 개역개정) 이는[=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에게 뭐 그리 특별한 것이라도 있는가?

그것은 계속된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종이요 왕이신 분을  
멸시한다. 어쨌든, 2 천 년 전에 범죄자로 처형된 유대인이 내가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내 결혼? 내 두려움? 내 재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 V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번,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분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2. 이 주해는 요 15:5 을 언급한다. 예수님의 사역에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제자들의 경험에 있어서 이 영적 원리의 예를 우리에게 주는가?
3. 율법이 기독교인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면 에베소서를 읽어보고 거기에 십계명 중 몇 개나 이런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지 살펴보아라.
4. 합법적인 권위가 심지어 온화할 때에도 우리는 왜 그것을 원망하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 10. 희망찬 시작 (삼상 11 장 A Hopeful Beginning)

나는 아직도 1-8 학년 때의 학교 첫 날을 기억한다. 모든 것이 신선했다. 학년을 위한 두 벌의 새로운 청바지는 4월에 그랬던 것처럼 퇴색되지 않았다. 새 셔츠 한두 벌도 있었던 것 같다. 새로운 학용품도 있었다. 선생님은 새롭고 긴 노란색 연필을 나누어 주셨다. 그날은 지우개를 물어뜯어 연필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 지우개를 제자리에 고정시킨 금속 띠에 이빨을 갈기 전인 첫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무엘상 11 장에서 우리는 초기 왕국을 위한 새롭고 희망찬 시작의 공기를 마신다. 사울의 첫 출전은 희망을 품게 한다. 삼상 11 장의 주제는 구원이다. "구원하다, 구출하다"라는 어근 [야샤]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세 번 나온다(삼상 11:3, 9, 13). 임명된 왕은 여호와와 백성들에게 구원/구출을 가져다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악담하며 사울을 멸시했던 비난자들에 대한 반박이 여기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이다(삼상 11 장).

이제 사무엘상 11 장의 가르침을 탐구해보자.

### I. 세상이 보여주는 오만 (삼상 11:1-3 The Arrogance the World Shows)

요단 동쪽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20 마일, 요단 강에서 동쪽으로 2 마일 떨어진 와디 야비스에 있는 요새화된 성 야베스 길르앗<sup>1</sup> 포위했다. 사실 나하스는 요단 동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을 수도 있다. 사해 사본 중 하나(4QSA<sup>Ma</sup>)에는 우리 성경의 삼상 11:1 앞에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암몬 왕 나하스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몹시 억압하며 그들 각자의 오른쪽 눈을 뽑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구원자도 없었다.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암몬 왕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뽑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

<sup>1</sup> H. G. May, "Jabesh-gilead," *IDB*, 2:778-79 을 보라.

[역자 주] יַבֶּשׁ גִּלְעָד / יַבֶּשׁ גִּלְעָד [야베시 길라드]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에 나오는 지명이다. 영어 성경은 Jabesh-gilead 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본 사사기(21:8, 9, 10, 12, 14)에서 "야베스 길르앗"으로 번역하고, 사무엘상(11:1; 31:11)과 사무엘하(삼하 2:4, 5; 21:12) 그리고 역대상(10:11)에서 "길르앗 야베스"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처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야베스 길르앗"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칠천 명이 암몬 사람들을 피해 야베스 길르앗으로 들어갔다.<sup>2</sup>

아마도 이 자료는 전승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대부분의 본문들에서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야베스 길르앗 남자들은 둘러 앉아서 본문 문제를 차분히 숙고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하스와 맞서야 했다. 그들은 그의 봉신으로서 조약 조건을 요청했다(삼상 11:1). 그는 그들에게 허락했다.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지만, 나하스는 그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빼낼 것이다(삼상 11:2). 그것은 끝없는 굴종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을 군복무에 부적합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전투에서는 보통 왼쪽 눈이 방패로 가려졌다.<sup>3</sup> 오른쪽 눈이 사라진 상태라면 ... 글썄, 여러분은 볼 수 없는 것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하스는 장애인 재향 군인을 배출하는 데 별 관심이 없었다. 그의 기쁨은 이스라엘에 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삼상 11:2b). 이스라엘에 굴욕의 나사를 천천히 돌리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짜릿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고 야베스 길르앗의 땀을 보는 것을 매우 즐겼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들의 광적인 요청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보라고) 동의했다. 나하스는 그의 게임을 매우 재미있게 즐기고 있었다.<sup>4</sup>

야베스 길르앗이 나하스(삼상 11:1b)에게 (겉보기에) 그렇게 쉽게 굴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sup>5</sup> 그러나 나하스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하스는 온 이스라엘(2b)에 "치욕"(또는 경멸, 조롱, 히브리어 [헤르파])을 불러일으키길 원한다(삼상 11:2b).

---

<sup>2</sup> 번역은 P. Kyle McCarter, Jr., *I Samuel*,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198 에 나오는 번역이다. 요세푸스는 그의 *Antiquities* (6.68-70)에서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서 일으킨 그러한 난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sup>3</sup>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N.Y.: Alba House, 1972), 3:64.

<sup>4</sup> 나하스가 잔인함을 즐겨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고대의 야만시대의 유물도 아니다. 조셉 스탈린의 악담(Robert Leckie, *Delivered from Evil: The Saga of World War II* [New York: Harper and Row, 1987], 87)과 비교해 보라. "피해자를 고르고, 조심스럽게 타격을 준비하고, 무자비한 복수를 자행하고... 세상에 이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로 이루어진 인류로부터 달리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잔인한 행위에 있어서 훨씬 덜 피비린내 나면서 훨씬 더 세련되어 있다.

<sup>5</sup> 블레이크(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170-71)는 야베스 길르앗의 복종은 여호와와 맺은 그들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은 이스라엘의 열등감에 대한 그의 의식을 드러낸다. 사실 그는 심지어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동족들 사이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7 일 동안 허락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벨론 유수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쇠퇴한 시기이다. 이것이 의도된 의미이다.<sup>6</sup>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상의 오만이다.

이런 오만, 이런 증오는 결코 그치지 않는다. 나하스는 역사적인 소품이 되어버렸지만, “암몬 정신”, 곧 하나님 백성을 불구로 만들고 파괴하고 목졸라 죽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 나는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나 추가적인 예들을 증가시킬 지면이 없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요 15:18)”고 말씀하셨다. 여기 “세상이 미워하면”이란 “(그렇지 않지만)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처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듯이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처럼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요일 3:13 을 보라). 이 경고는 예수님의 이전 말씀에 매우 새로운 빛을 비취 주었음에 틀림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 내가 너희를[강조되어 있음] 친구라고 불렀다(요 15:14, 15).” 그것은 영향을 준다. 사람이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맺고 사는 한, 그는 세상의 오만에 직면할 수 있다.

## II.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변화 (The Difference the Spirit Makes)

야베스 길르앗의 전령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들의 매우 심각한 위급 상황을 전했다(삼상 11:4).<sup>7</sup> 그들은 나하스에게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갈을 보내겠다고 말했었다(삼상 11:3). 그러나 그들은 기브아로 왔다. 그들은 먼저 기브아에 왔을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야베스 길르앗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있었다(삿 21:8-14 참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삼상 11:6a).” 그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사울은 심각한 위협을 주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고(삼상 11:7), 그의 군대를 삼 대로 나누고,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에<sup>8</sup> 나하스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기습 공격하였고 [정오쯤에(Vannoy, 103)] 그들을 완전히 격파했다(삼상 11:11).

나는 저자가 야베스의 상황과 사울의 성공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

<sup>6</sup>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92.

<sup>7</sup> 사울의 기브아의 현재 장소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 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텔 엘-풀일 것이다.

<sup>8</sup>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3:66.

강조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삼상 11:6 을 내러티브의 중앙에 놓음으로써 그렇게 한다. 삼상 11:1-13 에 대한 다음 구조에 유의하라.<sup>9</sup>

압제하고 파괴하는 왕(사해 사본 4QSama 에 추가된 내용)

암몬의 위협, 1-2

야베스의 반응: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리라," 3

전령들의 나쁜 소식, 4

사울의 질문과 그에 대한 반응, 5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다," 6

사울의 "전갈"과 그것에 대한 반응, 7-8

전령들의 좋은 소식, 9

야베스의 반응: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10

암몬의 도망, 11

구원하고 보존하는 왕, 12-13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그가 지도자를 채비시키는 방식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저자는 사울을 일종의 특급 사사(super-judge)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제 11의 삼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것(삿 14:6, 19; 15:14)처럼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셨기([찰라흐] 삼상 11:6) 때문이다. (동사 [찰라흐]는 삼상 10:6, 10 에서 여호와/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한 것에도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사들(예: 삿 3:10; 6:34; 11:29)을 채비시키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 [찰라흐]가 사용되지 않았다.<sup>10</sup> [찰라흐]는 삼손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신 것에만 사용되었고 그것도 세 번이나 사용되었다. 여기서 이 동사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채비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삼상 10:6, 10 에 이어) 세 번째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사울이지만 그의 주변에 삼손의 그늘이 있다.

그러나 더 살펴볼 것이 있다. 사울은 군대를 삼 대로 나눈다(삼상 11:11).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기드온을 상기시켜 준다(삿 7:16). 사울은 한 거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냈었다(삼상 11:7). 사울의 이 행위는 (반역적인) 동쪽 이스라엘 성읍이나

<sup>9</sup> 나는 이 구조에 이 장의 앞부분에서 인용한 사해 사본(4QSAMa)의 추가 자료를 포함한다(각주 2 참조). 그것의 포함이나 배제는 6 절의 중심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sup>10</sup> [역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할 때 삿 3:10 [바트히 알라브 루아흐-아도나이]와 11:29 [바트히 알-이프타흐 루아흐 아도나이]에서는 동사+전치사 על היה [하야 알-]이 사용되고, 6:34[브루아흐 아도나이 라브샤 에트-기드온]에서는 동사 וּבָרַח[라바시]가 사용되었다. 삼손과 사울의 경우 הָלַח[찰라흐]가 사용되었다.

지파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외적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단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한다(삿 19:29). 더욱이 사울은 암묵적으로 "구원자([모시아])"로 묘사되는데(삼상 11:3) 이 용어는 사사들 중에서 웃니엘과 에훗에게 부여되었다(삿 3:9, 15).<sup>11</sup> 더 많은 사사들과의 연결 고리들이 있지만 이것들로 충분하다.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은 이 수줍고 주저하는 농부를 취하여 그가 특급 사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시는 변화이다.

하나님의 영은 또한 기억을 되돌리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신다. 이 이야기에 기브아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인식이 있는데(삼상 11:4),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어느 누구에게나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고 즐겁다. 사사 시대 초기의 기브아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기브아 사건은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났지만 사사기에서 마지막 에피소드로 19-21 장에 기록되어 있다.) 사사기에서 기브아는 소돔과 같았다(창세기 19 장 참조). 성도착자들이 공포의 기나긴 밤 동안 내내 그리고 동틀 때까지 한 여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므로 결국 그 여인은 죽게 된다. 기브아에는 슬픔도 회개도 없고, 실제로 베냐민 모든 지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지파는 너무나 반항적이고 너무 완고해서 기브아의 성도착자들에게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참담한 내전이 뒤따른다.<sup>12</sup>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11 장에서는 이 사악함과 파괴의 장소가 구원과 구출의 근원지가 되었다. 기브아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시다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시는 변화이다.

이스라엘은 이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구원이 온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왕정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다. 교회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b)"고 말씀하신 것의 구약 성경의 방식이다.

### III. 왕국이 요구하는 새로움 (삼상 11:14-15 The Renewal the Kingdom Requires)

나하스를 상대로 승리한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불러 길갈에 집결시킨다. 길갈은 여리고 인근에 있고, 요단 강에서 서쪽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삼상 11:14-15의 본문은 매우 길갈적이다.

<sup>11</sup> 이 마지막 연결은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06 에 설명되어 있다.

<sup>12</sup> 사사기 19-21 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나의 책 *Such a Great Salvation: Expositions of the Book of Judges* (Christian Focus, 2000), 211-27 [= **사사기 주해**, 173-189(21 장 새로운 소돔)]에 나오는 강해를 참고하라.

이 두 절에 길갈이란 이름이 세 번 나오고 길갈을 가리키는 "거기서"가 네 번 나온다.<sup>13</sup> 저자는 이 두 구절에 길갈이 총 일곱 번 나오게 함으로써 그의 요점을 밝혔다.

길갈에서의 사무엘의 의제는 "나라를(혹은 왕권을) 새롭게 하는(삼상 11:14)"<sup>14</sup>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어구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그들이 거기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삼상 11:15 은 부분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가?<sup>15</sup>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사무엘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왕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새롭게 하다"는 이전에 어느 정도 약화된 것을 암시한다.<sup>16</sup> 더구나 누구의 왕국이나 왕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인가? 사울의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것을 말하는가?

반노이는 사무엘이 사울의 왕권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권을 언급하고 있다(삼상 8:7; 12:12 참조)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이스라엘을 소환한 것은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소환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결국

---

<sup>13</sup> [역자 주] 한글 성경에서 3 번 나오는 길갈과 4 번 나오는 "거기서"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은 없다. 다음 ESV 와 개역개정판의 삼상 11:14-15 을 비교해 보라.

ESV: 14 Then Samuel said to the people, "Come, let us go to **Gilgal** and **there** renew the kingdom." 15 So all the people went to **Gilgal**, and **there** they made Saul king before the LORD in **Gilgal**. **There** they sacrificed peace offerings before the LORD, and **there** Saul and all the men of Israel rejoiced greatly.

개역개정: 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거기(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sup>14</sup> [역자 주] 히브리어 명사 [물루하]는 KB I: 587 에 "status as king, kingship, kingdom"라고 풀이되어 있다. 한글 성경은 삼상 11:14 하반절을 매우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판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번역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공동번역은 "즉위식을 올립시다", 쉬운 성경은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말성경은 "거기서 새롭게 왕국을 선포합시다"로 번역한다. 영어성경은 "there renew the kingship or kingdom"으로 번역한다.

<sup>15</sup>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과 관련하여 사무엘의 거처(삼상 9:25-10:1)와 미스바(삼상 10:17-27)와 길갈(삼상 11:14-15)에서 있었던 일들 사이에 있는 명백한 불일치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는 않는다. 세 개의 본문은 매우 자연스럽게 사적인 기름 부음, 공적인 선택, 그리고 공식적인 임명이란 질서 정연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sup>16</sup> J. Robert Vannoy, *Covenant Renewal at Gilgal: A Study of 1 Samuel 11:14-12:25* (Cherry Hill, N.J.: Mack, 1978), 64-65 을 보라.

삼상 12 장에 나오는 길갈 집회의 부담이다.<sup>17</sup>

그러나 사무엘상 12 장과는 별도로, 우리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을 수반할 지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전에 여호와께서 선택한 왕을 경멸했던(삼상 10:27; 11:12 참고) 사람들에게 왕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삼상 11:15 은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 같다.<sup>18</sup>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한 "나라의 제도[미시파트]/왕권의 권리와 의무(삼상 10:25)"에 대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헌신, 다시 말하면, 왕권이 이스라엘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앞 장에 나오는 삼상 10:25 에 대한 설명 참조)에 대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헌신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여호와와 통치에 대한 새로운 충성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노이의 견해를 트집 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지도도 잘 파악해야 한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길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길갈은 여호와의 권능이 절망적인 역경을 헤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한 곳이었다(수 3-4 장). 그것은 광야에서 반역적인 세월을 보낸 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태어난 곳이었다(수 5:1-12).<sup>19</sup> 아마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하스의 공포 통치 앞에서 그들의 전적인 무력감(삼상 11:1-3; 사해 사본의 추가적인 내용도 참조)과 인간 왕의 통치 하에서 살아가는 명백히 새로운 출발이 이전에 길갈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사건들과 유사한 점들을 보았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부과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왕국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삼상 11:14

---

<sup>17</sup> Ibid., 67–68, 81–82. 반노이의 주장은 사무엘상 12 장이 길갈 집회에서 일어난 일(삼상 11:14-15)을 기술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삼상 12 장은 독립되고 독자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는 이 점을 따지는 것을 소홀히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자기 주장(127-130 쪽)을 잘 피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롱은 사울의 왕권이 일차적인 관심사라고 여긴다. 그는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울이 그렇게 하도록 기대되었던 대로 일찍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지(삼상 10:7)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V. Philips Long, *The Reign and Rejection of King Saul: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Coherence*, SBL Dissertation Series 118 [Atlanta: Scholars, 1989], 207–11, 225–28 을 보라.

<sup>18</sup> Cf. Lyle M.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uel 1–12* (Sheffield: Almond, 1985), 378–80.

<sup>19</sup> 나의 책 *No Falling Words: Expositions of the Book of Joshua* (Christian Focus, 2000), 31–49 [= 여호수아 주해, 31-35(4 장 성례의 여행)]에 나오는 강해를 보라.

NEB). 이것은 사무엘보다 더 크신 분이 마 6:33 에서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요구가 아닌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본다면, 그는 자신이 이미 마 5:17-6:34 을 통해 그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깊고도 엄중한 왕의 요구들을 듣는 동안,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베풀마저 너털너털하게 남겨놓으신다. 그들이 기독교인의 삶이란 여호와와의 통치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이 주해는 "암몬 정신"(=하나님 백성을 불구로 만들고 파괴하고 목졸라 죽이는 것)의 역사적 혹은 현대적 예들을 더 제시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예들을 찾을 수 있는가?
2. 사무엘상 11 장의 기브아와 사사기 19-21 장의 기브아 사이에 있는 큰 대조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여러분에게 알려진 기브아들이 있는가?
3. 우리가 오늘날 때때로 성령님의 능력을 제도와 교회 구조들로 대체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가?
4. 만일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하지 않을 적절한 이유라도 있는가?

## 11. 언약 갱신: 질책과 격려 (삼상 12 장 Covenant-Accusing and Assuring)

나는 전에 발목에 족쇄를 차고 병실에서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친구는 걸을 수 있었지만(발 수갑 사이에 짧은 사슬이 달려 있었음) 쉽게 걸을 수는 없었다. 한 법무관이 따라가며 그가 극도로 제한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 남자는 묶여 있었고, 속박되어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언약”을 뜻하는 성경 용어 [브리트]가 “걸쇠” 혹은 “족쇄”를 의미하는 아카드어 용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sup>1</sup> 비록 그 유래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이미지는 정확히 언약의 영향을 암시한다. 그것은 묶는다. 그것은 당사자들, 특히 “대왕”이 부과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봉신들에게 언약의 준수 조항이란 족쇄를 채운다. 봉신에게 부과되는 일차적인 의무는 항상 그의 종주요 시혜자인 대왕께 대한 온전하고 나누이지 않고 배타적인 충성을 위한 것이었다.<sup>2</sup> 그러나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에 대한 열망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유일한 대왕이신 여호와를 거부했다(삼상 8:7-8; 10:17-19; 12:12, 17). 그들은 왕을 구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렸다. 따라서 이 언약은 반드시 갱신되어야 했다.<sup>3</sup>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갱신은 길갈 집회에서 사무엘의 의제를 구성한다. (신약의 전설적인 기독교인은 이 본문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기독교인도 동일한 언약 관계 속에 있다. 신약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오직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마 6:24]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사무엘상 12 장에 의하면, 언약은 하나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이자 좋은 소식이다. 이제 본문에 대한 강해로 나아가자.<sup>4</sup>

### I. 우리에게 불리한 주장 (삼상 12:1-15 The Case Against Us)

이 부분은 쉽게 세 개의 소부분으로 나뉜다. 각 소부분은 두 번째 절(삼상 12:2, 7) 혹은 첫 번째 절(삼상 12:13)을 히브리어 접속사와 불변화사가 결합된 [브아타] (“and now”)로 시작한다.<sup>5</sup>

<sup>1</sup> Cf. M. Weinfeld, *TDOT*, 2:253–56.

<sup>2</sup> Meredith G. 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63), 14–15.

<sup>3</sup> J. Robert Vannoy, *Covenant Renewal at Gilgal: A Study of 1 Samuel 11:14–12:25* (Cherry Hill, NJ.: Mack, 1978), 176–81.

<sup>4</sup> 사무엘상 12 장은 수많은 비평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이다.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평주의 역사를 추적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노이의 *Covenant Renewal at Gilgal*, 95–131, 197–239.에서 편리한 요약물을 발견할 것이다. 사무엘상 12 장의 배경으로서 길갈에 대해서는 Lyle M.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uel 1–12* (Sheffield: Almond, 1985), 383–84 을 보라.

<sup>5</sup> [역자 주] 삼상 12:2, 7, 13 에 나오는 [브아타]에 대하여 NIV 는 “Now ... Now then ... Now ...”로 번역했고, ESV 는 “And now ... Now ... And now ...”로 번역했다. 공동번역은 “이제부터는 ... (그러니) 이제 ... 이제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무엘의 "공판"과 변호, 12:1-5

이스라엘의 비난과 죄책, 12:6-12

여호와와의 묵인과 대안, 12:13-15

사무엘의 일차적인 부담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이다(삼상 12:7 이하; NEB 의 삼상 12:7 참조).<sup>6</sup> 그러나 먼저 필요한 전주곡으로서 그는 자신의 지도력을 옹호하는 이스라엘의 증언을 얻는다(삼상 12:2-5). 사무엘은 자기 나이나 자기 아들들을 감출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삼상 12:2),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 증언해 보라고 도전한다. "내가 남의 소나 나귀를 가로챈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짓밟았거나 억압한 적이 있느냐? 무엇을 눈감아 주려고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재물을 속여 빼앗았느냐? 내가 돈세탁을 한 적이 있느냐?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 모든 테이프를 재생하라. 내가 어디서 어떻게 불의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에 판사 이스라엘은 피고 사무엘의 무죄를 완전히 입증한다(삼상 12:4-5). 그의 인격과 지도력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결함이 없었다.

이를 통해 피고 사무엘은 검사로 전환되어 피의자 이스라엘을 심문한다. 사무엘도 신실했고(삼상 12:2-5) 여호와께서도 신실하셨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의 "의로운 일들"을 되짚었다(삼상 12:7 이하; 삼상 8장과 관련된 논의 참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는 패턴, 즉 위기,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지도자들을 통한 구원이라는 패턴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있었던 속박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통해 구원을 가져오셨다(삼상 12:8). 그것은 사사 시대 내내 동일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들에 의한 억압(삼상 12:9), 도움과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삼상 12:10),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서는" 여룹바알, 베단(바락?),<sup>7</sup> 입다, 사무엘 등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을 "보내셨다(삼상

---

...로 번역했다. 개역개정은 "이제 ... [생략] ... 이제 ..."로 번역했고, 다른 한글 성경들도 대체로 하나나 둘을 생략했다.

<sup>6</sup> [역자 주] NEB 삼상 12:7 Now stand up, and 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I will **put the case against you** and recite all the victories which he has won for you and for your fathers.

<sup>7</sup> [역자 주] 히브리어 이름 יִרְמְיָהּ[브단]은 삼상 12:11 과 대상 7:17 에 나온다. 개역개정은 "베단"과 "브단"으로 다르게 음역했다. Japhet(*I & II Chronicles*, 176-177)은 므낫세-마길-길르앗-헤벨-슬로브핫-다섯 명의 딸의 계보와 므낫세-마길-길르앗-베레스-울람-브단의 계보를 다른 이름들과 함께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삼상 12:11 과 대상 7:17 에 나오는 [브단]은 동명이인이다. 삼상 12:11 의 [브단](개역개정 "베단")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우선, 베단은 사사시대에 사사로 활동했지만 사사기에 언급되지 않은 인물로 볼

12:11)." 그럴지라도 가장 현대적인 위기는 항상 최악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위급 상황에서 여호와의 "의로운 일들"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억상실증 속에 녹아버린다. 여기 시력의 파괴를 일으키는 나하스(앞 장 참조)가 있다. 왕에 대한 요구 외에는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 없다.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와야 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진정한 대왕께 호소하지 않는다.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적절한 지도자를 보내실 수 있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도움이 여호와의 입증된 팔에 있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정부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들의 구호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왕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파멸시키십시오."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왕이 있었다(삼상 12:13). 양자택일의 길이 백성과 왕에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아래서 신실하게 살 수도 있고(삼상 12:14), 여호와의 손 아래서 상응하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삼상 12:15). 그러나 사무엘의 강조는 이스라엘의 반역적 불신에 있다. 다음 삼상 12:12의 말씀을 읽어보라.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

수 있다(Frolov, *JBL* 126 [2007]:164-167). 그러나 "베단"에 대하여 사사기에 알려진 인물과 일치시키려는 많은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은 "바락"으로 번역한다. 삼상 12:11의 "기드온, 베단, 입다, 사무엘"과 히 11:32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은 비슷한 순서를 갖고 있다. 삼상 12:9의 시스라에 대한 언급은 바락과 잘 연결이 된다. 많은 학자들이 베단을 바락으로 여긴다. 베단과 바락을 일치시키는 설명으로 자음을 혼동한 서기관의 실수(Youngblood, 131), 자음들의 음성학적 변천(Tsumura, *VT* 45 [1995]: 122-123; *I Samuel*, 323, n. 36) 등이 제시된다. 둘째로, [브단]은 [벤단] "단의 아들"의 축소형으로 단 지파 출신 사사 삼손과 동일시된다(Kimchi, *Babylonian Talmud*). 셋째로, [브단]은 소사사 압돈(삿 12:13, 15; Jacobson, *VT* 42 [1992]:123-124; *VT* 44 [1994]:108-109; Birth, 142에서 인용) 혹은 야일(삿 10:3, 5; cf. 대상 7:17; KD에서 설명)과 동일시된다. 한 고대 역본은 드보라로 읽기도 한다(*ABD*, I:633). 넷째로, Zakovitch(*VT* 22/1 [1972]: 123-25)는 베단을 삼손이나 압돈과 동일시하는 입장을 반박하며 대상 7:17에서 [브단]이 므낫세 지파인 것과 사사기에 입다가 므낫세 지파인 것을 근거로 베단을 입다와 동일시한다. 그는 "여룹바알, 베단, 사무엘"이 원래의 독법이고 "여룹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은 여룹바알이 기드온인 것처럼 베단이 입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입다가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세푸스(*Ant* 6 §90)는 삼상 12:11을 인용할 때 기드온과 입다만을 언급한다(*ABD* I:633). 참고로, "사무엘" 대신 "삼손"으로 읽는 독법을 갖는 것은 칠십인역의 루시안 교정본과 페시타역이고, McCarter(*I Samuel* AB 8, 208)와 NRSV가 따르고 있지만 Gordon(*I & II Samuel*, 128)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학자들은 대체로 어려운 독법인 "사무엘"을 따르고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의 조용한 태도 속으로 빠져들기 위해 암몬 사람의 난동에 직면할 필요는 없다. 가장 최근의 위기(때때로 우리가 부르는 마지막 한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생각한다. "이 경우에 그분은 공급하실 수 없다. 이 경우에 그분은 나를 위한 어떤 공급도 갖고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 매우 조용하고, 사적이고, 억제되며, 믿음이 없다.

## II.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 (삼상 12:16-19 The Fear Upon Us)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만약 사무엘이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다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과장된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무엘은 서둘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삼상 12:16-17).

여러분은 자녀나 부모나 친구와 논쟁하며, 이성과 논리와 감각이 스며든 논쟁, 곧 허점이 없고 모면할 수 없는 논쟁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빈틈없는 주장이 설득에 실패했음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들의 방어벽을 뚫지 못한 적은 없는가? 사무엘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지혜와 이성을 통해 확고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음을 알았다(삼상 12:6-12). 그러나 사무엘이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두꺼운 장벽을 통과하지 못했다. 사무엘은 시각적 도움 없이는 구두 진리가 이스라엘을 여전히 냉랭한 상태로 남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삼상 12:6-12), 양자택일의 길을 제시하고(삼상 13-15), 재빨리 여호와께서 천둥과 비가 곧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했다(삼상 12:16-17). 천상의 우레 소리가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아야 했다.

물론, 귀청이 터질 것 같고 흠뻑 적시는 뇌우는 분명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지만, 단지 내리치는 천둥과 쏟아지는 비가 과연 이스라엘이 표현한 그러한 두려움, (왕을 요구한) 사악함에 대한 그러한 확신, 중보자를 찾는 그러한 긴급성을 갖도록 한 것일까(삼상 12:18-19)? 왜 갑자기 이러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은 이것이 **단순한** 천둥과 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지금이 밀을 추수하는 때(곧 건기의 시작인 5-6 월)이라고 말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이애미에서 현충일에 6 인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 시기에 비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sup>8</sup>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은

---

<sup>8</sup> *IDB*, 3:622-23 과 *ZPEB*, 4:579 그리고 George Adam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d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n.d.), 65 을 보라.

사람들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았다.

만약 뇌우가 징조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 손에 들고 계신 파멸의 도구들이 무엇이며, 얼마나 쉽게 그것들이 그들과 그들의 소유물에 영향을 주도록 하실 수 있는지"를<sup>9</sup> 보여주었다. 그것은 언약 저주들이 정경 문서(레 26:14-46; 신 28:15-68)에 보관된 공식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심지어 가장 가능성이 없는 때에도, 그것들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위협임을 보여주었다.<sup>10</sup> (삼상 8 장과 10 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평가와 앞의 삼상 12:12 에 나오는 평가와 대조적으로)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왕에 대한 열망에 관한 여호와와의 평가를 보여주었다.

마침내 그 요점이 파악되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죄를 볼 때야 비로소 그 죄로부터 돌아설 희망이 있다.

우리 부엌에는 아주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있었다. 냉장고나 레인지에서가 아니라 통조림과 건조 식품을 보관하는 캐비닛에서 나오는 냄새였다. 몇 번의 피상적인 조사를 통해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 냄새가 계속되자 내 궁금증도 계속되었다. 가설을 세워 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쥐가 죽어 굳어가면서 우리에게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 원인을 발견하기 전까지 악취는 계속되었다. 내부 압력을 못 이기고 팽창하여 터진 사우어크라우트 통조림에서 내용물이 흘러나오면서 풍기는 냄새였다. 아마도 식품 공장이 만든 불량품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불쾌한 냄새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삼상 12:16-19 은 사우어크라우트 통조림 경우와 비슷한 것 같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묘한 우상 숭배가 그분께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놀라거나, 그것에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것을

---

<sup>9</sup> 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199. 블레이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농작물[밀 수확물]을 모으고 있거나 모으려고 한다. 그래서 날씨가 고요하고 잔잔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기도할 것이며, 그분은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한 시간 안에 여러분이 몇 달 동안 정성껏 돌보아 온 농작물을 망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증거였다."

<sup>10</sup> Vannoy, *Covenant Renewal at Gilgal*, 47; also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120.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각인시키시려고 그분의 거룩한 진노의 표시를 통해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셨다. 여호와와의 의로운 분노에 대한 두려움(삼상 12:18)은 백성이 회개의 길로 나아가도록 했다(삼상 12:19).

두려움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허튼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지 마라.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골로새서 3장에서 5절 다음에 6절을 썼는가?<sup>11</sup>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떨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떨어야 한다. 교회나 개별 기독교인은 모두 진실한 공포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와 그분의 불쾌함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저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떨며 회복되는 것을 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엄중하심을 둘 다 본다(롬 11:22). 여호와께서는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로서 두려움을 의도하신다(삼상 12:20-25)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친 것은 바로 은혜였다. ..." 그것은 우리를 다음 요점으로 인도한다.

### III. 우리에게 임한 은혜 (삼상 12:20-25 The Grace Over Us)

자기 백성들이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모든 위장을 벗겨내면 반역에 불과한 자신의 길을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의 죄악이 실제로 얼마나 추악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신다(삼상 12:20). 여기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 사무엘을 통한 그분의 완전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삼상 12:20-21, 24)

여러분은 이해했는가? 다시 돌아가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 비극적인 실수, 여러분의 삶을 틀어지게 한 "큰 실수"를 다시 떠올리지 말라. 반역에 대한 기억에 마음을 담그고 재생 단추를 눌러 끄찍하고 정확한 세부 사항을 보며 지저분한 에피소드 전체를 거둬들여 살피지 말라. 마치 그러한 불행이 속죄를 주는 것처럼 말이다. 아니,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여호와께 대한

---

<sup>11</sup> [역자 주: 골 3:5-6 개역개정]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기본적이고 단순한 충성을 바치며 나아가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삼상 12:24)."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왜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여전히 상대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삼상 12:22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결정은 한 백성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지시는 것이고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가지실 것이다! 그분은 그 결정을 결코 반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그분의 전체 명성(이름)은 그것에 싸여 있다.

몇 년 동안 우리 집에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 샤워할 때 변기의 대변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불문율의 근거는 자비로운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매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사적인 말이지만) 당신은 깨끗이 씻는 일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다른 가족이 변기의 대변을 내리면, 그것은 어쨌든 차가운 물을 독점하고 당신에게는 샤워기에 뜨거운 물과 당신의 입술에 선명한 위협만을 남겨둔다. 나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의 열 살짜리 아들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대변을 내려가게 하자마자 그는 후회하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리 태연해지더니 화장실을 나가면서 소음보다 더 크게 떠들어대며 "두들겨 패시면 안 돼요. 제 아버지이시니까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이니까 아버지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에게 할 일에 제한이 있었다. 그것이 사무엘이 삼상 12:22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그분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이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삼상 12:22a, 24a)."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여러분의 죄의 모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은 충절을 다해야 한다. 낙담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린 "대실수"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비참한 죄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삼상 12:22을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온 조명으로 그것이 당신에게 깜박이게 하실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롬 5:20b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같은 일이다.

그렇다면 삼상 12:16-25에는 이중 강조가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큰 악을 보아야

한다(삼상 12:16-19).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와 큰 변함없는 모습도 보아야 한다(삼상 12:20-25). 후자만이 여러분을 전자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 IV. 우리를 위한 사람 (삼상 12:23 The Man for Us)

여호와께서는 또한 자기 백성의 복지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몰두하는 종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은혜(이전의 논의 참조)를 보여주신다. (삼상 12:19 에서 이스라엘이 간청한 것에 대해 응답하며) 사무엘이 말한 자신의 임무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삼상 12:23)." 거부당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기를 거절하신다면, 거부당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는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와 교육("너희에게 가르치리라")의 사역을 둘 다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아마도 우리는 보통 제사장과 관련하여 중보 기도를 생각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들이 중보 기도를 했거나 중보 기도를 할 것이라고 가정되었다(모세: 출 32:11-14, 30-32; 민 14:13-19; 시 106:23; 아모스: 암 7:1-6; 예레미야: 렘 7:16; 11:14; 14:11; 참고, 15:1).<sup>12</sup> 사무엘은 제사장적 중보 기도와 선지자적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했다. (또한 행 6:4 에서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한 것과 비교하라.)

이제 우리에게서 그러한 직분에 있어서 사무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계신다. 이스라엘 못지 않게, 우리가 얼마나 그를 필요로 하는지! 확실히 현대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만이 불성실한 백성이라고 가정하는 오만함을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서 있다고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사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그의 멩에를 메고 그에게서 배우라고 부르시는 분이다(마 11:29; 참조, 요 15:15b). 그 사람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 계셔서 약하고 죄 많고 흔들리고 언약을 어기는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다(히 7:25).

---

<sup>12</sup> 나는 사무엘의 중보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91-92 에 빚지고 있다.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구약의 인물들을 신약의 인물들과 비교할 때 덜 호의적으로 그리고 무시하는 자세로 본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의 지도력에 있어서 그의 청렴함에 대한 훌륭한 기록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가?
2. 하나님께서 완전히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변론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3. 우리는 고통이나 두려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신체적 손상을 경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려움의 기능은 무엇인가?
4.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5.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서 계신다. 신자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가?

## 12. 왕관의 변색 (삼상 13 장 Tarnish on the Crown)

내 삼촌 중 한 분이 아내를 위해 도자기 찬장을 옮길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삼촌은 혼자서 도자기를 넣은 채 찬장을 옮겼다! 새 위치에 잘 맞지 않아서, 그는 썰매 망치를 사용하여 그것을 적절한 마지막 위치로 획 집어넣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자기는 깨져버렸다. 파멸은 그렇게 갑자기 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3 장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이다. 확실히 사무엘상 12 장은 왕권에 대한 우리의 들뜬 낙관론을 깨뜨리지만 징계를 통한 희망을 우리에게 남긴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13 장에 이른다. 우리는 사울의 통치에 대한 공적인 소개인 삼상 13:1의 관례적인 공식을 읽으며—누가 본문에서 숫자를 지웠는지<sup>1</sup> 묻는 것을 멈춘 후에—적어도 사울의 지배에서 나올 만한 괜찮은 것을 기대했다. 우리는 왕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무력함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사무엘상 13 장은 그 자체로 서 있지 않다. 13 장과 14 장이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그러나 사무엘상 13 장이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를 담고 있으므로, 다소 인위적일지라도 나는 13 장을 따로 숙고하기 위해 14 장과 분리했다. 다음 과에서는 13 장과 14 장의 통합된 구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 동안 13 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개요를 통해 검토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배경, 삼상 13:2-7

사울의 군대, 2

요나단의 성공, 3-4a

사울의 군대, 4b

이스라엘의 연약함, 5-7a

사울의 군대, 7b

대화, 삼상 13:8-15

사울이 기다림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음, 8

---

<sup>1</sup> 삼상 13:1의 본문 문제는 악명이 높다. 논의를 위해서 V. Philips Long, *The Reign and Rejection of King Saul: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Coherence*, SBL Dissertation Series 118 (Atlanta: Scholars, 1989), 71-75을 보라.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 과의 마지막에 있는 [역자 주: 삼상 13:1의 본문 문제]를 참고하라.

사울이 행동함

사무엘이 도착함, 9-10

사울의 설명, 11-12

사무엘의 선언, 13-14

사무엘의 떠나감, 15a

사울의 준비, 15b

설명(매우 나쁜 상황), 삼상 13:16-23

블레셋이 자유롭게 노략함, 16-18

블레셋이 무기를 통제함, 19-22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사무엘상 13 장의 주요 강조점을 살펴보자.

### I. 문제의 조짐 (A Hint of Trouble)

요나단이 게바(삼상 13:3)에서 블레셋 총독(NJB, NJPS 참조)이나 블레셋 수비대(RSV, NASB)를— 둘 중 어느 쪽이든—격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환호할 이유가 충분하다.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될 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 요나단은 이 초기 성공의 선구자이다. 그것은 우리들 중 일부를 불안하게 한다. 분명히 우리는 그의 용감함에 감탄한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이 아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지 왕이 아니다. 왜 사울이 주도권을 잡지 않았는가? 왜 왕은 이스라엘 앞에 나가 싸우지(삼상 8:20) 않았는가? 물론 보도 자료는 그 위업을 사울의 것으로 돌렸지만(삼상 13:4) 온 이스라엘은 누가 그 보도 자료를 승인했는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요나단의 성공은 사울의 부족과 결핍을 지적하는 것인가? 결국 사무엘상 14 장만이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그분의 더 “공인된” 종들이 주저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는 날에 기꺼이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줄 다른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성공회 사제들이 그들의 건물에서 같은 복음을 전했다라면, 조지 횃필드가 들판에서 설교하는 거친 관행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sup>2</sup>

---

<sup>2</sup> Cf. Arnold A. Dallimore, *George Whitefield: The Life and Times of the Great Evangelist of the Eighteenth-Century Revival*, 2 vols. (Westchester, Ill.: Cornerstone, 1970), 1:334–38.

## II. 순종의 실패 (A Failure of Obedience)

정말 중요한 것은 삼상 13:8-15 에 나오는 대화 부분, 특히 삼상 13:11-14 의 사울의 설명과 사무엘의 선언 부분에서 일어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목을 조르고 있지만, 그것은 왕의 불순종이란 더 중요한 문제 옆에서 흐릿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울의 불순종을 탓할 수 있는가? 형벌이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사울의 설명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 사울이 7 일 동안(삼상 10:8 참조), 혹은 적어도 7 일이 될 때까지 사무엘을 기다렸고, 그의 군대는 그에게서 흩어지고 있고, 그가 아는 바로는 적이 순식간에 자신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울이 행했던 것처럼 하었다고 하여 그를 비난하거나 처벌할 수 있겠는가? 그는 비난보다는 이해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는 처벌보다는 공감의 필요하지 않은가? 독자는 자신의 상황에서 사울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설명이 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sup>3</sup>

그렇다면 사울이 느꼈던 압박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요단 강 근처의 길갈(12a)에서 그를 공격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울은 사무엘의 이전 지시(삼상 10:8)에 따라 이스라엘을 길갈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길갈 또한 고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없이 그곳에 집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sup>4</sup>

사울은 또한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다. “당신은[강조되어 있음]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습니까(삼상 13:11).” 사울은 삼상 10:8 에서 주어진 사무엘의 원래 지시를 떠올린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삼상 10:8)

사울은 일곱째 날까지 기다렸지만, 그날 하루 종일 기다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삼상 13:10a 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

<sup>3</sup> Robert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9), 128-31 은 이 내러티브가 자기 위주의 사무엘이 사울을 선지자에게 수동적이고 굴종하도록 만들려는 결심을 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폴진의 이해가 지나치게 미묘하다. 만약 내레이터가 사무엘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무엘의 말(삼상 13:13-14)을 내러티브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sup>4</sup> 사무엘상 12 장에서 길갈은 언약 갱신의 장소이지만, 사무엘상 13 장에서 길갈은 왕의 실패의 장소이다.

도착을 기다렸다가("내가 너에게 올 때까지") 전투 수행에 관한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에게 블레셋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줄 예정이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의 임무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 없이 진행했다. 사울에게 제사 의식은 필수적이었지만(삼상 13:12b) 선지자의 지시는 없어도 되는 것이었다. 사울의 행위는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복종 행위였다. 사울은 그의 행동을 통해 특정한 긴급 상황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긴급한 상황이 되면 왕권은 단독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말이다.

왕권은 그런 미묘한(또는 그렇게 미묘하지 않은) 자부심을 갖기 쉽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 세는 예배에 참석할 때 무례하기로 악명 높았다. 한 번은 로버트 브루스가 설교하는 동안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그의 좌석에 앉아 있었다. 제임스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설교 도중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브루스가 잠시 말을 멈추자 왕은 입을 다물었다. 목사는 다시 시작했고 왕도 다시 시작했다. 브루스는 두 번째로 말을 멈추었다. 왕도 역시 말을 멈추었다. 왕이 세 번째로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브루스는 돌아서서 제임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가장 현명한 왕의 표현이라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사자가 울부짖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은 조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지금 그의 복음의 목소리로 포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묵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작은 왕들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sup>5</sup> 왕들은 그들도 신하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들은 제임스 왕처럼 밭살스럽고 노골적으로, 또는 사울 왕처럼 조용하고 미묘하게, 진정한 대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도 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일차적으로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책망했다(삼상 13:13a, 14b). 이 때문에 사울은 지속되는 왕조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사울 자신을 거부하시는 것(삼상 15 장 참조)이 아니라, 사울 계보의 왕들을 거부하고 계신다.

그러나 더 즉각적이고 더 슬픈 손실이 있다. 그것은 지리적 설명에 다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놓칠 수 있는 손실이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육백 명가량이라(삼상 13:15)."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갔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난을 면하려고 숨었다(삼상 13:6-7). 무기는 구할 수 없었다(삼상 13:19-22). 침입자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활보하고 있었다(삼상 13:17-18). 사울과 함께 있던 군대는 사기가 저하되었다(삼상 13:7). 그러나

---

<sup>5</sup> D. C. MacNicol, *Robert Bruce: Minister in the Kirk of Edinburgh* (1907; reprint ed., n.p.: Banner of Truth, 1961), 38.

사울에게 있어서 최악의 장애는 그가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와의 지시 없이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박탈당하는 것은 참으로 피폐해지고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다.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것과 그 고통 속에 혼자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울은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즉 자신의 길을 위한 여호와와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래서 삼상 13:15 은 삼상 15:34-35a 와 삼상 28:25b 와 더불어 가장 슬픈 진술을 이루고 있다. 사울은 군대의 수를 셀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이제 사울은 혼자이다.<sup>6</sup>

### III. 무력함의 기운 (An Air of Hopelessness)

사무엘이 떠나버린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맞이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와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시가 없어졌다(삼상 13:8-15). 백성을 구원해야 할 왕으로서 사울은 그런 구원을 시작할 자원이 없다. 사울 자신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무력함에 기여하고 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의 일부이다.

사무엘상 13 장 전체는 이 절망감을 풍긴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의 지원이 없었다. 그들은 숨거나 도망쳤다(삼상 13:5-7). 그들은 요나단의 승리(삼상 13:3)를 여호와와의 호의와 도움의 징조로 삼지 않았다.<sup>7</sup> 블레셋 침입자들에 대한 방어가 없었다. 블레셋의 세 파견대가 믹마스 진영을 떠나 하나는 북쪽으로(삼상 13:17b), 하나는 서쪽으로(삼상 13:18a), 하나는 남동쪽으로(삼상 13:18b) 진군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껏 활보하며 군림했다. 그것은 습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삼상 13:19-22). 이 구절들의 본문과 번역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문법적 문제를 다루는 주석들 참조) 전체적인 그림은 명확하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의 농기구의 날을 세우기 위해 블레셋으로 가야 했다. 물론 수수료도 지불해야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이 블레셋 괴물이 아직 마지막 남은 음식을 씹기

<sup>6</sup> 나는 사울의 곤경이 우리 나라 중상류 교회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거기에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을 위한 역동적인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재미있는 활동, 다양한 필요를 위한 지원 그룹,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적극적인 심방, 재능 있는 사람들과/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준 높은 음악 사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충실한 설교와 가르침이 부족하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혼자이다. 현란함이 있다해도 그것은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

<sup>7</sup> S. G. De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Paideia, 1978), 2:93.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 다음 사무엘상 13 장은 이스라엘의 무력함이란 주제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은 성경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절망에 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부터 너무 자주 보아온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무력감이 여호와와 구원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이다.

1862 년 어느 토요일 밤 햄튼 로드 근교에서 연방 구축함 미네소타호는 그렇게 암울해 보였다. 그날 남부 연합 장갑함인 버지니아(옛 메리맥)호는 해상전에 혁명을 일으켰다. 버지니아호는 이미 콩그레스호와 컴벌랜드호를 침몰시켰고, 미네소타호를 비롯한 3 척의 목선들이 서둘러 와서 도우려고 할 때, 그것들은 좌초했다. 버지니아호는 썰물 때문에 발이 묶인 미네소타호의 유효 거리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밤 동안 철수했다. 다음날 동이 튼 후 버지니아호는 확실히 침몰시킬 수 있는 무력한 먹이감을 향해 진격했다. 갑자기 보일러가 달린 뗏목처럼 보이는 것이 미네소타호 뒤쪽에서 버지니아호로 향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존 엘 워든이 지휘하는 연방 장갑함인 모니터호였다. 모니터호는 버지니아호와 4 시간 동안 결투했고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나 미네소타호는 구조되었다. 모니터호는 밤중에 도착해서 미네소타호 옆에 붙어서 계속 증기를 내뿜게 했다.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도움이 왔다.

그것은 자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남은 자들이 낙심하기를 거부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무력한 상태를 즐기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원을 창조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완전한 절망에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우리의 "설명들"은 과연 적절한가?
2. "사울에게 제사 의식은 필수적이었지만 선지자의 지시는 없어도 되는 것이었다." 마 23:23 의 마지막 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올바른 행위로 보고 있는가?
3. 사울의 경우와 암 8:11-12 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인 사무엘의 떠남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접근을 충분히 중시한다고 생각하는가?
4. 여러분은 무력함이 반드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가?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의 방향을 가리키게 할 수도 있는가?

[역자 주: 삼상 13:1 본문 문제]

1. 본문

1) MT :בֶן־שָׁנָה שָׁאוּל בְּמָלְכוֹ וּשְׁתֵּי שָׁנִים מָלַךְ עַל־יִשְׂרָאֵל: [벤-샤나 샤울 브몰호 우시테 샤님 말라흐 알-이스라엘]

①YLT: A son of a year [is] Saul in his reigning, yea, two years he hath reigned over Israel,

②Bergen: lit. Saul was the son of a year [= one year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uled over Israel two years.

Cf. KJV: Saul reigned one year; and when he had reigned two years over Israel,

Cf. ESV: Saul lived for one year and then became king, and when he had reigned for two years over Israel,

2) MT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들 (V. Philips Long, 71-75; Tsumura, 332-333)

①Targum: As a one-year-old in whom is no guilt was Saul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two years over Israel.

②고대 근동의 문헌에서처럼 저자가 사울의 통치 공식에 숫자를 의도적으로 누락(intentional lacunae)했다(G. Buccellati, "Nota: I Sam 13,1," *BeO* 5 [1963]: 29; A. K. Grayson, "Nota (1 Samuel 13:1)," *BeO* 5 [1963]: 86, 110; A. K. Grayson, *Assyrian and Babylonian Chronicles*, 72-73).

③통치 공식이 아니고 시적 병행구(poetic parallelism)이다(R. Althann, "1 Sam 13,1: A Poetic Couplet," *Bib* 62 [1981]: 241-46). "More than [*bn* = comparative *b* + affirmative *n*] a year had Saul been reigning, even two years had he been reigning over Israel." [← 숫자 1 이 히브리어 본문에 없으므로  $x/x+1$  의 병행의 예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④등극 나이는 몰라서 생략했고 통치 기간은 2 년이 적절하다. 이것은 신명기 사가의 연대기와 역사적 상황과 일치한다(M. Noth, *The History of Israel*, 176-78). [← 사울의 전체 통치 기간을 2 년으로 보는 것은 삼상 13-31 장에 나오는 사건들(특히 삼상 14:47-52)과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⑤Odyssey 19:179 에 나오는 "Minos, when nine years old, ruled Knossos."처럼 사울이 단지 한 살일 때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은 서사시적 전통(epic tradition)을 반영하는 것이다(C. H. Gordon, *The Common Background of Greek and Hebrew Civilization*, 228-29). [← 미노스가 9 살 때 통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다.]

- ⑥사울 통치를 2 년으로 줄인 것은 열왕기의 통치 공식처럼 의롭지 못한 왕의 통치 햇수가 짧았던 것처럼 사울의 통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암시하는 것(implicit judgment, unfavorable depiction)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치 공식에 대한 이런 비문자적 해석은 구약에 다른 예가 없다(Long, 74-75).
- ⑦[벤 샤나]는 1 년된 희생 제물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레 23:18; 민 29:36). 숫자 1 이 없으므로 여기 [벤 샤나]는 “한 살 a year old” 혹은 “어떤 나이 a certain age”를 의미할 수 있다. 왕하 8:26(=대상 22:2)에 아하시야가 일 년([샤나 아하트])을 통치했다고 할 때 숫자 1 이 나오지만 우가릿어 ym wtn “a day and two (days)”에서처럼 수가 연속될 경우 숫자 1 을 쓰지 않아도 1 이 암시된다. 그렇다면 숫자 2 는 가장 작은 수라 할 수 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을 2 년이라고 한 것은 저자(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짧은 기간(a very short period)의 통치를 나타내는 아이러니한(ironic) 표현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왕이었을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2 년 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통치를 한 왕에 불과하였다(Tsumura, 33).
- ⑧1 년은 사적으로 기름 부음(삼상 10 장)에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삼상 11:14-15) 기간이고, 2 년은 공식 취임(삼상 13:1)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삼상 16 장) 때까지의 기간이다(Abrabanel, שְׁנָה, 234). 다시 말하면, “한 살”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된 때(삼상 10:1, 9)로부터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된 때(삼상 11:14-15)까지의 기간이고, 통치 기간 “2 년”은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된 때(11:14-15)부터 사무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폐위 선고(삼상 15:23, 26, 28)때까지의 기간이다(김구원, 269).

## 2. 역본들과 다른 자료

### 1) 등극 나이 30 세와 통치 기간 42 년

- ①칠십인역의 대부분의 사본에서 삼상 13:1 이 생략되어 있으나 일부 사본에 등극 나이가 30 으로 나온다. LXX<sup>B</sup> 는 삼상 13:1 이 생략되어 있다. LXX<sup>L</sup> 는 사울이 왕이 된 나이로 30 을 넣고 있다.
- ②NIV: Saul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over Israel [forty]-two years 로 번역하였다.
- ③새번역: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 해였다.

④쉬운성경: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습니다. 그는 사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2) 등극 나이 40 세와 통치 기간 40 년 (/32 년/? 2 년)

①행 13: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②R. P. Gordon(132)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사울의 통치 기간을 20 년(*Antiquities* x. 8. 4 [=10.143])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40 년(*Ant.* vi. 14. 9 [= 6.378])으로 보았다.

③번역

- NASB: Saul was [forty]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thirty]-two years over Israel.

- 개역개정: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

- 우리말성경: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 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 년이 됐을 때

- Cf. KJV: Saul reigned one year; and when he had reigned two years over Israel,

- Cf. ESV: Saul lived for one year and then became king, and when he had reigned for two years over Israel,

- 위의 번역들에서 NASB 는 전체 통치 기간으로 보고 32 년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개역개정과 우리말성경과 KJV 와 ESV 는 13:2 이하 사건이 사울의 통치 제 2 년에 일어난 것처럼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삼상 13:1 은 요약 진술이므로 13:2 이하의 사건이 일어난 통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메릴(Merrill, *Kingdom of Priests*, 192-194)은 사울의 등극 나이를 40 으로 보고 통치 기간을 40 년으로 보았다.

- 사울의 통치 초기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활약한 것(삼상 13:2-3)을 고려할 때 요나단이 30 세인 사울의 아들보다는 40 세인 사울의 아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울의 등극 나이는 40 살이 더 적합하다. 사울이 죽기 전에 손자가 있었던 사실(삼하 4:4)도 사울의 등극 나이가 30 세보다는 40 세가 더 적합한 것을 지지한다.

- 사울의 아들들로 삼상 14:47-51 은 요나단, 이스위(Ishvi), 말기수아를 언급하고 대상 8:33; 9:39 은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언급한다. 이스위와 아비나답은 동일한 아들(삼상 31:2; 대상 10:2)인 것으로 보인다. 에스바알("바알의 사람")이 이스보셋("수치의 사람")과 동일인이고 40 살에 왕이 된 사실은 그가 사울이 죽기 35 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사울의 통치 초기 기간의 아들들 명단(삼상 14:47-51)에 이스보셋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 메릴은 바울이 행 13:21 에서 말한 사울 통치 기간 40 년을 뒷받침해주는 사실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 살이었다는 것(삼하 2:10)을 지적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 년 반을 다스리는 동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5 년간 다스리다가 이스보셋이 40 세가 된 해에 그를 왕으로 추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스보셋이 2 년간 통치하다가(삼하 2:8-11) 암살당했기(삼하 4:5-8) 때문이다.
- 이스보셋이 사울의 통치 초기까지 태어나지 않았고 사울이 죽을 때 35 세였다면 사울은 35 년 이상을 통치한 것이 된다.

### 3) 왕들의 등극 공식

① 사무엘서에서 등극 나이가 언급된 것은 사울과 이스보셋과 다윗이다.

- 삼상 13:1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30/40) 세이며 (2/32/40)년 동안 다스렸다.
- 삼하 2: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 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 삼하 5:4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되

② 열왕기에서 등극 공식에 등극 나이가 언급된 것은 아비야와 아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다 왕에게만 적용되었다(왕상 14:21 르호보암; 왕상 22:42 여호사밧; 왕하 8:17 여호람; 왕하 8:26 아하시야; 왕하 11:21-12:1 요아스; 왕하 14:2 아마샤; 왕하 15:2 아사랴/웃시야; 왕하 15:33 요담; 왕하 16:2; 아하스; 왕하 18:2 히스기야; 왕하 21:1 므낫세; 왕하 21:19 아몬; 왕하 22:1 요시야; 왕하 23:31 여호아하스; 왕하 23:36 여호야김; 왕하 24:8 여호야긴; 왕하 24:18 시드기야). 이스라엘 왕에게는 등극 나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 두 왕을 비교해보라.

####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하 13:10-13)

- 등극 공식: (왕하 13:10-12) (10) ㉠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삼십칠 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 **십육 년간** 다스리며 (11)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 사망 공식: (왕하 13:12-13) (12) ㉤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 ㉥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유다 왕 아사랴 (왕하 15:1-7)

- **등극 공식:** (왕하 15:1-4) (1)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칠** 년에 유다 왕 아사랴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2)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십육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간 다스리니라 (3)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4)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사랴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5)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 **중간 삽입 이야기:** (왕하 15:5) (5)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 **사망 공식:** (왕하 15:6-7) (6)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 삼상 13:1 의 번역

- 1) 사울은 왕이 될 때 어떤 나이였고 2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2) 사울은 왕이 될 때 나이가 ( ) 세였고 ( )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3) 사울은 왕이 될 때 나이가 40 세였고 40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13. 슬픈 성공 (삼상 14 장 Sad Success)

나는 미네소타의 준 프로 두 팀이 세기의 전환기에 치른 야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 두 팀은 9 회가 끝날 때까지 득점하지 못했다. 그러나 10 회 초에 벤슨 팀이 한 점을 득점했다. 10 회 말에 상대팀 월마르가 공격했다. 월마르의 투수 킬만이 안타를 쳤다. 다음 타자 오틀은 외야 깊숙한 곳에서 멋진 드라이브를 날렸다. 관중들은 관습대로 큰 소리를 질렀다. 킬만은 2 루를 돌아 3 루로 향했고 오틀이 그 뒤를 따라 달렸다. 킬만이 3 루에 도달했으나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오틀은 킬만을 앞지르지 않고 그를 부축해서 90 피트를 걸어 홈에 이르게 했다. 놀랍게도 심판은 두 점 모두를 인정했다. 월마르가 이겼다! 킬만은 승리 투수가 되었다. 그러나 킬만은 또한 죽었다. 그는 3 루에서 심부전으로 이미 죽었었다.<sup>1</sup> 성공에는 승리와 슬픔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4 장의 풍미이다.

저자는 시간을 들여 우리에게 보여줄 장면들을 묘사한다. 여기에는 계획(삼상 14:1)과 지도자들(삼상 14:2-3)과 장소(삼상 14:4-5)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온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것은 대단한 대담함이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삼상 14:1).” 내레이터는 좀 재밌는 정보를 덧붙인다. “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아마도 요나단은 사울이 그 모험을 금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당시 대담함은 사울의 장점이 아니었다. 아마도 요나단은 소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울이 그들을 석류 나무 아래 계속 앉아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요나단의 계략과 사울의 무지, 이것은 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요나단은 움직이고 있었고, 사울은 앉아 있었다. 그는 기브아의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있었다(삼상 14:2). 여기 삼상 14:2-3 절에서 저자는 지도자인 왕 사울(2 절)과 제사장 아히야(3 절)를 묘사한다. 무엇 때문에 그는 아히야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히야를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무 영광(이가봇)”이 태어난 그 어두운 날(삼상 4:19-22)을 기억나게 한다. 아히야를 “비느하스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고기를 좋아하고 여자를 뒤쫓아 다닌 제사장(삼상 2:12-17, 22-25)을 기억나게 한다. 아히야를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라고 부른 것은 엘리에게 그의 제사장 계보가 심판을 받아 배제될 것이라고 한 선언(삼상 2:27-36; 3:11-14)을

---

<sup>1</sup> *Bill Stern's Favorite Baseball Stories* (Garden City, N.Y.: Blue Ribbon Books, 1949), 7.

기억나게 한다.<sup>2</sup> 저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암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 지도자들이 있다. 거기 앉아 있는 사울은 이미 그의 왕조가 거절당한 왕이다(삼상 13:13-14). 사울은 이미 거절당한 계보의 제사장인 아히야의 도움을 받고 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공인된 선지자를 통한 지시가 없고, 그 대신 거절당한 계보의 제사장만 있다. 그런 왕과 그런 제사장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리에 대한 짧은 설명을 계속한다. 그래서 그는 요나단의 모험이 일어난 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삼상 14:4)

그는 하나는 믹마스 앞 북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게바 앞 남쪽에 있다고 덧붙인다. 그것들의 이름은 미끄러짐(보세스)과 가시 많음(세네)을 나타내므로 거기에 등산객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바위 사이에서 와디 수웨니트는 양쪽의 가파른 독을 사이에 두고 깊은 골을 내며 요단 강 쪽으로 흘러간다. 삼상 14:12-13 을 보면 대부분의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지점을 통과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sup>3</sup> 그 사실은 장점으로 판명될 것이다.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로써 충분할 것이다. 저자는 다소 무뚝뚝한 편이다. 여기에 (비밀인) 계획이 있다. 여기에 (거절당한) 지도자들이 있다. 여기에 (불가능한) 장소가 있다. 이제 그는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말한다(삼상 14:6).

## I. 믿음의 상상력 (삼상 14:6-23 The Imagination of Faith)

삼상 14:6 에 나오는 요나단의 진술은 광고판에 게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이 그의 환경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삼상 13:5-7, 8, 17-

---

<sup>2</sup> 데이빗 조블링(David Jobling)을 인용하고 있는 V. Philips Long, *The Reign and Rejection of King Saul: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Coherence*, SBL Dissertation Series 118 (Atlanta: Scholars, 1989), 105-6 그리고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I Sam. 13-31 & II Sam. 1)* (Assen/ Maastricht: Van Gorcum, 1986), 48-49 을 보라.

<sup>3</sup> 위치에 대해서는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106 을 보라.

18, 19-22 를 재빨리 다시 보면 거기에는 낙관론을 가질 근거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상황이 낙관론을 자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낙관론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낙관적이다. 그들은 철이 덜 들었다. 그러나 낙관할 이유가 없을 때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

믿음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요나단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나타낸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다시 주목하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은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며("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행동 방식("많은 사람에게 의해서든, 적은 사람에게 의해서든", 즉 그의 종들을 통해)을 인식한다.<sup>4</sup> 요나단은 자신의 대담한 계획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그는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영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대담함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 곧 여호와에 대한 진리에 뿌리를 둔 신뢰의 표현이다.

그러나 요나단의 믿음의 아름다움은 그 상상력이다("자, 건너가자 ...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의 아름다움은 그 균형이다. 요나단이 말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원으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금 이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지도** 모른다. 무기 드는 자여, 그분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sup>4</sup> [역자 주] 삼상 14:6 의 원문에 대한 영어 성경의 번역과 한글 성경의 번역이 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MT: אולי יַעֲשֶׂה יְהוָה לָנוּ כִּי אֵין לַיהוָה מַעְצוֹר לְהוֹשִׁיעַ בְּרַב אוּ בְּמִעוֹט [올라이 야아세 아도나이 라누 // 키 엔 라도나이 마초르 르호시아 브라브 오 빔아트]

ESV: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work for us, for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by many or by few.

YLT: it may be Jehovah doth work for us, for there is no restraint to Jehovah to save by many or by few.

NASB: perhaps the LORD will work for us, for the LORD is not restrained to save by many or by few."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직역: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에 의하든 소수에 의하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말하는 “누가 알겠느냐?”, 곧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를 듣는 것은 얼마나 상쾌한가! 그분이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적어도 그분은 떨고 있는 육백 명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요나단의 “혹시”를 듣는 것은 얼마나 상쾌한가!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혹시”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항상 확실하고 굳세며 절대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믿음은 오만함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요나단의 “혹시”는 그의 믿음의 일부이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자유를 받아들인다.<sup>5</sup> 믿음은 마치 만군의 여호와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처럼 하나님께 지시하지 않는다.<sup>6</sup> 믿음은 어느 정도의 무지를 인정하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기록을 읽은 적이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것의 흥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조시킨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것을 기뻐하실지 누가 알겠는가!

블레셋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는 와디 수웨니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

<sup>5</sup> [역자 주] Cf. Davis, *Joshua*, 124: 갈렙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에 대한 회상과 더불어 물러서지 않으며 믿음을 가지고 아낙 자손의 정복의 어려운 과제를 떠맡으려는 자세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갈렙이 אָוִלִי יְהוָה אֹתִי הַיּוֹרְשָׁתִים כְּאֲשֶׁר דִּבֶּר יְהוָה [올라이 아도나이 오티 브호라시킴 카아세르 디베르 아도나이] “혹시 [개역에 있었는데 개역개정에서 없어진 것은 유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 14:12)”라고 말한 것에서 “혹시”는 갈렙의 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인식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자유롭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신 것을(시 135:6)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출 23:29-30)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 주실 것으로 확신하였다. 믿음은 주권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명령하지 않으면서도(“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대로 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실 것이다”).

<sup>6</sup> John Whitecross, *The Shorter Catechism Illustrated from Christian Biography and History* (reprint ed., London: Banner of Truth, 1968), 105 에 이런 일화가 나온다. “분명히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은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비참하고 산만해진 어머니는 목사님을 가로막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라면’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놀랍게도, 그 아이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는 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스물 두 살에 공개 처형되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모험을 하게 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징을 제안했었다. 블레셋 수비대가 그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은 여호와와 청신호와 승리의 보장(삼상 14:9-10)이 될 것이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의 초대, 곧 문자적으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삼상 14:12)."고 한 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후반절은 도전일 수도 있다. 즉 NIV와 NJPS가 번역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한 수 가르쳐줄[본때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 요나단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말했다. 그것이 그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부였다.

수비대는 분명히 어떤 위협도 보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포커를 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돌아왔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어쨌든 전초 기지에서는 아마도 와디의 북쪽 벽을 오르는 요나단과 그의 동행자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는 높고 가파른 독을 기어올라 낡은 "미끄러움"을 무사히 통과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들을 쳤다. 요나단이 공격을 주도하였고, 그의 무기를 든 자는 따라가며 요나단이 엎드러뜨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삼상 14:13b). 이제 히브리인에게 또 한 수를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사람이 이십 명가량이 되었다(삼상 14:14).

이 갑작스러운 초동 공격은 공포와 혼란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히브리어 성경은 삼상 14:15에 "떨다, 겁에 질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어근 [하라드]를 세 번 반복하며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떨림(공포[하라다])이 진영과 들에, 모든 백성에게, 수비대와 노략자들에게 임했다. 정말 그들은 떨었다[하르두]. 땅이 진동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떨림(매우 큰 공포, 매우 큰 떨림 [헤르다트 엘로힘])이 되었다.

또 다른 (어떤 면에서의) 삼중 반복은 혼란을 강조한다. 저자는 두 절에서 "군중(삼상 14:16)" 또는 "혼란, 소동"(삼상 14:19, 즉 군중이 자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하몬]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는 삼상 14:20의 "매우 큰 혼란/소동이였다[므후마 그돌라 므오드]"란 마지막 구를 통해 블레셋의 공황 상태를 요약하며 [하몬]의 동족어인 [므후마]를 사용한다. 필요할 때 등을 돌렸던 히브리인들이 많이 합세했고(삼상 14:21-22) 계속 추격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핵심 표현(삼상 14:23a)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다. 요나단의 말이 옳았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께서 다수에 의해서든 소수에 의해서든 구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삼상 14:6b)."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왕과 함께 한 사람들의 수(삼상 13:15b; 14:2)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상력 있는 믿음, 즉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삼상 14:6)."라고 기꺼이 말했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 II. 비극의 기운 (삼상 14:24-46 The Air of Tragedy)

그러나 이 승리에는 먹구름이 있다.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축하할 수는 없었다. 저자는 삼상 14:24-46 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는 사무엘상 14 장 이야기의 첫 부분을 23 절의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마감했다. 이어서 그는 (히브리어 내러티브가 흔히 하는 것처럼) 삼상 14:24-26 에 나오는 보충 설명을 통해 이야기의 세부사항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는 이 보충 부분의 첫 줄을 시작할 때 이전 부분의 요약 진술과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는 진술을 한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삼상 14:23a 요약 진술)

그러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피곤[곤란/절박]하였다. (삼상 14:24a 보충 설명의 첫 문)

7

---

<sup>7</sup> 드라이버(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112)와 클라인(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30, 132)에 반대하며 나는 삼상 14:23 의 끝에 있는 칠십인역의 독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칠십인역은 맛소라 본문에 두 개의 문을 덧붙이고 있다.)

[역자 주: Klein 의 번역: 23 So Yahweh delivered Israel on that day. // And the battle moved past Beth Aven. 24 **All the troops, about 10,000 men were with Saul, and there were scattered battles in every city of Mt. Ephraim.** Saul committed a great error on that day by causing the troops to make this oath: "... None of the troops ate a thing.]

[역자 주: Brenton: 22 ... and the Lord saved Israel in that day; and the war passed through Bamoth; **and all the people with Saul were about ten thousand men. 23 And the battle extended itself to every city in the mount Ephraim.** 24 And Saul committed a great trespass of ignorance in that day, and he lays a curse on the people, saying, Cursed is the man who shall eat bread before the evening; so I will avenge myself on my enemy: and none of the people tasted bread, though all the land was dining.]

칠십인역은 이 추가 부분으로 인해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삼상 14:23a 와 24a 사이의 직접적인 대조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삼상 13:6 에 비추어 아이러니 가득한 24a 의 [니가시] 절("이스라엘 백성이 피곤/곤란/절박하였다.")도 빠뜨리고 있다. 삼상 14:24 의 번역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삼상 14:24 의 상반절은 뒤따르는 부분 전체의 제목이나 부제 역할을 하는 반면 하반절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왜 "피곤/곤란/절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저자는 이스라엘이 왜 "피곤/곤란/절박했는지"를 설명한다. 사울은 저녁 전에, 곧 분명히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전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군대의 탈진(삼상 14:25-31)과<sup>8</sup> 의식 위반(삼상 14:32-35; 참고, 레 17:10-14, 신 12:15-16, 20-25)이 일어났고, 하마터면 구원자가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삼상 14:36-46).<sup>9</sup> 저자는 삼상 13:6 과 삼상 14:24 에서 같은 동사 [니가시]를 반복 사용하여 아이러니를 잘 드러내고 있다. 삼상 13:6 에서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수의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으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았었다." 그러나 여기 삼상 14:24 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사울은 구원을 고통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상한 능력을 보여준다.

잠시, 나는 13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3 장과 14 장을 한꺼번에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저자가 그리는 요나단과 사울 사이의 생생한 대조를 더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에 드리워진 비극의 맛을 음미하기 위해 이 대조를 보아야 한다. 독자가 시간을 들여 아래에 제시된 구조에 비추어 사무엘상 13-14 장을 숙고한다면, 내가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할

---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에 매우 피곤/곤란/절박했다. ... 이제 사울은 군대를 맹세 아래 두었다 ..."

[역자 주: 삼상 13:6 과 삼상 14:24 에 [니가시]가 나온다. ESV 는 "13:6 When the men of Israel saw that they were in trouble (for the people were hard pressed), the people hid themselves in caves ..."와 "14:24 And the men of Israel had been hard pressed that day, ..."에서 보는 것처럼 [니가시]를 동일하게 "hard pressed"로 번역했다. 개역개정은 "절박하다"와 "피곤하다"로 번역했다. [니가시]는 "곤경에 처하다, 매우 곤란하다, 압박당하다, 절박하다, 매우 힘들다" 중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다.]

<sup>8</sup> 아얄론은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약 20 마일 떨어져 있었고, 지형은 캔사스 서부와 같이 평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군대가 탈진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다. "아얄론은 언덕이 평야로 넘어가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언덕 마을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115).

<sup>9</sup> 엘리슨(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58)의 날카로운 다음 논평을 참고하라. "사울의 맹세(24)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불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열심히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미신에 속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을 보류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자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의도했던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클라인(Klein, *1 Samuel*, 143)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설적으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한 것은 사울을 그 자신의 맹세의 저주(44 절)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나단의 성공 13:2-4	요나단의 성공 14:1-15	요나단의 지혜 14:27-30
이스라엘의 두려움 13:5-7	이스라엘의 구원 14:16-23	이스라엘의 범죄 14:31-35
사울의 어리석음 13:8-15	사울의 어리석음 14:24	사울의 어리석음 14:36-44
이스라엘의 곤경 13:16-23	이스라엘의 곤경 14:25-26	이스라엘의 개입 14:45-46

몇 가지 관찰 사항이 있다. (1) 세부사항을 억누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겠지만, 각 세로 열을 보면 전체 내러티브가 동일한 패턴을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울의 세 가지 “어리석음”과 대조되고 있는 요나단의 세 가지 긍정적인 그림이 있다.<sup>10</sup> (3) 이러한 대조에 비추어 볼 때, 사무엘상 11 장에서 사울의 행위와 관련하여 “구원하다”는 뜻의 어근 [야샤]가 세 번(삼상 11:3, 9, 13) 사용된 것과 사무엘상 14 장에서 요나단의 행위와 관련하여 동일한 어근이 세 번(삼상 14:6, 23, 45; 참고, 39 절 [여호와]) 사용된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다. 여기서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인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sup>11</sup>

본문에 정말 유감천만인 독자는 본능적으로 요나단이 왕재임을 감지한다. 그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비극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요나단은 결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확실히 그는 왕세자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왕조의 거부로 인해(삼상

<sup>10</sup> 요나단의 주도권(삼상 13:3-4)과 상상력(삼상 14:6-14)과 통찰력(삼상 14:27-30)은 사울의 불복종(삼상 13:8-15), 어리석음(삼상 14:24)과 무자비함(삼상 14:36-44)과 대비된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구원자를 구하기 위해 사울의 맹세와 반대되는 맹세를 해야만 했다(삼상 14:44-46)!

<sup>11</sup> 삼상 13-14 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는 자주 관찰되어 왔다. 예를 들어, Moshe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A Literary Study of Comparative Structures, Analogies and Parallels* (Jerusalem: Rubin Mass, 1990), 85-87, 92 을 보라.

13:13-14) 이미 왕으로는 거부되었다. 요나단은 결코 그가 가질 수 없는 왕위에 매우 적합하다.<sup>12</sup> 우리의 모든 “왜?” 그리고 “—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올 만하다. 왜 요나단은 사울 대신 왕이 될 수 없었을까? 왜 그는 다윗에게 세레 요한의 역할만 하게 되었는가? 왜 요나단은 배제되어야만 했는가? 왜 요나단의 기회들이 사울의 선택으로 무산되어야 했는가? 그것은 마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왜 우리는 여호와의 “실패한 길들”을 다시 만나야 하는가? 왜 이런 낭비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은 정상이다. 그것들은 또한 드러내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 곧 우리가 흡수한 서구 문화의 20-21 세기 시민들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 성취는 권리이다. 만약 우리가 독창성을 가지고 훈련을 잘 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추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쁘게 인정한다. 우리는 그런 도움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요나단은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나라는 사울의 것도 아니고 요나단의 것도 아니었다. 그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였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 나라는 차지할 그의 나라도 아니고 통치할 그의 나라도 아니라, 섬길 그의 나라였다. 나는 사무엘상의 나머지 부분이 나의 요점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충실하게 산다면 비극적인 삶이라도 비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 III. 역사의 평가 (삼상 14:47-52 The Judgment of History)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하의 두 번째 주요 부분(서론에 나오는 구조적 설명을 참고할 것)에 대한 요약 부분에 이르렀다. 여기에 사울의 통치에 대한 요약이 있다. (사울의 이야기는 15 장 이하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거기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보다는 다윗의 대조 인물로서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요약에 대해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것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친 사울적이다. 삼상 14:47-48 은 이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

<sup>12</sup>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103: “주어진 자’인 요나단은 이런 사람이 될 리 없다. 그 이유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다. 사울은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사울은 자신과 함께 그 빛나는 영웅을 자신의 몰락 속으로 끌어내린다.”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개역개정)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우리는 방금 사울을 부정적인 어조로 묘사하는 확장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이야기가 그 부정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듣는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진실을 원한다면, 우리는 둘 다 믿어야 한다. 삼상 14:47-48 은 우리가 역사의 평가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한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어떤 평가들이 비 역사적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역사의 평가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업적, 공헌, 상대적 성공(혹은 실패)을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역사의 평가는 한 사람의 삶과 일에 대한 외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자기의 족적을 만들고 그것을 잘 만들었다. 그는 동쪽(모압과 암몬), 남동쪽(에돔), 북동쪽(소바), 혹은 서쪽(블레셋) 등 향하는 곳마다 전쟁에 성공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나 역사라는 판사에게는 결정적인 판결이 없다. (우리는 자연을 대자연("Mother Nature")으로 신격화하듯이 역사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중차대한 평가는 역사 속의 사람들의 박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성공이 아니라 언약이다. 여호와와 승리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것이 삼상 13-14 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이다. 사울은 언약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실패하기 시작했다. 성경에서는 직분의 성취보다 언약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울에 대한 두 가지 평가, 즉 역사적 평가와 언약적 평가가 있다. 둘 다 사실이다. 전체 그림을 보면, 사울은 용감하고 군사적으로 성공한 왕이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 사무엘상 14 장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감사하며 인정하자. 두 가지 평가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만 중요하다. 사람은 역사적인 성공자이면서 언약의 실패자일 수 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참고, 눅 2:19).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많은 기독교인 전기들을 읽었다면, 여러분은 그것들 안에서나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인들에게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위해 대담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예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얼마나 대담한가?

2. "믿음은 하나님께 지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3. 요나단은 어리석은 아버지의 현명한 아들이었다. 여러분은 열왕기에서 결코 선하지 않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왕이 된 예들을 찾을 수 있는가?
4.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느끼는 당신 대신에 제 2 바이올린 연주나 할 사람이 리더가 되도록 정하셨다면, 당신은 제 2 바이올린을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5. "성경에서는 언약의 순종이 직분의 성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보라. 그것은 세상 가치들에 대한 얼마나 큰 반전인가?

## 제 3 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God's Heart)

사무엘상 15-31 장

## 14. 택하신 자를 버리심 (삼상 15 장 Rejecting the Chosen)

사무엘상 15 장은 사무엘서의 세 번째 주요 부분을 시작하는 장이다. 저자는 14:47-52의 공식 요약으로 사울의 통치를 마감했다. 사무엘상 15 장 이하에서 사울과 그의 통치는 다윗의 상승에 대한 대조와 배경을 이루고 있다. 사무엘상의 세 주요 부분(서론: 어디를 잘라 나눌 것인가를 참고하라)은 모두 이스라엘에 잠재적인 재난이 산재해 있는 위기 상황으로 시작한다. 제 1 부(삼상 1-7장)는 삼상 1장의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공하는 홉니와 비느하스의 스캔들(삼상 2 장)로 시작한다. 제 2 부(삼상 8-14 장)는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거부를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인간 왕에 대한 열망(삼상 8 장)으로 시작한다. 제 3 부(삼상 15-31 장)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것으로 시작한다. 확실히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를 사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큰 재앙으로 보았다. 그렇지 않다면 사무엘이 왜 그렇게 속상해하였겠는가(삼상 15:11, 35)?

사무엘은 사무엘상 15 장의 본질에 대하여 1 절에서 언급한다.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하십시오.”라고 명령한다. 이 장에서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는 뜻의 동사 어근 [샤마]가 8 번 나온다(삼상 15:1, 4, 14, 19, 20, 22[2 번], 24).<sup>1</sup> 그것은 언약 아래 있는 왕의 최우선 과제이다. 왕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이 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사무엘상 15 장은 길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의 구조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사울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선지자, 1

B 아말렉에 대한 복수, 2-3

---

<sup>1</sup> [역자 주] 삼상 15:4 과 15:22 의 경우 개역개정에서 שָׁמָע[샤마]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삼상 15:4 의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다**”에서 “소집했다”는 히브리어로 שָׁמָע[샤마] [바여샤마]이다. 이것은 어근 [샤마]의 피엘 어간이다. BDB 는 “he caused the people to hear and respond, i.e., he assembled them”로 풀이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다: “그가 백성으로 **듣(고 반응)하게 했다**. → 그가 백성을 **소집했다**.”

삼상 15:22 에서 어근 [샤마]를 사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שָׁמָע] 키시모아 as in obeying]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שָׁמָע] 시모아 to obey]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שָׁמָע] 르하크시브 to heed “귀 기울이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 C 사울의 불성실한 성공, 4-9
  - D 여호와의 말씀, 10-11a
    - E 사무엘의 응답, 11b [내러티브, 12]
      - F 사울의 고백, 13
        - G 사무엘의 질문, 14
          - H 사울의 설명, 15
  - D' 여호와의 말씀, 16a
    - E' 사울의 응답, 16b
      - F' 사무엘의 책망, 17-19
        - G' 사울의 항변, 20-21
          - H' 사무엘의 선언, 22-23
  - C' 사울의 피상적인 회개, 24-31
    - B' 아각에 대한 복수, 32-33
      - A' 사울을 떠나는 선지자, 34-35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15 장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 I. 복수가 주는 위로 (삼상 15:1-9, 18, 32-33 The Comfort of Vengeance)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삼상 15:2b-3)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었다(삼상 15:2a).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청중해야 했다(삼상 15:1).

그러나 어떤 독자들은 사울의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가혹한 명령에 신경이 쓰인다. “진멸하라!”는 말씀은<sup>2</sup> 끔찍하게 들린다. 어떻게 이런 명령이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

<sup>2</sup> NJB 의 “파괴의 저주 아래 두다 to put under the curse of destruction”(혹은 RSV 의 “완전히 파괴하다 to utterly destroy”, 혹은 개역개정 “진멸하다”)는 삼상 15 장에서 8 번 나오는 어근 [하람]의 동사(히프일 어간)형을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어근 [하람]은 동사로서 7 번(삼상 15: 3, 8, 9 [두 번], 15, 18, 20), 명사로서 1 번([헤렘] 삼상 15:21), 총 8 번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종종 소위 “금지령 아래 두는 것(to be placed under the ban)”을 나타내며, 사람과 장소와 사물이 이스라엘의 사용 범위 밖에 존재하므로 파괴에 의해 여호와께만 “바치거나(to be devoted to)” 불연성 귀금속인 경우 여호와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어야 하는

불쌍히 여기시는(시 145:9)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준다면 이렇다. 첫째로, 그것이 끔찍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로, 우리의 주장은 다만 성경이 참되다는 것이지, 성경의 불쾌한 부분이 다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셋째로, 여호와와 그의 복수는 거부될 것이 아니라 고결한(곧 정당한) 복수라면 찬사를 받아야 한다.

여호와와 아말렉에 대한 그분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신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에 대해 벌을 주려고 하신다(삼상 15:2b).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출 17:8-16). 모세는 그것이 치사한 공격이었음(신 25:18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찢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음”)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에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당부했다(신 25:17-19). 이 아말렉은 전멸되어야 했다(신 17:14-16; 신 25:19). 누군가 후손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무엘상 15 장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아말렉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사무엘이 현 세대의 아말렉 사람들을 죄인으로 지칭하고(삼상 15:18), 아각 왕의 처형을 위한 근거로 그의 전쟁 범죄를 언급하는 것에 유의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삼백 년이나 회개할 기회로 주셨다면, 여호와와 그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분의 백성이 위안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수에서이다! 여호와께서는 적들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미워하고 짓밟고 짓눌렀는지를 잊지 않으신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실 것이다(사 35:4)!”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살하고 압제하는 모든 사람을 진압하시고 타도하실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복수가 없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하게 좋은 소식, 곧 “온전한 복음”은 항상 “여호와와 그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사 61:2).”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호의를 누리고,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의 복수를 받는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이해해야 할 만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것을 갖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기반이다(계 6:9-10). 자기 피난처 아래 있는 백성을 경멸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분이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

것을 의미했다. Leon J. Wood, *TWOT*, 1:324-25, 그리고 Walter C. Kaiser, J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74-75 을 보라.

계시는지 아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집이나 울타리에 "개 조심!" 표지를 붙이지만, 여호와와 나라의 표지에는 "양떼 조심"이라고 적혀 있다. 그것을 읽는 통치자들과 나라들은 전율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그분의 손에 있는 양을 만지고 도살했다면 말이다.

## II. 최우선 순위인 순종 (삼상 15:10-13 The Priority of Obedience)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 15:11a)." 여호와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사울을 평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여호와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실패 이상의 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내포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울이 더 이상 여호와를 따르는 자, 즉 여호와와 종이 아니라는 뜻이다.<sup>3</sup> 사무엘상 15 장의 증언을 들으려면 우리는 사울에 대한 여호와와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무엘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잠자코 앉아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사무엘은 화가 났다. 그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삼상 15:11b)." 사무엘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화가 났는가? 여호와께? 사울에게? 그 결과로 생긴 상황에 대해? 누구를 위해 혹은 무엇을 위해 사무엘은 밤새 부르짖었는가? 사울을 위해, 사울을 위한 용서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한 보호를 구하며? 자신을 위해, 다가오는 대결을 위한 인내심을 구하며? 답은 "위의 모든 것이 옳다"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볼드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사무엘의 신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의 더 나은 판단에 반하여,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임을 발표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협력하였다(삼상 10:1, 24; 11:15).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삼상 15:29)"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지도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한 곤경에 처해 있었다. 마지막으로(꼭 할 말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혼란을 해결해야 했다. 선지 사역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

<sup>3</sup>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153.

부담은 사무엘의 삶에서, 특히 이 대목에서 잘 보인다.<sup>4</sup>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나 지금 그에게 당면해 있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sup>5</sup> 하지만 그의 고통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방해를 받으면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울은 신나 있었다. 사무엘에게 건네는 인사에서 그는 매우 의기양양해 보인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삼상 15:13)."<sup>6</sup> 사울(과 그의 백성)의 행동(삼상 15:9)이 여호와께서 먼저 주신 명령(삼상 15:3)과 배치되듯이, 사울의 주장(삼상 15:13)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삼상 15:11)과 정면으로 배치된다.<sup>7</sup>

---

<sup>4</sup> Joyce G.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114–15. 포켈만(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2, *The Crossing Fates (1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92)의 다음 진술과 비교해 보라. "또한 우리는 왕정 도입과 사울의 기름 부음은 사무엘의 생애 중 가장 위대한 행위이며 사무엘 편에서 상당한 자기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에게 의미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가 관여하기 전에 설득하시고 심지어 실제로 명령하셔야 했다. ... 먼저 사무엘을 설득하시어 왕정 도입을 하도록 하셔야 했던(삼상 8 장) 바로 그 여호와께서 이제 단호하게 그가 그것을 취소하신다고 발표하시고 사무엘의 그 동안의 사역이 쓸모가 없다고 선언하신다. 적어도 사무엘에게 그것은 언뜻 보기에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그는 화가 났다. ..." 그리고 Keil, *Biblical Commentary*, 153–54n 에 인용된 칼빈의 설명도 보라.

<sup>5</sup> V. Philips Long, *The Reign and Rejection of King Saul: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Coherence*, SBL Dissertation Series 118 (Atlanta: Scholars, 1989), 141.

<sup>6</sup> 사무엘의 사울과의 현재 만남이 길갈로 가는 도중 혹은 길갈에서 일어난 것에 유의하라(삼상 15:12, 21). 그렇다면 길갈은 나라가 새롭게 되었던 곳(삼상 11:14-15)이고, 왕조가 거부당했던 곳(삼상 13:7b-15)이고, 지금은 왕이 버림당하는 곳(삼상 15 장)이다.

<sup>7</sup> 삼상 15:9 에서 내레이터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 상당히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 어떻게 그들이 아각과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즉 가장 살진 것(? 본문 문제), [숫양 등]을 남겼는지 진술한 후, 저자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싫지 않았다**(강조 추가). 그러나 멸시되거나 '거부'된 것은 무엇이든—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괴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나는 사울의 편에 잘못이 없다는 데이비드 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무엘상 15 장에 대한 그의 해석에 대해서는 David M. Gunn, *The Fate of King Saul*, JSOT Supplement Series 14 (Sheffield: JSOT,

사무엘의 첫 번째 질문은 자기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에 관한 것이다(삼상 15:14).<sup>8</sup> 사울은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남겼지만 말씀대로 그 이외의 것은 다 진멸하였다고 주장했다(삼상 15:15). 사울의 이 두 번째 말을 듣고 사무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삼상 15:19)?” 사울은 다시 자신의 순종을 주장하였다. 그는 아각을 생포해 끌어왔지만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을

---

1980), 41-56 을 보라. 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Long, *Reign and Rejection of King Saul*, 140, 144-45 을 보라.

<sup>8</sup> [역자 주] 삼상 15 장에는 히브리어 קול[콜]이란 “소리, 목소리”가 7 번 나온다.

개역개정에서 14 절의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 그리고 19 절과 20 절의 “여호와의 목소리”는 잘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1 절과 22 절과 24 절의 경우 개역개정에서 “목소리, 소리”가 생략되거나 다른 말로 번역한 부분을 괄호에 넣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을 볼드체로 표시했다.

-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개정개정 여호와의 말씀 →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הַיְהוָה׃ דְבַרְיָ קוֹל)를 들으소서
-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הַיְהוָה׃ קוֹל־הַצֹּאֵן)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קוֹל הַבָּקָר)는 어찌 됨이니이까
-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הַיְהוָה׃ קוֹל)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 (20[-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הַיְהוָה׃ קוֹל)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까
- (22[-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개정개정: 그의 목소리 → **여호와의 목소리**(הַיְהוָה׃ קוֹל)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개정개정: 그들의 말 → **그들의 [목]소리**(מִקוֹלָם)를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삼상 15 장에 7 번 반복되어 나오는 “소리, 목소리”란 단어를 유의하면 사울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1 절), 여호와의 목소리(19, 20, 22 절)”이며, 사울이 두려워하여 들었던 백성의 “목소리(24 절)”는 개역개정처럼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양의 “소리,” 소의 “소리”(14 절)처럼 백성의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울이 왕으로서 들어야 할 목소리는 여호와의 목소리인데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가 사울은 왕으로서 버림을 당한다.

진멸하였으며, 백성이 길갈에서 제사드리기 위해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을 끌어왔다고 말했다(삼상 15:20-21). 사무엘의 세 번째 질문은 대화의 절정으로 인도한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삼상 15:22)?” 여호와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그것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그분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는 삼상 15:22-23 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 사무엘의 말은 경청-청종의 주제를 다시 시작한다. 이 주제는 사무엘상 15 장 1 절에서 도입되었고 19-20 절에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토론되었다. 우리가 사무엘의 말을 한 줄 한 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한다.

#### 질문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 주장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 비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 정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의 질문과 주장은 구약의 정통신학(시 40:6-8; 50:8-15; 51:16-17; 잠 15:8; 21:3, 27; 28:9; 사 1:11-15; 렘 6:19-20; 호 6:6; 암 5:21-24; 미 6:6-8)을 반영한다. 사무엘의 제사에 대한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는 형식적인 예배가 순종하는 삶을 대신할 수 없고, 외적 헌신이 내적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영광송, 사도 신경, 자선 오찬, 울스타 성경 대회 등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다(요일 2:3-4). 베를레부르크 성경(Berleburg Bible)은 사무엘의 논지를 잘 포착했다.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비이성적인 동물의 이상한 살만 바치는 반면, 순종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바치며 이성적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sup>9</sup>

그러나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평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사무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의 비교(삼상 15:23a)는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은 죄가 옳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실패나 오해가 아니라 반역("거역하는 것")과 오만("완고한 것")이라고 말한다. 사무엘은 또한 죄가 적절하게 비교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죄는 순전히 이교도 우상숭배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그것의 표면상으로는 죄의 사악함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봄날 나는 우리 뒷마당 주변의 정원 호스를 틀고 얼마 동안 물을 주기도 하고 뿌리기도 했다. 나중에야 비로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물은 세탁기, 선반, 벽 너머 우리 지하실 구석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 거울에 바깥 수도꼭지에서 정원 호스를 분리하지 않았었다. 수도꼭지가 얼어붙어 파이프(혹은 무엇이든지)가 갈라져 있었고, 그 봄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폭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집 밖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울의 죄든지 우리의 죄든지 우리가 죄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가지려면, 공손한 걸모습(길갈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을 넘어서서 표면 아래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 다른 종교적 이해나 신학적 다원주의의 표현이나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추구가 아니다. 그것은 반역이다. 그것은 오만이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삼상 15:23)."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 마디로 그분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울이 그의 대왕이신 여호와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왕인 사울을 거부하셨다. 길갈의 제단 위의 모든 연기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뜻을 드리는 산 제사로부터 받아 누리실 수 있었을 기쁨을

---

<sup>9</sup> 이 말은 Keil, *Biblical Commentary*, 156 에서 인용되어 있다. 베를레부르크 성경(Berleburg Bible)은 1726-29 년에 나왔다.

결코 대신하지 못할 것이다.

### III. 후회의 문제 (The Problem of Repentance)

사무엘상 15 장은 여호와께서 후회하시고 사울이 회개하는 것을 묘사한다. 각각의 후회에 있어서 혹은 그 안에 문제가 있다. 여호와의 후회는 역설적이고, 사울의 회개는 내가 보기에 피상적이다.

#### i. 여호와의 후회 (Yahweh's repentance)

첫째로, 여호와의 "후회" 혹은 "무변개(無變改)"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여기 같은 장 안에서 여호와의 후회(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나 행위에 대한 "후회/변개")에 대한 두 가지 매우 다른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

삼상 15:11, 35b

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나함] repent)하노니  
35b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나함] repent)하셨더라

삼상 15: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나함] repent)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나함] repent)하지 않으심이니이다

RSV 는 히브리어 동사 [나함]이 이 본문들에서 나올 때마다 일관되게 전통적인 "to repent 회개하다"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하여 "repent 회개"하신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본문이 하나님께서 "repent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will not repent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때 두 배로 당황한다.

나는 우선 본문에 귀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조물주,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분,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분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회개하신다는 것, 즉 후회하시거나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읽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구약에서 이 동사([나함])는 29 번쯤 하나님이 주어로 나온다.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 결코 특정한 감정적 요소(예: 슬픔 혹은 후회)를 잃지 않는 것 같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슬퍼하셨고([나함] was grieved)  
그분의 마음은 아픔(pain)으로 가득 찼다(창 6:6 NIV)

그런 본문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종종 신학적으로 왁스를 바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셨을 일에 대하여 그렇게 슬퍼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인간적 모습이나 특성을 하나님께 부여하는 신인동형론이나 인간적 감정을 하나님께 부여하는 신인동감론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때때로 인간의 문법을 사용해야 했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범주를 훨씬 뛰어 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기 위해 때때로 스스로 낮추어 인간의 범주들을 사용한 것을 암시한다.

그건 괜찮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일축해버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지 않을 위험이 있다! 우리는 진리가 오는 형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가오는 진리를 소홀히 하기 쉽다. “그분의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찼다.”라는 창 6:6의 병행 구절 듣고서 우리는 정말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의 강도를 감지하는가? 삼상 15:11은 신인동형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감동시켜서는 안 되는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것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비극이다. 그것은 여호와를 슬프게 한다. 그분은 “일부를 얻고 일부를 잃는” 신이 아니다. 아랑곳하지 않으심은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삼상 15:11은 여호와의 목적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을 암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것은 여호와께 선견지명이 없어 허둥대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순종에 대해 슬퍼하신 것을 묘사한다. 사무엘이 슬퍼했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다. 본문이 이 진리를 전달하는 형식(여호와의 후회)은 대담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렇게 대담한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방어막을 친 우리의 배교 행위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차가운 콘크리트 조각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sup>10</sup>

삼상 15:29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삼상 15:28)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히 사울을 흔들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혹은 신학적 공포 전술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은 심리전을 벌이지 않으며, 인간과 달리 자신의 목적을 굽히시지 않는다. 그분의 의지는 감정적인 요요가 아니다. 삼상 15:29은 민 23:19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거기서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

<sup>10</sup>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2.1)은 하나님께서 “고난(passions)”이 없으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W. G. T. Shedd, *Dogmatic Theology*, 3 vols. (188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9), 1:170-78에 있는 논의를 참고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최신의 최고의 제사적인 마술을 갖춘 어떤 고액의 선지자라도 그것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여호와와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셨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씀에는 “주신다”가 들어 있지 않다.<sup>11</sup>

그러나 저자는 여호와의 “후회”에 들어 있는 역설을 잊지 못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울 거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지[나함] 않을 것이라는) 삼상 15:29 이후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삼상 15:35b 을 통해 삼상 15:11 의 강조점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역설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후회하시기도 하고 변개하지 않으시기도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삼상 15:29 의 일관된 하나님과 삼상 15:35 의 슬퍼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 여기에 그분의 방식에 있어서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그분의 반응에 있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확고함과 민감함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ii. 사울의 회개 (Saul's repentance)

삼상 15:24-31 은 사무엘이 삼상 15:23 에서 여호와의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울의 “회개”를 묘사하고 있다. 누군가의 옷자락이나 옷소매를 붙잡는 것은 간청의 몸짓이라는 증거가 있다.<sup>13</sup> 만약 그렇다면, 삼상 15:24-31 은 세 번에 걸친 사울의 호소와 세 번에 걸친 사무엘의

---

<sup>11</sup> 덧붙여 말하면, 삼상 15:29 의 확고한 말은 사울이 더 이상 개인적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울 왕권의 거부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때가 사울이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고하다.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나는 이제 일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그 말씀의 매를 맞기 위해 내 등을 숙일 수 있고, 나는 이 어려운 말씀에 복종하여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사람에게 나라를 넘겨주실 때까지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 수 있다. 나는 왕으로서는 거부당했지만, 인간으로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장들은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기회였다. 그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N.Y.: Alba House, 1972), 3:102 에 나오는 “사울이 그의 왕권을 거부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몸을 굽혔더라면 그의 영혼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참고하라.

<sup>12</sup> 여호와의 후회와 변개치 않으심에 대해서는 Kaise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249–51 을 보라.

<sup>13</sup> Robert P. Gordon, *I and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146, 345 그리고 Long, *Reign and Rejection of King Saul*, 160–62 을 보라. 그러나 특별히 Paul A. Kruger, “The Symbolic

응답을 말하고 있다.

사울의 첫 번째 호소, 24-25

사무엘의 거절, 26

사울의 두 번째 호소, 27

사무엘의 해석, 28-29

사울의 세 번째 호소, 30

사무엘의 순응, 31

우리는 여호와의 "회개(repentance)"가 역설적이라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와는 후회하시지만 변개치 않으신다(he repents and yet will not repent). 사울의 경우 회개는 그의 죄와 맞서는 일을 포함한다. 그것은 의문을 제기한다. 사울의 회개는 회개인가? 확실히 사울은 삼상 15:24 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삼상 15:25 의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그의 요청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 쉬워 보인다. 나는 헤르츠버그의 다음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묘사는 사울이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계속되고 있다."<sup>14</sup> 그래서 사무엘은 삼상 15:23 의 혹독한 말을 되풀이한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삼상 15:26)." 그것은 마치 "사울 왕이여, 정말로 내 말을 들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제 일을 정상으로 되돌립시다.'라고 말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삼상 15:27-29 은 사울 거부의 최종성을 보강한다. 사무엘의 겹옷을 붙잡은 것이 애원이나 간청의 신호라면, 그 겹옷자락이 예기치 않게 찢어진 것은 비유를 말하도록 했다. 그렇게 여호와는 사울로부터 나라를 찢으셨다(빼앗으셨다, 삼상 15:28).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이었다(삼상 15:29).

이에 사울은 세 번째 호소를 한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

Significance of the Hem (KANAF) in 1 Samuel 15:27," in *Text and Context: Old Testament and Semitic Studies for F. C. Fensham*, ed. W. Claassen, JSOT Supplement Series 48 (Sheffield: JSOT, 1988), 105–16 을 보라.

<sup>14</sup>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128.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 15:30).” 이 호소는 이해할 만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낸다. 한편으로, 사울의 요청은 일리가 있다. 사무엘의 행동이 사울의 거부를 잘 보여준다면, 이스라엘 내부에 불안, 혼란, 무질서와 같은 끔찍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울의 말은 자신의 우선 순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죄가 있지만, 정치도 있습니다. 내가 사무엘과 공공연한 균열을 갖는 것은 자살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문제는 사울의 우려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배적이라는 데 있다. 사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존경을 계속 누리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지지가 하나님과의 화목보다 더 중요했다.<sup>15</sup> "그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그가 백성 앞에 불명예스럽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명성이다."<sup>16</sup> 사울의 회개가 피상적일지라도, 우리는 돌을 들고 제일 먼저 그를 치는 일을 너무 빨리 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양보다 사람들의 찬양을 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요 12:43).<sup>17</sup>

#### IV. 고립의 슬픔 (삼상 15:34-35 The Sadness of Isolation)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야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삼상 15:34-35)

삼상 13:15 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들은 지리 이상으로 비극을 말해준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서 사울과 교감하시는 일이 깨졌다.”<sup>18</sup>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울에 대한 지시는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조언도, 명령도, 격려도 없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다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게 된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침묵이다.

<sup>15</sup> 위의 각주 11 에 나오는 나의 논평을 보라.

<sup>16</sup> 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249.

<sup>17</sup> 사무엘이 사울의 마지막 요청에 왜 동의했는지(삼상 15:31) 의아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고든(Gordon, *I & II Samuel*, 146)은 그것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울이 지금 체면을 차리는데 몰두하고 있을지라도, 사무엘은—[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에(삼상 15:29)!—[거부하다가 마침내] 동의한다."

<sup>18</sup> S. G. De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Paideia, 1978), 2:102-3.

사울이 여호와와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고립된 것은 가혹하거나 쓰라리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다. 이와 정반대로, 본문은 선지자의 슬픔(삼상 15:35b)과 하나님의 슬픔(삼상 15:35c)을 표현하고 있다.<sup>19</sup>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절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무엘이 집을 향해 라마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 그의 떠남은 사울에 대한 여호와와 말씀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위험은 우리 것이기도 하다. 선지자의 따뜻한 몸을 통해 우리에게 오든지, 아니면 성경의 차가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오든지, 여호와와 말씀은 우리를 떠날 수 있다(막 4:24-25).

여호와는 택하신 자(삼상 10:24)를 버리셨다. 사무엘상 16 장에서 그분은 새로운 택하신 자—그분이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택하신 자—를 보여주신다.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그분과 다투지 말고 그분께 동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2.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완벽한 순종인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은 최고로 나은 것이 아닌가(히 10:9-14)?
3. 만일 여호와께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슬퍼하신다면,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바치는 순종을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지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보여주셨을 때, 그 슬픔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4. 우리는 “확고함과 민감함”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러분은 이런 자질들이 또한 그분의 종인 우리 안에서도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간청의 몸짓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눅 8:43-48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sup>19</sup>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애도와 관련하여 포켈만(Fokkelman, *The Crossing Fates*, 110)은 애도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뒤따르는데 여기에서 죽음보다 앞서 있다고 관찰한다. “우리는 왕으로서 사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의 왕권의 폐지에 대한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상상할 수 없다.”

## 15. 중심을 보심 (삼상 16 장 Looking on the Heart)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삼상 16:4) 그를 본 모든 성읍 장로들이 왜 하얗게 질린 것처럼 보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방문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삼상 7:16 참조). 그러나 이번 방문은 확실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무엘이 그들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의와 사악함에 대한 풍문을 들은 것인가? 이번 방문이 징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말을 더듬고 손에 땀나는 것이 모두 정치적이었는지도 모른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사무엘과 사울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이 사무엘을 영접하면, 사울이 그들을 탄압할 것이 아닌가? 안심해도 된다! 암소 한 마리가 그렇게 좋아 보인 적은 없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다. 그래 그게 다였다.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여기에는 여전히 감추어진 것이 있다. 베들레헴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서 자기 베들레헴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스릴 왕을 뽑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특종에 대한 전부를 알지는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삼상 16:3)." 암소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출 수 있는가!

사무엘상 16 장의 핵심 단어(또는 핵심 어근)는 주제를 제공한다. 1 절에 나오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이 주제를 소개한다. 여기 "보았다"는 번역은 직역한 것이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라아]는 창 22:8, 14 의 경우처럼 "준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어근은 이 장에서 9 번 나오는데 번역에서는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 어근 [라아]는 "준비하다(삼상 16:1, 17)" 혹은 "보다(삼상 16:6, 7[세 번], 18)를 의미하는 동사 그리고 "외모(삼상 16:7, 12)"를 의미하는 명사로 나온다. 이 어근에 들어있는 개념들(보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삼상 16:8, 9, 10 에 나오는 (부정어와 동사 [바하르]가 결합된 어구) "택하지 않았다"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고 준비하신 사람이 여호와의 택하신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상 16 장의 주제인 여호와의 선택이다. 이제 이 본문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sup>1</sup> 사무엘의 도착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을 위해 John Hercus, *Out of the Miry Cla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68), 2-3 을 보라. 삼상 16:2 에 나오는 은폐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John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Grand Rapids: Eerdmans, 1957), 139-41 그리고 Walter C. Kaiser, J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224-27 을 참고하라.

## I. 여호와와의 선택의 희망 (삼상 16:1 The Hope in Yahweh's Choice)

특히 사무엘처럼 지각 있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12 월에 비가 내리고 화씨 41 도(섭씨 5 도)되는 흐린 날과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은 전망이 어두워 보였다.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은 전문적인 초연함을 가지고 사울의 실패를 볼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슬픔에 대해 물으셨다. "네가 사울을 위해 언제까지 계속 애도하고 있으려느냐(삼상 16:1)?" (여기 히브리어 분사는 계속되는 활동을 나타낸다.)

사무엘은 왜 애도하고 있었는가? 자기 자신의 수고의 실패에 대해서인가? 결국, 사무엘이 일생을 바친 모든 것은 외견상 무너져 있었다. 그것은 사역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인가? 아니다. 그것은 "사울을 위한" 것이었다.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의 반역과 거부에 대한 것이요, 대단한 장래성을 가지고 시작한 왕권에 대한 것이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애도는 아마도 여호와와의 왕을 넘어 여호와와의 백성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울이 범죄하므로 왕으로서 버림 당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붕괴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애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토록 전도유망해 보였던 왕권에 대한 실험은 여호와에 대한 사울의 은근한 반역으로 끝났다. 이제 지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멸할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들을 파멸시키지는 않을까?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sup>2</sup>

여호와와의 명령은 사무엘의 슬픔과 두려움에 답을 준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삼상 16:1)." 여호와와의 대답은 이런 취지였다. "언제까지 너는 사울을 위해 계속 애도하고 있으려느냐? 나는 나를 위해 한 왕을 준비해 놓았다. 나는 내 백성이 역사의 으깬 감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지도력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에게서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사무엘의 슬픔에 뭔가 적절한 것은 없었는가? 그는 형편없는 볼링 스코어 때문에, 혹은 누군가 그의 체비 베레타를 옆에서 쳤기 때문에, 혹은 침실이 세 개밖에 없는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전도유망한 도구의 영적 재난에 대해, 하나님 백성의 복지에 대해, 그들의 상황과 안전에 대해, 괴로워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애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가 아니면 험담하는가? 우리는 교회와 전문 사역에 대한 불신에 대해 슬퍼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

---

<sup>2</sup>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167. 내가 이전 과에서 논의한 "II. 최우선 순위인 순종" 그리고 "III. ii. 사울의 회개" 부분을 참고하라.

신자들의 성경적, 윤리적 무지에 대해 슬퍼한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의 편안과 안전을 제외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가? 사무엘의 괴로움에는 칭찬할 만한 교훈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와의 지시에는 뭔가 고무적인 것이 있다. 여호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이 끝장나고 있는 때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진정한 대왕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통제를 결코 잃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왕국에서 일어난 가장 최근의 긴급 상황으로 인해 결코 당황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여호와와의 선택은 희망을 의미한다.

## II. 여호와와의 선택의 지혜 (삼상 16:6-7 The Wisdom in Yahweh's Choice)

이새의 아들들은 나머지 이웃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사무엘은 외모만 보고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예감을 갖는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삼상 16:6-7)<sup>3</sup>

본문은 우리의 인상의 위험을 강조한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

<sup>3</sup> 저자는 히브리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When they came, he saw Eliab, and he thought, "Surely his anointed one stands before Yahweh!" Then Yahweh said to Samuel, "Don't look at his appearance or at how tall he is, for I have rejected him; *for it's not what man sees—for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lit., with respect to the eyes] but Yahweh looks on the heart.*"

칠십인역의 번역에는 다음 볼드체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came in, that he saw Eliab, and said, Surely the Lord's anointed [is] before him. But the Lord said to Samuel, Look not on his appearance, nor on his stature, for I have rejected him; for **God sees** not as man looks; for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God looks at the heart."

대부분의 영어 성경(예외: MLB = Modern Language Bible [New Berkeley Version])과 한글 성경은 칠십인역의 추가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칠십인역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다"는 것을 추가하는 본문 정정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 사해 사본(4QSamb)은 칠십인역을 지지한다(Frank Moore Cross, "The Oldest Manuscripts from Qumran," in *Qumran and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ed. Frank Moore Cross and Shemaryahu Talm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170 을 보라. 크로스의 논문은 원래 1955 년에 발표되었다.).

보았다고 말씀하셨다(삼상 16:1).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자기 기름 뿔을 만졌다(삼상 16:6). 여호와께서는 즉시 사무엘에게 그가 볼 수 있는 것만을 보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야만 하셨다. 사람이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들(외모)을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삼상 16:7). 여기 삼상 16:1, 6, 7 에서 저자는 어근 [라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형을 사용한다.

지금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가! 사무엘상에서는 매우 많은 것이 선택에 달려 있다. 사무엘상 4 장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선택했으나 재앙이 뒤따랐다. 사무엘상 8 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했다는 점에서) 왕을 선택했으나 또 하나의 재앙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제 경건한 사무엘이 현장에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아니다. 나라는 여호와께 맡길 때만 안전하다. 사무엘상 3 장에서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지시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사무엘을 바로잡아야 하신다.

우리는 사무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엘리압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상적인 남성다움으로 충만했다. 아마도 약 6 피트 2 인치의 키와 약 225 파운드의 몸무게를 가졌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했고, 사교적인 우아함과 면도 후 로션에 대한 뛰어난 취향 등을 가진 남자다운 남자였다. 아마도 그는 베들레헴 고등학교 축구팀의 와이드 리시버로 출연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유다 지파의 올스타팀에 들어갔을 것이다. 엘리압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 사무엘은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엘리압의 중간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매료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 그분은 명확하게 보실 수 있다. "그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께는 중심을 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운영의 원리이다.<sup>4</sup> 고맙게도 그렇다.

---

<sup>4</sup> 사무엘상 16 장에서 여호와께 택하심 혹은 선택하심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직분을 위한 선택이며, 영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역할을 위한 선택이다. 나는 성경이 구원에 대한 선택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장에서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은 왕의 직분과 관련이 있다. 동시에 나는 다윗 안에 있는 어떤 선한 마음씨로부터 여분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굿브로트(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131)는 이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눈과 마음을 보는 것의 대상이 아니라 보는 것의 주체로 여긴 것(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는 것으로 해석한 것)을 틀렸다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하면, 삼상 16:7 의 말씀은 다윗의 선택보다 엘리압의 거부를 더 많이 설명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 자신의 마음에 맞는/합한(삼상 13:14)" 사람을 "찾으려고" 하신다. 이것은 (이후

이제 우리는 사무엘 자신에게만 맡겨졌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있다. 삼상 16:6-7 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은 즉시 삼상 9:2 을 연상한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삼상 9:2; 참고, 삼상 10:23-24)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를 보고 있다고 확신한다. 오직 여호와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는 말씀만이 이스라엘을 파멸에서 구한다. 삼상 16:6-7 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울 상황에 직면한다. 엘리압은 사울의 형상대로, 사울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왕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사울의 제 2 막을 겪었을 것이다.<sup>5</sup>

그러나 삼상 16:7 은 뒤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아간다. 내가 사무엘 상하의 핵심 구절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 본문은 사울과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의 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상적인 미스터 이스라엘인 압살롬(삼하 14:25-27)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진다. 이 본문은 또한 (사무엘서 밖에서 나오는) 아도니아(왕상 1:56)에게도 비슷한 판단을 내린다.

삼상 16:7 로부터 우리는 (마치 추악함이나 혐오감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필수 요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멋진 외모를 반대하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윗의 건장한 외모에 대한 삼상 16:12 의 설명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을 것이다. 외모는 결코 적격이나 부적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중요하지 않은 것뿐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하신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중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일깨워 주고, 우리에게 부족한 분별력을 보여준다. 오직 여호와의 지혜만이 그분의 나라를 이끌기에 적절하다. 우리가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최소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외모가 주는 인상을 조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중이나 교단이 목회자를 선정할 때 잘 넘어진다(참조, 요 7:24).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거물 인사들, 공격적인 외향적인 사람들,

---

사건들을 통해 밝혀지는 대로) 죄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sup>5</sup> 사울과 엘리압의 유사성은 자주 인식되어 왔다. 최근의 논의로 Moshe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A Literary Study of Comparative Structures, Analogies and Parallels* (Jerusalem: Rubin Mass, 1990), 113 을 보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공동체에서 교회를 팔고 다니고 강단에서 부드러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가? 그는 울 수 있는가?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의 필요를 일깨워 준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준다.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들로부터, 곧 우리가 왕국의 필요나 개인적인 딜레마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분은 그렇게 해 오셨는가!

### III. 여호와의 선택의 놀라움 (삼상 16:8-12 The Surprise in Yahweh's Choice)

베들레헴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오기로 공모라도 한 것처럼 유머와 부끄러움이 임했다. 여호와는 엘리압을 거부하셨다. 그러자 이새는 아비나답과 삼마를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다. 이 경우들도 각각 평결은 같았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삼상 16:8b, 9b). 이새가 아직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땀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무엘은 이새의 일곱 아들을 다 만났고, 그때마다 결정은 동일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삼상 16:10)." 우리가 1 절의 여호와의 계시("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와 19 절의 여호와의 미제공("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을 나란히 놓으면 아주 곤혹스럽다. 그 때 사무엘은 당연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했다. 그 사실 자체를 제외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누가 정확히 알겠는가? 이새는 사무엘이 "맞아요, 양떼를 버려둘 수는 없지요."라고 말하길 기대했는가? 아니면 "그것이 막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찾아 데려오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 그러나 사무엘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은 막내아들이 여기로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동이 없으면 식사도 없다. 그가 왔고, 양 냄새가 물씬 풍겼다. 이것이 노래들이 만들어진 재료이다(시 78:70 참조). 여호와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셨던(삼상 16:3b) 그대로 행하셨다(삼상 16:12b).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갖게 되었다. 이새는 막내를 초대할 필요는 없다고 상상했다. 막내는 양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막내 아들은 아주 가려져 있어서 우리는 삼상 16:13 에 이르러서야 그의 이름을 듣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가 그다!"라고 주장하셨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짓밟는 하나님의 이상하고 신선한 방식을 본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행하는 데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가 자주 어떻게 인간의 논리를 뒤엎으시는지를 본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관습의 노예가 아니시다.

아마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더 위대한 자손의 경우보다 더 깜짝 놀라게 하는 선택을 드러내신 적이 없을 것이다. 투표가 실시되었다. 고향 사람들은 "그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일뿐(막 6:3)"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는 너무 흥청망청한다(마 11:18-19)."고 불평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는 적합한 장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요 7:41-42, 갈릴리 대 베들레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사실은 "메시아는 고난받지 않는다(마 27:42-43)."는 것이었다. 이런 의견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아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시 118:22; 참조, 벰전 2:4)."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추론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시 118:23a).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즐겨야 한다(시 118:23b). 여호와의 평범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방식들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즐길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기리는 것이다.

#### IV. 여호와와의 선택의 고비용 (삼상 16:13 The Costliness in Yahweh's Choice)

마침내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비울 수 있었다. "그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와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삼상 16:13)."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주셨다. 그분은 어떤 임무를 맡도록 자신의 종을 임명하시지만 동시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신다.<sup>6</sup>

<sup>6</sup> 기름 부음의 의의에 대해서는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58-59 을 보라. (T. N. D. Mettinger 에 의존하여) 클라인은 "외교, 사업 계약, 결혼 의식, 노예 해방에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기름 부음에 계약적 또는 언약적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지적했다. 기름 부음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서약했고 그에게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러나 여호와와의 영이란 선물은 은혜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이다. 여호와와는 다윗에게 갈등, 곧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자와 곰과의 싸움(삼상 17:34-37)마저 자주 심심하게 보일 만큼 심각한 갈등을 맞이할 준비도 갖춰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자마자, 다윗은 끝없는 곤경(곧 사무엘상 18 장부터 계속해서 사울의 시기와 분노와 음모)에 빠진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 다윗은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추격당하고 배신당하고, 갇혔다가 도망치고, 동굴에 숨고, 망명 생활을 하고, 궁지에 몰릴 것이다. 우리는 전체 맥락에서 삼상 16:13 의 더 큰 관점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문제가 시작된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주님이신 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고무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막 1:10)?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11).”는 그 친숙한 목소리보다 더 따뜻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령님은 그를 몰아내셨다. 광야. 시험. 사탄. 들짐승(막 1:12-13 참조).

다윗의 주님의 종들도 같은 양상을 발견한다(행 14:22).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자마자,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받고 있는 압박에 끝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두근거림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갈등이 우리의 죄의 표징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됨의 징표, 곧 우리가 하나님의 불쾌함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는 징표임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광야는 성령님의 부재의 표징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의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니, 아마도 우리는 나중에 우리를 수종 들던 천사들(막 1:13)이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삼하 4:9)”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v. 여호와와의 선택의 아이러니 (삼상 16:14-23 The Irony in Yahweh’s Choice)

우리가 삼상 16:13 에서 삼상 16:14 로 갈 때 우리는 문학적 구분을 넘어선다. 다윗과 사울은 이보다 더 뚜렷한 대조를 이룰 수 없다.

---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예를 들면, 왕)에게 의무가 있음을 의미했다. “세속적인 기름 부음(예를 들면, 삼하 5:3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므로 세속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방식이다. 거룩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왕에 대한 그분의 선택에 대한 여호와와의 의무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여호와와의 지시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우산 아래 다음 문맥 전체를 놓는 것이다.” 모티어의 간결한 요약(J. A. Motyer, “Anointing, Anointed,” *New Bible Dictionary*, 2d ed. (Wheaton: Tyndale House, 1982), 50)도 보라.

13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 14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sup>7</sup>

이 구절들은 아마도 대조의 경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상 15-17 장에 있는 더 큰 단락의 내러티브는 사울과 다윗의 뚜렷한 대조를 분명히 강조한다.

A 사울의 거절, 15 장

B 다윗의 선택, 16:1-13

A' 사울의 악화, 16:14-23

B' 다윗의 상승, 17 장

그러나 현재 우리의 관심은 삼상 16:14-23 이며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 여호와의 영의 떠남, 14

B 치료 제안, 15-16

C 사울의 승인, 17

D 다윗의 지명, 18

---

<sup>7</sup> 히브리어 동사 [바아트]의 뉘앙스는 "번뇌하게 하다(torment)"(RSV, NIV) 또는 "괴롭히다(trouble)"(KJV)로 번역하는 것보다 "무섭게 하다(terrify)" 또는 "공포에 떨게 하다(terrorize)"로 번역할 때 더 잘 드러난다. 우리는 사울에게 분수령 같은 삼상 16:14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워드(David M. Howard, Jr., "The Transfer of Power from Saul to David in 1 Sam 16:13-14,"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2 [1989]: 476)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사울에게 비극적이고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구약에서 여호와(혹은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를 떠났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유일한 경우이다. 우리는 삼상 18:12을 통해 사울이 이것의 의미를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여호와 자신의 임재를 박탈당했다." 신하들이 삼상 16:15에서 [바아트]의 분사를 사용하여 "악령이 왕을 (계속) 번뇌하게 하온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악령의 테러 전술은 (간헐적이지만) 계속 진행되었다. 그나저나 그 악령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된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말고 어느 다른 곳에서 나오겠는가? 하지만 "악령"이란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용사 נָפְּץ[라아](주의: "보다"는 뜻의 동사 נָפַץ[라아]와 다름!)는 고통, 비참함, 괴로움 또는 재난을 주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하워드는 올바르게 지적했다. "이 악령의 본질에 관하여, 사울의 경우 단순한 정신적 착란 이상의 것으로 봐야 한다. 그것은 확실히 정신적 착란의 영향을 가져왔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직후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활동적이고 외적인 힘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그것이 재난이나 고통의 영의 본질에 더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귀신을 본다." 참고로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59 도 보라.

X 사울이 다윗을 부름, 19

D' 다윗의 도착, 20-21a

C' 사울의 호의, 21b-22

B' 치료 경험, 23a

A' 악령의 떠남, 23b

이 부분(삼상 16:14-23)의 중심은 19 절이다. 이 구절은 사울이 이새에게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는 명령 혹은 부탁이다. 이전 부분(삼상 16:1-13)중 13 절에서 (내레이터에 의해) 다윗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처럼, 이 부분(삼상 16:14-23)중 19 절에서 (사울에 의해) 처음으로 다윗 이름이 언급된다.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삼상 16:11). 그러나 이 중심점(19 절)의 주된 중요성은 아이러니에 있다. 버림받은 왕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한다! 삼상 16:17-18 에서 동사 [라아]("보다, 준비하다")의 사용은 아이러니를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자신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나를 위해 보았다/준비했다[라이티 ... 리]"고 말씀하셨듯이,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나를 위해 보고/준비하고[르우 ... 리](참조, 개역개정: 구하여; 새번역: 찾아보고)" 그를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요청한다. 게다가 삼상 16:21-22 은 한 종의 지명(삼상 16:18)과 사울의 왕명(삼상 16:19)에 담긴 지혜를 확인시켜 준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크게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의 수금 연주가 사울을 공포와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가 삼상 16:1-13 과 16:14-23 을 잇따라 배열한 것은 당연하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 보세요! 재미있지 않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선택입니다! 이중 선택인 셈이죠.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해요? 더구나, 버림받은 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은 바로 선택된 왕입니다." 선택된 왕은 사울에게 위협이 아니라 은총의 수단이다. 그러나 슬픔은 남아 있다. 사울에게 치료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위안을 주는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삼상 16:14-23 의 그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교훈이 된다. 우리의 소명도 비슷한 패턴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 다윗을 미워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서도 다윗의 섬김에 의해 지탱되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요 15:18-21)을 미워하지만, 그들이 불운한 상태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백성에게서만 혜택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마 5:13)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회와 문화가 완전히 썩는 것을 막고,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의 부패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억제책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구토물에 빠져 죽는 것을 막아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구토물에 빠져

죽는 것을 갈망한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 없다면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스펀전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불가지론자가 그에게 맞서며 그의 기독교 신앙에 이의를 제기했다. 스펀전은 불신자들의 조직이 어떻게 자신들 주변의 수천 명의 궁핍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복음주의 신앙에서 흘러나온 다양한 일들을 가리켰다. 그런 다음, 그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던진 대담한 도전(왕상 18:24)을 풀어 말하며 그 대화를 마무리했다. "고아원들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토론은 끝났다.

## VI. 말미의 주 (Endnote)

사무엘상 16 장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고는 공부할 수 없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7 절 말씀은 강한 표현으로 사무엘상 16 장을 지배한다. 이것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요 2:25 에 대한 구약의 해석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고서 정신차리고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외모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일까(사 53:2-3)?

## V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사울의 은근한 반역"이란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 아닌가! "반역"과 때때로 연관될 수 있는 다른 놀라운 형용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나 반역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2.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가 아니면 험담을 하는가?"라는 질문은 대단한 질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도록 준비하라.
3. "미래의 대왕은 결코 그분의 왕국의 통제를 결코 잃지 않으신다."라는 진술은 대단한 진술이 아닌가! 그것은 현재 세계, 지역 교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개인 생활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4. "외모 ... 중심"은 대단한 대조가 아닌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중심을 보는가?

5. “영이 오면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진술은 대단한 놀라움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과 관련하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 16. 지극히 높은 곳과 땅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쿵! (삼상 17 장

###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Thud!)

몇 년 전 존 로잉(Lawing)의 만화 What if(“만일 -이라면”)가 잡지 *Christianity Today*(“오늘의 기독교”)에 정기적으로 실렸다. 그 중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만화였다. 그것은 땅에 닿는 물매를 가진 키가 작은 다윗이 그의 약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육중한 팔에 “어머니” 문신을 한 골리앗이 그 말을 듣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윗이 큰 소리로 말한다. “나는 ‘우리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유머를 즐길 수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용서하지 않은 것을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내러티브는 그것이 실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중요한 질문은 그 이야기의 관점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 내러티브의 적절한 주안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주일학교 초등학생에게) 길거리의 깡패든지, 모든 사람의 선입견(초라한 자화상)이든지—“당신의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얻는 것에 대한 모든 잡동사니 교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본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한 보호 중 하나는 내러티브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는 곳에 주목하는 것이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때때로 중심 주제를 제공하는 핵심 단어나 용어가 있을 수 있다. 사무엘상 17 장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 장에는 “비난하다, 도전하다, 조롱하다, 놀리다”라는 뜻을 갖는 어근 [하라프]가 여섯 번 나오기 때문이다(삼상 17:10, 25, 26[두 번], 36, 45). 가드에서 온 짐승 같은 자와 관련하여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가 그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골리앗은 불레셋의 거물에 그치지 않고 그의 비난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모욕을 준다. 이것이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이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란 주제 아래 교훈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본적인 방향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sup>1</sup>

---

<sup>1</sup> 사무엘상 17(-18)장의 본문에 대해 큰 논쟁이 있다. 칠십인역(주전 200 년경,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에는 (맛소라 본문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한글 성경에 있는 삼상 17:12-31, 41, 50, 55-58 이 없다. 칠십인역에는 또한 삼상 18:1-5 도 없다. 만약 칠십인역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읽으면, 맛소라 본문의 긴장과 명백한 불일치를 느끼지 않고 흐름이 매끄럽고 일관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칠십인역의 이 부분을 의심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너무 깔끔하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 자체의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64-66 을 참고하라. 맛소라 본문에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삼상 16:14-23 에는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 있는 반면, 사무엘상 17 장에는 다윗은

## I. 몇 가지 예비적인 문제들 (Some Preliminary Matters)

강해를 하기 전에 우리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등장 인물들을 잘 알아야 한다.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12-14 마일쯤 떨어져 있었다. 소고와 아세가는 그 골짜기 남쪽의 방위 거점이었고, 아세가는 소고에서 북서쪽으로 2 마일 조금 넘는 지점에 있었다(삼상 17:1-3 참조).<sup>2</sup>

저자는 등장 인물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지리적 배경, 1-3

골리앗의 모습, 4-7

---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있다. 삼상 17:12-15 은 우리가 이미 16 장에서 만났던 이새와 다윗을 다시 소개하고 있다. 사울이 삼상 16:23 에 묘사된 대로 다윗의 음악 치료를 즐겼다면, 삼상 17:55-58 에는 사울이 왜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가? 물론 삼상 17:15 은 다윗의 궁정 출입이 간헐적이었음을 나타내므로 골리앗을 대면하는 때에는 그가 궁정에 없었음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비평적인 논쟁에서 삼상 17:15 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삼상 17:15 이 없다면, 누군가가 16:14-23 와 17 장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나, 삼상 17:15 이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편집자가 이야기의 불일치들을 매끄럽게 하려고 거기에 놓은 "명백한 조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승산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삼상 17:12-15 에서 다시 소개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골리앗에게 주어진 자세한 묘사(삼상 17:4-10) 이후에 다윗은 동등한 길이의 묘사를 할애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맛소라 본문은 이새를 "이/저 에브라트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것은 이새가 이미 언급되어 온(삼상 16:1, 18-19) 인물임을 암시한다. [역자 주: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브다비드 벤-)이시 에프라티 하제 ("이 에브라트 사람")을 살려 번역한 한글 성경은 없다. YLT 는 "this Ephrathite", KJV 는 "that Ephrathite", ISV 는 "(David was the son of) **that Ephrathite man** (named Jesse from Bethlehem in Judah)" 등은 원문을 잘 반영한다. 다른 영어 성경은 대개 "a/the Ephrathite"로 번역해 원문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삼상 17:55-58 에 나오는 사울의 질문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에 관한 것(세 번)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에서 (세금에서) 해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의 뿌리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 그러나 삼상 16:19-22 은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사울의 소박한 궁정에서도 그러한 의사소통은 사울이 직접 하지 않고 관료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이다. 사무엘상 17 장의 경우 내가 맛소라 본문을 선호하는 것은 보수주의 편집증의 증상이 아니다. 폴진(Robert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9], 161-76)도 문학적인 근거에 의해 사무엘상 17 장(그리고 특별히 17:55-58)을 지지한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 맛소라 본문의) 삼하 21:19 의 문제에 대해서는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704 을 참고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과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역자 주를 보라.]

<sup>2</sup> 지리적 묘사를 위해 George Adam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d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n.d.), 226-28 을 보라.

골리앗의 말, 8-10  
두려움, 11  
다윗의 도착, 12-22  
골리앗의 말, 23  
두려움, 24-25  
다윗의 말—신학, 26-27  
엘리압의 불만—경멸, 28-30

바로 삼상 17:26 부터 강해를 시작하고 싶지만, 골리앗과 다윗에게 주어진 이 기다란 소개에 대하여 두 가지 관찰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비 관찰은 골리앗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골리앗의 키, 보호 갑옷, 공격용 무기, 그리고 그 무게에 대한 그의 자세한 묘사(삼상 17:4-7)를 보고 놀랄 것이라고 확신한다. 9 피트 6 인치의 키를 가진 대상은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가 약 126 파운드의 갑옷을 입고 15-16 파운드의 철제 머리가 달린 창을 휘둘러 수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sup>3</sup> 그 다음 우리는 골리앗이 자기와 일 대 일로 싸울 도전자를 보내라고 큰 소리를 치며 몹시 뽐내는 그의 허풍을 전하는 세 개의 구절을 들어야 한다.<sup>4</sup>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삼상 17:11).

우리는 인상에 관한 어떤 것, 곧 왕뿐만 아니라 거인에게도 적용되는 어떤 것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던가? 포켈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사무엘상 16 장에서 17 장으로 금방 온 독자는 인상적인 외모가 "그의 외모나 큰 키에 주목하지 말라(삼상 16:7)."는 구절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종류의 예언적인 비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챔피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주었을 것이다.<sup>5</sup>

포켈만은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대응에 대해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독자들에게는

---

<sup>3</sup>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75-76.

<sup>4</sup> 참조, Roland de Vaux,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Garden City, N.Y.: Doubleday, 1971), 122-35, 그리고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N.Y.: Alba House, 1972), 3:104-7.

<sup>5</sup>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1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148.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삼상 16:7 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단순히 그 본문의 또 다른 적용을 위한 자료일 뿐이다. 여기 다시 외모가 있다. 우리는 삼상 16:7 이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예비 관찰은 우리가 다윗의 장황한 소개(삼상 17:12-23)에서 섭리의 한 단면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sup>6</sup> 우리는 삼상 17:12 에 와서 진정한 안도감을 느낀다. 사무엘서 저자는 결코 엉터리라고 할 수 없다. 사실을 말하면, 그는 친절하다. (독자가 정말로 본문에 몰두해 있다고 가정하면) 독자는 삼상 17:4-11 이 주는 많은 긴장에 넋을 잃는다. 거기서 나는 이 완전 무장한 블레셋의 거인을 보고(삼상 17:4-7), 그가 큰 소리치는 것을 듣고(삼상 17:8-10), 사울과 이스라엘이 정말 당황하여 찢찢매는 모습을 본다(삼상 17:11). 그런 다음 나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이 에브랏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새이고 그에게는 8 명의 아들이 있었다...(삼상 17:12)"라는 말씀을 읽는다. 이것은 얼마나 큰 문학적 안도감인가! 이 작은 계보만큼 좋게 들렸던 것은 결코 없다.

그러나 독자는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이 골리앗으로부터 순간적인 휴식 이상의 것을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삼상 17:12 에서 시작된 다윗에 대한 묘사는 14-15 절까지 계속되고 전체 부분은 다윗이 최전선에 나가 가드의 짐승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다윗을 따라간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로 끌고 가고 있는 볏은 곡식과 떡과 치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있는지 이새가 좀 알았더라면! 다윗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그것은 모두 조용하고 자연스럽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에브랏 사람의 아들이었다 ..." 이렇게 그것은 죽 계속된다. "그는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갔다(삼상 17:20)." "모든 것이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

<sup>6</sup> 삼상 17:12-23의 상세한 패턴에 유의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된다. 다윗에 관한 이 짧은 부분에는 그 블레셋 사람(골리앗)이나 블레셋 사람들에 관한 한 구절의 묘사들이 다음과 같이 사이 사이에 끼워져 있다.

다윗—설명, 12-15

그 블레셋 사람, 16

다윗—임무, 17-18

블레셋 사람들, 19

다윗—도착, 20-22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23a

(다윗—들음, 23b)

가장 일상적으로 보였던 것들은 사실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섭리 사슬의 연결고리였다."<sup>7</sup> 그 때 골리앗은 한 번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다윗은 들었다(삼상 17:23). 여러분은 그 나머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일상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 그러나 여러분이 더 나아가기 전에 경배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 필립스 부룩스의 말이 옳았다. 경이로운 선물은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조용히 주어지는가!

사무엘상 13-14 장에서는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자인 것처럼 보였다(참조, 삼상 14:6). 사무엘상 17 장에서는 다윗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윗의 믿음을 주제로 삼고 강해를 구성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사무엘상 17 장의 주된 관심사인 여호와의 영예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II. 믿음의 목소리 (삼상 17:26 The Voice of Faith)

"이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가 주어집니까?" 다윗은 위험을 감수할 경우 자신에게 무슨 보상이 주어질 것인지 알고 싶었던 것 같다(참고, 삼상 17:25). 그러나 이것은 그의 질문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 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은 첫 번째 신학적 논평을 내러티브에 주입한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 신학보다 문학을 우선시하자. 이것은 다윗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사무엘상 16 장과 17 장(지금까지)의 사건에서 다윗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다윗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다윗은 문학적 병어리로 있어 왔다.<sup>9</sup>

---

<sup>7</sup> 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279.

<sup>8</sup> D. F. Payne, "1 and 2 Samuel,"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Grand Rapids: Eerdmans, 1970), 296.

<sup>9</sup> 내가 우연히 발견한 이 요점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 후에 나는 폴진(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168)이 그것을 암시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독자는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의 침묵과 비교할

거의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자들은 한가할 때 예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해설이 필요 없는 것에 대해 논평하기도 하고 반응이 필요 없는 것에 대해 반응하기도 한다. 그런 포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때로는 다소 조용하고 생각에 잠겨 있는 친구나 동료도 있다. 특히 수줍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자기 생각을 들려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 이 친구가 어떤 토론이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활기를 떨 것이다. 자주 말을 하지 않는 그가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이 적어도 그에게는 의미 심장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삼상 17:26b 에 나오는 다윗의 말이 골리앗처럼 무거운 이유이다. 우리 이야기에서 이전에 다윗은 말한 적이 없다. 이제 그 침묵이 깨졌다.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온다. 이 시점까지 내러티브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마음을 줄이는 것처럼) “불경건”했지만, 이제 다윗은 경건한 질문을 에피소드에 주입한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갖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변화를 주지 않는가? 저 작자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동일시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자신의 명성에 대한 그런 비방에 무관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이 군사적이고 신학적인 진창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짓밟는 것을 허락하실 것으로 기대하는가?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을 무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자에 불과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은 사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주신다.

다윗의 질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매력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출발점을 잡는 것과 우리가 맨 처음부터 올바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신자의 모든 삶과 교회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위험과 고난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우리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임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비극이다.

### III. 믿음의 활력 (삼상 17:34-37 The Vitality of Faith)

사울이 다윗을 면담하는 것(삼상 17:31-39)을 엿듣고자 열망할지라도,<sup>10</sup> 독자는 적어도 한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엘리압이 전형적인 형 스타일로 다윗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노아가 창세기 6:9 에서 9:19 까지 어떤 것을 말한 것으로 한 번도 묘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sup>10</sup> 참조, Fokkelman, *The Crossing Fates*, 161.

것을 들어야 한다(삼상 17:28).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삼상 17:28 개역개정)

다윗은 정상적인 막내 동생다운 대답을 준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세요?" 몇 년 동안 트집 잡았던 것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처럼 들린다. 다윗의 다음 말은 좀 어렵지만, "그럼 내가 말조차 할 수 없어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다.<sup>11</sup>

우리가 엘리압을 빨리 지나가서는 안 된다. 엘리압은 거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삼상 16:6 에서 그는 삼상 9:2 의 잘생긴 사울의 거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압은 다른 사람의 거울이 된다. 그가 다윗에게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고 하며 적은 양들을 암시하고,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하며 전지한 듯 선언할 때 그의 혀는 경멸을 쏟아낸다. 엘리압은 골리앗이다. 그는 골리앗보다 앞선 골리앗이다. 골리앗은 다윗에 대한 경멸을 표현할 것이지만(삼상 17:42-44), 엘리압은 이미 그것을 표현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상 17 장에서 세 명의 골리앗과 싸워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엘리압을 통해 그는 골리앗의 경멸에 직면하고, 사울을 통해 그는 골리앗의 마음(오직 경험이 있고[삼상 17:33] 잘 무장한[삼상 17:38-39] 전사에게만 승산이 있다는 마음)을 만난다. 그 모든 것은 그가 골리앗 자신의 시체를 마주하기(삼상 17:41-50) 전이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나온다. 우리의 관심은 삼상 17:34-37a 에서 다윗이 한 말에 고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대면하는 장면(삼상 17:31-40)의 의도된 초점이 다윗이 한 말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말이 이 단락의 경첩인 것을 보여주는 다음의 구조는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A 사울에게 보고, 31

B 다윗의 용의(用意), 32

C 사울의 이의 제기, 33

---

<sup>11</sup> 역자 주: 삼상 17:29b הלא דברתי [할로 다바르 후]에 대한 번역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Davis: "Can't I even talk?"; NIV: "Can't I even speak?"

ESV: "Was it not but a word?"; 현대어성경: "나는 그저 말 한마디 물어 보았을 따름입니다."

KJV: "Is there not a cause?"; 개역개정: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NASB: "Was it not just a question?"; 새번역: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공동번역: "그저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X 다윗의 대답, 34-37a

C' 사울의 동의 및 제공, 37b-38

B' 다윗의 "연약함", 39-40a

A' 블레셋 사람에게 접근, 40b

다윗의 대답(삼상 17:34-37a)은 그의 비밀, 곧 가드의 최고 시민을 감히 노려보도록 그의 믿음을 북돋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켜왔습니다(삼상 17:34)." 다윗은 양이 블레셋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한다. 목동은 그의 생명과 양떼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과 함께 산다. (아마도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23 편을 읽기 전에 창 31:38-40 을 읽어보라고 권할 것이다.) 사자나 곰이 다윗의 양 중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런 경우에 그는 그 뒤를 쫓아가서, 약탈자를 쳐서 쓰러뜨리고, 그 아가리에서 먹이감을 구해 냈다. 그것이 그에게 덤벼들면, 그는 그 턱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 다윗은 삼상 17:35-36 에서 "치다, 쳐서 죽이다"라는 뜻의 동사 [나하]를 세 번 사용한다. 그는 마치 사울에게 요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 "저에게 전쟁 경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적들을 쳐서 죽이는 것은 제 일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거인이라기보다는 사나운 짐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자와 곰의 시체 더미에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삼상 17:36)." 그런 다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던 **여호와, 그분이** 저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삼상 17:37).

다윗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있다. 그는 그의 모면을 행운이나 기술이나 대담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 믿음으로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다. "그분이 저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을 엘라 골짜기에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을 준다. 믿음은 여호와께서 과거에 베푸신 공급을 기억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그리고 현재를 위해 유지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의 역사는 현재의 딜레마 속에서 믿음을 키워준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때 거기서 저를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기억과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이 경우에도 마땅히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논리가 믿음의 시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 행위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일기 쓰는 일에

투자하라.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어떤 경험도 낭비되는 법이 없다.

여러분은 “**그분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삼상 17:37 말씀을 여러분 앞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삼상 17:34-36 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 다윗은 참된 담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다윗이 양들 사이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있던 여호와와는 언제나 동일하시다.

#### IV. 믿음의 승리 (삼상 17:41-54 The Victory of Faith)

마침내 우리는 전투 그 자체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투에 대한 묘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 부분을 도표로 만들어보자.

블레셋 사람, 41-44

다윗의 말, 45-47

대결, 48-49

여파(우두머리와 군대를 잃음), 50-54

나는 이 배열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고 싶다. 첫째로, 저자가 삼상 17:41-44 을 통해 어떻게 골리앗이 그 장면을 지배하도록 했는지 살펴보자. 저자는 그 블레셋 사람을 다섯 번이나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 블레셋 사람”은 가서(41 절), 둘러보고(42 절), 말하고(43 절), 저주하고(43 절), 다시 말했다(44 절). 이렇게 저자는 다섯 번이나 각 동사의 주어로 “[하플리시티] 그 블레셋 사람”을 명시한다.<sup>12</sup> 마치 본문 자체도 골리앗의 발걸음 아래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골리앗은 우세를 점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저자는 여기서 그의 관습을 허용한다. 골리앗도 결국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둘째로, 전투 자체(삼상 17:48-49)와 비교했을 때 다윗의 말(삼상 17:45-47)에 얼마나 많은 강조가 주어지는지 주목하라. 히브리어 본문에서 다윗의 말은 약 63 개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투 보고는 36 개의 단어만 사용한다.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쓰러뜨리는 타격이 너무 빨리 온다. 누구나 첫 회에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물매와 돌을 사용하는 일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돌들은 직경이 2-3 인치 정도 되고, 숙련된 전사가 던지면 시속

---

<sup>12</sup> [역자 주] 삼상 17:41-44 에서 주어로 다섯 번 나오는 [하플리시티] (“그 블레셋 사람”)는 한글 성경들에서 다섯 번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개역개정판의 경우 41 절과 43 절에서 “블레셋 사람”으로, 42 절과 44 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으로 번역되었고, 더구나 43 절의 두 번째 동사 “저주하고”의 주어로 “그 블레셋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100-150 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다.<sup>13</sup>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로, 사무엘상 17 장에서 다윗의 중요한 말은 세 번에 걸쳐 나오고 모두 신학적으로 충전되어 있다(26 절, 34-37a 절, 45-47 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다윗의 세 번째 말이다. 마치 저자는 다윗을 그의 해설자로 삼는 것 같다. 누구나 다윗의 말을 들으면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 17:45-47 개역개정)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것들에 주목할 것이다. 다윗은 매운 말씀씨에 있어서 골리앗의 호적수이다. 그는 시체나 살고기에 대해서도 그 덩치 큰 녀석만큼이나 잘 말할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충격적인 대사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온 땅 사람들이 내일 신문의 박스 스코어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 곧 참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삼상 17:46). 만군의 여호와, 곧 골리앗이 조롱한 하나님은 골리앗이 어떤 보잘것없는 힘을 섬기든지 보여주시실 것이다. (골리앗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삼상 17:43)" 다윗을 저주했던 것에 유의하라.) 그러나 다윗은 특히 여호와께서 인간의 힘의 도구들이 아니라 그분의 종들의 연약함을 통해 구원하신다고 강조한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삼상 17:45), 그 날이 저물기 전에 엘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삼상 17:47)을 알게 될 것이다. 여파 부분(삼상 17:50-54)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다윗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삼상 17:50)." 그래서 그는 거인을 끝내기 위해—허락 없이—골리앗의 것을 빌려야만 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렇지만, 그분은 세상이 연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승리를 주셨다.

"연약함"이라는 이 주제는 사무엘상 17 장 전반에 걸쳐 서서히 고조되어 왔다. 모든 중요한 사람들은 다윗을 연약하다고 여긴다. 구어체로 표현한다면, 엘리압은 그에게 "너는 골칫덩어리야."라고 말하고(삼상 17:28), 사울은 "너는 풋내기야."라고 경고하고(삼상 17:33), 골리앗은 "너는 가소로워."라고 비웃는다(삼상 17:42).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

<sup>13</sup> J. K. Hoffmeier, "Weapons of War," *ISBE*, rev. ed., 4:1040.

사용하실 사람이다. 또한 다윗은 올바른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윗은 작은 골리앗이 되기를 거부하고 사울의 갑옷과 칼을 옆으로 제쳐 놓는다(삼상 17:38-39). 그는 그의 막대기로 골리앗을 모욕한다(참조, 삼상 17:43).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인력(人力)의 상징 없이 구원을 가져다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이것을 듣는다(예: 시 20:7; 33:16-19; 147:10-11; 고후 12:7-10 참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최고의 무기를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당신의 "부족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당신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힘은 당신의 연약함의 전경 뒤에서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뿐만 아니라 개별 신자들의 삶에도 적용된다. 이교도의 통치 아래, 한 기독교인 여성은 그녀의 신앙 고백 때문에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처형 전날 그녀는 진통에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진통 중에 울부짖었다. 간수는 그녀를 조롱할 기회를 잡았다. "당신이 오늘 이리 시끄럽게 소리치르면, 내일 폭력적인 죽음은 어떻게 견딜 것이지요?" 그녀는 "오늘 나는 평범한 일을 겪고 평범한 도움만 받습니다. 내일 나는 평범한 것을 넘어서는 고통을 겪을 것이고 평범한 것을 넘어서는 도움을 바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sup>14</sup> 강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허세나 우상 숭배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정확히 그 연약함 속에서 "평범한 것을 넘어서는 도움"을 기대했다.

#### V. 믿음의 비전 (The Vision of Faith)

나는 이번 과의 시작 부분에서 말했던 사무엘상 17 장의 주요 주제에 대한 논평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거기서 나는 "조롱하다, 놀리다, 도전하다, 비웃다"라는 뜻을 갖는 어근 [하라프]에서 파생된 어형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사무엘상 17 장의 초점을 밝혀준다고 주장했다.

[하라프]에서 파생된 어형들은 여섯 번 나온다. 골리앗 자신은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도전한다고 말하고(삼상 17:10), 이스라엘 군대는 그가 그렇게 했다고 인정한다(삼상 17:25). 오직 다윗만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조롱/모욕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삼상 17:26a).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삼상 17:26b). 다윗은 이 점을 사울(삼상 17:36)과 골리앗(삼상 17:45)에게 주지시킨다.

따라서 사무엘상 17 장의 주요 관심사는 여호와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의 영예이다. 다윗은

---

<sup>14</sup> John Whitecross, *The Shorter Catechism Illustrated from Christian Biography and History* (reprint ed., London: Banner of Truth, 1968), 169.

하나님의 영예에 대한 열정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가? 물론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영리함이나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 떠드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이 장의 초점은 다윗에게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윗은 연약해도 여호와와 충분하시다는 사실에 있다. 다윗 자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했다(삼상 17:37, 45, 47). 이것을 보는 것을 거부하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친히 받으려고 의도하셨던 그분의 영광을 흠친다. 해석학은 위험할 수 있다. 사무엘상 17 장은 우리가 한 가지 측면에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허용하고, 한 가지 특별한 점에서 그를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상 17 장은 우리가 다윗을 따르며 여호와와 영예에 눈을 고정시킨 그의 믿음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다윗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호와의 명성이 위태롭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관점인가? 우리 자신의 시대에, 우리 자신의 다양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나 명성이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백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고 숨막히는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자주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더 자주 목회자의 서재에서 주어질 것이다. 결혼 주례를 부탁받은 목회자가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신앙을 고백한 기독교인과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불신자를 부부가 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두 사람에게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때 그럴 것이다. 그 대답은 그 한 쌍의 남녀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그 가족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그 가족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내 평판인가 여호와와 영예인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구두점처럼 사용하는 직장 동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 동료를 한쪽으로 데려가, 그 문제에 대해 그 사람과 대면하고, “당신을 불쾌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설명해야 할 때 그럴 것이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여러분은 비웃음을 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누구의 영예가 중요한가?

사무엘상 17 장에서 약속된 왕은 그의 백성의 적을 물리친다. 그가 그것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적이 여호와를 조롱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영예와 영광은 지켜져야 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시려면 그분의 원수가 침묵하게 만들어야 한다. 쿵 하는 소리가 없다면 영광은

없을 것이다.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의 통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시 2:12)"을 거부하므로 "철장(시 2:9)"이 있어야 한다.

## V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사무엘상 16 장은 17 장 이전에 나올지라도 매우 고무적인 장이다. 이사야 52:13-53:12 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다. 사 52:13 이 이 예언 단락과 관련하여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2. 사람의 말은 세어서는 안 되고 무게를 재야 하며, 기독교의 도서관에 있는 책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말과 책은 얼마나 무거운가?
3. "하나님 중심적 사고"—기독교인들에게는 정상적이어야 하지만 드물게 드러나는 일이 흔하다.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인가?
4.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어떤 경험도 낭비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즐거운 시간뿐만 아니라 즐겁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사무엘상 17 장은 다윗의 연약함을 강조한다. 바울이 고후 10:13 에서 연약함이란 주제를 다루는 방식을 연구하라.

### [역자 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구약에 골리앗이란 이름은 6 번 나온다(삼상 17:4, 23; 21:9[MT 10]; 22:10; 삼하 21:19; 대상 20:5). 사무엘서의 맛소라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삼상 17:51, 57; 18:6; 19:5; 21:9[MT 10])고 말하기도 하고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삼하 21:19)고 말하기도 한다. 대상 20:5 은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 한다.

#### 1. 해결책 1: 맛소라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해결하는 방법

- 1) 다윗이 죽인 골리앗과 엘하난이 죽인 골리앗이 동명이인(同名異人)이라는 것이다. 영블러드 (*REBC* 3:568)에 의하면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Harley, 336; Kirkpatrick, 197)도 있고 골리앗이란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람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라고 주장하는 사람(Hertzberg, 387)도 있다. 영블러드는 별 가능성이 없는 해결책으로 보았고 "베들레헴 사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옳은 독법이라고 해도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2) 구약에 나오는 골리앗은 한 명이고 다윗과 엘하난이 이명동인(異名同人)이라는 것이다. 영블러드(*REBC* 3: 567)에 의하면 A. M. Honyman(*JBL* 7/1 [1948]: 23-24)과 Emanuel Tov(*BRev*

3/3 [1987]: 6) 등이 엘하난을 다윗의 왕명(throne name)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은 삼하 21:19의 **וַיַּךְ אֶלְהָנָן בֶּן־יָעִיר אֶרְגִּים** [바야흐 엘하난 벤-야레 오르김]을 정정하여 [바야흐 엘하난 벤-이샤이]로 읽는다.

- ① 이 독법은 서기관이 이 절의 맨 마지막에 오는 **אֶרְגִּים** [오르김]을 보고 여기에 중복 오사하는 실수를 했고, 원래 엘하난과 동격인 **בֶּן־יֵשׁוּעַ**("son of Jesse")를 **בֶּן־יָעִיר**("son of Jaare")로 잘못 베긴 것으로 보았다.
- ② 다윗과 엘하난을 동일하게 보는 이 입장은 삼하 21:19에 인접해 있는 절들(15, 17, 21, 22)에 다윗이란 이름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대상 20:5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은 것이다.

2. 해결책 2: 대상 20:5이 원래의 본문을 전승하고 있고 삼하 21:19은 본문 전승의 과정에 몇 가지 실수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Archer, *Encyclopedia of Bible Difficulties*, 179; Kaiser, *Hard Sayings of the Bible*, 212). 개역개정(쉬운성경, 우리말성경)은 이 해결책을 따르고 있다. 삼하 21:19의 개역개정과 비교할 때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아우 라흐미"없이 "골리앗"으로 번역했고, 공동번역은 "야레오르김" 대신 NIV처럼 "야이르"의 아들로 번역하였다. 영어성경은 "골리앗"으로 번역하거나 "골리앗의 형제"로 번역했고 대상 20:5을 따라 "라흐미"를 넣어 번역한 것은 없다.

1) 맞소리 본문과 번역들 비교

MT 대상 20:5

וַתְּהִי־עוֹד מַלְחָמָה אֶת־פְּלִשְׁתִּים  
**וַיַּךְ אֶלְהָנָן** ③ **בֶּן־יָעִיר** [כ=יָעִיר] [ק=יָעִיר] ① **אֶת־לַחְמִי** ① **אָחִי גִלְיָת הַגִּתִּי** ②  
**וַיַּעַז חֲנִיתוֹ כְּמִנֹּר** ④ **אֶרְגִּים** ④

개역개정: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베틀채 같았더라

MT 삼하 21:19

וַתְּהִי־עוֹד הַמַּלְחָמָה בְּגֹב עַם־פְּלִשְׁתִּים  
**וַיַּךְ אֶלְהָנָן** ③ **בֶּן־יָעִיר** ① **בֵּית הַלַּחְמִי** ① **אֶת גִּלְיָת הַגִּתִּי** ②  
**וַיַּעַז חֲנִיתוֹ כְּמִנֹּר** ④ **אֶרְגִּים** ④

새번역: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 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베틀 앞다리같이 굽었다.

ESV: ... Elhanan **the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struck down Goliath the Gittite ...

NIV: Elhanan **son of Jair the Bethlehemite** killed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개역개정: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곁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들레헴 채 같았더라)

2) 대상 20:5에서 삼하 21:19로 변형되는 과정

① 대상 20:5의 אֶת־לַחְמִי<sup>①</sup>([에트-라흐미])는 고유명사 [라흐미] 앞에 직접목적어 표시어인 [에트]가 붙어 있으므로 “라흐미를 [죽였다]”란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삼하 21:19은 אֶת[에트]를 בֵּית/בֵּית[베트]로 읽고 וְלַחְמִי와 합쳐서 בֵּית לַחְמִי<sup>①</sup>([베트-할라흐미] “베들레헴 사람”)이 엘하난과 동격이 되도록 하였다.

② 대상 20:5의 קָלִיֹּט[“골리앗”]앞에 있는 אָחִי<sup>②</sup>(“-의 아우”)를 삼하 20:19은 직접 목적어 표시어 אֶת<sup>②</sup>(-을, -를)로 읽고 골리앗을 목적어로 만들었다.

③ 셋째로, 대상 20:5의 בְּנֵי יַיִר<sup>③</sup>(“야일의 아들” son of Jair)를 삼하 21:19은 맨 마지막에 오는 단어 אֲרָגִים을 중복 오사하고 이와 함께 가도록 앞 단어(יַעֲרִי)를 의존형으로 만들어 “야레오르김의 아들” (son of the forests of weavers[??])이란 בְּנֵי יַעֲרִי<sup>③</sup> אֲרָגִים<sup>④</sup>[벤-야레오르김]이 되게 하였다.

3. 영블러드(*REBC* 3: 568)는 영(E. J. Young, *IOT*, 198)의 말을 결론으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엘하난이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다는 것이다.” 영블러드는 다른 참고 문헌으로 Keil-Delitzsch, 465-66과 Archer, 465-66과 J. Barton Payne, *EBC* 4:404과 D. F. Payne, *NBC*, 318-19 등을 들었다.

## 17. 전능자의 그늘 (삼상 18-19 장 The Shadow of the Almighty)

컨트리 음악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랬다. 적어도 사울에게는 그랬다. (그것이 사울의 상황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윗의 상황도 변화시켰다). 전쟁이 끝나서 군대가 블레셋 작전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엘라 작전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나왔다(삼상 18:6).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축하했다. 본문에는 그들의 승리 노래가 한 곡 들어 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

그 여인들에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사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사울은 탕자를 위한 잔치의 형이다(눅 15:25-32). 사울의 귀는 박자와 멜로디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소프라노와 알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 그는 가사를 분석하고 여인들이 베들레헴의 한 장례식에서 애가를 부르는 데 그들의 재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사울이 그의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물려서서 이 장들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한다.

### 1. 여호와의 종은 매우 자극적이다 (삼상 18:1-9 Yahweh's Servant Is So Provocative)

골리앗의 쓰러짐은 땅보다 더 많은 것을 흔들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것 같다. 사무엘상 18-19 장의 첫 부분에서 저자는 다윗에 대한 이중 반응을 언급한다. 이 반응은 사무엘상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퍼질 것이다. 이 첫 부분에서 저자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존경(삼상 18:1-5)과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18:6-9)를 나란히 놓는다.

분명히 요나단은 즉시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 "요나단은 다윗을 바로 자기 자신처럼(NJB: like his very self) 사랑했다(삼상 18:1)." 이 때문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 삼상 18:3 이 암시하는 대로 요나단이 술선해서 한 것이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카라트] "자르다, to cut")." 여기에 사용된 "자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카라트]에 치중하여 설명하면, 언약은 짐승을 자르고 두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로써 두 당사자는 서로에게 마치 "내가 이 언약에서 한 말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잘려 죽어도 좋다."라고<sup>1</sup> 말하는 것과 같다.

---

<sup>1</sup> TWOT, 1:456-57 을 보라.

그러나 언약을 맺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삼상 18:4). 이 모든 것은 의미심장하면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옷은 그 사람과 그의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나단의 행위는 의미심장했다. 요나단은 왕세자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로 다윗에게 왕위 계승의 권리를 양도한다.<sup>2</sup> 고대 근동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15,000 달러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나는 내 집에 대해 가능한 많이 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중개자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해 보라.) 여러분이라면 왕위 계승의 권리를 유망한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고, 그를 제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문화의 지루한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라프는 바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나단의 편에서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기꺼이 더 작은 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갖게 한다. 믿음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우리의 것이라고 가정하는 권리를 포기하게 한다."<sup>3</sup>

사울은 이 중 어느 것도 없었다. 다윗에 대한 여인들의 찬사를 들은 후에 이런 것이 없었다(삼상 18:8-9). 다윗은 그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이끌어 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신실한 사랑을 이끌어냈지만, 사울로부터 살인적인 시기를 이끌어냈다. 다윗의 자손이신 분은 분열을 일으키시는 데 동일한 재주가 있었다(요 7:43; 9:16; 10:19). "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마 10:35)." 요나단은 **그분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 같다.

---

<sup>2</sup> Stan Rummel, "Clothes Maketh the Man—An Insight from Ancient Ugarit,"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 (June 1976): 6–8; P. Kyle McCarter, Jr., *I Samuel*,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305;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1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198 등을 참고하라. 럼멜은 우가릿에서 발견된 아카드어 문헌을 언급한다. 그 문헌에 의하면 주전 13 세기의 우가릿 왕 우트리샤루마가 자신의 왕비와 이혼 합의를 한다. 이 부부의 아들 황태자는 원하면 어머니와 함께 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그는 왕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옷을 보좌 위에 남겨둠으로써 이 결정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민 20:22-28 그리고 왕상 19:19-21 과 비교해 보라. 사무엘상 19 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해를 끼칠 수 없게 된 사울은 옷을 벗는다([파샤트] 삼상 19:24; 참고, 요나단이 삼상 18:4 에서 옷을 벗은 것을 묘사할 때도 같은 [파샤트]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사울조차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왕권을 상실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참고,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165).

<sup>3</sup> S. G. De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Paideia, 1978), 2:116.

## II. 여호와와의 호의는 매우 분명하다 (삼상 18:10-30 Yahweh's Favor Is So Clear)

우리는 사무엘상 18 장에 나오는 반복을 놓칠 수 없다. 다윗의 성공에 관한 언급이 네 번 나오고(삼상 18:5, 14, 15, 30),<sup>4</sup>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진술이 세 번 나오고(삼상 18:12, 14, 28), 다윗을 목적으로 갖는 "사랑하다"는 동사 [아하브]가 여섯 번 나온다(삼상 18:1, 3, 16, 20, 22, 28).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삼상 18:1, 3),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삼상 18:20, 28), 사울의 모든 신하를 포함한(삼상 18:22)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한다(삼상 18:16).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다. 본문에 3 번 묘사된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삼상 18:12 [야레]), 무서워하고(삼상 18:15 [구르]), 더욱 더 두려워한다(삼상 18:29 [야레]).<sup>5</sup>

다윗의 성공과 여호와와의 호의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시각적으로 포착하면 더 잘 보인다. 사무엘상 18 장 전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사울의 아들과 그의 옷, 1-4
- 다윗의 성공, 5
- 사울의 불쾌와 그의 창, 6-11
- 다윗의 성공, 12-16
- 사울의 딸과 그녀의 값, 17-27
- 다윗의 성공, 28-30

어쨌든, 사무엘상 18 장의 끝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입되어 온 요점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그가 지혜롭게 행했고(형통/성공했고) (거의) 모든 사람이

---

<sup>4</sup> [역자 주] 다윗의 성공을 묘사하는 동사는 [싸할]의 히프일 어간(삼상 18:5, 14, 15)과 칼/파알 어간(삼상 18:30)이다. 개역개정본은 KJV의 "to behave oneself wisely"처럼 "지혜롭게 행하다"로 번역했고, NIV와 ESV는 "to be successful, have success"로 번역했고, NASB는 어간의 차이를 반영하며 "to prosper"와 "to behave oneself wisely"로 번역했다. 참고: 사 52:13의 히프일 [야스킬]의 경우 개역개정본은 NASB의 "to prosper"처럼 "형통하다"로 번역했고, 새번역은 개역개정본처럼 "형통하다"로 번역하고 "슬기롭게 행하다"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각주를 달았다. NIV와 ESV는 "to act wisely"로 번역했고 KJV는 "to deal prudently"로 번역했다.

<sup>5</sup> [역자 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더욱 더 두려워한 것을 묘사하는 동사들은 אָרַךְ [바이라], אָרַךְ [바야고르], אָרַךְ לְפָנָיו [바요세프 레로]이다. [바이라]와 [레로]는 어근 אָרַךְ[야레]의 바브계속법 미완료와 전치사 ל[르]를 가진 부정사 의존형(참고, GKC 69n)이고, [바야고르]는 어근 אָרַךְ[구르]의 바브계속법 미완료이다.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상 18 장에는 쉽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강조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다윗은 그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독자는 여호와와 호의뿐만 아니라 사울의 악의도 본다. 독자는 다윗이 여호와와 선하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선망의 대상인 것도 본다. 사무엘상 18 장에서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계획이 비밀로 남아 있다. 그것은 삼상 19:1 에 이르러서야 어전 회의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위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일부 독자들은 이 마지막 진술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두 번 피하면서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18:10-11)?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삼상 18:10; cf. 16:23) 정신없이 떠들어대고<sup>6</sup>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일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다. 그러한 때에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에 대해 “다윗, 오늘 왕의 상태가 정말 나쁘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들은 사울의 상태를 사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참고, 삼상 16:15). 어쨌든, 사울의 변덕은 잘 알려져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진 것들을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들은 사울의 거듭되는 광기의 폭발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위험하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다윗으로서는 사울이 그에게 자기 딸들과 결혼하라고 한 것을 의심할 이유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사울의 의도는 분명했지만(삼상 18:17b, 21, 25) 비밀로 남아 있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충분히 오랫동안 싸운다면, 평균의 법칙과 어떤 블레셋 사람이 틀림없이 그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사울은 큰 딸 메랍을 주겠다는 제안을 지키지 않았다(삼상 18:17-19; 참조, 삼상 17:25)의 제안을 어겼다. 그러나 사울은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삼상 18:20). 미갈은 유용할 것이다. 사울은 (자기의 참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신하들을 통한 다소 간접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설령 다윗이 궁핍해서 걱정한 신부 지참금을 지불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전혀 걱정할

---

<sup>6</sup> [역자 주] 저자가 “Saul was having one of his ‘spells’ (사울이 그의 ‘주문들’ 중 하나를 갖고/말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한 부분(삼상 18:10)은 히브리어 [히트나베]인데 보통 “예언하다”로 번역된다. 삼상 18:10 의 경우 이 동사가 NIV 에는 “he was prophesying”로 번역되어 있고 ESV 와 NASB 에는 “raved(고래고래 소리지르다, 미친듯이 악을 쓰다)”로 번역되어 있다. 참고: 동사 [히트나베]는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뭇으로 가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걸어가며 “예언을 한(삼상 19:23)”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다.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왕이 결혼 선물로 원했던 것은 적에 대한 약간의 복수였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백 명을 때려눕히고, 그들의 포피를 사울에게 가져다주면, 사울은 신부 지참금이 해결된 것으로 여길 것이다(삼상 18:22-25). 그 동안 사울은 그의 평균 법칙을 믿을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한 여인을 위한 신부 지참금을 블레셋 사람 이백 명에 해당하는 값으로 여기며 사울이 요구했던 그 섬뜩한 징표를 두 배로 공급한<sup>7</sup> 후 미갈을 쉽게 손에 넣었다(삼상 18:26-27).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위험에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여기에 여호와의 호의가 가장 밝으면서도 가장 조용하게 나타난다. 사무엘상 18 장은 여호와의 호의와 사울의 악의라는 두 개의 기초를 나란히 담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보다 강하다. 이 글은 다윗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인가? 그것은 이 조용한 여호와의 보호가 그분의 다른 종들의 유산도 된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없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보호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여러분은 다시 마리아와 함께 앉아서 이런 것들을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눅 2:19).

### III. 여호와의 보호는 매우 한결같다 (삼상 19장 Yahweh's Protection Is So Consistent)

극비 어전 회의가 열렸다. 사울은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고의적인 계획들에 관여하고 다윗은 매우 특이한 상황들에서 일련의 (의도적인 계획의?) 구원들을 경험하는 장이 시작된다.<sup>8</sup> 사무엘상 19 장은 4 개의 구원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1-7 절, 8-10 절, 11-17 절, 18-24 절).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 나는 그것들 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보호의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싶다.

사울이 자기 계획을 공개하자마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대신하여 개입하였다.

---

<sup>7</sup>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고대의 "야만성"에 반감을 느낀다. 그러나 야만성은 고대만큼, 아니 고대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다. 전쟁과 박해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보아도 그것은 분명해질 것이다. 적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지가 절단되기 전에 죽었다. 많은 전쟁이 그렇게 "자비로운"것은 아니다. 그러한 관행은 근동 지역에서 드물지 않았다. 애굽인들은 적들의 절단된 손을 셀 수도 있었다(참조, 사 8:6). 앗수르 사람들은 머리를 합산할 수 있었다. 애굽인들은 때때로 그들이 전투에서 죽인 해양 민족들의 남성 장기를 잘라 내고 세었다.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N.Y.: Alba House, 1972), 3:118 을 보라. 블레셋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를 들어, 모압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 같은) 다른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울은 죽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를 요구할 수 있었다.

<sup>8</sup>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161.

요나단은 다윗이 경계 태세에 들어가도록 한 후(삼상 19:2-3), 사울과 이야기를 하며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고려 사항들을 설득력 있게 말씀드렸다. “다윗은 왕께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왕은 이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삼상 19:4-5)?” 사울은 180 도 전향한 변덕스러운 얼굴로 다윗의 안전을 보증하는 맹세를 했다(삼상 19:6).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리고 그를 다시 궁정으로 데려왔다. 모든 난관이 해결되었다(삼상 19:7). 놀랍게도, 우리가 단지 딜레마들을 마주 대하여 터놓고 말하기만 해도 무수히 많은 딜레마가 해결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다윗의 성공, 그리고 더 많은 사울의 광기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다(우리는 사울이 여호와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때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 평소처럼 수금을 탔고, 사울은 “그의 손에 단창을 갖고 있었다(삼상 19:9). 사울의 단창은 언제나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 같다. 다시 그는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지만, 다윗은 피하고 사울의 단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단창을 피한 후 집으로 도피했다. 삼상 19:8-10 에는 슬픈 아이러니가 있다. 삼상 19:8 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매[나카]”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쳤다[누스].” 삼상 19:10 에서 사울이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나카]” 하였으므로<sup>9</sup> 그는 “도망칠[누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8 절과 10 절에 두 개의 동일한 동사들이 반복 사용되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인 승리자인 다윗은 사울에 의해 한 블레셋 사람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집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의 심복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문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도록 했기 때문이다(삼상 19:11a).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미갈과 다윗이 나누는 활기차고 속삭이는 대화를 상상할 수 있다. 미갈은 아마도 사울의 청부 살인자들이 그들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리한 관찰자였기 때문이다(참조, 삼하 6:16, 20-23). 그녀는 다윗의 곤경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있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삼상 19:11b).” 다윗과 미갈의 집이 라합의 집처럼 성벽에 지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 미갈은 다윗을

---

<sup>9</sup> [역자 주] 삼상 19:10 의 [나카]는 사울이 단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할 때 사용되었다. 영어 성경들은 대개 “to pin/nail David to the wall with the spear/javelin”으로 번역해서 “to strike down, 쳐서 죽이다”라는 [나카]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KJV/GNV 는 “to smite David even to the wall with the javelin/spear”로 번역했고, YLT 는 “to smite with the javelin through David, and through the wall”로 번역했다.

창문을 통해 내려 보냈고, 그는 도망쳤다.<sup>10</sup>

그런 다음 미갈은 다윗에게 시간을 조금 벌여주려고 무대를 꾸몄다. 그러나 삼상 19:13의 세부 사항은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 미갈이 드라빔(참조, 창 31:19, 30-35), 곧 가정이나 가족의 신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녀는 아픈 "다윗"처럼 크게 보이도록 침대에 그것들을 숨겨두었는가(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정말로, 적절히, 인형들로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그녀는 그것들을 "환자들의 보호자"로서 침대 옆에 놓아두었는가? 어쨌든, 미갈이 그런 유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은 분명하다. 머리에 구겨져 있는 이불과 같은 것, 아마도 "몸"에 형태를 부여해줄 어떤 중고 신상들, 위로 올려져 있는 침대보 등등. 우리 시대라면 미갈은 기화기를 쬐고 온도계를 손에 들고 문을 열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긴 했지만(삼상 19:17a), 그것은 명수다운 지연 전술이었다. 그러나 미갈은 아버지의 노여움을 견딜 수 있었다. 미갈은 또 다른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며 이렇게 말하기조차 하였다. "아빠,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무슨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어요(삼상 19:17b)?"

그 동안에 다윗은 도피하여 근처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그 옛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의 짐을 털어놓는다(삼상 19:18).<sup>11</sup> 하지만 사무엘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사울은 사방에 제보자를 갖고 있고(삼상 19:19), 제보를 듣고 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보낸다(삼상 19:20). 그러나 사울의 전령들이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 위에 임하매 그들도[감-헤마] 예언을 했다(삼상 19:20b)."<sup>12</sup> 사울은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의 전령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같았다.

---

<sup>10</sup> [말라트]의 니프알 어간의 동사("피하다, 도망치다")는 사무엘상 19장에서 5번 나온다(10, 11, 12, 17, 18절).

<sup>11</sup> 삼상 19:18, 19, 22, 23(두 번); 20:1에 나오는 "나웃"이 장소 이름(RSV, NIV)인지, 아니면 복수명사로 "오두막들" 혹은 "야영 천막들"(NJB and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98) 인지는 알기 어렵다.

<sup>12</sup> 히브리어 본문은 "사울의 전령들 위에"를 강조하는 위치에 놓음으로써 이 일에 대한 놀라움을 반영한다.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대상 25:1-3에 나오는 악기 연주에 맞추어 "예언"하는 것과 비슷했는가? J. Barton Payne, "1, 2 Chronicle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424을 보라. [역자 주: 대상 25:1-3에 나오는 히브리어 [하니바][나바]의 니프알 어간 분사는 영어 성경들에서 "(who) prophesy 예언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다. 개역개정본은 세 번 모두 "신령한 노래를 하다"로 번역했고, 우리말성경은 "예언하다"로 번역했고, 쉬운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로

"그들도[감-헤마]", "그들도[감-헤마]" 예언했다(삼상 19:21). 요점은 분명하다.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있어도 그에게 성역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사울의 전령들을 무력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사울은 너무 멍청해서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만약 네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너는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중얼거렸을 것이다. 사울은 라마로 갔다. 반복된 "그들도(3 번: 삼상 19:20, 21, 21 [감-헤마])"는 이제 "그도(4 번: 삼상 19:22, 23, 24 [감-후]; 24 [하감 사울])"로 대체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며, 사울이 왕이라고 해서 그의 잔인한 힘을 사용하도록 열외시킬 이유를 보지 않으셨다. 다윗의 보호자이신 그분은 사울이 예언 지점(라마 나뭇, 삼상 19:23)으로 가는 도중에, 곧 그가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그를 공격하셨다. 사울은 이미 성령의 바이스(vise) 안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예배는 불필요한 방해로 전혀 받지 않았다. 사울의 무력한 상태는 한동안 지속되었다.<sup>13</sup>

사무엘상 19 장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을 반복적으로 보호하셨다! 지금까지 그것의 네 가지 예들을 모두 묘사했기 때문에, 나는 그 보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우리가 아직 라마 나뭇을 떠나지 않았으므로(삼상 19:18-24), 우리는 먼저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첫째로, 여호와의 보호가 얼마나 **교훈적인지** 관찰하라. 먼저, 그것은 우리 독자들에게 교훈적이다. 사무엘상 19 장을 꼭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삼상 19:1-7)과 미갈(삼상 19:11-17)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관찰한다. 그러므로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다"는 삼상 19:18 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사무엘이 어떤 면에서 다윗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 본문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의 순전한 권능이다. "탈출의 길"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일이다. 사실, 그분은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 도구(요나단이나 미갈)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욘 2:9)"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분은 (예를 들어, 사무엘과 같은) 도구들을 우회하시기도 한다. 구원의 수단은 결코 구원의 원천을 가려서는 안 된다. 때때로 구원자이신 그분은 그 점을 아주 아주 명백하게

---

번역했다.] 삼상 19:20-24 에 나오는 예언하는 일에 대해서는 E. J. Young, *My Servants the Prophets* (Grand Rapids: Eerdmans, 1952), 88-92 을 보라.

<sup>13</sup>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면, 삼상 19:24 의 "벗은 몸"은 반드시 "알몸/나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드라이버(Driver)와 카일(Keil)의 주석들을 참고하라.

하신다.

그 다음으로, 여호와의 보호 요법은 다윗에게도 교훈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어야 한다. 사무엘상 19 장 말미에서도 위험은 여전히 다윗에게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경과 이 순간적인 구출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보살핌과 그를 보존하려는 그분의 의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뒤돌아보며 볼 수 있어야만 했다. 많은 것—사실, 거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 분명한 증거, 곧 그 모든 것 안에 다윗이 버려지거나 포기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시련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련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이다.

19 세기 중반에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고지대의 사람들에게 빈곤이 밀려들었다. 존 머레이란 사람이 강가에서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것은 바로 그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었고, 그는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기도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옆에 있는 잔디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연어 한 마리가 보기 좋게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이것을 주님께서 스코틀랜드에서 자기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대답으로 받아들였다.<sup>14</sup>

우리가 끊임없이 표징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공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징들은—잔디 위의 연어이든, 친구의 중재이든(삼상 19:1-7), 심장이 아니라 벽에 박힌 창이든(삼상 19:8-10), 아내와 창문이든(삼상 19:11-17), 무력한 적이든(삼상 19:18-24)—**정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보호는 사울에게 교훈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어야 한다. 특히 삼상 19:18-24 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해진 답답한 무능을 경험한 후에 더욱 그랬어야 한다. 그는 그의 살인적인 계획들이 가망 없음을 보았어야 한다. 사무엘상 19 장 전체, 특히 18-24 절을 통해, 우리는 시편 2 편의 축소판을 갖는다. 여기에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세상의 왕들 중 한 명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시 2:10)!”고 말씀하고 계셨다. 여러분은 전능에 맞서 계속 대항해 볼 수 있지만 성공률은 전무하다. 하늘에 계신 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비웃으신다(시 2:4). 설령 사울이 지혜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한 얻기를 소망해야 한다. 삼상 19:18-24 에는 온전한 종말론(마지막 일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다윗이신 그분(참조, 겔 34:23-24)의 출현과 왕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어야 한다.

---

<sup>14</sup> Iain H. Murray, *The Life of John Murra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2), 10n.

둘째로, 여호와와의 보호가 사무엘상 19 장 전체를 통틀어 얼마나 **다양한지** 주목하라. 첫 번째 것은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여 화목하게 한 것을 통해 온다(삼상 19:1-7). 두 번째 것은 긴장감 넘치고 조마조마하게 하는 창문을 통해 도망치는 에피소드에 나온다(삼상 19:11-17). 세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팔을 드러내실 때 더욱 직접적으로 온다(삼상 19:18-24). 전능자의 그늘이 거기 있는데, 상쾌한 여러 방식과 수단으로 주어진다. 구원의 수단과 방법은 구원하시는 분의 상상력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보는 것은 바로 그분의 보호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이다. 사울의 적이 사울의 가족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유머에 가까운 아이러니가 있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음모를 저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삼상 19:1-7)이다. 사울의 전령들로부터 다윗의 피신을 주모하고 은폐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울의 딸 미갈(삼상 19:11-17)이다. 그것은 무릎을 치는 유머가 아니라 절제된 유머이고, 우리가 한번 보면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다소 재미있는 종류의 유머이다. 십중팔구 사울은 요나단과 미갈이 자기 편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친 아들과 딸이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켜 주었다.

이 시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여호와와의 보호에 있어서 다양성과 아이러니를 일단 보자마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는가? 여호와와의 흥미롭고 상상력이 풍부한 방법들은 우리의 찬양을 요구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종류의 일을 흠뻑 보았을 때 손을 내밀어 들고서 좌절감을 표현하며 이렇게 찬양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사무엘상 18-19 장을 떠나기 전에 기독교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다윗의 경험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 삶 위에 고쳐 기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다윗을 위해 해 주셨던 일을 나를 위해서도 해 주실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가?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윗은 여호와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특별한 직책을 맡을 것이다. 그는 언약의 왕권을 수여받을 것이다(삼하 7 장). 그는 이미 그 왕권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서 훨씬 더 대단하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 삶의 계획은 나에게서 거의 완전히 가려져 있다. 왕권에 대한 다윗의 경우와 달리, 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이나 임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제한 사항들이 진술될 때, 나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거나 무슨 일을 하도록 정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분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찮은 위로가 아니다. 나는 다윗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호와와 사자이신 분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한(시 34:7) 나는 만족해야 한다. 아니, 나를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밤에 창문으로 도망친 후 그로 인해 시편 59 편을 쓰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만약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여전히 그분의 조용하고 다양하며 교훈적인 보호를 즐길 수 있다.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은 요나단에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빌 2:7)” 분에 대한 어떤 예표를 보는가?
2. 여러분은 아마도 다윗처럼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보라.
3. 그렇게 많은 수단을 쓰시며 다윗을 보호해 주심에 있어서 주님은 얼마나 자원이 풍부하셨는가! 여러분이 그분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수단보다는 그분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해보라.
4. 그들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의 일에서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가?

## 18. 안전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삼상 20 장 How Do You Spell Security?)

대답은 간단하다: C-O-V-E-N-A-N-T(언약). 사무엘상 20 장은 언약과 그것이 주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묘사하지만, 우정에 대한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미 언약으로 공식화되었는데(삼상 18:1-5), 그 언약은 사무엘상 20 장에서 재확인되고 확대되면서 초점이 된다. 언약이란 단어 자체는 한 번 밖에 안 나오지만(삼상 20:8), 언약의 조항과 맹세(삼상 20:12-17), 언약의 수호자(증인)으로서 여호와에 대한 암시(삼상 20:23),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헌신에 대한 사울의 지식(삼상 20:30-31), 요나단의 이별의 말(삼상 20:42) 등은 의심할 여지없이 언약이 사무엘상 20 장의 중심 주제임을 보여준다.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상 20 장의 현재 형태와 위치에서 어려움을 발견한다. 사무엘상 19 장에서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20:1 에서처럼 "다윗이 자신을 향한 사울의 의도가 적대적인지 아닌지를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sup>1</sup> 그러나 20:1 의 다윗의 질문은 사울의 적개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울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요나단에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사울이 왜 자신을 계속 뒤쫓는지 알지 못했다. 다윗이 어떤 식으로든 사울에게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 그가 어떤 임무에 실패했는가? 살인자의 동기를 아는 것이 안전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의 명백한 불합리성을 줄일 수는 있다. 사실, 다윗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한 요나단에게 사울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주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삼상 20:2-3).

다시 한번, 사무엘상 19 장의 사건들 후에 다윗이 "왕의 월삭 잔치에 기대되는 손님 또는 환영받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sup>2</sup> 가정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다(참조, 삼상 20:5-7, 25-34). 그러나 다윗은 그가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궁중 예식에 따라 (사울이 가정한 바와 같이, 삼상 20:26) 당연히 다윗이 오리라고 기대했다. 다윗은 자신의 부재가 자신을 적대하는 사울의 어리석은 행위의 또 다른 빌미가 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틀림없이, 다윗이 참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실제로 다윗을 해고시키지 않았으므로 그의 부재는 태만이라고 불릴 수도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또한 삼상 20:40-42(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은 전체 신호 방식(삼상 20:18-23)이 그러한 개인적인 만남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원본일 리가 없다고

---

<sup>1</sup>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205.

<sup>2</sup> Ibid.

주장한다.<sup>3</sup> 하지만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가정한다. 확실히 다윗과 요나단은 사적인 만남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들이 그런 신호 방식을 필요로 했던 이유이다. 들킬 위험이 없다면 그 약조는 사적인 이별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대면적 이별을 할 수가 없었다. 사울이 염탐꾼에게 요나단을 몰래 추적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이른바 불일치라고 하는 논쟁으로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류의 반대들은 주석과 학술지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성경의 등장 인물들의 상황 그리고/혹은 본문의 상황이 우리의 것처럼 복합적이고 복잡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구경꾼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엘상 20 장은 긴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다음 개요는 세부 사항을 요약하고 본문의 지형에 대한 인식도(認識圖)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sup>4</sup> 이 장은 네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i>장면</i>	<i>요약</i>
I 요나단 앞에서, 1-11a	위험에 대한 논의, 1-4 시험 제의, 5-7 언약에 호소, 8-9 전환, 10-11a
II 들에서, 11b-23	언약의 약속들, 12-17 필요한 신호들, 18-22 언약의 수호자(증인), 23
III 식탁에서, 24-34	부재와 침묵, 24-26 질문과 변명, 27-29 분노와 분명, 30-34
IV 들에서, 35-42	신호—완벽한 비밀, 35-40

<sup>3</sup> Klein, *1 Samuel*, 206. 그러나 나는 사무엘상 20 장의 한 가지 기능에 대한 클라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클라인(210 쪽)에 의하면 사무엘상 20 장은 다윗이 "불충성이나 이득에 대한 욕망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무엘상 15 장-사무엘하 8 장에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다윗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나중(예를 들어, 사무엘상 24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사무엘 상하에 있는 "다윗의 변증"에 대해서는 H. Wolf, "Samuel, 1 and 2," *ZPEB*, 5:259-61 을 참고하라.

<sup>4</sup> 사무엘상 20 장은 본문/문법 상의 어려운 어구(트위스터)를 갖고 있다(예를 들면, 14-16 절, 19 절). 이 구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어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독자들은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사무엘상 20 장의 가르침을 언약이란 주제에 대한 몇 가지 명제 형식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 I. 언약은 불안할 때 의지(依支)를 제공한다 (삼상 20:1-9 The Covenant Provides Recourse in Uncertainty)

사울이 하루 밤낮을 누워 예언하는 동안(삼상 19:24b) 다윗은 어디론가 피신할 시간을 벌었다. 그는 분명 기브아로 가서 요나단의 집에 이른 것 같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가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말했다(삼상 20:1b). 그러나 그가 왜 그러시는가?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라도 있는 것인가? 다윗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죄책이라도 있는 것인가? 도대체 그러시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sup>5</sup> 다윗이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사울을 그렇게 분노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다윗은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진짜 위험이 닥쳐올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요나단은 아버지의 최측근이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삼상 20:2; 참고, 삼상 19:6). 다윗은 그것을 알아내는 데 석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울이 분명히 친 다윗적인 요나단에게 계속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삼상 20:3a)? 사울은 여호와의 영을 잃었지만 그의 정치적 감각은 잃지 않았다. 다윗은 실제 상황을 잘

---

<sup>5</sup> 아마도 사울의 많은 신하들은 그의 이상하고 난폭한 행동을 그의 “병세”의 탓으로 계속 돌리고 있었을 것이다. 다윗 자신도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예: 삼상 18:10-11의 결과로서). 그러나 삼상 19:8-10, 11-17, 18-24에 나오는 사울의 거듭된 시도 후에, 다윗은 사울의 계략을 그의 병세 탓으로만 돌릴 수 없었다. 광기든 아니든, 사울의 살인 시도에 너무 많은 의도가 집중되어 있어서 다윗은 그것들을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학자들은 삼상 20:1에서 다윗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다윗은 사울이 다음 왕위의 계승자로서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쨌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었기 때문이다(삼상 16:1-13).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공개적인 것이 아니었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충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울을 섬겼었다. 사울은 자기 생각을 마음 속에 담아두었다(삼상 18:8). 그의 진짜 의도는 비밀로 남아 있었다(삼상 18:17, 21, 25). 사울은 그의 핵심층에게 다윗의 청산을 제안할 때(삼상 19:1)조차도, 내러티브에 따르면, 그가 왜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지를 말하지 않았다. 이야기 속에서 사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이유를 밝힌 것은 삼상 20:30-31에 이르러서야 나온다. (그는 다윗이 자신의 [거부된] 왕조의 위협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삼상 20:1에 묘사된 다윗의 당혹감에는 내적인 모순이 없다.

알고 있다. 그는 맹세하며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주장한다(삼상 20:3b). 요나단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돕기로 동의한다. 이에 다윗은 특히 다윗과 요나단의 유대에 대한 사울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 상황을 제안한다(삼상 20:5-7). 그래서 월삭의 만찬 때 고관들 중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호소할 뿐만 아니라 왜 그가 지금 요나단에게 의지하는지도 설명한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헤세드]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 (삼상 20:8)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는 어찌하여 감히 사울의 아들에게 의지하는가? 그것은 오로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 때문이다.<sup>6</sup> "여호와의 언약"이란 여호와께서 그것의 증인이시고 그것의 약속들에 대한 수호자가 되시는 언약이란 뜻이다. 다윗은 삼상 18:3-4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 그 언약은 확고한 약속과 엄숙한 헌신을 포함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리저리 피신하며 불안할 때 요나단에게 의지했다. 위험하고 허둥지둥 도망치는 때에 확실성의 보루요 안전한 피난처인 언약이 있었다.

비록 다윗이 그들의 언약에서 더 "낮고"(삼상 20:7-8에서 다윗은 자신을 "네 종"이라고 3번 언급함) 궁핍한 당사자일지라도, 그 언약으로 인해 다윗은 요나단에게 [헤세드]("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한다. 언약과 [헤세드]는 필연적인 결과들이다. 더 좋은 것은 언약과 한결같은 인애가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고 이 단락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영어 성경들은 [헤세드]를 다양하게 번역한다. 삼상 20:8의 동사 [아싸]와 [헤세드]에 대하여 RSV와 NASB는 "deal kindly 친절하게 대하다"로 번역하고, NJB는 "show faithful love 신실한 사랑을 보이다"로 번역한다. [헤세드]란 용어는 구약에서 250번 정도 나온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자주, 그것은 KJV에서 "mercy, 인자, 자비"로, RSV에서 "standfast love, 한결같은 사랑"으로, NASB에서 "lovingkindness, 자애"로 번역되어 있다. 때때로 그것은 NIV에서 간단히 "love"로 번역되어 있다. [헤세드]는 사랑, 동정, 애정의 개념을 담고 있지만, 자주 충성, 신뢰, 신실과 같은 추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RSV는 "standfast love, 한결같은 사랑"으로

---

<sup>6</sup> [역자 주] 삼상 20:8에 대해 한글 성경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으로 풀어서 번역했다. 원문의 어구를 잘 반영하는 ESV("for you have brought your servant into a **covenant of the LORD** with you")와 한글 성경처럼 풀어 설명한 NIV("for you have brought him into a **covenant** with you **before the LORD**")를 비교해 보라.

번역하고 있다.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을 뛰어넘는 충실한 사랑이고,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믿을 만한 친절이고, 단순한 애정을 초월하는 헌신적인 애정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요나단이 “여호와와의 언약”에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그에게 [헤세드], 곧 헌신적인 사랑을 찾고 의지할 이유를 준다. 그러나 요나단의 언약 자체가 사랑에 의해 시작된(삼상 18:1, 3)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랑은 언약을 낳고, 그 언약에서 헌신적인 사랑을 기꺼이 약속한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그 약속의 안위에 안주하며, 다윗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 약속에 호소할 수 있다.<sup>7</sup>

본문은 단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것을 받을 어느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것의 위로를 넓히고 있다. 그 메시지는 당신이 혼란과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과 언약을 맺은 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데려가라는 것이다. 다윗의 붕괴되고 있는 세상에 여전히 온전한 상태의 한 공간, 온전한 한 피난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었다. 거기에는 언약이 있었다. 거기서 다윗은 [헤세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생소한 세상에 친절이 있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신자들이 사무엘상 20에서 다윗이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남아 있는 한 믿을 만한 피난처, 곧 언약으로 자신을 그들과 묶으시며 그들이 한결같은 인애[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에게로 달려갔다(예: 느 1:5; 시 13:5; 17:7; 25:6-7 참조).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헤세드]는 형식적인 언약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인애[헤세드]와 진실[에메트]이 풍성한(출 34:6)”<sup>8</sup>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의 참 본성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애의 심연에 빠져들면

---

<sup>7</sup> [헤세드]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위해서는 *TWOT*, 1:305-7 그리고 Merrill F. Unger and William White, Jr., eds., *Nelson's Expository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Nashville: Nelson, 1980), 232-34 을 보라. 철저한 연구 그리고 과거의 연구에 비추어 필요로 하는 정정에 대해서는 Francis I. Andersen, “Yahweh, the Kind and Sensitive God,” in *God Who Is Rich in Mercy: Essays Presented to Dr. D. B. Knox*, ed. P. T. O'Brien and David G. Peterson (Homebush West NSW, Australia: Lancer, 1986), 41-88 을 보라.

<sup>8</sup> 출애굽기 34 장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출 32 장)를 통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와의 [헤세드]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헤세드]를 받는다면 그것은 다만 여호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고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그분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헤세드]는 정말로 은혜(히브리어 [헨])으로 넘어간다. 은혜는 내 아버지가

여러분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依支)이다. 물론, "한결같은 인애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 궁지에 몰린 그분의 백성에게 다가오셨다. 왜냐하면 출 34:6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고 전통적인 영어로 옮기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신(요 1:14)" 분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헤세드]를 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 된다. 다윗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잊지 말라. 혼란과 곤경에 처하여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데려가라. 그분은 우리가 불안할 때 유일한 의지(依支)이시다.

## II. 언약은 보기 드문 신실함의 통로로 판명된다 (삼상 20:12-17 The Covenant Proves a Vehicle for Uncommon Faithfulness)

삼상 20:12-17은 본문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가 11절 끝에서 18절 처음으로 바로 갈지라도 이야기의 흐름은 끊기지 않는다. 12-17절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평가들은 이 구절을 이차적인 것, 곧 나중에 이야기에 삽입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분명한 방법이 있다. 만약 그 구절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면 저자(또는 편집자)는 그것들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했을 것이다. 그것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

삼상 20:12-17이 매우 중요할지라도, 그것들은 또한 매우 어렵다. 삼상 20:14-16은 특히 그렇다. 그러나 본문은 친구들의 언약이 거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히 명확하다. 이제 설명하겠다.

첫째로, 삼상 20:12-13에서 요나단은 맹세하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윗에게 경고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공식화한다. 요나단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삼상 20:12-13 개역개정)

---

말씀하시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공짜로 받는 대단한 것(something for nothing)이다.

요나단은 삼상 19:2-3 에서 했던 것처럼 항상 행동하기로 공식적으로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점이 이 언약이 매우 특이한 이유다. 사람들은 요나단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여러분은 경쟁자에게 자리를 넘겨주지도 않고,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특히 여러분이 왕세자라면 더 더욱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요나단이 “보통” 사람과 같았다면, 그는 다윗을 처치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이 사울을 매우 화나게 하는 것이었다(삼상 20:30-31).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언약 약속은 모든 정치적 감각을 얼떨떨하게 한다. 요나단은 정말로 또 다른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언약이 성취하는 이상한 일들 중 하나이다.

둘째로, 요나단이 삼상 20:14-16 에서 다윗에게 촉구한 약속은 훨씬 더 특이하다.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도망자의 역할, 즉 궁핍한 자의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본문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의미는 명확하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였다(삼상 20:14-16a)<sup>9</sup>

다윗은 이 조항들에 대해 맹세를 했다(삼상 20:17). 그가 권력을 잡으면, 그는 요나단의 생명과 그의 자손의 생명을 모두 보존할 것이다(삼하 9 장 참조). 그러나 시대의 지혜에 따르면, 그러한 약속은 어리석음의 극치나 절정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나 왕조가 집권했을 때, 게임의 이름은 숙청이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고대 근동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성경의 역사 페이지에 머물면서 바아사(왕상 15:27-30)나 시므리(왕상 16:8-13)나 예후(왕하 10:1-11)를 보면, 이전 정권의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왕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정치의 정책, 곧 청산에 의한 공고화였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믿었고, 모두가 그것을 실천했다.

거의 다 그러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왕세자의 가족을 보존할

---

<sup>9</sup> 본문 문제에 대해서는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164-66 그리고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I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314-15 을 참고하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문화와 정치는 다르게 설파했다. 그러나 언약은 문화를 정복했다. 요나단과 다윗은 둘 다 관습적인 인간 기준을 짓밟는 약속을 서로에게 했다. 언약은 보기 드문 신실함의 통로가 되었다.

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직접적으로 그들과 관계된 왕조 변화의 과도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관없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의 기독교인 생활에서 아마도 덜 극적인 형태일지라도 이 특이한 충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 가족에게서 본 적이 있다. 아버지의 말년에 아버지의 건강 특히 아버지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를 돌보시는 어머니에게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 개월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아마도 그러실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는 그녀의 임무 곧 남편을 돌보는 임무를 완수했다. 선풍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았고, 그저 언약적이었다. 그것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곧 언약에 관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 III. 언약은 고비용의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삼상 20:24-34 The Covenant May Demand Costly Commitment)

이제 우리 독자들은 (멀리서) 식사 장면을 본다(삼상 20:24-34). 그것은 대부분 전형적인 월례 행사이다. 사울은 평소처럼 벽 옆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삼상 20:25), 아브넬도 거기 있고, 요나단도 거기 있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 하지만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다윗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므로(참조, 레 7:20-21)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분명히 사울은 삼상 19:18-24[나웃]의 에피소드 이후에도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올 것으로 기대했다(또는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윗이 둘째 날도 불참했을 때, 격한 대화가 일어났다.

삼상 20:24-34 은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요나단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난다. 배경이 주어지고 다윗의 첫 번째 부재에 대한 사울의 침묵이 설명된 후, 대화가 시작된다. 그 대화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울의 질문, 27b

요나단의 "계시", 28-29

사울의 분노, 30-31

요나단의 질문, 32

사울의 "계시", 33

요나단의 분노, 34

사울은 "이새의 아들"의 행방을 물었다. 다윗이 부탁한 대로, 요나단은 다윗의 핑계를 사울에게 전하였다(삼상 20:28-29).<sup>10</sup> 사울에게 필요한 촉매제로 그것이면 충분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삼상 20:30-31)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울도 예외는 아니다. 요나단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울은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비록 그가 공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왕위 계승 서열 1 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종(다윗)과 여호와의 말씀(사울의 계보에 대한 거부와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 여호와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 사람들은 요나단이 "자신을 비웠다(빌 2:7)"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빌 3:8)." 만약 내가 시대착오적 사고를 계속할 수 있다면, 마 6:33 은 요나단에게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요나단을 헤아릴 수 없었던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요나단을 매우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핏대를 올리고 얼굴을 붉히고 고함치며 중요한 네 단어 곧 "너 그리고 너의 왕국(You and your kingdom)!"만을 요나단에게 말했던 이유이다.

그러나 "너 그리고 너의 왕국"은 요나단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묶여 있었고 헌신했다. 비록 그것이 아버지의 호의를 잃게 할지라도 그는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이다. 요나단은 예수님을 이해했을 것이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

<sup>10</sup>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논평을 하고 싶다. 첫째로, 성경이 다윗을 위해 요나단의 명백한 "거짓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고 일부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요나단이 했던 일을 보고하는 것, 그것이 본문이 하고 있는 전부이다. 본문은 그가 했던 일을 권장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런 경우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현대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갈등을 무시한다. 그러나 성경이 보고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둘러댄 것을 말해 주지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여기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둘째로, 폴진(Robert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9], 189)은 삼상 18:2 에 나오는 사울의 금지에 비추어 사울이 소위 다윗의 베들레헴 귀향을 불복종으로 보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폴진에게 동의할 수 없다. 삼상 18:2 의 금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다윗이 가끔 휴가를 요청할 수 없는 무슨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 개역개정).”

요나단이 천국에 대해 제자 훈련을 받은 서기관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는가? 그는 이것, 곧 참된 삶은 “너 그리고 너의 왕국”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고 언약 관계에서 여호와와의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데 있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것에는 뭔가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있다! 요나단은 그 나라가 여호와와의 것이고 따라서 다윗의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그의 야망에 집중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섭리(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왕세자가 아니라 신자로서 나의 지배적인 열정은 내 길이나 내 생계나 내 명성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희생이 클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자유롭게 해 준다. 인생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다. 그 (이전) 문은 차가운 인쇄글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주시하라. 그것은 다이너마이트다. 조심해서 다루어라.

#### IV. 언약은 혼란 중에도 평강을 제공한다 (삼상 20:35-42 The Covenant Provides Peace in the Middle of Confusion)

그날 아침 요나단과 함께 화살을 찾으러 나간 어린 아이는 어쩌면 그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사울의 심복들이 요나단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요나단이 혼자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경계심을 완화했을 것이다. 어쨌든 요나단이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삼상 20:37)?”라고 외쳤을 때, 다윗은 대답을 얻었다. 그 외에는, 요나단이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라(삼상 20:38)”고 재촉할 때 모든 것은 너무나 전형적이었다. 그 아이조차도 상황에 대한 단서가 없었다(삼상 20:39). 그는 전에도 이런 심부름을 여러 번 했었을 것이다.

다윗이 감사 표시를 하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우는 것은 그들의 이별 장면을 특징짓는다(삼상 20:41). 요나단은 마지막 말을 한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증인으로] 계시길 바라며 우리 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가라(삼상 20:42).”

상황을 감안하면 요나단의 말은 거의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다. “평안히 가라.” 하지만 우리는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안다. 사울이 네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니! 그러나 요나단은 모든 것이 평화롭다거나 다윗이 모든 면에서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요나단은 그들 둘 사이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히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둘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 그들의 언약적 유대는 그들 사이에 평화를 확립했다. 이것은 마치 요나단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것과 같다. “이 한 가지 항목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우리의 이 한 가지 관계에는 안전이 있다. 여기에 닳이 있다. 다른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혼란스러울 때, 견고히 유지되는 이 한 가지 관계가 있다. 평화가 확립되고 균림하는 이 한 영역이 있다."

그것은 성경적 평강의 정확한 묘사가 아닌가? 성경적 평강은 흔히 일반적인 평온이 아니라 많은 혼란 속에서 중심에 있는 올바름이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롬 5:1)" 동시에 "환난(롬 8:3)"을 견디는 것을 암시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요 16:33, 볼드체 부분은 헬라어 본문에서 강조된 부분임)." 기독교인은 상황이 평화롭기 때문에 평강을 갖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요나단보다 더 크신 분이 그에게 우정을 맹세했기 때문에 평강을 갖는 것이다. 그 점을 의심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인친] 새 언약이다(눅 22:20)"라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실망, 위험, 심지어 재난 속에서도 평강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친구이신 분의 언약적 유대이다.

사무엘상 20 장의 마지막 말씀, 즉 "그런 다음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삼상 20:42b[= 맛소라 본문의 삼상 21:1])."라는 말씀은 가슴 아프다.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적어도 언약은 무엇보다도 한 관계를 확보했다. 분명히 "안전(security)"은 8 개의 문자로 된 단어이다. 자세히 풀이하면 그것은 이것, 즉 언약처럼 보인다.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놀라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약 관계는 그 이상으로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가는가?
2.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다. 막 14:24 에 비추어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치르신 비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3. 요나단과 다윗의 서로에 대한 헌신은 그 시대의 정상적인 관점을 넘어선다. 그것이 현대 세계에 도전하는 정도를 고려해보라.
4. "인생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우리의 약속과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것에 당신은 동의하는가? "오, 예수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 자신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이 멋진 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 19. 절박 (삼상 21:1-22:15 Desperation)

예루살렘은 서서히 목이 졸리고 있었다. 서부로 가는 보급로에 대한 아랍인들의 공격은 더욱 심해졌고, 그 계획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었다. 1948년 2월이었다. 유대인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때 여자와 아이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거세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생존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변호사 도브 요셉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고뇌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해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 남자들이 그들의 집과 가족들이 그들의 바로 뒤에 무력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투쟁 정신이 고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sup>1</sup> 그 남자들은 도시가 초토화되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도브 요셉은 절박성이 유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오랫동안 절박한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은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해 절박해지기 시작한다. 특히 다윗처럼 혼자라면 그것은 사람을 몹시 지치게 한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달려 있다면 사울은 틀림없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금은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리 만무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무엘상 21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은 다음 몇 장을 잘 요약하고 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쳤다." 그런 숨막히고 아슬아슬한 시기에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다루려는 일련의 내러티브(삼상 21:1-22:5)는 그 질문에 대한 조용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본문은 여호와와 종들이나 적어도 택하신 왕 다윗이 처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다.

### I. 절박과 공급 (삼상 21:1-9 Desperation and Provision)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 마일 떨어진 농으로<sup>2</sup> 왔다. 농은 그 당시에 주요한 성소였던 것 같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낚새가 수상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왜 "떨며" 다윗을 맞이했겠는가(삼상 21:1)? 그는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는다. 일부 독자들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다윗의 대답이 다소 어설프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매우 민감한 궁정 임무를 수행 중이고 사울이 자기를 보내 하라고 한 일이 극비에 속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자기를 만나기 위해 분명 기다리는

<sup>1</sup> Larry Collins and Dominique Lapierre, *O Jerusalem!* (New York: Pocket, 1972), 148.

<sup>2</sup> 문맥적으로 사 10:32을 참고하라. 그리고 A. van Selms, "Nob," *ISBE*, rev. ed., 3:545-46을 보라.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혼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삼상 21:2). 여기까지는 다윗이 우리를 잘 설득시키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왕이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자기 칼과 무기를 갖지 못했다고 말할 때(삼상 21:8) 미심쩍어 보인다. 그는 고객의 파이프 렌치를 빌려 달라고 하는 배관공이나 필요한 양식의 서류들이 없는 보험 판매원처럼 들린다. 다윗은 음식(삼상 21:3)과 무기(삼상 21:8)를 필요로 하지만, 그의 둘러대는 이유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대화에는 충분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진다. 독자는 삼상 21:7 에서 두려움에 움찔한다. 문학 카메라는 사울의 신하인 에돔 사람 도엑을 향하고 그의 가늘어진 눈과 오므라진 입술을 슬쩍 보여준다.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독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이어지는 이야기를 전에 읽은 적이 있다면 더욱 더 그렇다!).

다윗은 왜 아히멜렉에게 이런 방침을 취했는가?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다. 아마도 그는 아히멜렉이 왕의 적을 돕는 일에 연루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 만약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사울로부터 도망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히멜렉은 그가 다윗을 도울 당시에 다윗의 배신자 지위를 전혀 몰랐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삼상 21:14-15). 다윗의 꾸며댄 이야기는 아히멜렉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본문은 다윗의 행위를 비난하지도 않고,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성경이 모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평가를 위해 옆으로 비껴선다면, 성경은 지루한 두꺼운 책이 되어버릴 것이다.) 우리는—가히 공황상태라고 할 수 있는—다윗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확실히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아히멜렉을 위태롭게 한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본문은 다윗의 행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본문은 다윗이 한 일을 묘사하긴 해도 그것을 논의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는다.<sup>3</sup>

차라리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가? 우리는 혼란과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한다. 본문이 단순한 것, 즉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탱해 주셨다는 것을 묘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인가?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다(삼상 21:4-6). 그리고 그가 받은 떡은 보통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바로 “진설병”이었던 것이다(참조, 레 24:5-9). 안식일마다 이 떡 열두 덩이가 성막의 성소 북쪽에 있는 상 위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

<sup>3</sup> 참조,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179.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탱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조용한 증거였다(참고, 출 16 장).<sup>4</sup> 사무엘상 21 장에서 아히멜렉의 거룩한 떡은 다윗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sup>5</sup>

어떤 양심적인 독자는 다윗의 모든 술수와 속임수로 인해 그가 이러한 제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만약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사막에 의존한다면 누가 매일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해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야곱의 입장(창 32:10)을 지지할 뿐이다. 피골이 상접한 지경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받은 공급에는 틀림없이 현대 기독교인을 위한 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적, 감정적, 영적, 또는 상황적 압박에 갇히고 짓밟히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매일 먹고 있는가? 적어도 한 번은? 나의 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공급이 내게 뭔가를 말해주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지 않는가?

## II. 절박과 찬양 (삼상 21:10-15 Desperation and Praise)

우리는 거의 믿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사로잡아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게 했는가(삼상 21:10b)? 다 알고서도 걸어서 고기 분쇄기로 들어갈 수송아지가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성역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여기 골리앗의 본고장에 나타났다. 내가 보기에 다윗은 아기스가 사울의 일등 부관의 망명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과 고문들은 그것을 다르게 보았다(삼상 21:11). 이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다윗이 가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한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

---

<sup>4</sup> O. T. Allis, "Leviticus," in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Grand Rapids: Eerdmans, 1970), 163–64 그리고 G. L. Carr and Nola J. Opperwall, "Presence, Bread of the," *ISBE*, rev. ed., 3:955–56 을 보라.

<sup>5</sup> 골리앗의 칼이 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그럴 수도 있음) 그리고 왕에게 어울리는 음식으로 거룩한 떡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Ackroyd 를 따름) 다윗이 의도적으로 농에 갔다는 포켈만의 주장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포켈만은 다윗이 요청하면 일반적인 떡을 얻기에 충분한 인구가 농에 있었다고 주장한다(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I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352). 그러나 다윗은 농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초기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이 왕의 환심을 사는 데 다윗을 폭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가 도역을 믿고(당연히, 위험한 모험, 삼상 22:9-10) 아히멜렉(22:15)을 믿을 수 있다면, 다윗은 또한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블레셋 군인들의 미망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서둘러 도망하는 중이었을지라도 다윗은 아마 그런 이유들을 따져봤을 것이다. 그래도 그가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기스가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면, 정말 나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기스의 고문들은 문화적 편협성을 가졌다고 비난받을 수 없다. 적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음악을 들었고 한 노래의 가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삼상 21:11; 참조, 삼상 18:7). 그들은 아기스에게 말한다. “여기에 왕의 백성 “만만”을 죽인 전설적인 다윗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이시여, 그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블레셋 사람입니다.”<sup>6</sup> 다윗은 심히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다(삼상 21:12).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체포되어 감금되고 구금되었다. 그것은 적어도 삼상 21:13a의 “**그들의 손에**”라는 어구에<sup>7</sup> 암시되어 있다.

다윗은 행동을 변하여 보는 자들을 설득시킨다. 그는 (가드의 공원과 휴양지 담당 부서의

---

<sup>6</sup> 사실, 아기스의 참모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삼상 21:11)”이라고 부른다. 포켈만(Fokkelman, *The Crossing Fates*, 365–66)은 그들이 다윗을 (문자적으로 사실이 아니었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포켈만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다소 모호한 용어(“그 땅의 왕”)를 사용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나는 성경 저자가 또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블레셋 사람까지도 다윗의 미래에 대한 증인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시인하고 있을 뿐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말하는 예언자가 되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의 진짜 깊이를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은 주전(B.C.)에, 곧 여호와께서 그분의 진리를 말하도록 사용하셨던 또 다른 “블레셋 사람”인 가야바(요 11:49-52 참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sup>7</sup> [역자 주] 삼상 21:13a의 [바이트홀렐 브야담]에 대해 ESV의 “(So he changed his behavior before them and) pretended to be insane **in their hands**”나 NIV의 “while he was **in their hands** he acted like a madman”에서 보는 것처럼 “in their hands 그들의 손에”라는 어구에 대해 개역이나 개역개정판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 하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어구를 생략하고 있다. 따라서 개역이나 개역개정판은 “그들의 손에”라는 어구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새번역은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으로, 쉬운성경과 우리말성경은 “**그들과 함께/가운데 있는 동안**”으로, 현대어성경은 “**그들이 그의 몸을 붙들자**”로, 공동번역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으로 번역했다. 참고삼아 말하면, 공동번역은 맛소라 본문(참조, [https://biblehub.com/wlc/1\\_samuel/21.htm](https://biblehub.com/wlc/1_samuel/21.htm))을 따라 삼상 20:42의 “(개역개정)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는 마지막 부분을 삼상 21:1로 본다. 따라서 맛소라 본문의 절을 따르는 공동번역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다른 한글 성경들과 영어성경들과 한 절씩 차이가 난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도록 하는 것처럼) 성문의 대문쪽에 말도 안 되는 낙서를 하고 그의 침이 턱수염에 흘러내리게 했다. 다윗이 조금 더 계속 굶는 것과 흠뻑 젖게 하려는 것을 보고, 아기스는 자기 주위에 또 다른 미치광이를 갖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제 아기스에게 다윗은 이미 차고 넘치는 미치광이들의 할당량으로 인해 자기 백성의 수에 들어올 수 없는 미치광이에 불과했다(삼상 21:14-15). 분명히 구금은 중지되었고 다윗은 계속 침을 흘리며 길을 가도록 허락받았다.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다윗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고 그가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의 반응이 다윗의 반응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편 34 편과 56 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편들은 가드에서 발생한 이 대실패의 결과로 생겨났다.<sup>8</sup> 삼상 21:10-15 을 보고 "가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여기 어리석고 절박하고 혼란스러운 다윗이 있다. 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시편들이 작성된 재료이다. 다윗은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신다."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을 무서워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죽을 육체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시 56:4).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시 34:4, 6) 것은 여호와께서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 주실 것이라는 공약이고(시 34:15-22), 그의 지속적인 찬양의 근거이다(시 34:1, 3). 절박함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어리석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III. 절박과 섭리 (삼상 22:1-4 Desperation and Providence)

다윗은 가드에서 동쪽으로 12 마일쯤 떨어진 서쪽 유다의 낮은 언덕(세벨라)에 있는 마을 아들람 근처의 동굴로 도망쳤다.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아마도 사울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람으로 와서 다윗과 합류했다(삼상 22:1).

그들만 온 것이 아니었다! 잡다하게 섞인 만화경처럼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빛진 자들 그리고/또는 환난 당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다(삼상 22:2).<sup>9</sup>

<sup>8</sup> 시편의 표제에 나오는 다윗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는 Derek Kidner, *Psalms 1-72*,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InterVarsity, 1973), 43-46 을 참고하라.

<sup>9</sup> 우리는 모든 남자들 그리고/또는 그들의 가족이 같은 동굴에 있었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굴이 언덕 옆에 있는 비좁은 구멍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공간적으로 대형 호텔 로비와 쉽게 경쟁하거나 능가하는 동굴들이 있다. 그것들 중 일부는 풀 코트 농구 경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모인 사백 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을 대장으로 삼았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런 어중이떠중이 집단을 통제하고 다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다윗이 그의 부모님을 위해 한 준비에 있다(삼상 22:3-4). 그들은 분명히 나이가 많아 늙었고(참고, 삼상 17:12),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것의 전율과 오싹함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해의 동쪽) 모압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삼상 22:3b)” 그의 부모에게 성역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윗은 부모님을 위한 이 피난처를 얻고서 틀림없이 많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사울과 아기스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에 그를 도와주는 한 왕이 있다.

모압 왕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모압 여인 룯이 다윗의 증조모(룯 4:18-22)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사실이 모압 왕에게 있어 얼마나 크게 중요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이 틀림없이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다윗의 혈관에 모압 사람의 피가 약간 들어있다고 해서 다윗에게 그것이 확실히 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본문은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독단적인 견해를 취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출신이란 점이 그의 부모에 대한 망명 요청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룯기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해 새로운 빛을 비추지 않는가? 그것은 나오미의 시련에 대해 빛을 주지 않는가?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그녀가 직면하고 있던 거의 확실한 가난과 궁핍에 대해? 그녀의 한 며느리의 끈질긴 충성에 대해? 룯이 보아스의 주의를 끌게 된 그 모든 조용한 상황의 반전에 대해? 등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배경을 형성하여 다윗이 지금 모압 왕에게 멋지고 정중하게 호소할 수 있었다. 늙은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한 세기가 지난 후 후손 중 한 사람을 위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단서를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1938 년 폴란드 조종사인 로만 투르스키가 프랑스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비행기는 엔진 고장을 일으켰고, 그는 비행기 수리를 위해 나치화된 비엔나에 착륙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투르스키가 비행을 재개하기 전에 기념품을 사기 위해 호텔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한 남자가 그 문쪽으로 달려오다가 그와 부딪혔다. 투르스키가 말로써 복수하기 전에 그는 그 남자가 겁에 질려 하얗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게스타포! 게슈타포!"하고 말하자, 투르스키는 서둘러 로비를 통해 그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 발치에 있는 이불 밑에 남자의 날씬한 몸을 숨겼다. 투르스키는 자신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고 조사하러 온 게슈타포가 여권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몇 마디 묻더니 방을 뒤지지 않고 떠났다. 그 조종사는 숨겨준 것을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그의 비행 지도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런데, 투르스키는 그를 바르샤바로 데려갈 수 없었다. 그는 크라코우에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착륙해야 했고, 지도 여백에 감옥들을 그려 가면서 그 새 친구가 어떤 공항에서든 체포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래서 그는 폴란드 국경 바로 너머의 어떤 초원에 착륙할 것이고, 그의 승객은 거기 혼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는 혼자가 되었다. 투르스키가 크라코우에 착륙했을 때 경찰은 그의 비행기를 수색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그가 비엔나에서 탈출하는 한 남자를 도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석방해야만 했다. 그는 그 남자가 수배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유대인이었다!

투르스키는 폴란드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다. 폴란드가 패배한 후 그와 다른 사람들은 루마니아로 건너갔다. 거기서 그들은 붙잡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투르스키는 가까스로 탈출하여 프랑스 공군에 합류할 수 있었다. 프랑스가 몰락한 후 그는 영국으로 가서 영국 전투에서 싸웠다. 그는 임무 수행 중에 독일 비행기를 강타했지만 그만 그것의 꼬리 파편에 맞고 말았다. 피로 인해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던 그는 영국에 자기 스피트파이어기를 착륙시키고서 의식을 잃었다. 그의 두개골은 골절되었고 병원의 수석 외과 의사는 수술이 소용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깨어났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좁은 얼굴을 보았다. 흰 옷을 입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나를 알아보겠어요? 당신은 비엔나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투르스키는 기억했고 그 나머지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 도망친 승객은 결국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전쟁 전에 그는 스코틀랜드로 도망쳤다. 그는 영국 전투에서 폴란드 비행 중대가 두각을 나타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투르스키가 그 중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문의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그런데 거기에 투르스키가 있었다. 그가 투르스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그 지도 여백에 그것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전날 그는 한 폴란드 영웅이 적기 5대를 격추하고 어떤 병원 근처에서 추락했다는 것을 읽었다. 그 기사는 그 조종사의 상태가 가망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는 에든버러에 있는 영국 공군에 그를 바로 그 병원으로 데려가달라고 요청했다. 투르스키는 그에게 "왜 그러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침내 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뇌 전문 외과 의사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당신을 수술했습니다."<sup>10</sup>

---

<sup>10</sup> Roman Turski, "The Evaders," *Secrets and Spies: Behind-the-Scenes Stories of World War II* (Pleasantville, N.Y.: Reader's Digest Association, 1964), 149–51.

도망자를 피신시켜 준 것이 자기를 구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과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투르스키의 이야기의 반전은 몇 년 안에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비해 다윗의 경우는 모든 특이한 준비가 한 세기 전에 이루어졌다. 여호와와 오래 전에 미리 그의 친절을 계획하신다. 그는 다윗의 현재 고난에 한 줄기 안도감을 주기 위해 오래 전에 상황들을 인도하셨다. 그것은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었다. 여호와께서 오래 전에 그것을 "주선하셨다." 그것은 그분이 오직 선택된 왕들을 위해서만 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은 절망과 섭리에 대해 말할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다.

#### IV. 절박과 예언 (삼상 22:5 Desperation and Prophecy)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sup>11</sup>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삼상 22:5)

갓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무엘의 선지자 무리 중 하나였는가? 어쨌든, 미지의 선지자에 대한 지나가는 언급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지시와 특별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사울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했고(삼상 16:14; 18:12), 누리지 못할(삼상 28:6) 것이기 때문이다. 사울은 홀로 자기 자신의 꾀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고통 중에 빛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은 선지자 갓의 권고를 통해 다윗을 비추고 있었다.

절박함은 결코 재미있는 것이 아니며, 절박함과 침묵이 어우러질 때 그것은 견뎌낼 수 없다. 기가 막힐 웅덩이(시 40:2)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목자이신 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윗은 그 음성을 선지자 갓을 통해 직접 들었다.

---

<sup>11</sup> 삼상 22:5의 "요새"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기 어렵다. 아둘람(삼상 22:1) 혹은 모압의 어딘가에 있었던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사해의 서쪽 엔게디(삼상 24:1, 22)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자 주: 이 요새가 유다에 있는 아굴람이라고 추정하는 Ackroyd, Hertzberg, Driver, McCater 등에 반대하는 Youngblood(*REBC* 3:217)는 삼상 22:5의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갓 선지자의 말에 비추어 아굴람일리 없다고 주장한다. Firth(237)도 이 요새가 모압의 어느 곳이었을 것으로 보고 Tsumura(540)도 모압의 어느 곳 혹 사해의 다른 쪽, 아마도 마사다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곤경에 처한 하나님 백성은 여전히 성경의 “더 확실한 예언(벧후 1:19, 21)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이 주는 인내와 격려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는 것(롬 15:4)을 기뻐한다.

여호와께서는 절박한 자기 백성을 정말로 붙들어 주시지만 반드시 나팔을 불며 하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오히려 조용히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도움의 증표들—떡 다섯 덩이(삼상 21:3), 가드를 떠날 때 볼 수 있는 성읍 제한 표지판의 뒷면(삼상 22:1), 모압 출신의 여자 조상(삼상 22:3-4; 참고, 룻 4:13, 17, 21-22), 명령을 내리는 선지자(삼상 22:5) 등등—은 확연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힘의 무기는 아니다.

절박하고 외로운 이 선택된 왕을 경멸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또 다른 분(마 8:20)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sup>12</sup>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의 생활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그분을 대적하는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제공하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공급을 식별할 수 있는가?
2. 다윗이 시편 34 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을 열거하고 그 각각의 확신이 그의 가드 상황과 갖는 연관성을 고려하라.
3. 다윗은 연로한 부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을 실천으로 옮겼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가?
4.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은 절망과 섭리에 대해 말할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다.” 여러분도, 혹은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도, 혹은 친구 기독교인들도 갖고 있는가?

---

<sup>12</sup> 참조, S. G. De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Paideia, 1978), 2:125–26.

## 20.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삼상 22:6-23 Even Now Many Antichrists Have Come)

1970년대 중반 제럴드 포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제리 포드는 멋진 남성(Mr. Nice Guy)으로 알려져 있었다. 만약 우리가 포드 대통령에 대한 인물 묘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른 제리 포드들도 만난 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다음 대통령 지미 카터는 애주가요 대중 선동가인 동생이 있었다. 빌리 카터는 가끔 그의 대통령 형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훔쳤다. 그리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빌리 카터들도 만난 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럴드 포드와 빌리 카터는 개개인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대표한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전형이다. 제리 포드가 있지만, 다른 제리 포드들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구별을 하는 것 같다. 요일 2:18에서 그는 독자들에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개역개정)"고 경고한다. 대문자 A로 시작하는 적그리스도(Antichrist)가 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바로 등장할(참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이다(살후 2:1-12). 그러나 요한은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적그리스도(Antichrist)가 있고 적그리스도들(antichrists)이 있다. 역사의 과정에서 다가올 악의 완전한 화신을 예표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예: 요일 2:22-23)에서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의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짓밟으려고 한다(단 7:21-22; 계 13:7-8). 그곳이 사울 왕이 들어오는 곳이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베일이 벗겨지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측석에서 도살당하도록 할 때 그는 진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인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서 왕실 동정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곁에 선 베냐민 지파의 심복들에게 말하며 자신(사울)이 준 것처럼 "이새의 아들"이 관직과 특전을 그들에게 줄 것 같으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모든 내부 사람들을 세 번이나 "너희 모두[כֻלְּכֶם] 쿨헴"라고 부르고 있다(삼상 22:7-8). 그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치려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자기에게 은밀히 숨기면서 그들 모두가 침묵의 공모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삼상 22:8).

에돔 사람 도액은 언제 말할지를 알고 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삼상 21:7). 침묵하는 베냐민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그는 놉에 머물렀 때 보았던 것을 왕에게 폭로한다. 이제 우리는 삼상 21:7 을 이해한다. 도액은 이새의 아들(사울이 다윗을 지칭하는 대로 그가 지칭하는 것은 중요함)이 놉에 왔을 때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그를 위한 지시를 구했고 그에게 음식과 무기도 주었다고 주장했다(삼상 22:9-10). "전하, 골리앗의 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사울의 의심만큼이나 커 보인다.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을 소환한다.<sup>1</sup> 그들 모두가 왕에게 나온다(삼상 22:11). 사울은 아히멜렉이 "이새의 아들"에게 준 도움에 자신의 음모 이론을 적용하고, 아히멜렉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능한 방어로 보이는 것을 용기 내어 말한다(삼상 22:14-15).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반문한다. 다윗은 궁정에서 높은 지위와 훌륭한 평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 여호와와 지시를 구한 것이 뭔가 새로운 반전입니까? 내가 규칙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하는 이 모든 "음모"에 대한 생각을 어디서 얻으신 것입니까? 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소 의구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삼상 22:1], 분명히 뚜렷한 지식이 없었다.) 사울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는 듯이 칼날이 여호와와 제사장들을 향하도록 명령했다(삼상 22:16-18).

기브아에서의 테러와 피바다(삼상 22:18) 그리고 제사장 성읍에서의 학살과 전멸(삼상 22:19)의 장면을 역지로라도 보도록 하라. 그리고 본문의 증언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들의 일에 직면할 때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승리 확신에 대한 이유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본문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 I. 하나님의 적들은 그분의 말씀의 참됨을 증명한다 (God's Enemies Prove the Truthfulness of His Word)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팔십오 명을 죽였다(삼상 22:18)

---

<sup>1</sup> 일반적으로 다윗을 "이새의 아들(삼상 22:7, 8, 13; 비교, 삼상 22:17 '다윗')"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사울은 (삼상 22:16 에서 형을 선고할 때까지) 그 제사장을 아히멜렉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히둡의 아들"(삼상 22:12)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북미 환경에서 성을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작동하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거리감이 있다. 잭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앨런"이라고 말하면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사울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성을 부르는 관계를 유지한다. 우리는 그가 사람들을 부르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거리감, 그의 광기와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생긴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끔찍하고 잔인하고 불공평하지만, 도엑의 학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삼상 2:30-36(특히 31-33)의 예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도엑의 도살은 엘리에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sup>2</sup> 그 말씀은 아마 사십 년 전쯤, 아니 오십 년 전쯤 선언되었었다. 이제 기브아와 놉의 대학살에서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질타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러한 악의 저자가 아니시다. 죄책을 그것이 속한 자리에 두라. 즉 이 배신자 에돔 사람과<sup>3</sup> 그에게 명령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죄책을 돌려라. 그들은 감히 "여호와와 제사장들(삼상 22:17[두 번], 21)"을 죽였다. 그것은 사울과 도엑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무서운 악행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성취이다. 이 두 진술을 합치면 하나의 진리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한 형이 나를 위해 나무 오리를 만들었다. 이 오리는 큰 오리 모양의

---

<sup>2</sup>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N.Y.: Alba House, 1972), 3:131, 그리고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222 을 참조하라. 삼상 2:27-36 에 대한 나의 이전 논의와 거기 포함된 각주들을 참고하라. 삼상 2:33 이 하나님께서 "끊어 버리지" 아니하실 "한 사람"을 언급했다면, 그 성취는 아비아달의 피신에서 이루어진다(삼상 22:20). 우리가 사해사본과 칠십역을 따라 삼상 2:33 읽으면 엘리 집의 대다수는 "사람의 칼에 의해" 죽을 것이다. [역자 주: (Brenton: 칠십인역 삼상 2:33) And [if] I do not destroy a man of thine from my altar, [it shall be] that his eyes may fail and his soul may perish; and every one that remains in thy house shall fall **by the sword of men.**] 도엑이 놉에서 한 일을 묘사하는 삼상 22:19 에 두 번 나오는 "칼날"에 대한 언급에 유의하라. 또한 여기 사무엘상 22 장에 "11 절, 그의 아버지의 온 집; 15 절, 나(개역개정: 종)의 아버지의 온 집; 16 절, 네 아버지의 온 집"으로 세 번 나오는 "아버지의 온 집"과 관련지어, 엘리에게 선언된 예언(삼상 2:31)에 나오는 "네 아버지(개역개정: 조상)의 집"에 대한 언급에 유의하라. [역자 주] 삼상 22:19 의 원문에 두 번 나오는 [르피 헤레브] "칼날로"의 경우 ESV 에는 원문대로 두 번 나오나 개역개정에는 한 번만 나온다. 다음을 비교해 보라.

ESV: And Nob, the city of the priests, he put to **the sword**; both man and woman, child and infant, ox, donkey and sheep, he put to **the sword**.

개역개정: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새번역: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놉에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 떼나 나귀 떼나 양 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새번역의 "사울은"은 동사 [히카]의 대명사 주어를 밝혀 번역한 것이지만 18 절의 주어가 도엑이므로 19 절의 대명사 주어도 사울이 아니라 도엑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번역 삼상 22:19 의 "사울은"은 오역이다.]

<sup>3</sup>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174: "에돔 사람이란 그의 종족을 밝히는 단어를 세 번(삼상 22:9, 18, 22)이나 사용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뒤 따르는 악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점을 강조한다."

1/4 또는 3/8 인치 크기의 나무에서 잘라낸 두 개의 끝 곧 옆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간에는 유아가 앉아 나무 막대를 잡고 오리를 흔드는 자리가 있었다. 전체는 아마 2 x 2 x 2 1/2 피트쯤 되었다. 내가 6 살쯤 되었을 때, 나는 그 당시 똑똑한 고등학교 신입생이었던 형과 함께 다락방 침실을 사용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침대로 와보니 그 덮개 아래에 꽤 큰 봉우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나는 즉시 그것이 내 침대에서 "숨어있는" 짐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나는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다. 타격 전에 적개심을 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주먹을 뒤로 젖히고 힘껏 그 봉우리를 내려쳤을 때, 나는 지독하게 단단함을 느꼈고 즉시 짐의 머리를 때렸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짐이 웃으며 자기 침대 뒤에서 벌떡 일어났다. 침대 덮개를 뒤집어 보니 형이 그곳에 놓아둔 나무 오리를 내가 주먹으로 때린 것이 드러났다. 나의 불쾌함과 악의를 보이며 나는 그의 계획대로 행동한 것이었다.

그러한 예들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유추가 아니라 예시이다. 하나님은 조작하는 장난 꾸러기 형 혹은 그와 유사한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원리만 강조하고 싶다. 사람은 "적"을 힘차게 공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줄곧 적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울의 경우와 도엑의 경우가 그렇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그들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원수는 그분의 말씀이 참됨을 증명한다. 그분에 대한 적대감 속에서 그들은 그분의 뜻을 수행한다.

이 진리는 신비로우지라도 분명하고, 간단하지 않을지라도 명백하다.<sup>4</sup> 그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설교도 하고(행 2:33—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한 절로 압축했다!) 기도도 한 것이다(행 4:27-28). 그것은 기독교인의 인내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할 때 그들이 단지 그분의 말씀을 이행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승리에 대한 은밀한 확신을 준다. 이 점에 대하여 사무엘상 22 장은 어느 본문 못지않게 분명하다. 여호와의 원수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분은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신다. 만일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걷어찰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이토록 확실하다면, 틀림없이 그분의 위로의 말씀도 것처럼 견고할 것이다.

---

<sup>4</sup> 굿브로트(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187)는 삼상 22:18-19 에 들어있는 아이러니와 신비를 이렇게 강조한다. "이미 사무엘상 2 장 이래로 이미 이[엘리] 집의 위에 맴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된다. 이 행동으로 그는 자신을 올라미로 잡아 더 깊이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한다." 굿브로트는 이 본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신비스럽고 복잡한 방식들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에 주목한다.

## II. 하나님의 백성은 적의 증오를 경험한다 (삼상 22:16-19 God's People Experience the Hatred of Enemy)

적그리스도의 특징적인 열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멸하는 것이다(참조, 단 7:21-22, 25; 계 13:7-8). 여기서 사울은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축소 모형을 증명하였다. 사울은 여호와와 제사장들, 곧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종들이요 그분의 백성의 대표들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그는 이스라엘의 한 성읍을 여호와와 원수들 중 하나인 것처럼 전멸시킨다(참고, 삼상 15:2-3). 헤르츠버그는 삼상 22:17 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잘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여호와와 종들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이며, 따라서 여호와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이다. 신경 과민과는 거리가 먼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거부한 것은 의도적인 대조를 위한 것이다.<sup>5</sup>

사실,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단지" 85 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멸망시켰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온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고 오직 한 성읍을 쓸어버렸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은 통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본문은 충분히 명확하게 여기 이스라엘의 파괴자 사울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울은 악명 높은 일행에 합류한다. 그는 갓 태어난 히브리 아기들에 대한 정부의 살해 정책(출 1:22)을 제정한 적그리스도 바로의 대열에 속한다. 그는 저주(민 22:1-6)와 조언(민 31:16 "피"; 민 25 장[바알브올, 염병, 2 만 4 천, 시므리+고스비 ← 비느하스]; cf. 계 2:14; 벰후 2:15-16; 유 1:11)으로 각각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멸망을 계획한 발락과 발람의 동료가 된다. 그는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숙청하려는 여자 적그리스도 이세벨(왕상 18:4)과 다윗의 모든 씨(왕하 11:1)를 거의 다 쓸어버린 여자 적그리스도 아달랴와 함께 서 있다. 사울은 적그리스도 하만(에 3:5-6, 13)과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단 8:9-14, 23-25; 참고, 마카비 일서 1 장)와는<sup>6</sup>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사울은 여호와와 종들에게 항상 화풀이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중 하나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칙령이든, 루이 14 세 치하에 위그노들에게 부과된 징병이든, 찰스 2 세와 스코틀랜드의 "킬링 타임"이든, 우간다의 이디 아민의 만행이든, 이 모든 것들은 더

---

<sup>5</sup>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188.

<sup>6</sup>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F. F. Bruce, *Israel and the Nations* (Grand Rapids: Eerdmans, 1963), 143-46 을 참고하라.

크고, 지속적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적그리스도 전통에서 들어 올린 파편일 뿐이다. 우리가 놀라서도 안 되지만(벧전 4:12), 잊어서도 안 된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깨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약하다. 적어도 사무엘상 22의 경우가 그렇다. 사울이 (그의 적절한 앞잡이에게 명령하면) 단지 왕명만으로 제사장들을 도륙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문제이다. "사울에게는 완력 이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sup>7</sup> 사울은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진정한 지지를 스스로 없애고 있다. 그는 친아들(삼상 20:30-42)을 밀어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했고, 최측근 신하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다(삼상 22:17).<sup>8</sup>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그는 "도엑이 내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대조, 시 56:9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도엑만이 내 편이라면, 나는 곤경에 처한다. 실수하지 말라. 사울의 그림은 비극적이고 슬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력의 약함을 보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가 된다. 그것은 사도 요한의 진술에 고무적인 보충을 제공한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그러나 사라지고 만다.

### III. 하나님의 남은 자는 그분의 교회의 불패를 드러낸다(삼상 22:20-23 God's Remnant Reveals the Invincibility of His Church)

사울은 완력 외에 남은 것이 없었지만 눈을 둘러보는 것은 완력이 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킨다. 그러나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피신하여 도망쳐 다윗에게 가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고 그에게서 성역을 찾는다. 사울과는 크게 다른 태도로 다윗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대한다. 전체 단락은 이러한 대조를 묘사하도록 고안된 것 같다. 다음에 나오는 주요 장면들의 패턴에 유의하라.

사울과 종들, 6-8

(사울의 불만)

도엑의 폭로, 9-10

사울과 아히멜렉, 11-16

---

<sup>7</sup>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0), 161. 브뤼게만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는 종교적 지지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다. 우리는 영이 떠난 권력의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권력은 죽음만 초래할 수 있을 뿐이다."

<sup>8</sup> Gutbrod, *Das Buch vom König*, 187 을 보라.

소환, 11  
기소, 12-13  
변호, 14-15  
판결, 16

사울과 종, 17

(사울의 명령)

도역의 행위, 18-19

다윗과 아비아달, 20-23

도망, 20

정보, 21

고백, 22

보호, 23

“사울과 아히멜렉” 부분과 “다윗과 아비아달” 부분은 서로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다. 특히 사울의 마지막 말(“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삼상 22:16]”)과 다윗의 마지막 말(“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삼상 22:23]”)은 서로 정반대이다. 다윗은 제사장들의 보호자요 수호자이다.<sup>9</sup>

우리는 아비아달의 도피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스탈린은 분노의 포도에 대한 영화 버전이 소련에서 상영되는 것을 금지했다. 영화 제작자들의 의도는 미국 생활의 단점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소련 사람들에게 미국 생활의 음울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어떤 문제라도 있었는가? 글썸다. 하지만 그 영화는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트럭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너무 '정치적'이었다.<sup>10</sup> 우리는 30 대의 가난한 사람들이 낡아빠진 트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스탈린에게 너무 중요했다. 그러므로 아비아달의 도피와 보존 또한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sup>9</sup>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I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412 에는 아히멜렉의 변호(삼상 22:14-15)를 중심으로 보는 훨씬 더 정교한 삼상 22:6-23 의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내가 제안한 구조는 삼상 22 장의 장면들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다.

<sup>10</sup> Lloyd Billingsley, *The Seductive Image: A Christian Critique of the World of Film* (Westchester, Ill.: Crossway, 1989), 148.

아비아달의 도피와 안전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멸망의 와중에서 항상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아비아달은 여호와께서 따르시는 듯한 패턴에 대한 증거의 또 다른 전시이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나일 강에 던져지지 않았던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 곧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올 한 아기를 보존하셨다(출 2:1-10). 바알이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영주와 주인이 될 것 같지 않았던가? 여호와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칠천 명을 보존하셨다(왕상 19:18). 아달라가 다윗 왕의 씨를 살해한 것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으로 만드려는 위협이 되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인 중 한 분이 아기 요아스가 피가 똑똑 떨어지는 아달라의 칼에 죽지 않도록 빼내어 숨겨주었다(왕상 11:2-3). 헤롯이라는 새로운 바로가 그의 분노로 인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베어 버리지 않았던가? 그 아기들 중 한 명이 피신했다(마 2:13-15). 헤롯은 일단 하나님께서 구원을 정하셨으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비아달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지속적으로 보존하시는 방식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멸망할 수 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주 갈아뭇감을 당하지만 결코 내팽개침을 당하지 않는다. 아비아달의 도피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세상의 도살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살이 결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마 6:33, 그것은 위로가 될 소식이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교회에 대한 제 25 장에서 이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이 고백서는 어느 정도 부인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진술한다.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눈에 띄고, 때로는 덜 눈에 띈다. 이 교회에 속한 특정 교회들은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그 교회들 안에서 공적 예배는 더 순수하게 혹은 덜 순수하게 행해진다. 심지어 "하늘 아래서 가장 순수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에 빠지고," 일부는 너무 오류에 빠져서 교회가 아닌 사탄의 회가 된다. 그런 다음 핵심이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는 지구상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증인이다.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현대사에서 "적그리스도들(대문자로 시작하지 않는 antichrists)"을 식별할 수 있는가?
2. 초대 교회는 원수의 사악한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진리를 설교하고 기도했다. 오늘날 세계적 규모이든 또는 지역적 규모이든 그러한 어떤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가?

3. 질문 1 을 다시 보라. 이제 이러한 인물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의 주권 통치는 그들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4. 그의 왕권으로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었다.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은 권력은 물론 도덕적 자질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숙고하고,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지방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국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딤후 2:1-2).
5. 왕하 11:2-3 에 기록된 요아스의 생명 보존에 명백히 걸려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 21. 공급하시는 하나님 (삼상 23 장 The God Who Provides)

사무엘상 21 장과 22 장에서 바로 23 장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 장들 사이에 있는 재미있는 대조들에 주목한다. 놉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파괴자이었지만(삼상 22:16-19), 여기 그일라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삼상 23:1-5).<sup>1</sup> 사울은 아무도 자기에게 긴급한 일들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삼상 22:7-8), 하나님은 아비아달을 통하여 다윗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삼상 23:6-13). 사울의 짝패는 에돔 사람 살인자 도엑으로 사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했지만(삼상 22:9-10, 18-19), 다윗의 지지자는 왕자인 요나단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도록 해 준다(삼상 23:16-18).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위험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지만(삼상 21:10-15), 이제 그들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돕는 환영할 만한 구원자가 된다(삼상 23:25-28).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문예적인 대조들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다윗은 추격하는 사울로 인해 그의 목숨이 항상 위태로운(삼상 23:14b) 도망다니는 범외자(법의 피박탈자 outlaw)이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들의 고독하고 참기 어려운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필요로 했다. 시편 54 편이 어떤 암시(참고, 이 시편의 표제에 나오는 “십 사람”)를 주고 있다면, 분명코 다윗은 그 확신을 얻었다. 사람들의 배신에 직면하여 다윗은 “하나님은 저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십니다(시 54:4).”라고 증언한다.<sup>2</sup>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이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무슨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

<sup>1</sup> Moshe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A Literary Study of Comparative Structures, Analogies and Parallels* (Jerusalem: Rubin Mass, 1990), 122, 그리고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1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422 을 참고하라.

<sup>2</sup> 시편 54 편에서 이 구절(4 절)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Willem A. VanGemeran, “Psalm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1), 5:389 을 보라.

[역자 주] VanGemeran 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했다.

**A 구원을 위한 기도** Prayer for Deliverance (vv. 1-2)

**B 기도의 계기** Occasion of the Prayer (v. 3)

**C 신뢰의 확증** Affirmation of Trust (v. 4)

**B’ 기도의 결의** Resolution of the Prayer (v. 5)

## I. 하나님께로 나아감 (삼상 23:1-13 Divine Access)

그일라에 어려움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 마당들을 침노하여 곡식을 탈취하고 있었다(삼상 23:1). 이것은 (그일라의 농부들은 온갖 일만 하고 그들의 수확은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했으므로) 좌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곡식도 없고 빵도 없으므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일라는 유다 세벨라 지역의 요새화된 성읍으로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8 마일 조금 넘게 떨어져 있고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3 마일쯤 떨어져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어려움에 대하여 말했다. (누군가는 항상 다윗[혹은 사울]에게 항상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삼상 23:1, 7, 13, 25]. 둘 모두 효과적인 정보망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그 때에 다윗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삼상 22:5 은 다윗이 헤렛 수풀(이 곳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에 이르렀던 것을 알려준다.<sup>3</sup> 다윗은 매우 기꺼이 블레셋의 위협을 역공하려고 했고 여호와의 지시를 구했다(삼상 23:2).<sup>4</sup> 다윗은 여호와로부터 그가 블레셋을 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삼상 23:2b).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은 확신할 수 없었다. 유다에서 사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정말 분별 있는 일인가(삼상 23:3)?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지시를 구했다. 아니,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여호와께서는 다시 승리를 보장하셨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가서 싸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고 그일라를 구했다(삼상 23:5). 정말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셨던(삼상 23:2b) 그대로 되었다.<sup>5</sup>

삼상 23:6 은 독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배경 설명으로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구할”(삼상 23:2, 4) 수 있고 그러한 분명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

### A' 구원에 대한 감사 Thanksgiving for Deliverance (vv. 6-7)

<sup>3</sup> 헤렛의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없다. William Sanford LaSor, “Hereth, Forest of,” *ISBE*, rev. ed., 2:687 을 보라.

<sup>4</sup>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190: 자진해서 그일라를 보호하려는 그의 마음에서 “다윗은 그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의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sup>5</sup>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은 약탈당한 곡식을 나르기 위해 함께 데려왔던 짐을 나르는 그들의 가축이었을지도 모른다. Hertzberg, *I & II Samuel*, 191 을 보라.

다윗에게로 내려왔을 때 “에봇이 그의 손에 있었다.”<sup>6</sup> 삼상 23:6 은 언지시 말하는 대사(throwaway)가 결코 아니며 삼상 23:1-13 의 중심점(hinge)으로서 그일라가 어떻게 구원받았고(삼상 23:1-5)<sup>7</sup>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삼상 23:7-13)를 밝혀준다.

---

<sup>6</sup> 에봇과 그 부착물에 대해서는 출 28 장과 삼상 14:36-42 을 보라. 설명을 위해 나의 책 *Such a Great Salvation: Expositions of the Book of Judges* (Christian Focus, 2000), 113-14 [= **사사기 주해**, 89-91(10 장 II. 파멸적인 재주)]을 보라.

<sup>7</sup> 폴진(Robert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9], 201)은 사무엘상 23 장에서 아비아달과 에봇이 9-12 절에만 나오고 2 절과 4 절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삼상 23:2, 4 에 나오는 “여호와께 묻다([사알])”라는 공식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 받은 지시를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삼상 14:37 의 문맥은 [사알]이 제사장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삼상 30:7-8 은 다윗이 아비아달의 에봇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지시를 구하는([사알]) 것을 묘사한다. 삼상 23:6 의 진짜 문제는 엄밀히 말해 이 절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이미 그일라에 있을 때까지 다윗과 합류하지 않았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아비아달과 에봇을 미리 사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칠십인역은 “(→ Klein, 227 번역)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온 후, 그는 자기 손에 에봇을 들고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갔다.”라는 흠없는 지리 설명으로 이를 해결한다. 그것은 문제를 해소한다. 맥카터(P. Kyle McCarter, Jr., *1 Samuel*,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369)는 여기서 칠십인역을 선호한다. 그러나 나는 히브리어 본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대한 지형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 “그일라로 to Keilah”는 “그일라 상황에 있는 in the Keilah situation”와 같을 수 있다.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229, 그리고 R. Payne Smith, *1 Samuel*, The Pulpit Commentary (London: Funk and Wagnalls, n.d.), 432 을 비교하라. [역자 주: [https://biblehub.com/commentaries/kad/1\\_samuel/23.htm](https://biblehub.com/commentaries/kad/1_samuel/23.htm) In 1 Samuel 23:6 a supplementary remark is added in explanation of the expression "inquired of the Lord," to the effect that, when Abiathar fled to David to Keilah, the ephod had come to him. The words "to David to Keilah" are not to be understood as signifying that Abiathar did not come to David till he was in Keilah, but that **when he fled after David (1 Samuel 22:20), he met with him as he was already preparing for the march of Keilah, and immediately proceeded with him thither.** For whilst it is not stated in 1 Samuel 22:20 that Abiathar came to David in the wood of Hareth, but the place of meeting is left indefinite, the fact that David had already inquired of Jehovah (i.e., through the oracle of the high priest) with reference to the march to Keilah, compels us to assume that Abiathar had come to him before he left the mountains for Keilah. So that the brief expression "to David to Keilah," which is left indefinite because of its brevity, must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is fact.]

[역자 주]

삼상 22:5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 20 아히둑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한 여호와와의 인도하심은 다윗이 그일라로 가는 것과 그일라로부터 나오는 것을 지시했다. 삼상 23:1-13 의 구조는 6 절이 정말로 전체 단락의 중심점인 것을 보여준다.<sup>8</sup>

23:1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대한 보고

23:2-4 여호와와의 인도하심 (그일라로 가는 것에 대한 두 번의 질문)

23:5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함

**23:6 아비아달과 에봇**

23:7-8 그일라를 공격하려는 사울

23:9-12 여호와와의 인도하심(그일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두 번의 질문)

23:13 다윗의 피신에 대한 보고

그렇다면 모든 것은 아비아달과 에봇에 달려 있었다. 그러한 인도하심 덕분에 다윗은 공격과 피신에 있어서 모두 성공했다. 다윗이 요새화된(문과 문빋장이 있는) 성읍에 갇히게 될 수

---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 삼상 23:1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 4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 5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삼상 22:5 에 의하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과 그 일행은 유다 땅으로 돌아와 헤렛 수풀에 있었다. 삼상 22:20 에 의하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피신하여 다윗에게 왔다. 여기에 다윗이 있는 장소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헤렛 수풀일 가능성이 높다.) 삼상 23:6 에 의하면 아비아달이 **“개역개정: 그일라 다윗/새번역: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을 만난 장소로서 22 장의 헤렛 수풀과 23 장의 그일라 사이에 충돌을 일으킨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데이비스는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그일라에 있는 다윗이 아니라 그일라 상황을 대처하려는 다윗을 만난 것으로 풀이한다. 마찬가지로, 카일-텔리치 주석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온 것이 다윗이 산을 넘어 그일라로 진군하기 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삼상 23:1-6 을 간단히 요약하면,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소식을 들은(1 절)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두 번 여호와께 여쭙었고(2, 4 절) 두 번 다 블레셋을 쳐서 구원하라는 응답을 듣고(2, 4 절)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고 주민을 구원하였다(5 절).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울의 학살을 피해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온 아비아달과 에봇이 있었기 때문이다(6 절). 삼상 22:5, 20 그리고 삼상 23:6 을 종합하면, 도망하던 아비아달은 다윗이 그일라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때 곧 산을 넘어 그일라로 진군하기 전에 다윗을 만났고 그의 손에 에봇을 들고 있었다.

<sup>8</sup> 클라인(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229)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상 23:6 은 “어색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설”도 아니다. 포켈만(Fokkelman, *The Crossing Fates*, 421)은 삼상 23:5 의 중심 위치를 인정하지만 구조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므로 사울은 자신이 섭리의 미소를 본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아달을 의지했다(삼상 23:9). 삼상 23:10-12 은 우리가 에봇을 통한 여호와와 인도의 마음을 가장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은 여호와께 두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고(삼상 23:11a), 두 가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삼상 23:11b-12). 다윗은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삼상 23:13).

삼상 23:1-13 에서 다윗이 누린 특권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시 다윗의 우세는 사울의 결핍(참조, 삼상 22:5[선지자 갓을 통한 인도하심]에 대한 주해)과 대조된다. 사울(삼상 16:14; 18:22; 28:6, 15)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임직받은 제사장(삼상 22 장이 말해주는 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쫓아냈으므로 다윗에게로 피신한 아비아달)을 통하여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와 인도의 마음을 구할 수 있었다.

오늘의 신자들은 “나도 안다. 그것은 정말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윗이 받았던 그런 종류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나 또한 받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피택된 왕이 아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다윗의 역할이 내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의 자아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와 나라의 운명은 나의 보존보다 다윗의 보존에 훨씬 더 많이 달려있다. 다윗은 여호와와 피택된 왕으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것을 받았다. 나에게서 그렇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리에 있어서는 이 피택된 왕과 내 자신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호와와 인도의 마음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가? 그것은 임직받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아닌가? 아비아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특권이 아닌가)? 궁극적으로 히 4:14-16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크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결코 이것(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을 리 없다.

## II. 하나님의 격려 (삼상 23:14-18 Divine Encouragement)

이제 살펴볼 짙막한 단락인 삼상 23:14-18 은 일반적인 요약(14-15 절)과 특별한 에피소드(16-18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요약은 다윗이 십 광야에 머물고 있던 것을 알려준다. 십 광야는 헤브론의 남동쪽으로 약 4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때 다윗은 십의 동쪽 편 광야에 머물며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매우 깊숙이 있었다.<sup>9</sup> 그러나 이 요약 부분이 말해주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보존이다(삼상 23:14b). 모든 지역, 모든 장소에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을지라도 지존하신 분의 피난처에서 벗어날 수는 결코 없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삼상 23:14b).” 이 말씀은 다윗이 “범외자”로서 겪은 경험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sup>10</sup>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한 반면, 요나단은 다윗을 찾을 수 있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삼상 23:16).” 그러한 기막힌 격려를 통해 요나단은 십 광야에 얼마나 좋은 오아시스를 만들었는가! 본문은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본문은 또한 요나단이 무릅쓴 모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그가, 말하자면, 다윗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말한다.<sup>11</sup>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잘 격려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삼상 23:17 에서 요나단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이 될 것이네. 내 아버지 사울도 그리 될 줄로 아신다네.”<sup>12</sup>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 약속은 사무엘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삼상 24:4; 25:28-31; 삼하 3:9-10, 17-18). 물론 요나단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임재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갖는 **지속적인** 격려를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꼭 껴안아 주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켜주는 것에 의해 가장 잘 격려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나는 개인적인

<sup>9</sup> “십” 광야에 대한 묘사를 위해 George Adam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d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n.d.), 312–14 을 보라.

<sup>10</sup> 다윗은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추격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초두의 진술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전체 부분의 제목을 준다. 사울은 추격할 수 있고 다윗은 추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아무도 이 긴 사건의 과정에 있는 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Hertzberg, *I & II Samuel*, 193).”

<sup>11</sup> 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360.

<sup>12</sup> 포켈만(Fokkelman, *The Crossing Fates*, 440)은 삼상 23:18a 의 언약을 삼상 20 장의 재확인인 아니라 “다윗 왕—요나단 대신(大臣 vizier)”이라는 삼상 23:17 에 언급된 일의 분담에 대한 비준으로 이해한다.

접촉이나 돌봄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평가 절하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모든 방면에 “염려”와 “신경 과민”에 빠져 있는 시대에서 신자들은 굳건한 격려가 감정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자들은 삼상 23 장의 문맥 및/또는 일반적인 구조 안에서 요나단의 격려 부분을 살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쉽게 간과되어 버린다. 다음 구조를 보라.

23:7-13 그일라의 종잡을 수 없음

23:14-18 요나단을 통한 격려

23:19-24 십 사람들의 배신

우리는 그일라의 시의회가 직면했던 딜레마(삼상 23:9, 10)를 이해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놈에서 사울의 분노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삼상 22 장) 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다윗을 기꺼이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삼상 23:11, 12)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되지만 분명 전형적인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의 용기없음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관되지 못함을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다윗은 십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다. 십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미국 속어로 벗겨지기 쉬었다(flaky). 다윗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그일라)의 감사나 그 자신의 지파 유다 영토의 사람들(십)을 의지할 수 없었다면, 어디에서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원수 사울의 아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일라에 대한 실망 후에 그리고 십 사람의 배신 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왔다(삼상 23:16a).”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격려를 보내시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요나단의 다윗을 위한 사역이 없었다면 십 사람들의 배신(삼상 23:19-24)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환멸(그일라)에 이은 배신(십)은 너무 심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 삼상 23:16b 이 얼마나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지! 믿을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 서 있을 때 신실한 사람을 갖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마도 신자들은 여기 요나단의 사명 속에서 요나단보다 더 크신 분의 그림자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앤드류 보나르는 1860 년 5 월 26 일의 일기에서 그가 섬겼던 이전의 교구 근처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던시네인(Dunsinnane)의 숲에 있는 나의 옛적 피난처에서 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내가 “십의 숲”이라고 부르곤 했던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요나단이 나를 만나 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주 내 손을 강하게 하셨다.<sup>13</sup>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임종시에 “나의 참되고 언제나 틀림없는 친구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물을 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단”을 갈망했다.<sup>14</sup> 다른 사람들이 떠났을 때 바울이 소중한 여겼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우정이었다.

(딤후 4:16-17)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 . .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호레시 장면은 엄숙한 설명으로 끝난다. 다윗과 요나단 둘 모두 그때 그것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다윗은 호레시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삼상 23:18b).” 그것은 그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였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 속에는 무거움이 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자기 사명을 완수했었다. “그는(=요나단은) 그의(=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힘 있게 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도록 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필요로 하는 임재는 아니다.

### III. 하나님의 섭리 (삼상 23:19-28 Divine Providence)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거의 치명적인 배신에 직면하여 압박당하는 그분의 종에게 그분의 여러 섭리를 제공하신다.

십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사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기브아로 올라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폭로한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광야[혹은 여시몬] 남쪽 하길라 산의 호레시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삼상 23:19)?” 사울이 내려오면, 기꺼이 그들은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삼상 23:20). 세 절에 걸쳐 묘사된 사울의 반응은 축복과 자기 연민으로 시작하여(삼상 23:21) 세심한 주의와 정밀과 정확성에 대한 염려들을 거쳐(삼상 23:22-23a) 미리 축배를 터뜨리며 지나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삼상 23:23b).

---

<sup>13</sup> Marjory Bonar, ed., *Andrew A. Bonar: Diary and Life*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0), 203.

<sup>14</sup> Iain H. Murray, *Jonathan Edwards: A New Biograph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441.

그 후에 빠르게 전개된 사건은 두 절로 압축되어 전해진다. 십 사람들은 마무리짓기 위해 먼저 돌아온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마온 광야에 있다. 마온은 십에서 남쪽으로 4 마일 조금 넘는 곳(곧 헤브론의 남쪽으로 8 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라고(삼상 23:25b) 불리던 곳으로(아마 더 동쪽으로) 내려간다. 사울이 다윗을 아주 가까이에서 추격한다(삼상 23:25c). 곧 그 바위가 무덤이 될 것처럼 보인다.

독자들은 조마조마하며 불안해한다. 긴장이 거의 참을 수 없을 만큼 고조된다(삼상 23:26). 사울과 다윗은 같은 산의 서로 반대되는 쪽에 있다. 삼상 23:26b 에 나오는 히브리어 분사들은 사울이 느리지만 꾸준한 동작으로 어떻게 올라가미를 잡아당기고 있는지 눈으로 보는 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포위하며 다가왔다.

동정적인 성경 독자들이라면 이 시점에서 그들의 눈을 감으려 한다. 그들은 사로잡힘, 모욕당함, 아마도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잠깐만(기다려라)! 그때 무슨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왕을 부르는 그 미친 듯한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인가?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한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습니다(삼상 23:27).’”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간다 ...(삼상 23:28a)”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고 있듯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포위하며 다가왔다 ... 그러나 그 때 한 전령이 와서 말했다...”

물론 여러분은 믿지 않는 까막눈으로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피했던 그의 행운에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얼거리며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아니면 여러분은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끝없이 다양한 방식들에 대하여 기뻐 날뛰고, 그 모든 것의 유머스러움(도저히 생각되지 않은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임)을 즐기고, 여호와의 시간 맞추심에 놀라고,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강제로 여호와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읽을 수 있다. 그곳은 정말로 “[셀라 하마흘르코트] 분리의 바위”였다(삼상 23:28b).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장소에 대한 적절한 이름이다.

이 에피소드는 나에게 스코틀랜드의 언약신학자인 알렉산더 페덴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 준다. 페덴과 몇몇 사람들이 기병과 보병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있었다. 페덴과 그의 친구들이 추격자들로부터 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멈추고서 숨을 고르며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 페덴은

기도하였다. “주님, 이것은 주의 적들의 시간이고 권세입니다. 그들은 한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추격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해야 할 다른 일은 주께 없습니까? 그들이 주께서 도망할 힘을 주신 사람들을 추격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힘은 없어졌습니다. 오 주님, 산 주위에서 그들을 둘러싸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들과 그들의 추격자들 사이에 짙은 안개를 일으키시며 응답하셨다.<sup>15</sup> “우리를 추격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해야 할 다른 일은 주께 없습니까?”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께는 사울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전령이 왔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에는 시의적절한 변화(다양성 variety)뿐만 아니라 즐거운 아이러니도 있다. 사무엘상 23 장의 주제적 배열을 통해 이 요점을 파악해 보자. 이 주제적 배열은 본문의 강조점들을 요약하고 우리로 하여금 언급된 아이러니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A 23:1-5 뜻밖의 구원자들

B 23:6-13 인간의 신의 없음

C 23:14 하나님의 신실하심

C' 23:15-18 인간의 신실함

B' 23:19-24a 인간의 배신

A' 23:24b-28 뜻밖의 구원자들

첫째 부분과 여섯째 부분(A와 A')은 서로 상응한다. 사람들이 그러한 (예를 들어, 그일라를 위한) 구원의 일이 왕의 과업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점에서 보면, 첫째 부분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뜻밖의 구원자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 그일라를 구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섯째 부분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뜻밖의 구원자들이다. 그것은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느냐는 에피소드이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역할의 역전에 있다. 삼상 23:1-5 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적이었지만, 삼상 23:27-28 에서 그들은 구원자가 되었다. 때때로 조금 유머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의외의 급변은 여호와의 섭리의 표시일 때가 매우 많다.

---

<sup>15</sup> John Whitecross, *The Shorter Catechism Illustrated from Christian Biography and History* (reprint ed., London: Banner of Truth, 1968), 20.

삼상 23:19-28 은 우리에게 섭리의 의미,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기이한 방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준다. 이 섭리는 오직 다윗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들 중 상당수가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자들과 그분의 놀라게 하시는 시간 조절에 관하여 말할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페이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 사울이 영원히 떠나간 것은 아니다. 다윗의 곤경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종적 구원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상 23 장은 여호와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그분의 종들에게 주시는 모든 자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시련들의 무게를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렇다. 어두움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아마도 그것의 일부는 전능자의 그늘일 것이다.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서가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너무 지나칠 만큼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곧 히브리서에서 그것에 대한 주된 강해를 찾을 수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결과들은 무엇인가?
2. 여러분은 요나단과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가? 그들 중 일부를 식별하고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3. 당신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의 위대한 약속 중 일부를 암기하는 것은 어떤가?
4.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격려하시는 때를 얼마나 잘 맞추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시기 선택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체험의 예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5. 우리가 성경의 아이러니에 충분히 민감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특징으로 얼마나 가득차 있는가!

## 22.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상 24 장 This Is the Day! Or Is It?)

사무엘상 24 장, 25 장, 26 장은 피자 위의 모짜렐라 치즈처럼 서로 붙어 있다. 그것들은 각각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다음 요약이 보여주듯이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본문	특성화	주제
삼상 24 장	겉옷 자락 에피소드	여호와의 약속을 기다리는 다윗의 “자제”
삼상 25 장	잔치 에피소드	
삼상 26 장	창 에피소드	

독자들은 오래 전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삼상 13:14). 사무엘상 24-26 장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왕권을 (폭력을 써서) 장악하지 않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사무엘상 24 장이다.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독자들은 마온에서 동쪽으로 엔게디로 이끌려 간다(삼상 23:29-24:2). 엔게디는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오아시스였고 수백 피트나 되는 큰 절벽 위에 위치한 마르지 않는 샘의 혜택을 받았다. 예전의 어떤 저자들은 동굴들과 동굴들 앞에 있는 양 우리들을 포함한 그 지역에 대한 그림 같고 기억에 남는 묘사를 제공한다.<sup>1</sup>

저자의 사건 묘사가 너무 갑작스럽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을 한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회피한다. 사울이 그들과 싸우려고 떠났지만(삼상 23:28), 저자는 우리에게 사울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어떤 암시도 주지 않는다.<sup>2</sup> 기록된 이야기에서 사울은 또 다시 아주 빨리 다윗의 목을 조르고 있었으므로, 다윗조차도 그가 휴식을 즐겼었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사울은 정탐 보고를 받지 않은 적이

<sup>1</sup> 예를 들어, W. M. Thomson, *The Land and the Book*, 2 vol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73), 2:419-21, 그리고 George Adam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d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n.d.), 269-72, 그리고 A. F. Kirkpatrick,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6), 195 을 보라. 엔-게디는 “새끼 염소/염소의 샘”이란 뜻이다. 보다 더 최근의 묘사를 위해 Theodor H. Gaster, *Myth, Legend, and Custom in the Old Testament*, 2 vols.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75), 2:457-58 을 보라.

<sup>2</sup>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I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451 을 참조하라.

없다(삼상 24:1). 따라서 사울은 정예 병사 삼천을 거느리고 엔게디 부근에 있는 다윗을 향해 온다(삼상 24:2). (문자적으로 발을 가리기 위해, 곧) 뒤를/용변을 보기 위해, 그리고 아마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울은 동굴로 들어간다(삼상 24:3a). 그러자 저자는 깜짝 놀라기라도 한 듯이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동굴의 깊은 곳에 머물고 있었다(삼상 24:3b)."라고 전한다. 이렇게 그는 3 개의 절을 가지고 빠르게 장면을 설정했다. 삼상 24:3b 에 비추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정말 흥미진진할 것이다.<sup>3</sup>

### 1. 여호와와의 종에 대한 시험 (삼상 24:4-7 A Test for Yahweh's Servant)

사울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의 생애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다윗의 사람들은 마치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라는 합창곡의 한 소절을 노래하는 것 같다. 누가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것을 볼 수 없었겠는가?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삼상 24:4 개역개정)." 다윗의 사람들이 예전의 여호와와의 신탁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sup>4</sup> 뜻밖의 섭리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무도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대학에 갈 필요는 없었다.

다윗의 행동이 뒤따른다. 그는 사울의 겹옷 자락을 잘라낸다(삼상 24:4b). 삼상 15:27-28 에서 사무엘의 겹옷 자락이 찢어진 것은 사울의 왕국의 몰수를 의미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날 동굴에서 사울의 겹옷 자락을 떼어내면서 왕국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sup>5</sup> 다윗의 행동은 반역의 상징적 선언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한 무거운 상징성은 "다윗의 마음이 찢렸다(삼상 24:5)."라는 그의 회한을 설명해 준다. 다윗은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조차도 지나친 것으로 생각했다.

다윗의 행동, 특히 그의 회한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삼상 24:6)."는 원리를 설명한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울 자신은 신성불가침하고 침해해서는

<sup>3</sup> 대부분의 이야기가 말과 대화를 통해 전해지는 것에 주목하라.

<sup>4</sup> 참조,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192–93.

<sup>5</sup> Robert P. Gordon, "David's Rise and Saul's Demise: Narrative Analogy in 1 Samuel 24-26," *Tyndale Bulletin* 31 (1980): 55–56.

안 되는 존재였다.

왜 사람들은 기름 부은 자가 신성불가침하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면직되지 않는다고 여겼는가? 그 대답은 일단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개인이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에 있다. 특별한 유대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남자들과 여자들과 구별되고, 구체적으로 삶의 공통적인 측면으로부터 구별되었다. ...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드리고 더럽히고 공격하는 것은 여호와 자신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분을 모독하고 상해하고 그분의 정당한 자리에서 그분을 제거하려는 것과 다름없었다.<sup>6</sup>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말해보라. 분명히 다윗은 그들을 꽤 강압적으로 대해야만 했다. 이 사실은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말렸다, 타일렀다, 꾸짖었다/나무랐다”라는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히브리어 본문은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갈가리 찢어버렸다.**”라고 말하며, 다윗이 그들의 끓는 피를 식히기 위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어에 의지해야 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많은 주석가들(그리고 몇몇 고대 역본들)은 그 단어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다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다. 저자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곧 사울의 피가 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윗이 그의 말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었다”, 혹은 “그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이다.<sup>7</sup> 그러는 동안 사울은 그의 주적이 방금 자신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길을 간다(삼상 24:7b).

되감기 버튼을 누르고 동굴로 돌아가자. 거기에 무력한 사울이 앉아 있다. 다윗은 웅크리고 앉아서 그를 지켜본다. 다윗의 머리를 스쳐 가는 말이 있다. “보라, 내가 네 적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은 섭리인가 아니면 유혹인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종을 위한 엄중한 시험이었다. 오직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거룩함이란 원리만이 그 딜레마에 답을 준다(삼상 24:6).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삼상 24:7). 그러나 다윗에게 왕국의 약속(삼상 20:13-16; 23:16-17)이 있다는 것과 왕국이 그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였다.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의 방법으로

---

<sup>6</sup> Gerar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0), 25. 더 자세한 전체 논의는 그의 책 23-28 쪽을 보라. 그리고 Roland de Vaux, “The King of Israel, Vassal of Yahweh,”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Garden City, N.Y.: Doubleday, 1971), 152-66 도 보라.

<sup>7</sup> 삼상 24:7(MT 24:8)에 나오는 동사 **שׁוּט**[샤샤]에 대해서는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193-94 을 보라. 영어 성경 중 NEB의 “David reprovved his men severely.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했다.”라는 번역이 그 의미에 가장 가깝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단으로 도달해야 한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에 서 계시고, 그분이 이 구체적인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으신지 잘 안다고 주장한다.”<sup>8</sup>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하다!

다윗의 자손이신 분도 같은 시험을 치르셨다. 마귀는 그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했다(마 4:8b-9a).” 마귀가 그에게 제안한 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귀에게 엮드려 절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치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은 다윗과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여호와의 종들에게 반복해서 오는 것이다. 그것은 지름길의 유혹이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서도 우리는 자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때때로 우리는 거의 항상 방해, 좌절, 절망이 없는 어떤 종류의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할 “열쇠”나 주요 “돌파구”나 결정적인 “통찰”을 찾기를 갈망한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비결을 찾았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우리가 고단하고, 지치게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성화의 수고 주변의 지름길을 얼마나 갈망하는가(히 12:1-13)! 우리에게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남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빌 1:9-11 개역개정).”

## II. 여호와의 공의에 호소 (삼상 24:8-15 An Appeal to Yahweh’s Justice)

“내 주, 왕이시여!”라는 외침을 들었을 때 사울은 분명히 소름이 돋았을 것이다. 특히 그가 돌아서서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을 본 후 더욱 그랬을 것이다(삼상 24:8). 다윗은 사울이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길게 말을 한다. 여기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삼상 24:9-11), 다음으로 여호와의 공의에 호소한다(삼상 24:12-15).

다윗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울을 위해 다시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한 것은 **섭리의 사실**(“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삼상 24:10a]”), **좋은 기회임을 알려주는 목소리**(“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삼상 24:10b]”), **자제의 원리**(“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

<sup>8</sup> Fokkelman, *The Crossing Fates*, 454.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삼상 24:10c]),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증거였다. 다윗이 그 겹옷 자락을 들어 올렸을 때 사울의 마음은 무너졌는가?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삼상 24:11a)!” 다윗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자를 수도 있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데, 사울이 더 이상 어떻게 다윗의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할 수 있겠는가(삼상 24:11b)?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심경의 변화나 사울의 새로운 약속에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삼상 24:12a).”라고 말하며 자기의 사정을 여호와께 맡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보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삼상 24:12b). 그러나 다윗은 이중으로 사울을 확신시키며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삼상 24:12c).”라고 말한다. 그러한 사악함은 다윗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삼상 24:13). 이것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옛 속담을 언급하는 요점인 것 같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담을 두 갈래로 의도했을 수 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변호(다윗은 사울에 대한 살해 의도가 없음!)일 뿐만 아니라 사울에 대한 비난(나쁜 사울은 무고한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일 수 있다. 사울은 사악하고 어리석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한 죽은 개나 단 한 마리의 벼룩(히브리어 [켈레브 메트/파르오시 에하드]의 뉘앙스가 그러함, 삼상 24:14)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사울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은 원래의 요점으로 되돌아온다. 그는 여호와께 자기 사정을 맡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삼상 24:15).”<sup>9</sup>

그렇다면, 여기에 다윗의 기다림을 설명해 주는 비밀이 있다. 다윗은 여호와와의 공의, 아니, 더 잘 표현하면, 그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실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보복이 있을

---

<sup>9</sup> 실제로 삼상 24:15의 첫 번째 부분은 소원이 아니고 진술이지만 NEB와 TEV만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 [역자 주] GNT가 상반절을 서술문으로, 하반절을 기원문으로 번역함으로써 히브리어 본문을 잘 반영하고 있다. GNT와 NEB와 ESV의 삼상 24:15을 비교해 보라.

GNT: The Lord **will** judge, and he will decide which one of us is wrong. **May** he look into the matter, defend me, and save me from you.

NEB: The LORD **will** be judge and decide between us; let him look into my cause, he will plead for me and will acquit me.’

ESV: **May** the LORD therefore be judge and give sentence between me and you, and see to it and plead my cause and deliver me from your hand.

것이지만(삼상 24:12),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보복하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건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소하시고 다윗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의 선물을 거머쥐기보다는 기다릴 것이다. 다윗은 (바울이 쓰기 전에) 롬 12:19 을 순종했다. 사실 바울은 신 32:35-36 과 레 19:18 에 근거하여 롬 12:19 을 기록했다.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정에 보복을 맡기는 것은 박력없고 수수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예: 시 54:5; 58:6-9; 139:19-24)을 확인해보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시 54:5)."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시 58:6)."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시 139:19)."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칠고" "보복적인" 기도들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다. 그들은 그런 표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서구적 정서에 사로잡혀 있다. 확실히, 이것들은 걱정적이고, 폭발적이고, 열에 반친 기도들이지만 순종적인 기도들이다.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 즉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는 것 외에 이런 기도가 하는 다른 무엇이 있는가? 시편 기자는 보복하지 않고 여호와께 심판을 내리시며 일을 바로잡아 주시라고 요청한다. 그의 순종적인 기도에 감정을 넣었다고 해서 왜 그를 비난하는가? 짓눌려 고통받는 여호와와 백성이 그들의 사정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그들을 대신하여 정당한 보복을 해주시길 기대할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오직 자기 백성에게 가해진 잘못을 바로잡는 하나님만이 고난 속에서 잘 입증된 그들의 도움이실 수 있다. 누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걱정애 싸여 있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호와께** 보복을 맡기는 한편, 우리는 **보복을** 여호와께 맡긴다.

1661 년 찰스 2 세의 "술 취한 의회"는 언약신학자인 제임스 거스리에게 에든버러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의 머리가 잘려 공개적으로 전시되고, 그의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의 자녀들이 장차 왕국에서 어떤 직위, 소유물, 토지, 또는 물품을 보유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형이 집행된 후에 거스리의 머리없는 시신은 입관되어 구 교회(Old Kirk) 통로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존경할 만한 여성들이 적절한 매장을 위해 준비했다. 참석한 한 신사는 일부 여성들이 순교자의 피에 그들의 냅킨을 담그는 것을 보고 "카톨릭적 미신의 일부"라고 비난했다. 한 여성은 변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미신이나 우상 숭배에 남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그 피 묻은 냅킨을 들어 올리며 주님께서 그 흘러진 무고한 피를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sup>10</sup> 그것은 여호와와 그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기다리는 배후에 있는 비결이다.

### III. 여호와와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 (삼상 24:16-22 An Assurance of Yahweh’s Faithfulness)

사울이 냉정해진 후(삼상 24:16) 다윗에게 대답한다. 사울의 말(삼상 17-21)은 세 부분으로 간단히 나눌 수 있다.

사울이 인정하는 것, 17-19

사울이 아는 것, 20

사울이 원하는 것, 21

삼상 24:17-19 에서 사울은 “선, 착함”을 의미하는 단어 [토바]를 4 번(17 절, 18 절, 19 절[두 번])이나 사용한다.<sup>11</sup>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삼상 24:19 의 경우 두 번 나오는 [토바]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sup>12</sup> 사울은 다윗이 동굴에서 그에게 두말할 나위 없는 선함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한다. 그런 다음 사울은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선언한다(삼상 24:20). 여기서 사울의 입을 통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는 요나단의 말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울의 집을 숙청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기를 바란다(삼상 24:21).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그의 집에 대해 이미 맹세했던(삼상 20:14-17) 보호 약속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한다(삼상 24:22a).

이 모든 것에서 다윗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왕국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삼상 24:20)이란 또 한번의 확신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가 들은 것이다. (때로는 여호와와 그의 종들에게 그렇게 단순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윗의 적의 말이 어찌 다윗에게 하나님의 확증을 전할 수 있겠는가? 화자(話者)의 성품이 그 메시지의 질을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가장 확고한 확신이

---

<sup>10</sup> Thomas M’Crie, *The Story of the Scottish Church from the Reformation to the Disruption* (1875; reprint ed., Glasgow: Free Presbyterian, n.d.), 259–61.

<sup>11</sup> Fokkelman, *The Crossing Fates*, 469.

<sup>12</sup> (개역개정 삼상 24:17-19): 17 너는 나를 선대하니(הַטּוֹבָה אֲנִי מְלַמֵּךְ [그말타니 하토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 네가 나 선대한(הַטּוֹבָה אֲנִי מְלַמֵּךְ [아씨타 이티 토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19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safely, safe, unharmed → [토바] 선처하여 “with good treatment”) 가게 하겠느냐(הַטּוֹבָה אֲנִי מְלַמֵּךְ [브실호 브데레흐 토바])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הַטּוֹבָה אֲנִי מְלַמֵּךְ [여살렘하 토바]) 원하노라

적에게서 나올 수 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작될 때, 한 사람은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내가 알기로 미주리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육사 출신이 한 명 있는데, 나는 북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기를 바라네. 샘 그랜트를 말하는 걸세. 나는 그를 육사와 멕시코에서 잘 알고 있었네. 나는 내가 들어 본 어떤 장교들보다 그를 더 두려워하네. 그는 천재가 아니지만 머리가 명석하고 재빠르며 대담한 사람이네.<sup>13</sup>

그랜트(U. S. Grant = Ulysses Simpson Grant [born Hiram Ulysses Grant])는 북부에서 수많은 비방자들이 있었지만, 남군의 유웰(Richard Stoddert Ewell) 장군은 그의 능력을 두려워할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이 여기 다윗의 상황이다. 그의 적조차도 여호와와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입증하는 것을 듣고서 다윗은 매우 고무되었을 것이다(삼상 24:20). 여호와께서 발람의 나귀의 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실 수 있었다면(민 22 장), 틀림없이 그분은 정상이 아닌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진실을 확증하실 수 있다. 사울조차도 다가오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할 때 그 확신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다. 어쩌면 그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날이었다.

마음이 든든한 것과 바보처럼 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윗은 착각하지 않았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현명하게도 다윗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삼상 24:22b).<sup>14</sup>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섭리 혹은 유혹”—이것은 여전히 딜레마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경건한 삶의 몇 가지 원칙을 열거하라.
2. 경건한 분별력에 대해 생각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확실히 중요한 요소이다. 생각나는 다른 것들이 있는가?

---

<sup>13</sup> Robert Leckie, *The Wars of America*, 2 vols. (New York: Harper and Row, 1968), 1:410.

<sup>14</sup> 요새에 대한 언급이 이 내러티브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삼상 23:29[MT 24:1])”로 시작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삼상 24:22[MT 24:23])”로 마친다. [역자 주: 맞소라 본문(MT)은 삼상 23:29 을 삼상 24:1 로 간주하므로, 사무엘상 24 장의 경우 한글 성경과 1 절씩 차이가 난다.]

3. 여러분 자신의 경험 가운데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것을 기다릴 준비가 되었는가?
4. 우리가 성경에 사용된 강한 언어를 너무 많이 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5. 과거에 여러분에게 복이었던 어떤 기독교인의 슬픈 타락에 화가 날지라도, 화자의 성품이 반드시 그 메시지의 질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이 사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23. 예방적 섭리 (삼상 25 장 Preventive Providence)

### I. 등장인물 (The Characters We Meet)

흥미로운 인물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흥미롭다. 재빠르게 저자는 우리에게 두 명의 등장 인물을 소개한다. 그러나 적어도 남자에 대해서만은 이름부터 소개하지 않는다. 그의 집은 마온에 있고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었다. 갈멜은 유다의 맨 남쪽, 곧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8 마일쯤 떨어져 있었다. 그는 심히 부하여 양 3 천 마리와 염소 1 천 마리를 갖고 있었다. 지금 그는 갈멜에서 수익성 있고 즐거운 (특히 소득이 많은) 양털을 깎고 있다(삼상 25:2). 그리고 나서야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소개된다(삼상 25:3a). 월터 브루게만의 다음 말은 옳다.

이런 식으로 나발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그것은 나발의 소유물이 그 자신의 인격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그의 재산에 의해 결정되었다. 나발은 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그의 재산을 즐기며 잔치하는 중에 죽었다. 우리가 그의 부유함에 대하여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이름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1</sup>

나발이란 이름 소개로 인해 그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발은 “바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바보들이 있을 것이지만, 나발은 (저급한 통속적인 미국말로 하면) 머리 나쁜 얼간이(thick-headed clod)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는 훨씬 더 나쁘다. 사 32:6 에 의하면 [나발]은 매너가 없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몹쓸 사람(disaster, 구제불능인 사람)이다.<sup>2</sup>

저자는 남자 인물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말한 후 바로 그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소개한다. 이 부부의 대조는 연구할 만한 사항이다. 저자 자신이 삼상 25:3 의 하반절에서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한다. 저자가 나발에 대하여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나발의 종(삼상 25:17), 그의 적(삼상 25:21), 그리고 그의 아내(삼상 25:25)는

---

<sup>1</sup>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0), 175. 그리고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I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481, 489.도 보라.

<sup>2</sup> [역자 주] (사 32:6 새번역)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내레이터가 나발을 정확하게 평가했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사실상 나발 자신의 말(삼상 25:10-11)은 저자의 평가가 옳다는 것을 옹호해 준다.

나발의 심술 꾀은 반응(삼상 25:10-11)이 나온 것은 다윗이 그의 소년 10 명을 보내어 나발의 풍부한 양식 중 작은 일부를 주기를 요청할 때 일어났다. 다윗이 알기에는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이 나발의 양과 종들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자 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털 깎을 양의 수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나발의 양떼를 해치지 않았다. 물론 나발은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발과 같은 부유한 사람에게 제공받은 봉사에 대한 관대한 감사 표시를 보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삼상 25:7-8)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 나발은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거절에 그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불렀고, 다윗의 사람들을 "내 떡," "내 물," "내 고기"(삼상 25:11a, "내"는 나발을 가리키는 속격)에 대하여 나눌 권리가 전혀 없는, 출신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관습적인 지혜를 따르면 그러한 혐오스러운 멍청이를 다룰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칼"이다. 그래서 삼상 25:13 은 "칼"이 세 번이나 언급된다[역자 주: 이것은 삼상 25:6 의 문안 인사에 "평강"이 세 번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삼상 25:13)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발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이 분명하다. 사실을 말하면, 다윗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는 막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 II. 이야기의 전개 (The Story We Read)

문제인 다윗을 잠시 남겨두고, 한 두 가지 문예적인 관찰을 더 하도록 하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25 장은 내레이터가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긴 내러티브이다. 저자는 독자가 등장 인물들의 말을 직접 듣도록 길게 인용함으로써 말하는(telling) 것보다 보여주는(showing)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등장 인물들의 대화가 주를 이루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등장 인물들의 말이 나오는 구절들은 6-8 절(다윗), 10-11 절(나발), 13 절(다윗), 14-17 절(나발의 종), 21-22 절(다윗), 24-31 절(아비가일), 32-35 절과 39 절(다윗) 등이다. 다윗의

말이 네 번 나오지만, 분명 아비가일의 말이 이야기의 중심점이고 전환점이다. 이야기의 구조를 제시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래에 제시하는 구조는 내용을 개관하고 문예적 기교를 맛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5:2-3 나발과 아비가일

25:4-17 긴장: 나발의 어리석음

다윗의 요구(4-9)

나발의 거절(10-11, 반 다윗)

다윗의 반응(12-13)

종의 증언(14-17, 반 나발)

25:18-35 중재: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물품 준비(18-19)

다윗의 관점—복수(20-22)

아비가일의 간청과 지혜(23-31)

다윗의 관점—자제(32-34)

물품 수납(35)

25:36-39 해결: 여호와의 사역

나발의 술잔치(36)

아비가일의 소식 전달(37)

여호와의 일격(38)

다윗의 감사(39)

#### 25:40-42 다윗과 아비가일

이러한 문학 구조를 염두에 두고 사무엘상 25 장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자.

### III. 여호와의 섭리의 억제 (The Restraint of Yahweh's Providence)

내가 말하려는 “섭리(providence)”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다양한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제공하시는**(provides) 자주 신비롭고, 항상 흥미로운 방식을 뜻한다. 사무엘상 25 장의 주된 기조는 여호와께서 시의 적절한 섭리를 통해 그분의 선택하신 왕을 충동적인 어리석음과

잘못으로부터 **제지하신다**는 것이다. 이야기 가운데 4 번(삼상 25:26, 33, 34, 39)<sup>3</sup> 여호와와의 제지 행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 한 번은 아비가일의 충언에 나오고, 세 번은 다윗의 감사에 나온다. 아비가일의 충언을 들은 후에야 다윗은 올바른 해석을 하며 “여호와께서 ... 바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셨다(25:32).”라고 말한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삼상 25:13 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칼을 찬 400 명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안다. 그러나 삼상 25:21-22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자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듣게 된다. 아마도 다윗은 13 절에서 칼을 차라고 명령할 때 21-22 절의 내용을 말하였을 것이다(예를 들면, RSV 가 삼상 25:21 의 상반절을 과거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Now David had said . . .”라고 번역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곧 만나려고 하는 시점에 그 내용을 전한 것은 아비가일의 임무에 얼마나 중요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녀가 실패하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을 것이다.<sup>4</sup>

다행히도, 어리석은 나발에게 지각 있는 종과 재치 있는 아내가 있었다. 그 종은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화풀이를 했고(삼상 25:14),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얼마나 선대했고(삼상 25:15-16), 그들이 틀림없이 악감정을 품고 나발과 온 집을 해할 것이고(삼상 25:17a), 마지막으로 그가 왜 이 모든 것을 나발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말했다. 그 종은 “주인(나발)은 매우 불량해서 누구도 그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삼상 25:17b). 이에 아비가일은 서둘러 재치 있는 행동을 했다.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를 준비하여 집을 나셨다(삼상 25:18). 그러나 그녀는 나발에게 알리지 않았다(삼상 25:19a). 왜냐하면 그녀도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종의 평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삼상 25:17b + 삼상 25:25).

정성을 다하여 정중한 인사를 드리고(삼상 25:23-24a), 아비가일은 자신이 다윗의 전령들과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전혀 몰랐을지라도(삼상 25:15b), 남편의 죄책을 자신에게

<sup>3</sup> 네 구절에 세 개의 다른 동사가 나오지만 중심 생각은 동일하다. [역자 주: 26 절과 34 절에는 מַנֵּה[마나]가 쓰였고, 33 절에는 כָּלָה[칼라]가 쓰였고, 39 절에는 הִשָּׁח[하싸흐]가 쓰였다.]

<sup>4</sup> [역자 주] 여기서 남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מַשְׁתֵּיִן בְּקִיר” [마스틴 브키르] “벽에 오줌을 누는 자”이다. 이 어구는 가족을 멸절시키는 사건과 관련지어 사용되었는데 삼상 25:22, 34(나발 집안); 왕상 14:10(여로보암 집안); 16:11(바아사의 집안); 21:21(아합 집안); 왕하 9:8(아합 집안)에 나온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멀리 떨어진 성읍과 전쟁을 해야만 할 때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면 “וְהָיְתָ אֶת-כָּל-זְכוּרָהּ לְפִי-הָרֶב”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들 다 쳐죽이라(신 20:13)”는 명령을 주었다.

돌리라고 요청한다(삼상 25:24b).<sup>5</sup> 그녀는 삼상 25:26 의 개시 논증에서 먼저 여호와와 제지하시는 섭리에 대한 말을 한다. 그것은 맹세로 시작되는 매우 엄숙한 진술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삼상 25:26 개역개정)<sup>6</sup>

아비가일은 나발이 어떤 식으로든 그 자신에게 적당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내다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다윗을 중간에서 막는 것을 여호와와 행위로 해석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보내시며 다윗이 성급하게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상황이 결코 “마음의 회한이나 가책(삼상 25:31)”을 주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김에 손에 피를 묻힌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늘 따라다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다윗은 자신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시어 자신이 비극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고백한다(삼상 25:34). 아비가일의 중재는 다윗이 사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았고, 나발의 갈멜이 또 하나의 놉(참고, 삼상 22:11-19)이 되는 것을 막았다.<sup>7</sup> 버림받은 왕은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택받은 왕은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

<sup>5</sup> [역자 주]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났을 때 왕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다. 내레이터는 5 개의 동사를 사용하며 그녀는 다윗을 “보고, 서두르고(→ 급히) 내리고[hendiadys], 옆드리고, 절했다(25:23-24)”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녀의 일성은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였다. 원어를 보면, 먼저 [비-아니 아도니 헤아본] “on me-I [=on me alone], my lord, (be) the blame 이 죄악을 제발 나 곧 나에게로 돌리십시오(25:24)”라고 말하고서 계속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다.

<sup>6</sup> 원문 לָקַח בְּיָדוֹ אֶת־הַמִּשְׁפָּט [브호세아 야드하 라흐 (cf. YLT “to save thy hand to thee” 부정사-부정사의 주어-부정사의 목적어)]에 대하여 저자 Davis 는 “taking matters into your hands”라는 자신의 번역이 히브리어 직역인 “your own hand saving you 당신의 손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시도라고 말한다. 영어 역본들은 보통 이 절을 복수의 개념을 표현하는 “taking vengeance with your own hand,” 혹은 “avenging yourself”처럼 번역한다. William McKane, *I & II Samuel*, Torch Bible Commentaries (London: SCM, 1963), 151 을 보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히브리 본문에 따르면) 14 번이나 “[아도니], 내 주, my lord”라고 부른 것에 유의하라.

<sup>7</sup> 다윗—갈멜 대 사울—놉의 병행의 가능성에 대하여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208–9 과 Fokkelman, *The Crossing Fates*, 516–17 을 보라.

치마를 입은 구원자를 그에게 보내시지 않았다면 선택받은 왕은 원했던 대로 흘린 피(gore)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

아비가일을 통하여 주님은 사울과 함께 동굴에 있었던 위험과 다르지만 결코 그것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구하셨다. 그 위험이란 다윗이 자기 운명을 여호와의 인도하심 아래 두지 않고 자기 손으로 문제를 처리하며 자신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들 가능성에 있었다.<sup>8</sup>

아비가일의 사명은 성공적이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너무 취해서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발이 왕적인 방탕으로부터 깨어나 정신이 들었을 때(25:36a), 아비가일은 "이 일들"(25:37a [하드바림 하엘레]), 곧 어떻게 나발과 그의 종들이 전멸의 직전에서 벗어났고, 어떻게 그녀가 그것을 막았는지를 분명하게 말했다. (알못게도 아비가일은 나발의 구원자도 되었다.) [이 다음에 바로 일어날 일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은 다윗의 칼로부터 가까스로 피한 것에 대한 갑작스럽고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그것은 아비가일의 너무 과분한 뇌물에 대하여 아까워하는 탐욕으로 인한 뇌졸중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유가 무엇이든 바로 거기 아침 식탁에서 아니면 집안의 어느 곳에서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삼상 25:37b)." 그러나 최후의 일격은 여호와의 것이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삼상 25:38)." 이렇게 삼상 25:38 이 짧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 짧은 구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간단함(simplicity)에 유의하라. 여호와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엄위하면서도 수월함(magisterial ease)에 유의하라. 너의 모든 허세들(blusterings)이 얼마나 불필요한지 주목하라!"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들을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목적들을 시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시는지,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는 어리석은 길에서 종종 은혜롭고 단호하게 우리를 가로막으시는지를 가르쳐준다. 물론,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의 왕을 위해 이렇게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는 성경 본문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특별한 종들에게만 국한되지도 않으며, 그릇된 길로 가는 백성에 대한 그분의 경계는 주전

---

<sup>8</sup>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204.

1020 년(혹은 어느 때)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막기 위한 노상 장애물을 놓으시는 손길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우리의 목적들을 좌절시키시려고 보내시는 그분의 자비는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세우시는 친절은 얼마나 크신가! 우리가 여호와와 제지하시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다윗처럼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윗 자신의 말을 따라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의 증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25:39)!”<sup>9</sup>

#### IV. 여호와와 섭리의 교훈 (The Instruction of Yahweh's Providence)

사무엘상 25 장은 24 장과 나란히 더 큰 문맥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24 장과 25 장을 연달아 죽 읽는 사람은 누구나 두 장의 대조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4 장에서 다윗은 자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친히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그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25 장에서 다윗은 자제해야 마땅했는데 나발의 무례로 인해 나발과 그의 종들의 피를 흘리려고 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해하기를 거절했지만 일개 이스라엘 사람은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하여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아비가일의 남편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연상을 하지 않았다(삼상 25:13, 21-22). 이 점에 대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을 가르쳐야만 했다. 그녀는 나발과 그의 가솔을 학살하는 것은 명분없이 피를 흘리는(삼상 25:31) 것임을 지적했다. 사실상 삼상 25:30-31 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피의 복수가 규례와 정책에 반하며 잘못되고 어리석은 짓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녀가 다윗에게 단언한 것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그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지만(삼상 25:28, 30), 그가 이 문제를 여호와와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살기등등한 사울이나 혐오스러운 나발이 그로 하여금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되었다. 다윗은 그가 사울에게 보였던 자제를 나발에게까지 확장해야만 했다. 이것이 저자의 요점이다.<sup>10</sup>

---

<sup>9</sup> 블레이크(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386)의 논평은 적절하다: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보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지당한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진지하고 참된 경건의 표식이다.”

<sup>10</sup> 삼상 24-26 장의 병행들에 대하여 Robert P. Gordon, “David's Rise and Saul's Demise: Narrative Analogy in 1 Samuel 24-26,” *Tyndale Bulletin* 31 (1980): 37-64 을 보라.

몇 년 전의 “데일리 브레드(일용할 양식)”라는 묵상집에 의하면, 한 철학 교수는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정의와 같은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을 하곤 했다. 자유롭게 생각하였지만 학생들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어떤 원칙도 모든 때에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 교수는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한 수업 시간을 할애했다. 수업의 끝 시간에 그는 결론지으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가치들이 제시될 수 있음을 알도록 해 주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을 낙제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화가 난 한 학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나아갔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 친구는 곰곰 생각하며 결국 그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절대 가치들이 있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교실 토론에서 분명 그는 절대적 가치들(정의)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열을 올렸을 것이지만, 새로운 상황, 곧 그 강좌의 자신의 학점 문제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라고 하며 돌연 그러한 가치들(정의)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는 그 자신의 원칙들에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지 않았거나 그것들이 없었다. 나는 그 친구의 출발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가 그의 교수에게 답하는데 있어서 좀 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기대할 수 있다” 대신 “기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 절대적인 것처럼 들린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한다. “글쎄요, 교수님, 그것이 교수님의 입장이고 교수님의 의견이 교수님에게 정당함을 제가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그것을 계속 강요하려고 하신다면 교수님이 좋든 나쁘든 이 상황에서 칼자루를 쥐는 입장이시므로 우리가 그 결과들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 학점—이 문제는 절대적인 가치의 기미가 있지만—은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것에서 어떤 중요성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대답은 아니었다. 일관되게 새로운 상황을 꿰뚫어 생각하는 일에 이르렀을 때, 그는 눈이 멀어 있었다.

철학을 공부하던 그 학생은 다윗보다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방식은 동일하다. 이 실수는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왕에게만 독특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눈가리개를 끼고 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지만, 시간, 인물들, 상황들, 배경이 바뀌면 우리는 그 연관성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전 상황의 지혜가 어떻게 후 상황에 적용되는지 보지 못한다. 기독교인의 지혜는 얼마나 다면적이어야 하는지!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관되지 못함을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자주 몸을 굽히시어만 하는지! 우리가 그분의 섭리에 대한 교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sup>11</sup>

## V. 여호와와의 섭리의 종들 (The Servants of Yahweh's Providence)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섭리적 돌보심을 자주 인적 수단을 통하여 처방하신다. 사무엘상 25 장은 이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교재이다. 다윗을 막아 충동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일차적인 종은 아비가일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윗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시어 자신을 영접하도록 하셨고(25:32) 감사하게도 그녀가 지혜롭게 말했다(25:33)고 인정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아비가일은 그녀에 대한 내레이터의 평가(25:3)가 옳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행동에 있어서 결단력이 있고 재치가 있었고(25:18-19a), 상황 판단이 빨랐고(25:19b, 36b-37),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있었고(25:20), 처신에 불임성이 있었고(25:23-24), 논증에 있어서 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고(25:26-31a), 제안에 있어서 기민했다(25:31b). 분명코 아비가일은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다윗의 길 위에 세우신 정지 신호였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에서 여호와와의 섭리를 위한 또 하나의 인적 수단이 있었음을 제안하고 싶다. 그의 위치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의 역할은 필수적이었다. 우리는 그가 여호와와의 섭리를 위한 조용한 종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종은 삼상 25:14-17 에 나오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이다. 나는 본문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비록 저자가 삼상 25:14-17 에서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았어도 전체 이야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독자라면 누구나 즉시 이 종의 말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은 그가 아비가일에게 말했던 것에 달려 있었다. 아비가일의 중재는 이 종이 준 정보에 달려 있었다. 그는 중요성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 못지 않으나 인물에

---

<sup>11</sup> 일관된 통찰력에 대한 필요는 성경 전체에 배어 있다. 그것은 아사 왕에 대한 하나님의 비탄(대하 16:7-9),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막 8:17-21),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책망(갈 2:11-14)이 가졌던 부담이다.

있어서는 미미한 존재(a minor character of major significance)였다. 그의 역할은 작으나 필수적이었다.

우리는 왕하 5:1-18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군으로 전에는 나병 환자였으나 지금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한 여호와와의 흥미롭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덕분에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에 그가 어떻게 엘리사를 만날 계기를 얻게 되었는가?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노략질하는 일이 있었고 거기서 사로잡은 포로들 가운데 “어린 소녀”가 있었고 결국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게 되었다. 그녀는 여주인의 남편에 대하여 걱정하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왕하 5:2-3). 어떤 의미에서 나아만 이야기의 모든 것은 이 어린 소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녀가 집안일을 하면서 우연히 한 말에 달려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내러티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의 귀여운 어린 소녀에 대하여 감상적이 되거나 사무엘상 25장의 무명의 종이 더 많은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공작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친절하심과 지혜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어떤 세부 사항도 무심코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탄하며 송축해야 한다.<sup>12</sup> 그분은 꼭 필요한 때에 있어야 할 장소에 정확하게 있던 조카들도 갖고 계셨다(행 23:16-22)!

## VI. 여호와와의 섭리에 있는 잉여 수당 (The Surplus in Yahweh's Providence)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자비로운 제지 그 이상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다윗은 여호와와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새롭게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삼상 25:28-29). 아비가일은 다윗의 어리석음을 제어하는 고삐이고 그의 신앙에 대한 채찍이었다. 아비가일은 마치 여자 선지자처럼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와의 약속에 관하여 알고 다윗이 반드시 그것의 성취를 즐기게 될 것을 확언하는 말을 했다. 거기에 의심할 여지가 추호도 없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

<sup>12</sup> [역자 주] 삼상 16:18의 **אֶחָד מִן הַנְּעָרִים** “소년들 중의 하나”와 25:14의 **אֶחָד מִן הַנְּעָרִים** “소년들 중의 한 소년”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에하드 메하느아림] “소년들 중의 하나”는 둘 다 무명이지만 다윗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전자는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했고, 후자는 다윗을 인정하며 모욕당한 다윗이 나발 집안을 해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이 소년들은 무명이지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다.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삼상 25:28a).”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위험 가운데서 그를 보존하실 것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삼상 25:29).”<sup>13</sup>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증언하는 사람들에 합세한다. 그래서 그녀는 요나단(삼상 23:17)과 사울(삼상 24:20)과 함께 서 있다.<sup>14</sup> 그녀의 확신에 찬 말은 필요했을 것 같다. 사무엘상 18 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체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독자는 여호와께서 반복적으로 구원과 피난을 주신 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무엘상 18-23 장에서 열 두 상황을 집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읽기보다는 달리기를 해야 했다. 사람은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 항상 조용히 확신에 대한 이전의 모든 증거들을 모으지는 않는다.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용변을 위해 상대방의 굴을 사용하고 있다면(삼상 24:3) 누구나 위험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인상을 받게 마련이다. 계속되는 일련의 피난들조차도 지치게 하는 영향을 쫓아내지는 못한다(삼상 27:1 을 보라). 나의 요점은 다윗에게 아마도 아비가일의 말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서 섭리의 “덤(plus)”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격려하셨다. 그분은 전형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적어도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으로 하여금 갖추도록 하신 “말로 곤고한 자를 붙들어 주는 방식(사 50:4)”이다.

<sup>13</sup> 삼상 25:29 의 첫 부분은 일반적이고 가정적인 것(대부분의 영어 성경: “if **men** rise up 사람들이 일어나 ... 하면”)이 아니라, 한정적이고 실제적인 것(나의 번역: “Though **a man** rises up 어떤 사람이 일어나 ... 할지라도”)이다. NIV 의 번역(“even though someone ...”)도 내 번역과 비슷하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사울을 보게 한다. [역자 주: 히브리어 단어 אָדָם [아담]에 대해 ESV 는 “men”, NASB/ISV 는 “anyone”, KJV 는 “a man”, NIV/HCSB 는 “someone”으로 번역한다.]

<sup>14</sup> [역자 주] 십광야 수풀에서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삼상 23:17)”라고 한 말이나 사울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24:20)”라고 한 말보다 여기 아비가일의 말이 훨씬 더 확신에 찬 말이다.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조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부각시키며, 이에 걸맞게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 될 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생명은 양의 수를 세며 돌을 넣는 주머니인 생명 싸개에 싸듯 보호하실 것이지만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 주머니에서 돌을 던지듯 던져질 것이라고 찬양한다.

뒤로 물러서서 사무엘상 25 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사무엘상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분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고 계시는가를 묘사하고 있고, 왜 그것이 여호와의 사역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과업은 결코 인적 수단들에게 온전히 맡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엘리)은 여호와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고, 다른 사람(=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지배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나라는 경건한 종들의 손에서조차도 안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또 하나의 다른 사울(=엘리압)을 왕으로 선택하려고 했고(삼상 16 장), 다윗에 관한 한 그는 그분의 나라의 길에 나발의 피라는 윤향유를 치려고 했기 때문이다(삼상 25 장). 그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종이 한 분 계셨다. 그 종은 나라의 영광이 거역하는 나발과 같은 자들의 적개심을 참아내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셨다(히 12:3).

## V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만일 누가 다윗이 단지 보호를 가장한 공갈을 치고 있다고 증언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변호하기 위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2.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행동하도록 재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만큼이나 여러분을 억제하고 계신다는 것도 의식하는가?
3.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가는 행동으로부터 구한 사건들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한 개입들이 자주 여러분의 감사가 충만한 예배의 원인이 되는가?
4. “절대적인 가치들”이란 어구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되는가?
5. 그 종은 작지만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6. 그 나라가 주님의 경건한 종들의 손에서조차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지 알 수 있는가? “죄의 삯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다른 선은 없다. 그분만이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 24. 창이 요점을 말한다 (삼상 26 장 The Spear Makes the Point)

대담성은 대개 흥미진진하고, 성공적인 대담성은 특히 흥미진진하다. 남북 전쟁에서 페리빌 전투가 끝나는 시점에, 남부 연합군의 레오니다스 폴크 장군은 자신이 심한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무리의 군대가 그의 부하들에게 발포했었다. 폴크는 그들이 남군 동료임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담당 대령에게 즉각 발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폴크가 대령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그렇게 하며 인디애나 연대의 지휘관임을 시사했다. 폴크는 이들 부대를 오인했었으며 이제 그는 자신의 신원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북군 장교와 대면하는 처지가 되었다. 황혼과 폴크가 입은 검은 망토로 인해 그의 신원이 쉽게 확인되지 않았던 것 같다. 폴크는 재빨리 허세를 부리며 북군 대령에게 바짝 달려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며, "내가 누군지 곧 보여드리겠소. 당장 사격을 중지하십시오." 그는 말을 돌려 천천히 북군 전열을 따라 내려가며 군인들에게 총을 내리라고 외쳤다. 그는 급히 도망침으로써 그 개그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나무 숲과 꽤 안전한 곳에 도달할 때까지 느린 속도를 유지했다. 폴크가 그 자신의 부대 전열 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 친구들을 아주 가까이서 정찰해 보았으며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실수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너희들은 일어나 그들을 공격하라."<sup>1</sup>

사무엘상 26 장에서 다윗은 폴크보다 더 대담하다. 왜냐하면 다윗의 대담성은 방어적이고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이다. 십 사람들은 삼상 23:10-20 에서처럼 기브아로 가서 사울에게 다시 다윗의 행방을 알렸다(삼상 26:1). 사울은 다윗을 다시 뒤쫓아왔다(삼상 26:2-3).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진지를 정찰하면서 대담한 일격을 생각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삼상 26:6)?" 이 질문은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한 것이다. 후자가 자원하여 나섰다. 아마 아비새는 그들이 사울을 소탕하기 위해 2 인 타격대를 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왔고,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약탈했다. 그러나 다윗이 허락한 전리품은 사울의 창과 물병뿐이었다(삼상 26:11b-12a). 창이 요점을 말할 것이다.

사무엘상 26 장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다.

배경, 1-5

---

<sup>1</sup> Robert P. Broadwater, ed., *The Bronze and the Granite: Stories and Anecdotes of the Civil War Leaders* (Martinsburg, Penn.: Daisy Publishing, n.d.), 32.

- 다윗과 아비새, 6-12
- 다윗과 아브넬, 13-16
- 다윗과 사울, 17-25

마지막 부분(다윗과 사울 부분)은 다음과 같이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다.

- 사울의 질문, 17a
- 다윗의 첫 번째 대답, 17b-20
- 사울의 고백, 21
- 다윗의 두 번째 대답, 22-24
- 사울의 보증, 25a
- 마감, 25b

서론(삼상 26:1-5)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주요 부분들(삼상 26:6-12, 13-16, 17-25)을 빠르게 개관해 보면, 다윗이 4 번에 걸쳐 한 말(삼상 26:9-11, 15-16, 17b-20, 22-24)이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윗의 이 말들은 이 장의 신학적 하중(荷重)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세 주요 부분들에서 사울의 창이 (때로는 그의 물병과 함께) 적어도 한 번은 언급되는 것에 유의하라. 사울의 창은 통틀어 여섯 번 언급된다(삼상 26:7, 8, 11, 12, 16, 22). 그것은 에피소드의 지배적인 상징이다.<sup>2</sup> 물론,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그가 정말로 사울의 진영에 있었고, 사울의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고,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다는—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예: 삼상 26:16) 갖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sup>3</sup>

<sup>2</sup> 내가 전에(본서의 22 장 첫 부분에서) 사무엘상 24 장, 25 장, 26 장을 각각 겔옷 자락 에피소드, 잔치 에피소드, 창 에피소드라고 특징 지은 것을 기억하라.

<sup>3</sup> 나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대한 비평적 문제를 상세히 논할 마음이 없다. 성경 비평주의는 일반적으로 이 장들을 같은 사건에 대한 "이중" 또는 "중복" 또는 "발산" 이야기로 가정한다. 맥케인(William McKane, *I & II Samuel*, Torch Bible Commentaries [London: SCM, 1963], 154)은 많은 사람을 대변하며 그러한 입장이 "십 사람들이 별도로 두 번 다윗을 밀고했다고 가정하는 입장보다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분명히 십 사람들은 다윗을 두 번씩이나 고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조적으로도 두 장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들에 주목해보라.

사울과 그의 삼천	24:1-2	26:1-2
사울의 위험과 다윗의 자제	24:3-7	26:3-12
다윗의 말("벼룩 탄원"과 여호와의 심판 요청)	24:8-15	26:13-20 (두 부분: 아브넬과 사울)
사울의 "후회"와 다윗의 형통에 대한 사울의 인정	24:16-22a	26:21-25a (다윗의 말 포함)

그렇다면 창은 어떤 요점을 말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6 장의 기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왕국이 반드시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신을 얻는 것과 확신을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확실히 다윗의 믿음은 이 장에서 그 싸움의 끝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의 종의 믿음의 관점에서 사무엘상 26 장의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한다.

### I. 믿음이 유지하는 인내 (삼상 26:6-12 The Patience Faith Maintains)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의 움직임을 예의(銳意) 주시하며 사울과 그의 정병들이 헤브론의 남쪽 십 근처로 내려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는 것을 보았다(삼상 26:2-4). 틀림없이 그 근처의 더 높은 곳에 있었던 다윗은 사울과 아브넬이 야영하는 정확한 장소를 보았다.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고, 그 정병들은 그를 둘러 진을 치고 있었다(삼상 26:5). 이것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진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보았던 사울의 모습과 아브넬을 포함한 정병들의 모습이었다(삼상 26:7). 게다가 그들은 사울의 창이 머리 곁 땅에 꽂혀 있는 것도 보았다.

이 에피소드는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삼상 26:8-11). 아비새는 특히

---

각자 자기 곳으로

24:22b

26:25b

그러나 실제 역사는 세부 사항이 아주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델레하에 신부(Father Delehaye)에 기초하여 블로흐(Marc Bloch)는 한 적절한 예를 인용한다. "교회가 두 명의 종을 위해 한 휴일을 지킨다는 것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 그 두 명의 종은 같은 날에 이탈리아에서 죽었고, 각각 성인들의 전기를 읽다가 개종하였고, 각각 동일한 수호신에게 바치는 종교적 회를 세웠고, 이 두 회는 동일한 이름을 지닌 교황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이 모든 사실을 읽는 사람은 단 한 개인이 실수로 중복되어 두 개의 다른 이름으로 순교자 명부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비슷하게도 성인들의 전기에 의해 종교적 삶으로 개종한 후, 성 요한 콜롬비니는 예수(Jesuates)회를 세웠고, 이그나티우스 로올라는 예수(Jesuits)회를 세웠다. 둘 모두 7월 31일에 죽었다. 전자는 1367년 시에나 근처에서 죽었고, 후자는 1556년 로마에서 죽었다. 전자 예수회는 교황 클레멘트 9세에 의해 해체되었고, 후자 예수회는 클레멘트 14세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 예가 고무적일지라도, 분명히 유일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블레이크(W. G. Blaikie,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374)의 말대로 우리가 남북 전쟁에서 불런 전투가 단 한 번 있었다고 가정해야 하는가? [제1차 불런 전투는 1861년 7월 21일 하루 동안에 벌어진 전투다. 불런 전투는 북부에서 불인 이름이며, 남부에서는 "매너서스 전투"라고 부른다. 제 2차 불런 전투는 1862년 8월 29일—8 월 30일 로버트 E. 리 장군이 이끄는 5만 6,000명 이상의 남군과 존 포프 소장의 지휘로 새로 편성된 7만 명의 북군 사이에서 벌어졌다.] 비평주의적 가정들에 유의하라.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에피소드들 사이의 차이점은 독자 스스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사울과 아브넬을 처치하기 위해 다윗과 함께 특공대 공격, 곧 공포의 기습 공격을 하는 중이라고 추측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 기회는 너무 좋아서 지나칠 수 없었고 아비새는 그의 가장 신학적인 속삭임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찢어서 단번에 땅에 꽃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삼상 26:8).”<sup>4</sup> 다윗도 속삭이며 신학적으로 대답한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삼상 26:9)?” 그런 다음 다윗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sup>5</sup>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삼상 26:10-11).

여기에 삼상 24:6, 10 과 같은 인내와 제지가 있지만, 그것은 더 깊은 인내이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제지이다. 우선 다윗은 나발을 다루는 과정에서 하마터면 대실패를 할 뻔한 경험(삼상 25 장)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던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므로[히브리어 나카프] 그가 죽었다(삼상 25:38).” 여기서(삼상 26:10)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 또한 “치실[히브리어 나카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윗이 동일한 동사를 사용한 것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이 그분의 손에 맡겨졌을 때 여호와께서 바보는 물론이고 압제자도 처리하실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을 그가 배웠음을 볼 수 있다.<sup>6</sup> 여호와께서는 나발처럼 사울을 처치하시길 기뻐하실 수도 있다. 아니면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 사울을

<sup>4</sup> David M. Gunn, *The Fate of King Sau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4 [Sheffield: JSOT, 1980], 102: “사울이 다윗의 사람에 의해 자기의 권위의 상징이던 자기 자신의 창에 죽임을 당하며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방식 그대로 창에 찢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아이러니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sup>5</sup> 다윗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악을 네 번 언급한다(삼상 26:9, 11, 16, 23). 이것은 Robert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9), 212 에 설명되어 있다. 삼상 24:6, 10 도 참고하라.

[역자 주] 삼상 26:16 에는 손을 들어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군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 언급되어 있다.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 לְשׁלֹחַ יָד בְּמִשְׁחֵי יְהוָה” [리실로야흐 야드 빔시아흐 아도나이]은 삼상 24:6, 10; 26:9, 11, 23 에 나온다.

<sup>6</sup> Robert P. Gordon, “David’s Rise and Saul’s Demise: Narrative Analogy in 1 Samuel 24-26,” *Tyndale Bulletin* 31 (1980): 49 을 참조하라.

치실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자연적인" 죽음을 허락하시거나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의 운명을 다루실 것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 다윗의 제지에 대해, 특히 그것을 알려주는 믿음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하고자 한다. 믿음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에게서 구출하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분은 나발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사울을 처리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사울이 최후를 맞도록 하실 수도 있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맡아 처리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수많은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상상하는 가능성과 방법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 많은 현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적절성과 충분성에 관하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상고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상상력을 거짓이나 공상과 연관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 충만한" 상상은 그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 믿음이 여호와의 광대하심, 위엄, 권능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감정을 최대한으로 나타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 40:12-31 의 감동적인 비교, 질문, 묘사를 곰곰이 살펴보라. 이런 경우를 보면, 상상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그런 상상력은 하나님을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느리고, 비창조적이고, 교만하므로(다시 말하면, 사실만을, 그것도 엄연한 사실만을 고집하므로),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풍부한 신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지 누가 추측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확실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삼상 14:6 의 논평 참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속박하려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마음껏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윗은 섭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랐지만 순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처리하실 다양한 방법을 상상할 수 있었지만(삼상 26:10),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처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삼상 26:9b, 11a). 이러한 상황은 다윗과 같은 구원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느 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는

몰라도 어떤 일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결혼 문제를 해결하실지 추측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아내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다. 이런 것은 따분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자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므로 우리를 당황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동안 우리를 인도하기에 충분히 분명하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길은 적어도 순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에 충분히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비새는 크게 실망했을 것 같다. 많은 상상력을 들일 필요도 없이(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다. "사울은 내 발 밑에서 바로 졸고 있었는데, 다윗은 내가 하려는 일을 못하게 했어! 물병과 창 때문에 난 오늘 밤 내 목숨을 걸었어!"

## II. 믿음이 얻는 격려 (삼상 26:13-16 The Encouragement Faith Receives)

삼상 26:6-11 을 읽을 때 독자의 마음은 고요할 수 없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다윗과 아비새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울과 아브넬이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은 (비록 몸짓과 속삭임으로 했을 것으로 가정할지라도) 군대를 깨우지 않고 그렇게 활발한 토론을 계속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창과 물병을 훔칠 수 있었는가? 왜 반 다윗 세력은 그렇게 무력했는가? 이 부분의 끝에 내레이터의 설명이 나온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삼상 26:12)."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대답함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볼 수 있다.<sup>7</sup> 사울이 속수무책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사울의 무력함은 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의한 것이었고(삼상 19:22-24), 지금은 그분이 보내신 깊은 잠에 의한 것이다.

불안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다윗은 더 높고 더 안전한 지대로 올라가서 밤을 찢는 날카로운 외침으로 그들의 깊은 잠을 망친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냐(삼상 26:14)?" 다윗이 계속 조롱하는 동안 아브넬은 비틀거리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다윗의 풍자는 간단하다. 최고의 경력을 지닌 용사 아브넬이 형편없는 경호원으로 판명되었고, 실제로 사울의

---

<sup>7</sup>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0), 185 을 참조하라.

정병들 모두가 그렇게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삼상 26:6 의 첫 번째 절엔 단수형("너=아브넬")이 사용되지만, 그 다음 절부터는 복수형("너희")이 사용된다]. 그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부하들은 왕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죄로 모두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 처형되어야 한다. 지금 다윗은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유죄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삼상 26:16b)!"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너무 깨어 있을 필요는 없다. 아브넬과 삼천 명의 군대가 모두 그를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가 늘 지니고 있던 힘의 상징인 창(삼상 18:10, 11; 19:9, 10; 20:33; 22:6)이 쉽게 도난당했다. 다윗은 사울을 "무장 해제"했다. 이것은 미래에 전개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비유이다.<sup>8</sup>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나라(삼상 20:3)"고 말했던 것처럼 사울도 똑같은 말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사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거기엔 분명 진실과 아이러니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어둔 밤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사울의 권력이 사라지고, 다윗이 왕국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표징이었다. 다윗은 그것을 격려로, 곧 여호와께서 확신시키는 증표로 받아야 한다.

여호와는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경향이 있다. 여호와는 그분의 피곤하고 지친 종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약속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명백한 증표, 몇 가지 작은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다.<sup>9</sup>

<sup>8</sup>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213, 215 을 참조하라.

<sup>9</sup> 이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명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다윗과 나 자신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왕이고 구속사에서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일차적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다루실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하나님과 주님이 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격려의 증표를 주신다면, 그것은 그가 일반적으로 그의 종들을 다루시는 전형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것은 다윗과 같은 구속사의 중요한 종들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나라에 들어온 평범한 종들을 다루시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 내러티브에서 나는 여호와의 계시된 성품을 찾는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자기 종을 일으켜 세우고 확신을 주려고 열심이신 분임을 볼 때, 나는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그분이 자기 백성을 대하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우리의 본문 적용을 통제하는 것은 다윗의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본문 적용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성품이다.

주님의 격려는 때때로 매우 극적일 수도 있고, 때때로 다소 평범할 수도 있다. 존 플라벨은 허니우드라는 어떤 부인에 대해 썼다. 그녀는 열렬한 기독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자신이 구원을 얻을 가망이 없다고 느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녀를 만나 "그녀의 절박한 결론"에 반대되는 이유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테이블에서 베니스 유리잔을 꺼내서 "선생님, 이 유리잔이 깨질 운명이듯이 저는 틀림없이 저주받을 운명입니다."라고 말하더니 그것을 힘차게 땅에 던졌다. 놀랍게도 그 유리잔은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고 깨지지 않았다. 분명히 목사님은 확신시키는 표징을 적용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sup>10</sup>

우리가 왕의 창이나 깨지지 않은 유리잔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언제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을 아시며 우리가 왜 억압 속에서도 계속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III. 믿음이 느끼는 고통 (삼상 26:17-20 The Distress Faith Feels)

사울이 어둠 속에서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 차렸을 때, 그의 배는 울렁거렸을 것이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하길라 산에서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윗이 만든 "큰 간격"을 가로질러 왔다.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만(삼상 26:17a), 다윗은 사울의 그러한 칭호가 아니라 그의 불의에 집중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삼상 26:18)?" 그런 다음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의 주요 관심사를 밀어붙이며 사울이 "그의 종[=다윗]의 말"을 듣도록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함으로써(삼상 26:19a)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삼상 26:19b-20 개역개정).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울을 충동시키신 결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다윗은 여호와를 달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sup>10</sup> John Flavel, *The Mystery of Providence* (1678; reprint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3), 71–72.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사악한 조언자들이나 개인적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친절하게도, 다윗은 사울의 개인적 시기심을 한 가지 가능성으로 제안하지 않았다.)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여호와의 기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내몰았다. 어디로 도망가든지 그는 이방인의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만약 다윗이 다른 땅에 있다면,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해 거듭거듭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라고 할 것이다. 다윗은 모든 "계몽된"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것(신자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인가? 분명히 시편 63 편, 139 편, 142 편의 저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계몽된 기독교인들보다 더 계몽되어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기업(삼상 26:19)"에서 끊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면전(삼상 26:20)"에서 끊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공적인 예배의 가능성이 없다"는<sup>11</sup>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성경 신학을 개관할 처지는 아니다. 다윗이 빈약한 우주 시대를 복음화시키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연구 성경, 기도 목록, 그리고 조용한 동굴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의 얼굴(혹은 현존)은 특히 성소에서 볼 수 있었다(시 63:2). 그러나 다윗은 쫓겨나서 성막과 제물에서 끊어져 있고, 제사장과 축제에서 끊어져 있었다.<sup>12</sup>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땅과 성소에서 쫓겨나 있었다. 공적인 예배의 의식에서 단절된 것은 다윗의 가장 심한 슬픔이다. 다윗의 그런 상황은 우리 각자에게도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은 특권에서는 다윗을 능가했지만, 열정에서는 그에게 근접한 기독교인이 거의 없다.

#### IV. 믿음이 붙잡는 소망 (삼상 26:21-24 The Hope Faith Holds)

다윗의 말에 대한 사울의 응답에는 고백, 초대, 약속, 근거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sup>11</sup>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68.

<sup>12</sup> 여호와의 임재와 성전 예배와의 관련성에 대해 도움을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Willem A. VanGemenen, "Psalm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1), 5:809–15 을 보라.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삼상 26:21).

다윗은 투명스럽게 사울에게 대답한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삼상 26:22).

사울은 그의 말과 약속들을 아낄 수 있었다. 물론 어떤 독자들은 다윗의 무뚝뚝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마침내, 사울이 정말로 이번에는 진심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심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울이 표현한 것이 순간적인 진심이든, 혼란스러운 진심이든, 기만적인 진심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울이 어리석은 자였다(삼상 26:21)고 해서 다윗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이유가 없다. 그 점에 관해서는 사울이 진실을 말했지만, 다윗이 그것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

사울에게 돌아가는 대신,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삼상 26:23).” 그런 다음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그의 유일한 소망이신 분에게 던진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왕상 26:24).” 우리는 다윗이 “내 생명을 주[= 사울 왕]께서 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사울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사울을 믿고 있지 않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

특이한 문제와 일반적인 문제가 함께 어질러져 있는 삶의 길을 걷는 현대 신자로서 그런 삶의 길을 직면할 수 있게 해 줄 더 나은 말을 찾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다윗이 받은 도움 이외에 다른 도움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입술에 다른 기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윗 자신은 이 기도를 찬양으로 바꿀 수 있고 이 신뢰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때를 보았다(삼하 4:9; 시 54:7[MT 9]).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의 기도를 계속한다.

저자의 마지막 문(“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은 이야기를 가로질러 선을 긋는다. 매우 사무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다윗과 사울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둘 다 여기서부터 혼자 계속 간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것이 한 경우에는 사실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주님이 계신다.<sup>13</sup>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확신을 얻는 것과 확신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 별개의 일일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확신의 말과 불안감 중 어느 것을 신뢰해야 하는가?
2. “믿음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아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상상력이 그려낼 수 있는 것을 초월하여 행하신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3. 요한계시록 4 장과 5 장에 나오는 장면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라. 여기서 상상력은 확실히 “안에서 수영할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은 여기에 몇 가지 상징적인 설명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이해는 때때로 기다려야 하지만 순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동의하는가?
5.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은 얼마나 큰가?

---

<sup>13</sup> 인간적 차원에서 사무엘상 24-26 장은 왕위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에 대한 강력한 변증으로 작용한다. 이 장들은 왕위를 거머쥐기를 거부하고 왕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다윗을 분명히 묘사한다. 다윗은 피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 움직인다. 이스라엘에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삼하 3:22-30 과 삼하 4:1-12 에 나오는 사건들의 경우 다윗이 반칙을 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나의 “A Proposed Life-Setting for the Book of Judg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8), 25-48 을 보라.

## 25. 하나님 언급이 없는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 (삼상 27:1-28:2 What Can a God-less Text Teach Us?)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했다.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을 들었다. 그는 이미 “강제” 망명을 고려하고 있었다(삼상 26:19-20). 우리는 그가 다시 가드로 향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는 안 된다(참고, 삼상 21:10-15). 또한 우리는 정말로 그를 비난할 수 없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추격당하고, 공격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노출되고, 스릴 넘치는 탈출을 하고(예: 삼상 23:24-29), 대담한 모험을 한다(예: 삼상 24 장, 26 장). 이렇게 아홉 장(삼상 18-26 장)이 혈압을 올리는 내러티브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룰 본문을 보자. 일반적으로 인정하듯이 삼상 27:1-28:2 는 그 자체로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다. 저자는 삼상 28:2 의 끝에서 독자들을 정지 상태로 있게 한다. 그는 고의로 이야기를 잘라버린다(이에 대해 나중에 더 자세히 살필 것임).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의 한 조각, 곧 불완전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분간 그 자체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야기 자체는 간단한 편이다. 그것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윗의 계획, 27:1-4

다윗의 성읍, 27:5-7

다윗의 관행, 27:8-12

다윗의 딜레마, 28:1-2

이번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그는 아기스가 용병으로 쓸 수 있는 육백 명을 거느리고 갔다. 아기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않거나 왕실의 경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다윗은 외딴 지방 성읍 중 한 곳에 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기서 그는 아기스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 놓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 대신 시글락에서 체류하게 되었다.<sup>1</sup>

---

<sup>1</sup> 가드와 시글락의 위치는 논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드를 텔 에스 사피와 동일시한다. 그곳은 아스돗에서 동쪽으로 약 12 마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약 24 마일 떨어져 있다. 가드가 텔 에스 사피이고 시글락이 텔 에스 세리아라면, 시글락은 가드에서 거의 남쪽으로 약 23 마일 떨어져 있을 것이다. A. F. Rainey, “Gath,” *ISBE*, rev. ed., 2:410–12, and “Ziklag,” *ISBE*, 4:1196 을 보라. 또한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rev. and en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291 도 보라. 그리고 George A.

시글락에서 다윗은 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막 침입자를 습격하는 사막 침입자가 되었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sup>2</sup> 공격하여(삼상 27:8), 가축과 재물을 빼앗고, 그 중 일부를 왕의 몫으로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곤 하면서(삼상 27:9), 그 약탈물이 유다나 유다와 관련이 있는 부족에 대한 공격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삼상 27:10). 아기스는 다윗의 변절자 책략에 기뻐했다. 아기스는 정말로 다윗을 “믿으며(삼상 27:12a),” 틀림없이 혈기 왕성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이 블레셋 망명자를 경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연히 하나의 문제가 일어났다. 다윗은 납치된 인간 포로들을 모두 제거해야 했다. 다윗은 시글락과 그 너머에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밀고함으로써 들통이 날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었다. 따라서 모든 인간 포로들은 죽임을 당했다(삼상 27:11).<sup>3</sup> 지금까지는 그런

---

Turner,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Grand Rapids: Baker, 1973), 176–81 에 있는 논의를 참고하라.

<sup>2</sup> 우리는 아말렉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참조, 삼상 15 장). 삼하 3:3 과 삼하 13:37 의 그술은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있다. 이 그술 사람들은 남방에서도 거주하고 있었다. 기르스 사람들은 그 혈통을 알려주는 자료가 없다.

<sup>3</sup> [역자 주] 삼상 27:11 에 대한 NASB(개역개정)와 ESV/NIV(새번역/우리말성경)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윗의 생각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살려 두었을 경우) 폭로할지도 모를 내용(± 내레이터의 논평)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마지막 절이 살려 두었을 경우 폭로될 내용인지 내레이터의 논평인지 결정해야 한다. Vannoy(236)는 Driver(1913:213)가 לֹא־אָמַר פְּנֵי־יְהוָה עָלֵינוּ לְאָמַר כֹּה־עָשָׂה דָוִד 에서 לֹא־אָמַר 에 붙은 악센트 아트나흐의 위치를 다윗에게로 옮기는 것(דָּוִד)이 더 좋다고 하는 제안을 소개하며 마지막 절을 내레이터의 논평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독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림 1: 다윗의 생각에서 살려 두었을 경우 폭로할 내용이 문 끝까지 계속된 것으로 번역함

개역개정: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NASB: **David** did not leave a man or a woman alive to bring to Gath, **saying**, “Otherwise *they* will tell about us, *saying*, ‘**So has David done and so has been his practice all the time he has lived in the country of the Philistines.**”

그림 2: 다윗의 생각에 살려 두었을 경우 폭로할 내용과 내레이터의 논평으로 나누어 번역함

새번역: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대로 잘 되었다. 다윗은 아기스를 속이고 아기스를 설득하면서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아기스를 너무 잘 속여 넘겼으므로 아기스는 자신도 모르게 다윗을 자기 동족의 반역자로 만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대규모 공격(삼상 28:1)에서 가드 대열 속에 자신의 믿음직한 다윗 분견대가 있기를 원했다. 의심스러울 때 입을 사용하라는 대로, 다윗은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삼상 28:2a). 이것은 모호한 특수 용어였지만, 다윗은 [이 말을 마치 “분부만 내리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허풍을 떨며 말했기 때문에 아기스를 안심시킬 수 있었다(삼상 28:2b). 그러는 동안 다윗은 진퇴양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대단히 흥미롭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본문이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이 에피소드에서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관점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sup>4</sup> 또한 여기에는 저자의 입장에 대한 명백한 표시도 없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논평도 주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다윗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르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말하지 않는다. 이 일에 침묵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다윗의 행위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누군가 도둑질을 승인하지 않고 어떤 강도질에 대해 증언할 수 있듯이, 사람들은 행위를 지지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다윗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몇 가지 단서만 가려낼 수 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나는 본문이 다윗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그가 잘못된 것으로 제시한다고 말하고 싶다. 여호와의 거둬진 보호의 기록(삼상 18-26 장)에 비추어 볼 때, 특히

---

우리말성경: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게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며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ESV: And **David** would leave neither man nor woman alive to bring news to Gath, **thinking**, “lest they should tell about us and say, ‘So David has done.’” Such was his custom all the while he lived in the country of the Philistines.

NIV: He did not leave a man or woman alive to be brought to Gath, for he **thought**, “They might inform on us and say, ‘This is what David did.’” And such was his practice as long as he lived in Philistine territory.

<sup>4</sup> Richard L. Pratt, Jr., *He Gave Us Stories* (Brentwood, Tenn.: Wolgemuth and Hyatt, 1990), 131.

24 장과 26 장이 사울의 보호가 사라지고 그렇게 노출되고 무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를 지키실 수 있다고 확신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윗이 습격하여 사람들을 학살한 것의 배후에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삼상 27:11). 나는 이 고대 에피소드에 낮은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자 자신도 인간 학살에 대한 근거가 사무엘상 15 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진멸이 아니라 아기스에게 자신의 걸치레를 그대로 유지할 다윗의 필요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습격자들은 유혈 사태를 피하려고 애썼다.<sup>5</sup> 확실히, 그리고 다행하게도, 삼상 30:1-2 의 아말렉 사람들은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더 절제했다. 그러므로 나는 본문이 다윗에게 동정적이면서도 비판적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균형이 있다. 본문은 다윗을 이해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을 기꺼이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독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나의 평가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본문들이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독자들은 내가 다음 강해를 전개하는 기초를 알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본문도 경건한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백성에게 경건한 지시를 알려준다.

### 1. 참된 안전 보장에 의지하라 (삼상 27:1-3 Lean on Your True Security)

다윗은 자기의 유일한 안전이 세벨라 서쪽 블레셋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육백 명 이상의 사람들을 생각해야만 했다. 아내와 가정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드에 정착했다. 아마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잠을 잤을 것이다(삼상 27:2-3).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이주를 하도록 이끈 사고는 (엘리슨이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실신들 중 하나를 가리킨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망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삼상 27:1)

다윗이 여기서 사용한 동사 [싸파]("망하다"; 참고, 개역개정: "붙잡히다")는 중요하다. 이 동사는 다윗이 삼상 26:10 에서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사울을 처치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예를 들어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망할[싸파] 수도 있다"고 말할 때 사용한 동사이다.<sup>6</sup>

<sup>5</sup>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N.Y.: Alba House, 1972), 3:144–45.

<sup>6</sup> [역자 주] BDB 는 [싸파]의 니프알 어간을 "to be swept away, destroyed"로 풀이한다. 삼상 26:10 과 삼상 27:1 에 나오는 동사 [싸파]에 대하여 ESV 는 모두 "perish"로 번역하고, NIV 는 "persish"와 "be destroyed"로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면 사울에 의해 자기 자신이 “망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드러나는 역전이다. 여호와의 보호 기록과는 달리, 요나단과 아비가일을 통한 여호와의 약속과는 달리, 다윗은 이제 그가 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치 “왜 그는 패커의 책 **하나님 알기**를 읽고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객관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성경 본문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 다윗은 여기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가 자기의 안전 보장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대신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음을 나는 지적할 뿐이다.

다윗은 구속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공통된 딜레마를 공유한다. 언약 왕권은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팔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기대는 미묘한 위험을 알고 있다. 우리의 관심사는 현실적이다. 내가 대체물로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나는 여호와를 기댈 수 있고 기대야 하는가? 대답은 이렇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특별히 여러분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분을 기댈 수 있고 기대야 한다.

나는 그저 삼상 27:1 에서 다윗의 절차를 뒤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삼상 27:1 을 직역을 하면 “그 때에 다윗은 그의 마음에 ‘이제 나는 언젠가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었고, 그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한 것이 그의 행동을 결정했다. 여러분이 당신의 중심에 말하고, 계속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에게 선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한다.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듣고 있지 않았고, 아마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을 것이다!)<sup>7</sup> 우리 영혼에게 참된 선전, 특히 하나님의 적절성에 관한 참된 선전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영혼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꽤 익숙한 아이디어이다. 예수님께서 창고들과 은행 계좌가 가득 찬 농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하라. 그 농부는 말했다. “내가 내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상상하라], 너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다... (눅 12:19).’” 그 진술에는 세계관과

---

다르게 번역한다. 한글 성경도 좀 다르게 번역한다. 개역개정은 “망하다”와 “붙잡히다”로, 새번역은 “망하다”와 “붙잡혀 죽다”로 번역하고 있다.

<sup>7</sup>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의 책 *Spiritual Depre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65), 20–21 에서 시편 42-43 편을 적용한 것을 보라.

인생관이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실없는 소리는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다윗 자신은 자신에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시 62:5).

다행히도,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선전에 고정시킬 것이다. 찰스 스펀전이 런던에서 사역한 첫 해인 1854 년이었다. 콜레라가 유행했다. 가족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맡에 스펀전을 차례로 불렀고, 거의 매일 그는 무덤 옆에 서 있었다. 처음에 스펀전은 자신의 젊은 혈기로 병자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그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아파서" 자신이 곧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장례식에서 집을 향해 힘들게 몸을 움직이며 도버 대로를 가는 도중에 한 구두점 창문에 붙여진 커다란 광고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사업 광고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사업 광고도 아니었다. 큰 시트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굵은 글씨로 잘 쓴 글이 있었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곧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악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KJV 직역)<sup>8</sup>

시편 91:9-10의 말씀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스펀전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신앙은 이 구절을 자신의 것으로 전용했다. 나는 안정되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방문을 계속했다."<sup>9</sup> 어쨌든, 참된 안전 보장에 의지하라. 여러분이

---

<sup>8</sup> [역자 주] 시 91:9은 2 인칭대명사 [아타]가 가리키는 대상과 [마흐씨]("나의 피난처")에 붙은 1 인칭 접미대명사를 2 인칭 접미대명사로 정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Tate, *Psalms 51-100*, n. 448을 참고하라. 다음 번역들을 비교해 보라.

개역개정: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새번역: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쉬운성경: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우리말성경: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네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KJV: Because thou hast made the LORD, *which is* my refuge,  
*even* the most High, thy habitation;

ESV: Because you have made the LORD your dwelling place  
—the Most High, who is my refuge—

NIV: If you make the Most High your dwelling—even the LORD, who is my refuge—

ISV: "LORD, you are my refuge!" Because you chose the Most High as your dwelling place,

Tate: Truly, you, O Yahweh, are my refuge! If you make the Most High your haven,

<sup>9</sup> C. H. Spurgeon, *The Treasury of David*, 7 vols. (London: Passmore and Alabaster, 1876), 4:235.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말할지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없는 본문의 권면이다.

## II. 지혜의 기술을 배우라 (Learn the Craft of Wisdom)

둘째로, 이 불완전한 이야기, 곧 하나님이 없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의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라고 강권한다.

우리가 다윗의 결정과 그 전개를 읽을 때 잠 14:12의 말씀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사람에게 옳아 보이는 길이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분명히 생각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사고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이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순전히 피곤함이 다윗을 괴롭혔음에 틀림없다. 사울의 악의와 군대만으로도 충분한데, 현지 사람들의 배반과 배신(삼상 23:19-20; 26:1)은 견디기 너무 힘들었다. 더구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내와 다른 식구들이 있었다(삼상 27:3). 이 모든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과 그의 6 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지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아내와 다른 식구들이 집에 남아서 사울의 첩보망의 선처만 바라도록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족의 안전과 양식을 위한 병참 문제는 아마도 버거운 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우려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은 도주에서 스릴을 맛야했다.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 아래서 끊임없이 사는 것은 사람을 지치고 불안하게 한다. 살인 추리극은 오직 독자를 위한 것이지, 희생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sup>10</sup>

이 내러티브는 매혹적이다. 그것은 다윗의 계획이 성공적이었고, 다윗의 결정이 옹호되었으며, 다윗의 생각이 정확했다고 말한다. 다윗은 그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자신을 찾는 것을 단념하리라고 생각했고(삼상 27:1), 그래서 가드로 도망했다(삼상 27:4). 다윗의 추정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아마도 다윗의 사람들과 가족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즐겼을 것이다. 가드가 블레셋 땅이긴 하지만 그것은 동굴보다 훨씬 나았다. 다윗의 계획은

---

<sup>10</sup>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69을 보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제자라면 누구나 다윗의 곤경에 공감할 수 있고 분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을 숙고할 때 얼마나 자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신중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가?"라고 묻는가? 신중함과 불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만약 내가 다윗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 나는 "내가 블레셋으로 간다면 용기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에 머문다면 분별력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머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유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다윗의 질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올바른 분별력이 요구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효과가 있었다. 사울은 더 이상 그를 뒤쫓지 않았다. 임무가 완수되었다. 그리고 다윗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을 부탁했을 때,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삼상 27:5-6).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안전과 더불어 상당한 자유도 누린다. 그리고 다윗의 속임수도 잘 작동되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할 수 있었다(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왔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래서 아기스를 확신시킬 수 있었다)(삼상 27:8-12). 그 전체 책략은 절묘한 것이었다. 그것은 믿음 총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 이처럼 사람에게 옳아 보이는 길이 있다.

그리고 다윗의 전도가 너무나 잘 되었다. 아기스는 다윗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 연합 공격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가드의 군대와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삼상 28:1-2). 다윗이 이미 이런 딜레마의 가능성을 고려했었을 수도 있다. 다윗은 분명히 "만약 ...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만큼 똑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험을 너무 절박한 것으로 간주했으므로 그런 모험을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지금 ... 만일 그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행군하면, (줄잡아 말해도) 그는 이스라엘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의 결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왕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다윗의 어떤 미사여구도 그가 블레셋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찢었다는 비난을 결코 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시점에 어떤 식으로 아기스와 블레셋 고급 간부들에게 거짓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들이 사울보다 훨씬 더 효율적임을 발견할 수도 있다(삼상 29:2-11). 이처럼 사람에게 옳아 보이는 길이 있다.

다윗이 그러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에 대한 비열한 언사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무도 사울의 악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가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울로부터 오는 위험은 결국 반역자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지독하거나 그렇게 해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긴급 상황이 아주 커지면, 그러한 어려움을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면 좋으련만"의 오류에 빠진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비틀고, 내 생각을 독점하고, 내 정력을 소비하는 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만 없다면 좋으련만! 내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별력을 쉽게 실토할 수 있는 마법의 공식을 알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 맞설 수 있는 관점과 원칙을 제시한다(예: 잠 3:5-6). 잠 3:5-6 은

네 명철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잠 3:5-6 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사용하라고 말하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이용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즉각적인 통찰력도 없고, 빠른 해결책도 없다. 우리는 지혜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분이 사울이나 아기스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더 잘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 III. 은혜를 파악하라 (Get a Grip on Grace)

마지막으로, 나는 이 하나님 없는 본문이 은혜로운 본문으로서 그 독자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나는 앞에서 본문이 다윗에 대한 어떤 공감과 이해를 반영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다윗이 "블레셋인"으로 있는 동안 얼마나 계산적이고 무자비했는지를 숨기지 않는다. 습격자 다윗과 도살자 다윗은 별개의 문제다. 삼상 27:9, 11 에서 다윗은 시대의 관습에 비추어 보아도 과잉 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쯤 여러분은 화가 난 독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지난 몇 장에 걸쳐서 친 다윗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다윗에게 화를 낼 수 있다. 여러분은 사울이 그의 광분한 시기심 때문에 그의 손에 다윗의 피를 묻히기로 고집하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도망하며 괴로워하고 추격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슬픈 운명에 감동받았다. 여러분은 다윗이 여러분의 마음을 얻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지금 여러분을 실망시켰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다.) 통용되는 대인 관계 용어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배신당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사람 다윗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화가 날 수 있다. 아니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배척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여호와께도 화를 낼 수 있다. 여러분은 그분이 왜 사울을 배척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속이고 학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지원하시고, 지지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혹시 저자가 여러분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여러분이 성경 독자일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은 영웅 숭배의 함정, 곧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바라보고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함정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은 왜 놀라고, 충격을 받고, 기분이 상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왜 "배신"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가? 본문은 이 선택된 기름 부음을 받은 종도 여호와의 모든 백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종도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야

하는가? 굿브로트의 말이 옳다. 본문은 우리가 사울을 경멸의 대상으로만 보고 다윗을 찬사의 대상으로만 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본문은 다윗을 모든 미덕의 거울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한다.<sup>11</sup>

그 대신 여러분은 은혜를 파악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이 표백제에 담겼으므로 전혀 죄가 없고 매력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일하실 깨끗한 재료가 없으시다.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찬송가를 부를 때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토기장이가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죄 많은(즉, 죄가 가득한) 진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진흙 때문에 토기장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 몸을 굽힌다는 사실에 경탄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아무리 미묘할지라도) 어떤 생각에 툭구는 한, 우리는 결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결코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을 것이며, 결코 이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파악해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본문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이 없는 본문조차도 경건한 진리를 가르친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시간을 내어 에스더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연구하라.
2. "자신에게 말하기"의 좋은 예로 (원래 한편의 시였을) 시편 42 편과 43 편을 보고서 영적 침체의 시기에 따를 가치가 있는 예로 삼고 실천해 보겠는가?
3. "신앙은 그 구절을 자신의 것으로 전용했다(찰스 스펀전)." 이 말은 신앙적 성경 연구에 대한 훌륭한 묘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연습하는가?
4. "신중함과 불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에 대한 답변의 일부가 신중한 행동 과정에 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없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성품에서 있어서 그분이 다윗보다 무한히 더 뛰어난 몇 가지 측면을 충분히 생각해보라.

---

<sup>11</sup>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224. 프랫(Pratt, *He Gave Us Stories*, 292)은 이 논평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 곧 이스라엘이 다윗의 결점으로 인해 야기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 계보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주제의 중심에 있다고 제안한다.

## 26. 때는 밤이었다 (삼상 28:3-25 And It Was Night)

총통 관저에 전화가 울렸다. 히틀러에게 온 것이었다. 제 3 제국 선전부 장관 조셉 괴벨스가 전화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기뻐했다. 그 이유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1945 년 4 월이었다. 독일은 붕괴되고 있었다. 연합군은 서쪽에서, 러시아군은 동쪽에서 압박하고 있었다. 곧 베를린 자체가 무너질 상황이었다. 그러나 괴벨스에게는 이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히틀러에게 말한 것처럼 "운세에 쓰여 있는 대로 4 월의 하반기는 우리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언급하고 있던 것은 1945 년의 처음 몇 달 동안, 특히 4 월의 전반기에, 독일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이지만, 후반기에는 압도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이전의 두 점성술 예측이었다.<sup>1</sup> 괴벨스의 점성술에는 안 된 일이지만, 히틀러는 4 월 30 일 자살했다. 괴벨스가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다. 파멸에 직면하게 되면,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의 절박함 가운데서 어떤 희망이나 어떤 지시를 줄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자원이라도 의지하려고 한다. 여기 사울도 마찬가지였다.

저자는 배경 정보로 시작하며 사무엘의 죽음(삼상 28:3a), 사울의 정통 신앙에 따른 바른 행위(正行, 삼상 28:3b), 블레셋의 공격(삼상 28:4)을 전한다.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회상(삼상 25:1 참조)이지만,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사무엘이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중요하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삼상 28:3b)은 신 18:9-22 을 따라 그대로 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블레셋의 공격은 걱정거리였다(삼상 28:5).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스드렐론 평원의 동쪽 끝에 있는 모레 산의 기슭에 있는 수넴(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약 17 마일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그들은 병거들이 유리하게 기동할 수 있는 평지에서 싸우며, 에스드렐론 평원을 통과하는 교역로를 통제하고, 사울을 그의 북부 지파들로부터 차단할 계획이었다.<sup>2</sup> 그들은 주로 길보아 산맥의 비탈에서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격파할 계획이었다.

그러한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울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더 그럴 수 있다(삼상 28:5b). 물론, 첫 번째 적절한 단계는 여호와께 지시를 구하는 것이다.

---

<sup>1</sup>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318.

<sup>2</sup> 실행 계획, 전술, 지형에 대해서는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N.Y.: Alba House, 1972), 3:145-48 그리고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194 을 참고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sup>3</sup>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삼상 28:6).<sup>4</sup> 여호와와 침묵은 사울의 공포를 침묵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정당하게 금지한 것에 의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그의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부탁했다. 어쩌면 죽은 사람의 한 마디 말이 그가 내일을 마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지만, 사울의 신하들은 신접한 자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삼상 28:7). 사울은 평복으로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밤에 언덕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 간다. 사울의 요청은 간단하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삼상 28:8)." 그 여인의 의심은 즉각적이다(삼상 28:9). 그녀는 정부의 "전면" 작전에 대해 알고 있으며, 명백히 그녀가 또 다른 "이교도 흉상"의 일부로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사울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친절하게 면책을 맹세한다(삼상 28:10). 독자는 아이러니를 놓쳐서는 안 된다—사울은 여호와께서 정죄한 출처로부터 도움을 구하면서 **여호와**, 곧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의 모든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지막까지 정통이다. 그 여인은 동의하며 자기가 불러 올릴 자를 묻는다(삼상 28:11). 그러나 사무엘을 볼 때, 그녀는 사울의 변장을 간파하고 비명을 지른다(삼상 28:12). 사울은 그녀를 더욱 안심시키며 사무엘이 "올라온" 것에 만족한다. 사울은 그에게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한다(삼상 28:13-14).

질문들이 잇따라 대거 쏟아진다. 이스라엘은 그런 일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는가? 그렇다(신 18:9-22; 사 8:19-20).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이든 현대 교회이든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sup>3</sup> 우림은 "문의에 대한 여호와와 답을 주는 데 대체사장이 사용한 계시의 수단"이다. C. Van Dam, "Urim and Thummim," *ISBE*, rev. ed., 4:957-59 을 보라. 우리는 우림과 둠뭇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해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학살한 것(삼상 22 장)을 기억하라.

<sup>4</sup> 삼상 28:6 과 대상 10:13-14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없다.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95 을 보라.

[역자 주] 삼상 28:6 사울이 여호와께 **물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vs. 대상 10:13-14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윌리엄슨은 역대기에 40 번 정도 나오는 "여호와를 구하다"는 표현은 여호와와 인도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었지만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의 태도[an inner attitude of loyalty towards God]를 가리키는 훨씬 더 일반적인 의미로 발전되었으므로 삼상 28:6 은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이 있고 대상 10:13-14 은 사울의 생애 전체를 특징짓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 곧 사울의 마음가짐에 초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성경이 금지하는 것을 행한다.

이 에피소드는 가짜였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본문이 그것을 지어낸 이야기로 제시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삼상 28:12a)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그녀 자신도 그의 출현을 예상하지 않았음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그녀의 평소 신접술은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것이 틀림없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사무엘의 출현(삼상 28:12a)은 그녀의 비명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아닐 수 있다. 삼상 28:12b는 그녀의 비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녀는 사울만이 사무엘과 상의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질 것이라는 통찰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의뢰인이 사울이라면, 그녀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삼상 28:3b).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핵심적이고 냉정한 예언 메시지에서부터(삼상 28:16-19)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신접술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호기심 많은 질문에 대해 전혀 대답하지 않는 명백한 과묵에 이르기까지 사실주의 흔적을 갖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 관행을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수단들을 금지하신 것은 그것들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악하기 때문이다.<sup>5</sup>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접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허락으로 가능한 것으로 제안한다. 그분 자신의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올라오도록” 허락하시어 사울에게 사실과 죽음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음에 틀림없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졌다.

이 효과적인 신접술의 사례는 죽은 자와 상담하는 관행을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 장이 이미 교리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례(삼상 28 장)는 단순히 그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28 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왜 이런 속임수가 금지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느냐? 사울을 보라. 그것은 무력화시키고 파멸시킬 뿐이다.”

예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쯤 하기로 하자. 이 이상하고 슬픈 내러티브의 가르침은

---

<sup>5</sup> Yehezkel Kaufmann, *The Religion of Israel* (New York: Schocken, 1972), 88: “율법은 점술이 가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금지한다. 율법은 그 어디에서도 그것이 헛되다고 시사하지 않는다.” 구약 신학의 맥락에서 보는 점술과 마술에 대하여 Willem A. VanGemer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Grand Rapids: Zondervan, 1990), 20-27 을 보라.

무엇인가? 나는 몇 가지 명제로 그것을 요약하고자 한다.

## I. 절망적인 불행 (삼상 28:15 Hopeless Misery)

첫 번째 명제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불행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지는 것이다.** 내러티브가 이미 전했던 것을 사울 자신이 삼상 28:15 에서 비참하게 시인한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히 여호와와 백성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왕으로서 사울은 일반적으로 전투에 대하여 여호와의 지시를 받는 특권을 누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블레셋 사람의 고탈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여호와와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그는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말씀들 중 하나가 삼상 28:15 에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은 이전에 그가 선언한(삼상 15:28) 대로 여호와께서 사울로부터 나라를 떼어 그의 이웃에게 주시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설명한다(여기서 사울을 대신하는 이웃이 다윗임이 공개적으로 드러남, 삼상 28:17). 왜 여호와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사무엘은 사무엘상 15 장의 에피소드를 회상하며 "네가 여호와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다."라고 말한다(삼상 28:18).<sup>6</sup> 사무엘은 사무엘상 15 장의 핵심 단어인 [샤마]("듣다, 청종하다")를 다시 언급한다.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상 13 장에서 보여준 비극적인 경향을 다시 보여주었다. 사무엘상 15 장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자기 자신과 백성의 기호에 맞게 조정했다. 사울은 그것을 조절이라고 불렀을 것이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불렀다. 사울은 그것을 신중함으로 생각하였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완고함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재해석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사무엘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비난하였다(삼상 15:22-23 참조). "네가 듣지/청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여호와의 부재에 대한 설명이다.

본문은 온화하지 않지만 분명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빼앗으실 것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첫 반응,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최초의 부르심에 대한 첫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펀전은 임종시에 자신을 부르러 보낸 사람에 대해 말한다. 일생 동안 그 사람은 스펀전을 조롱했고, 종종 스펀전을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죽어가면서 그는 스펀전을 불렀다. 이 경우와 이 사람에 대해

---

<sup>6</sup>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5 장("택하신 자를 버리심")에 대한 나의 이전 강해를 참고하라.

스펠전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건강할 때 그리스도를 악랄하게 거절했지만, 죽음의 고뇌 속에서 미신적으로 나를 부르러 보냈다. 너무 늦게 그는 화목의 사역을 바라며 닫힌 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랫동안 허락해 주셨던 기회를 허비했으므로 그때는 그에게 회개할 여지가 남아 있지 않았다.<sup>7</sup>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엄숙하다. 모든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불행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지는 것이다.

## II. 더 가벼운 짐들 (Lighter Burdens)

이 단락을 더 큰 배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명제로 이어진다. **적절한 맥락에서 보면 짐들은 더 가벼워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삼상 27:1-28:2 그리고 삼상 29:1-11 과 관련하여 삼상 28:3-25 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시점에서 사무엘상 27-31 장의 전체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다윗의 딜레마: 하나님의 적들과 함께, 삼상 27:1-28:2

사울의 딜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삼상 28:3-25

다윗의 구원: 블레셋 사람에 의해 구원받음, 삼상 29-30 장

사울의 몰락: 블레셋 사람에 의해 멸망받음, 삼상 31 장

여러분이 저자의 이야기의 흐름을 정말 잘 따라왔다면, 저자가 여러분을 현혹시킨 것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삼상 28:2 의 끝에서 가능한 한 여러분의 정신적 고무줄을 팍 조였다. 그 시점에 여러분의 질문은 어떻게 다윗이 이 진퇴양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밤 11 시이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성경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여러분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읽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사무엘은 죽었다... (삼상 28:3)." 여러분은 속았다. 저자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삼상 29 장에 이를 때까지 그의 문학적 올라미에 걸린 상태로 남아있다. (거기서 그가 다윗에 대한 여러분의 염려에 대해 대답한다.) 설상가상으로,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삼상 29:1-11 은 연대순으로 보면 삼상 28:3-25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연대순을 따랐더라면,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랐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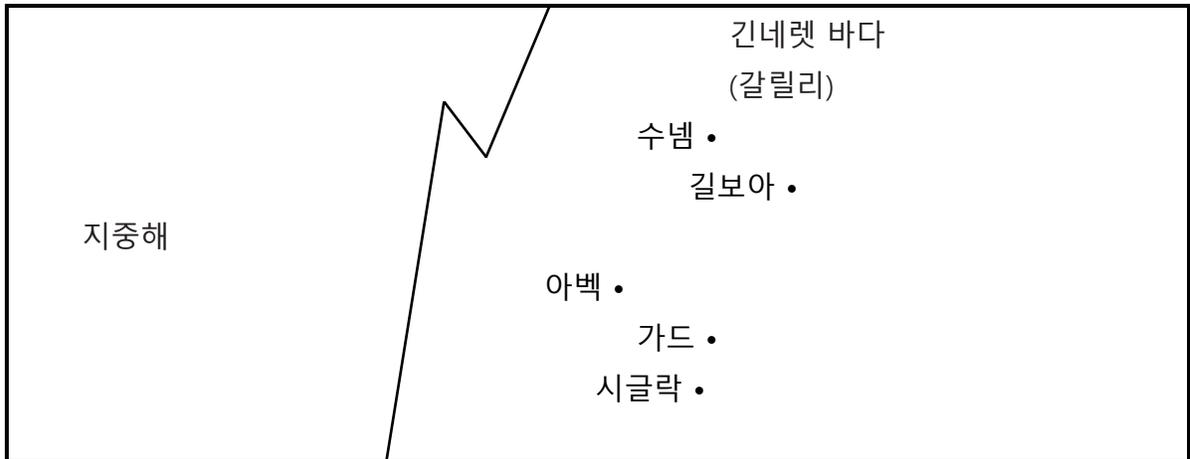
<sup>7</sup> C. H. Spurgeon, *Autobiography*, rev. ed., vol. 1, *The Early Year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2), 274.

27:1-28:2

29:1-11

28:3-25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연대기의 순서가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지리가 그것을 말해준다. 삼상 28:4 에서 블레셋 사람은 수넴에, 그리고 사울은 길보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정적인 전투 전날 밤에 일어난다. 삼상 29:1 에서 (아기스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함한) 블레셋 사람들은 옘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10 마일 떨어진 샤론 평야의 아벡에서 연합군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대략적인 다음의 개략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의 이동은 가드와 시글락(삼상 27:1-28:2)을 포함한 블레셋 본토에서 모든 블레셋 군대의 집결지인 아벡(삼상 29:1-11)으로, 그리고 나서 에스드랠론 평원을 거쳐 선택된 전투지 인근 수넴(삼상 28:3-25)에 이른다. 삼상 28:4 그리고 삼상 29:1 의 지리적 설명을 통해 저자는 연대순을 바꾸었던 단서를 제공한다.

왜 그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가? 왜 완벽하게 흥미진진한 다윗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는가? 왜 삼상 28:2 에서 삼상 29:1 로 바로 가지 않았는가? 왜 나중에 발생한 이야기로 이 순서를 중단했는가? 왜 여기에 삼상 28:3-25 를 삽입했는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답을 제시한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통해 미시시피 주-텍사스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라. 갑자기, 2 쿼터 6 분 전에 여러분은 중계 방송이 사라지면서 한 발표를 듣는다. "우리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여러분에게 이 특별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쯤, 서스캐처원 기지의 캐나다 공군이 노스 다코타 주 비스마르크에 대한 폭격을 개시하여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sup>8</sup>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멋진 10월 오후에 완벽하게 즐거운 축구 경기 중계를 중단하는가?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훨씬 더 긴급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시간을 선점할 권리가 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일 의도가 없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성경 저자가 삼상 28:3-25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윗의 딜레마에 대한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여러분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한다. 비록 적절한 연대순에서는 벗어났지만 말이다." 그가 28:3-25를 삽입한 이유는 다윗의 딜레마(삼상 27:1-28:2)와 사울의 딜레마(삼상 28:3-25)를 나란히 놓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윗에 대해 지금 당장 골머리를 썩이지 말라. 여러분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에서 단절된 것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내러티브를 잠시 중단한다." 따라서 저자는 그의 이야기에서 이 순서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이전 명제를 강조한다. 가장 절박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하였으므로 여러분이 전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다.

이것은 다윗의 시련을 바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지 않는가? 다윗의 어려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적들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사울은 훨씬 더 나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짐들은 적절한 맥락에서 보면 더 가벼워 보인다.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아마도 약간의 우는 소리를 내며) "글쎄, 당신보다 상황이 더 나쁜 사람이 항상 있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듯이, 경박하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의미하는 것은 "신자여, 당신의 시련을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직장 때문에 지쳐 있을 수 있다. 사실,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을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면서 당신을 푸대접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은 건강을 잃었거나, 가정 불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본문은 훨씬 더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한다.<sup>9</sup> 당신의 모든 상실과 모든 압박과 모든 실망과 모든 실패에 직면해 있을 때, 당신은

---

<sup>8</sup> 캐나다 사람들과 다코타 사람들 모두에게 사과드린다. 나는 내가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가상의 예를 제시하고 싶었다.

<sup>9</sup> 예수님께서 요 5:14에서 38년의 무력한 마비보다 "더 나쁜/심한 것"이 있음을 암시하신 것을 참고하라. 38년은 긴 기간이고 무력한 마비는 끔찍한 재앙이다.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닫고 있는가?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고<sup>10</sup> 불평하는 것만큼 비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가? 아니,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어려움 중에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 III.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절박함 (Misdirected Desperation)

지도 자체는 사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준다. 엔돌은 수넴에서 북동쪽으로 2-3 마일 떨어져 있었다(수넴은 모레 산의 남쪽 경사면에 있고, 엔돌은 북쪽 경사면에 있었다). 이것은 사울이 엔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진영을 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상당한 위험을 무릅썼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심정의 대상은 무엇인가? 삼상 28:15c("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에 따르면, 사울은 전투 당일에 대한 지시를 원한다. 이는 "사울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실수할까 두려워 인도를 구해야 했다"는 엘리슨의 말에 설득력을 더한다.<sup>11</sup>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절박함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세 번째 명제로 인도된다.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에는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노골적인 암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강조]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삼상 28:16)?" 사울의 탐구는 사무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마주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교통이었고, 전투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호의보다 하나님의 호의의 결과를 더 원했던 것 같다.

여기서 나는 한 문제를 탐구하며 계속해서 연관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이런 것이다. 어떤 신자들은 자신이 사울의 입장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분의 눈살을 찌푸리며 침묵하실 운명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찬송가 작가 윌리엄 카우퍼는 적어도 때때로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결론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고통 속에 남겨두시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양들의

<sup>10</sup> 삼상 28:15의 히브리어 본문에 주어("하나님")가 강조되고 있다.

<sup>11</sup>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70.

삶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은 누군가가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객관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고(우리가 말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에게 한 상황을 다른 상황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단서들이 있는가? 적어도 나는 한 상황을 지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 13:1 을 보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라.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잊으셨고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떠나셨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하는가? 그는 신접한 자들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의 운세를 점치는가? 아니다. 그는 "어느 때까지 ... 어느 때까지 ..."라고 불평한 후,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 (시 13:3)"라고 기도한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시 30:7), 본능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버리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께** 그들을 버리신 것에 대하여 불평한다(시 13:1). 그런 다음 그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거래하며 이 하나님께 응답하시라고 부르짖는다(시 13:3). 왜냐하면 그들은 달리 갈 곳이 없어서 계속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편 88 편은 거의 사무엘상 28 처럼 암울하다.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과 호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긍정적인 결말이 없기 때문이다. 신실한 사람의 고뇌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에 대하여 **여호와께** 말하고 있다(시 88:14-18). 냉철한 합리주의자들은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따뜻한 신자들은 그것을 이해한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심지어 그분의 "부재" 속에서도 자신들을 외면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계속 의지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게 된다(요 6:67 68).<sup>12</sup>

하나님의 "부재"에 직면하여 신자는 자신의 현재 문제에 대한 통찰력 부족보다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관심을 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인도하시는 분을 아는 것보다 인도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sup>13</sup> 영적으로 절박함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sup>12</sup>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나는 옛 청교도(1649) 작품인 William Bridge, *A Lifting Up for the Downcast*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1)을 자세히 읽어볼 것을 촉구한다.

<sup>13</sup> Ellison, *Joshua-2 Samuel*, 6-7 을 참고하라.

#### IV. 비추는 빛 (Shining Light)

나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가망 없음으로 인해 무거운 내러티브의 결론 장면(삼상 28:21-25)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우리에게 본문 자체를 넘어서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 있다**는 네 번째 명제를 제안할 수 있다.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압도당했다.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고 심히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삼상 28:20). 그 여인은 사울이 심히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서, 사울에게 그녀의 청을 들으시고 자기가 준비하여 드리려는 것을 접수시킬 간청했다.<sup>14</sup> 사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승낙했다(삼상 28:23).

슬픈 장면이다. 그 여인은 마구간에서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굽는 등 왕에게 꼭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삼상 28:24-25a; 삼상 28:22 에서 약속한 "한 조각 떡"은 전형적인 동부식 겸양임, 창 18:5-8 참조). 그러나 이 모든 것만이 그가 총체적 재난에 직면하기 전에 그를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삼상 28:25b)."는 마지막 문에서는 절망과 실망만이 흘러나온다.

이 장면은 당신에게 또 다른 최후의 만찬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가? 그것은 또 다른 종교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네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요 13:30)"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떨었는지 기억한다. 여러분은 그 장면과 유다의 퇴장을 기억한다. 분명히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그저 시간을 말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에게 그것이 밤이었다고 말해 주길 원했다. 그렇다. 밤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깥의 어둠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어둠 속으로 들어간 다른 사람도 있었다.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막 15:33-34)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사울이나 유다보다 더 낮고, 그들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

<sup>14</sup> 사무엘상 15장에 비추어 볼 때, 삼상 28:21-23에 "듣다/청종하다"는 의미의 동사 [샤마]가 네 번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만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은 틀렸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부재의 어둠과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어둠과 고뇌를 겪으셨다는 것이다. 막 15:24 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내게 대답하지 않으신다(삼상 28:15)"는 사울의 말과 매우 흡사하지 않은가? 골고다 전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바깥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지금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이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 대신 어둠을 겪으신 이 분을 찾아오고 있었는가?

"그들은 일어나서 그 밤에 갔다." 그렇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 있다.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그의 모든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지막까지 정통이다." 신문을 읽거나 TV 를 보면, 여러분은 현대에서 몇 가지 이러한 예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2.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조절이라고 부름으로써 반역을 변명하는가?
3.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것, 곧 회개, 믿음, 순종으로 표현되는 민감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가?
4. 시편을 읽을 때 시편 기자가 그의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문제들일지라도, 항상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편의 일부를 읽어보라.
5. 누가와 요한은 각각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세 가지 말씀을 기록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오직 한 가지, 똑같은 말씀(마 27:46; 막 15:33-34)만을 기록하여 극명하게 남김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도록 밀어붙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 겪으신 고난의 깊이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 27. 블레셋 사람들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삼상 29 장 Accepting the Philistines as Your Personal Savior)

저자는 그의 좌절시키는 기법을 고수한다. 사무엘상 28 장의 끝에서 독자들은 다음 날 전투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그 전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어 한다. 우리가 재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문학적 깔끔함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가기 전에 이 한 이야기를 묶어 정리하고 취합한 것을 원한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의 정리정돈에 대한 거리낌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밤에 길보아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시간적으로 (아마도 죽히 며칠) 뒤로 돌아가서 샤론 평원에 있는 아벡에 우리를 내려 놓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의 딜레마에 빠진 것을 다시 보여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블레셋의 군사력 증강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저자가 이렇게 사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패턴에 대한 이유를 그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계속되는 다윗과 사울 사이의 대조를 유지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길보아 완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미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1</sup>

어쨌든 저자는 사무엘상 29 장에서 우리에게 흥미롭고 웃기면서도 질서정연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쉽게 분해된다.

장소, 삼상 29:1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와 아기스의 설명, 삼상 29:2-3

결정 발표: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한다, 삼상 29:4-5

결정 전달: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한다, 삼상 29:6-7

다윗의 반대와 아기스의 설명, 삼상 29:8-10

장소, 삼상 29:11

아기스가 다윗을 세 번 옹호하는 것(삼상 29:3, 6-7, 9-10)은 일종의 강한 역설이다. 아기스는 사무엘상 29 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는 사무엘상 29 장을 살펴본 후 교회를 위한 그것의 의미와 가르침을 요약할 것이다.

여기에 수냄 작전을 개시할 준비를 하기 위해 아벡 집결지에 도착한 블레셋 군대들이 있다. 블레셋의 다섯 방백이 모두 다양한 파견대와 함께 도착해 있다. 마침내 아기스와 그의 가드 파견대가 검열을 받는다. 그들 중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본다. 그들은 경악한다. 도대체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아기스, 당신은 우리가

---

<sup>1</sup> 사무엘상 27-31 장의 문학적 기교와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이전 강의(26 강)를 참고.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모르십니까(삼상 29:3)?” 아기스는 상황 판단이 느리지 않다. “당신들은 용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신분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전적으로 믿을 만합니다.”<sup>2</sup> 그러나 방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신중함(삼상 29:4b)과 역사(삼상 29:5)에 근거하여 주장한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 그의 호의를 얻는 데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 대열에서 배반자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갖고 사울에게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역사(혹은 음악)에 근거한 논쟁이 주어진다. 예그론 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알고 있다(삼상 29:5; 참고, 삼상 18:7; 21:11). 방백들은 아기스가 어찌 그리 멍청하고, 어찌 그리 순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노한다(삼상 29:4a).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는 나쁜 소식(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한다(삼상 29:7). 이 장면에는 약간의 유머가 더 있다(삼상 29:6-8). 여기서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 이 전투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변증적으로 강조하며 다윗의 신실함을 칭찬한다. 사실 그가 다윗의 신실함을 칭찬할 이유는 없다. 반면에 다윗이 얼굴에 불신의 기색을 보이고 목소리에 분노를 담아 참전 거절에 대한 항의를 한다. 그렇지만 그가 항의할 이유는 없다. 속은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를 변호하고, 안도하게 된 자는 자기의 안도에 이익을 제기한다!<sup>3</sup>

<sup>2</sup> 아기스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이전) 신하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더 나은 성공을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방백들의 머리에 빨간 깜박이를 켜도록 했다.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1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571–72 을 참고하라. 물론 우리는 아기스의 단호한 자신감(삼상 29:3, 6-7, 9-10)이 절대적인 기만(삼상 27:8-12)에 기초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놓칠 수가 없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소 우둔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책 *Judges: Such a Great Salvation* (Grand Rapids: Baker, 1990), 177–81 [= **사사기 주해**, 136-159(17 장 비밀들, 18 장 라맛 레히 전투와 다른 이야기들, 19 장 사랑 놀이와 그 결과)]에 나오는 사사기 14-16 장에 대한 논의를 보라.

<sup>3</sup>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삼상 29:8 에서 연기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대열에서 배신자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실망했다고 생각한다. William McKane, *1 & II Samuel*, Torch Bible Commentaries (London, SCM, 1963), 166; and P. Kyle McCarter, Jr., *I Samuel*,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427 을 참조하라. 그러나 나는 저자가 이것을 다윗의 기회가 아니라 다윗의 위기로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마지막 장들에서 저자는 각자의 딜레마에 빠진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묘사하려고 한다. 다윗은 정황상 그의 궁지에서 탈출할 수 없다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파괴자로 활약할 것을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 군대와 함께 나타난 것만으로도 다윗에 대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의 신뢰가 사라지게 했을 법하다. 사실, 사무엘상 27-29 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북부 지파들의 반대를 극복하려는) 다윗에 대한 변증으로 이스라엘에서 회자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장황한 불평을 듣고 아기스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보게, 이 보게, 나는 자네가 견고한 요새처럼 건설하다는 것을 아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 글썄, 그들이 명령한 것이네. 나는 어쩔 수가 없었네. 다수결이 지배했네. 그러니 아침이 되면 자네는 시글락으로 떠나야 하네(삼상 29:9-10)."

사무엘상 29 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확실히 우리는 사무엘상 29 장이 운 좋은 휴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곧 그분의 자비로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그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증언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증언을 몇 가지 논평으로 요약할 수 있다.

### I.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조용하다 (God's Presence Is So Quiet)

아마도 여호와와의 선하심에 대한 이 이야기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여호와와의 선하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여호와에 대하여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본문을 갖고 있다. 내가 "거의"라고 한 것은 아기스가 여호와에 대한 정중한 언급을 하고(삼상 29:6) 하나님을 언지시 말하고 있기(삼상 29:9) 때문이다. (마치 이방인 아기스만이 이 본문을 세속주의로부터 구해주듯이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전에 이런 종류의 것을 만난 적이 있다. 성령님께서 이런 내러티브들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명백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어쩌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결론이 거의 필요치 않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며 그분의 종을 구원하시지만 조용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교리적인 핵심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브루게만은 확실히 옳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명시적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저류를 보여주는 매우 자의식적 신학 문헌을 다루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에서나 다윗과 함께 계시며(삼상 18:12, 28),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그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확실히 그와 함께 계시고, 그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29 장에서도 확실히 그와 함께 계신다. 내레이터는 내러티브의 결과를 행운으로 인식할

---

도망하여 얼마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사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동족과 싸우는 데 동참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그는 그 시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큼 그것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sup>4</sup>

그렇다면 삶과 경험을 되돌아보며 여호와께서 구원과 지원을 위해 분명하면서도 조용히 임재하셨던 때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교회와 개별 신자의 임무가 아닌가? 내가 의미하는 것은 "나는 치과의사 사무실에서 지루할 것이 너무 두려웠는데, 주님께서 거기 대기실 탁자 위에 있는, 몰입하게 하는 기사가 들어있는 보그지 한 권을 보여주셨다"는 것과 같은 일종의 자기 고정적이고 사소한 실존적 과잉 묘사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행해 온 땅, 주님께서 여러분을 짊어지시고 통과하게 하신 어두운 것들, 여러분의 삶의 우여곡절 등을 곰곰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침묵의 자비, 조용한 보살핌을 엿볼 수 없는가? 소음이나 폭풍은 없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지만, 눈으로 보기에 분명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자주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흥미롭고 도전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대학시절부터 사귀기 시작하는 부부와 같은 것일 것이다. 각자 상대방을 좋아하고 배려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으로 감정이 논의되면 한쪽 혹은 양쪽 모두 상대방을 "겁나게" 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다. 약간의 불확실성, 흥미진진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 남성은 그녀와 손을 잡고 싶지만, 그 여성이 그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지 궁금해한다. 어쩌면 그녀는 그를 단지 친구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녀는 그녀를 향한 점점 더 커지는 그의 애정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들의 손이 우연히 살짝 닿게 되자 남자는 여자의 손을 조용히 움켜잡는다. 그것이 바로 그것의 아름다움이다. 그들이 손을 잡아야 할 적절한 달력 날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 것이다. 그 일에 대한 유보와 침묵이 그것을 매우 즐겁고 기억에 남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분의 작품이 텔레비전 광고처럼 여러분에게 퍼붓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분은 그것을 반드시 선언하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II. 하나님의 길은 매우 놀랍다 (God's Ways Are So Surprising)

우리에게는 매우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심각했다. 첫째로, 블레셋

---

<sup>4</sup>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0), 199.

방백들은 분노하며 믿을 수가 없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삼상 29:3a)?” 그런 다음 그들은 아기스의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 화를 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삼상 29:4b)

아기스마저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다윗에게 이 좋은 소식을 반복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만 블레셋 방백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고 결정했다(삼상 29:9).”라고 말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본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을 그의 딜레마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블레셋 군대의 방백들이다. 여호와께서 적을 구원자로 바꾸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삼상 23:19-28 참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유능한 종이 된다!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어왔는가(참조, 사 40:13-14)?! 물론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보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본문은 내 삶이 내 자신의 꾀와 어리석음으로 매우 꼬이게 되고 나의 근시안적인 결정에 의해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엉망진창에서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는다. 그분이 다윗을 위해 하셨던 것을 나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본문이 정말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의 실신 중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수천 가지의 예측할 수 없는—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한—방법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분은 적이 우리를 친구로서 섬기게 하실 수 있다. 그는 우리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상을 차리도록 하시는 요령을 갖고 계신다!

혼자이고 양식이 떨어진 한 기독교 여성이 자신의 곤경을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동화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불가지론자 혹은 무신론자인 이웃이 그 여성이 기도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는 재미로 하나님 노릇을 해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서 빵 두 덩어리를 사서 그녀의 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것들을 발견하자마자, 그 여성은 경건하고 고마운 찬양의 기도를 터뜨렸다. 그러나 그 이웃은 자기가 그녀의 기도를 우연히 듣고 그 빵을 사서 그 계단에 놓아두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사건을 비신화화하라고 시비를 걸었다. 그때 그녀의 기도 응답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무장하고서” “아, 그랬군요. 제 기도 응답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죠. 비록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데 악마를 사용하셨지만요.”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놀랍다"는 것은 논평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든 삶에서든, 그분이 블레셋 사람들을 쓰시든 불가지론자들을 쓰시든,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때마다 반응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은 우리를 예배와 찬양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더듬어 찾아낼 수 없다(롬 11:33)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때가 있어야 한다.

### III. 하나님의 자비는 매우 끈질기다 (God's Mercy Is So Tenacious)

연기만 빼고 다 끝난 듯이 보인다. 삼상 29:7 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안도감이 물밀듯이 임했을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심의 여지없이 아기스는 다윗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과 분노의 섬광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본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삼상 29:8)?" 독자는 이 시점에서 약간 긴장한다. 아기스가 재고를 하지 못하도록 독자는 "다윗, 그걸 망치지 마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당신의 개인적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가요!"라고 다윗에게 소리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다윗은 아기스가 말한 대로 한다. 아침이 온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향하고 있다(삼상 29:11).

독자는 사무엘상 29 장을 삼상 27:1-28:2 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나는 이미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로 한 원래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그것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현명하지는 못했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충만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삼상 29 장을 삼상 27:1-28:2 과 나란히 놓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찬란하게 빛난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자비가 그분의 종들의 어리석음과 믿음의 실신 중에도 여전히 그들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호와의 자비는 얼마나 강하고, 끈질기고, 묵과하지 않는 것인가!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성질이 급하지 않으시다. 우리가 어리석은 블레셋을 선택할 때 그분의 자비와 인내는 고갈되지 않는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신을 만들어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신은 그의 자녀 중 한 명이 삶의 일부분을 한 번 망쳤을 때, (우리가 하듯이) 불끈 화를 내며 고소하라는 듯이 그를 포기하며 그가 주스로 튀김을 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런 신이 그의 종인 다윗의 하나님이요 구주인가? 여러분은 여기서 다윗을 보는가? 그는 자신의 함정에 빠져 어쩌면 제산제를 과다 복용하고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출전하여 그와 그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업자득으로 괴로워하도록 내버려두시는가? 오, 아니다. 여호와의 자비는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찾을 수 있다. 그를 사울에게서 몇 번이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무진장한 자비는 쉽게 마르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에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 일부 신자들은 삶의 연대표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이미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평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굳게 믿으며 자기 자신들의 영리함에 의존하고 있던 때(혹은 때들)를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재앙으로 판명되었고, 하마터면 그들을 파멸시킬 뻔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시들어버렸다고 두려워한다. 결국 **그들의** 자비라면 시들어버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택하신 왕의 이 믿음의 실신을 통해 여호와와 모든 종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을 던져버리지는 않으신다. 우리의 실수는 그분의 자비를 증발시키지 않는다. 그분의 자비는 여전히 충만하고 따뜻하다. 그것은 집요하며, 너무 집요해서 다윗을 추격해 블레셋으로 갈 것을 고집했다. 다윗은 정말로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추격/추적하는**(pursue)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알고 있었다. (시편 23:6의 “따르다, follow”란 번역은 너무 약하다.) 그러나 다윗의 곤경과 그분이 선택하신 이방인 구원자들에 의한 여호와와 구원은 다윗의 성공이 다윗의 재주 때문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와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의 결말 사이에는 현저한 대조가 있다.<sup>5</sup>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흥미롭고, 의도되지는 않았더라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독자는 사무엘상 28장의 마지막 문(25절 하반절)이 사울과 신하들이 어둠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는지 말해주면서 절망의 냄새를 풍긴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엘상 29장의 끝은 밤이 아니다. 사울을 멸망시킬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구원을 받은 다윗은 아침에 길을 떠난다(삼상 29:11a). 다윗이 어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윗의 밤은 사울의 밤과 같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5b).”

####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의 고요한 자비들을 고려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흥미진진하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
2. 텔레비전 광고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유보하시는 이유를 암시하는가? 광고로 과잉 노출을 하는 것이 당신에 관한 한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차단했는가?

---

<sup>5</sup> 이것은 Fokkelman, *The Crossing Fates*, 578에 의해 지적되어 있다.

3. 하나님은 놀라우시면서 동시에 한결같으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어쩌면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성품을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분의 방법이 결코 그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4.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 그분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일에서 이 두 가지가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라.

## 28. 크게 다급했을 때 (삼상 30 장 When the Bottom Drops Out)

아모스는 한때 생생한 설교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다(암 5:19). 그는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난 사람을 묘사한다! 아모스가 암시하는 대로, 그 사람은 꿈에게서 도망하며 달려서 마침내 집에 도착해 혈떡거리며 간신히 벽에 기대어 안도하고 있을 때 뱀에게 물린다! 그는 안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적이 벽 꼭대기를 따라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sup>1</sup>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상 30 장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 덕분에 블레셋 편을 들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덧에서 막 벗어났었다(삼상 29 장). 그날 아침 시글락으로 출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크게 안도할 수 있었는가! 그런 부담이 걷혔을 때 며칠 간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60 마일의 여정도 문제없이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뱀이 물어버린다. 성읍도 없어졌고, 가족도 없어졌다. 다윗의 고난의 집계 목록에 또 하나의 타격이 추가된다. 그것은 마치 구멍이 자체에서 밑바닥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인다. 사무엘상 30 장을 살펴보면 몇 가지 논평을 하고자 한다.

### I. 하나님의 종이 압도되다 (삼상 30:1-6a God's Servant Is Overwhelmed)

다시 한번, 우리는 독자의 우위를 갖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삼상 30:1-2) 다윗이 그것을 알기(삼상 30:3) 전에 알고 있다.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여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다(삼상 30:1-2). 특히 삼상 27:8-9 에 묘사된 다윗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아말렉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간 사실에서 자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소한 자비였다. 모든 사람은 포로들을 살려 두는 이유를 알고 있다. 이익을 위해 그들은 상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서, 고립되고 속박되고 비참하게 남은 삶을 근근이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삼상 30:3). 그들은 연기나는 잔해가 주는 충격과 사로잡혀간 아내들과 가족들에 대한 슬픔을 맛본다.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건 바로 통곡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삼상 30:4). 남아있는 모든 조그만 힘은 다윗을 비난하고 그를 돌로 치자고 서로 로비를 하는 데 사용되었다.<sup>2</sup> 슬픔은 쓰라림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sup>1</sup> 나는 월터 카이저 박사가 구약 수업 시간에 아모스의 예화를 예로 든 것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sup>2</sup>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시글락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로 떼어 놓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블레셋 정착촌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일부 다윗의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의 체류에 대한 생각 자체(삼상 27:1-2)를 반대하고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글락 재난의 문제점은 그것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윗에게 두근거림은 사무엘상 18 장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인접 문맥을 고려하면 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최근의 긴급 상황에서(삼상 27:1-28:2) 그는 막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삼상 29:1-11). 그들이 시글락에 도착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가! 그 60 마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순히 안도감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데 이 상황은 무엇이란 말인가? 요요 효과는 타격을 더 극심하게 만드는 것 같다. 놀라운 탈피, 숨을 돌릴 순간, 커다란 안도감 등이 다시 구렁이에 던져질 뿐이었다. 진창에서 들어올려졌다가 다시 거기로 곤두박질쳐지는 것 보다 차라리 거기서 들어올린 적이 없는 것이 더 낫다. 여호와와 택하신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계속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대상 29:30 에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와 통치에 대한 기록이 “그에게 일어난 상황들(직역: 때들)”에 대해 말해준다고 듣는다. 실제로 그것들은 파도 위에 파도처럼 물밀듯이 계속 일어났다. 왕으로 지명된 자로서 다윗은 참으로 고난의 종이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냉정하고 불안한 그림이 있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무엘상 30 장은 “아니,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이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결론내리는 때들이 있다. 여러분은 그저 더 이상 견디어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때 시글락이 닥쳐온다. 그것은 마지막 지푸라기 다음의 마지막 지푸라기이다. 때때로 여러분은 시 30:5 에 또 하나의 행을 추가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바로 다음에 “다가오는 오후에 재난이 닥친다”를 덧붙이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한 기독교 여성은 신약성경 번역자인 J. B. 필립스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쓴 적이 있다. 필립스는 엄청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견뎌냈다. 편지를 쓰면서 그 여자는 자신의 고통 중 몇 가지를 묘사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불행한 어린 시절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몇 차례 심각한 병을 앓았지만 7 년 전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녀의 말로는, 다행하게도) 캘리퍼스(測徑兩脚器 측경양각기)와 팔꿈치 막대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종의 전신 괴저가 시작되어 삶을 훨씬 더 느리고 번거롭게 만들었다. 정치적 난민인 그녀의 남편은 정신병적 성향을 보이더니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는 소아마비에 걸린 그녀를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떠나 캐나다로 가버렸다. 그녀는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무수입으로(기도에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셨지만) 키워야 했다. 게다가 딸의 약혼자도 차에 치여 죽었다. 물론 그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약혼자가 죽은 지 2 년 후, 딸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뇌진탕을 앓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녀의 딸이 약을 과다 복용하여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첫 번째 자살 시도가 무산된 뒤에도 두 번 더 심각한 시도가 뒤따랐다. 마침내 필립스에게 편지를 쓰던 여인은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거의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떤 식으로든 딸에게 의사소통이나 연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실패하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썼다.<sup>3</sup>

우리는 충격적인 본문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 다윗은 곤경에 압도된다. 암시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 중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sup>4</sup> 본문은 여러분의 고난과 곤경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성경의 사실주의가 있다. 여기에 진리를 숨기거나 반쪽짜리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없다. 여기에 거짓 광고가 없다.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은 곤경에 압도될 수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에 의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것을 작은 글씨로 줄이거나 각주에 숨기지 않으셨다.

## II. 하나님의 힘은 충분하다 (삼상 30:6b-9 God's Strength Is Sufficient)

다윗은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 더하여 그의 사람들의 반역에 직면했다(삼상 30:6a).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데 얼마나 많은 표가 있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가 한 중요한 진술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이다. "그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삼상 30:6b)." 다윗은 구덩이 안에 있지만 이것이 구덩이 안에서의 전환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다/자신을 강하게 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 시대에는 여호와

---

<sup>3</sup> Vera Phillips and Edwin Robertson, *J. B. Phillips: The Wounded Healer* (Grand Rapids: Eerdmans, 1984), 93-95. 큰 딸은 무엇이 자신의 상태를 초래했는지를 알게 된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

<sup>4</sup> 그러나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은 왜곡된 반응을 피해야 한다. 우리가 으스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통에서 구해 주신다면, 우리는 많은 잘못된 죄책감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약 5:13b 는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찬양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행복한 환경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가르친다.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복음의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곤경 속에서 문지르면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진통제가 아니다.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피상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환기시키는 것, 곧 감정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 때(삼상 30:4) 일어난 일이었다. 슬픔을 쏟아내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명백한 것이지만 현대의 심리적으로 세련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말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끄집어 내고 억누르지 않을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목회자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며 시편 기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촉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터뜨릴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다윗이 삼상 30:6a 에서 크게 다급한 것과 똑같이, 사울은 특히 삼상 28:15 에서 크게 다급했었다.<sup>5</sup>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 슬퍼할 수 있었지만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가 우리의 신음과 울음을 억누르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더 이상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털어놓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한 가지 부정적인 제한 사항이 더 있다. 여러분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여러분의 곤경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삼상 30:6a), 다윗처럼 여호와 안에서 그들 자신을 강하게 하지는 않았다. 내가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일부 기독교계에 일종의 분노 숭배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신봉자들은 분노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 배우자나 자녀, 등등에

<sup>5</sup> [역자 주] 저자는 삼상 28:15(מָאֵד לִי צָרָר־לִי 차르-리 므오드)과 삼상 30:6(מָאֵד לְדָוִד מְצָרָר 바테체르 르다비드 므오드)에 동일한 어근 צָרָר[차라르]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KB II: 1058 에 의하면 לָ צָרָר[차르 르]는 "to have problem, to be hard pressed"로 풀이되어 있고 לוּ מְצָרָר[바테체르 로]는 "he is in trouble, pressed"로 풀이되어 있다.

대해 화를 내는 것이 “괜찮다.” 분노가 정확하고 성경적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삼상 30:6 은 그것을 분명히 한다.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정확히 다윗이 했던 바로 거기, 즉 개개인의(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의) 하나님으로부터이다. “그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강조 추가]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힘을 얻었다(삼상 30:6b).”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 점을 올바르게 강조하였다.<sup>6</sup> 이스라엘에는 생명력있는 개인적 믿음을 갖지 않고 공식적 언약 신앙을 고수하는 위험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목자(시 80:1)”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다(시 23:1).”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만, 그분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갈 2:20)”이라고 부르는 것을 꿈도 꾸지 않는 것과 같다. 맥클라렌이 말한 대로, 다윗은 더 이상 “나의 집”, “나의 성읍”, “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가? 본문이 몇 가지 단서들을 제공하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의 약속들과 확언들, 곧 당신과 관련된 약속들과 여호와와 성품에 관한 확언들을 기억함으로써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본문은 그다지 많은 것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삼상 30:6b 를 읽을 때마다 삼상 23:16 의 비슷한 언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거기서 요나단은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했다(개역개정: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것은 분명히 격려를 포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격려가 포함되었는가? 다음 구절이 잘 설명해 준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삼상 23:17)”고 확신시켰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하셨던 왕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강조했을 뿐이다. 그것이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삼상 30:6b 에서 비슷한 것을 추측한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면” 그는 틀림없이 여호와와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아직까지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는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무수히 자신을 강하게 한다. 스코틀랜드

---

<sup>6</sup> Alexander Maclaren,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 Deuteronomy, Joshua, Judges, Ruth, and First Book of Samuel*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n.d.), 385–87.

자유교회의 앤드류 보나르 목사는 1864년 10월 15일 자신의 일기에 자신의 비통한 “상처”에 대해 썼다. 17세의 아내 이사벨라는 출산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는 그녀가 죽은 날, 그의 관습에 따라 저녁 식사와 차 사이에 한 성경 본문을 묵상했다고 썼다. 그날 묵상한 본문은 “여호와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는 나훔 1장 7절이었다. 보나르는 “내가 30분 후에 어떻게 그것이 필요할지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덧붙였다.<sup>7</sup> 보나르는 이사벨라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10월 중순의 일기들에 이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한다. 감히 말하건대 그는 나훔 1장 7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왜 아내의 죽음과 함께 일기에서 그것을 언급했는가?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쓰러지지 않게 그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삼상 30:6b와 삼상 30:7-8 사이의 명백한 연결에 유의하라.

(삼상 30:6b-8 개역개정) 6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요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삼상 23:9 이후로 다윗이 에봇을 요구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며, 삼상 26장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sup>8</sup> 여기서 그는 자신을 회복하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에봇과 관련된 신성한 제비 사용을 통해 인도를 구한다.<sup>9</sup> 그는 여호와께 나아감으로써(삼상 30:7-8) 자신을 강하게 한다(삼상 30:6b).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비아달이나 에봇이 없다. 그러나 그에게 동일한 의존의 길이 열려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비아달보다 더 크신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히 4:14).” 우리에게 그러하신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궁핍하심을

<sup>7</sup> Marjory Bonar, ed., *Andrew A. Bonar: Diary and Life*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4), 226–27.

<sup>8</sup>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72을 참고하라. 내러티브에 나오는 생략들에 대하여 너무 많은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침묵으로 보인다.

<sup>9</sup> 삼상 14:41-42 그리고 삼상 23:9-12을 보라. 후자에 대한 나의 설명을 보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히 4:16). 우리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답들보다 더 필요로 하는 “돕는 은혜”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정보가 아니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무언가를 알 필요가 없고 단지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 III. 하나님의 섭리는 필수적이다 (삼상 30:11-15 God's Providence Is Essential)

몇 년 전 켈터키주 루이빌 시는 버스 운송 시스템이 "유비쿼터스", 즉 어디에서나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거대한 광고를 버스들에 게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와 섭리에 대한 교리는 사무엘상의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것을 만나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서나 그것을 만나는 것은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추격을 시작하여 브솔 시내에 이른다. 브솔 시내는 와디 가제일 것으로 추정되며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약 12-15 마일 떨어져 있었다.<sup>10</sup> 너무 피곤해서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 백명은 거기 머물게 하고, 다윗은 나머지 4 백명을 거느리고 추격을 계속한다(삼상 30:10).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추측할지 모른다. 다윗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습격을 하고 성읍을 불태운 부족들은 시청의 잿더미에 전화 카드를 남겨 두지 않았을 것이므로 다윗이 어떤 생존자로부터 소식을 듣지 않는 한 누가 시글락의 가족들을 납치해 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설령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주범임을 정말로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유목민 습격자들은 찾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떠돌아다녔다. 다윗은 어떻게 그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는가?

나는 삼상 30:11-15 을 적절한 관점에서 보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제기한다. 여기서 다윗의 사람들은 들에서 버려진 애굽인 노예 한 명을 발견한다(삼상 30:11). 독자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의 행방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이 발견이 선택적인 사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필수적이다. 그것은

---

<sup>10</sup> Joyce G.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167, 그리고 P. Kyle McCarter, Jr., *1 Samuel*,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435 을 참고하라.

<sup>11</sup> 참고, Hans Wilhelm Hertzberg, *1 & 2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227: “물론, 다윗은 그 약탈자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아기자기한 추가(엑스트라)가 아니다.

두 개의 절(삼상 30:11-12)에서는 우리는 이 탈진한 애굽인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다. 먼저 그는 그들에게서 받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무화과 한 뭉치와 건포도 두 뭉치를 먹고 정신을 차려야 했다. 이제 그는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삼상 30:13).” 그는 우리에게 그가 병이 들때 그의 주인이 그를 버렸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여러 곳을 침노했고 그 중 시글락도 침노하여 불살랐다고 말한다(삼상 30:14). “죽이지도 아니하고 옛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그 애굽인은 다윗의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포로들에게 인도한다(삼상 30:15-16a).

이 버려진 이집트인에게 일어난 일은 다윗의 회복 작전의 모든 열쇠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분의 확약(삼상 30:8)을 성취하실 수 있게 했으므로, 그는 얼마나 중요한가! 삼상 30:11 에는 여호와의 섭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 어떤 신학적인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본문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의 조용한 작업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별 볼일 없는 애굽인을 만난 것은 아주 작은 섭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은 섭리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 오직 아말렉 사람들만이 겨자씨 같은 문제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아말렉 주인은 사흘 전에 그가 버린 인간 기계 조각이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결코 종합해서 추측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한 시글락의 검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베고 그걸 마시는 자를 죽일 때 반성해볼 시간은 많지 않았다.<sup>12</sup> “그들은 들에서 한 애굽인을 만났다...” 하나님의 섭리는 필수적이다.

#### IV.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다 (삼상 30:21-25 God's Grace Is Decisive)

아말렉 사람들을 기습 공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삼상 30:16).”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새벽(비교: 우리말성경: 해 질 무렵; 쉬운성경: 그 날 밤)부터<sup>13</sup>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삼상 30:17).” 그런 다음 저자는 다윗이 성공을 가장 강조적인 용어로 묘사한다. “모든 것을 다윗은 도로 찾아왔다.” 그는 그의 두 아내,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 모든 약탈물(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논할

---

<sup>12</sup> Ellison, *Joshua-2 Samuel*, 72: “아말렉 사람들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sup>13</sup> 우리의 목적상 여기 [네세프]가 황혼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이른 아침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

것임) 등 아무 것도 잃은 것 없이 도로 찾아왔다. 그는 브솔 시내로 돌아와서 그가 휴식과 회복을 위해 거기 머물게 했던 2 백명의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나눈다(삼상 30:21).

우리는 이미 다윗의 사람들이 대체로 출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삼상 22:2), 이제 우리는 4 백명의 사람들 중 일부가 그저 비열하고 고약한 악당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정의를 가장하여, 그들은 2 백명의 “뒤쳐진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를 데려갈 수 있지만 그들 4 백명이 도로 찾아온 물건은 취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삼상 30:22). 그것은 “싸우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먹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버전이었다. 결국 그들을 움직이도록 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큰 탐욕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그저 이기심과 악의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다윗은 따뜻함과 논증과 쉽게 믿을 수 없음과 권위 등이 예리하게 혼합된 말로써 그들의 책략을 억누른다. 다윗은 따뜻한 마음으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삼상 30:23a).”고 말리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삼상 30:23b)”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논증을 펼친다. 그런 다음 다윗은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삼상 30:24a)?”라고 하며 그들을 쉽게 믿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권위를 가지고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삼상 30:24b).”고 선언한다. 다윗의 이 선언은 이스라엘에서 군사적인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삼상 30:25). 아마도 이러한 심리학, 신학, 결단력 등의 조합을 통해 다윗은 그러한 균일하지 않은 인물들의 집단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다윗의 결정의 근거, 곧 그의 신학적 논증에 있어야 한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삼상 30:23).” 다윗의 신학은 그의 관점을 결정했고, 삼상 30:24 의 지침의 배경이 되었다. 여호와의 선물 주심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신학이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공헌에 집중하는 행위의 철학을 따라 행동한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삼상 30:22).”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하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고 논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다윗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혜와 행위의 차이는 예배와 우상숭배의 차이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파악하지 못하면(삼상 30:23)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급자족의 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도로 찾은 것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돌아다닐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다윗에게 은혜가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세계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시급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윗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결정과 행동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은혜는 기독교의 실천신학에서 항상 결정적이고 지배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 성공, 이 취업, 이 사랑하는 사람, 이 건강, 이 식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한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전 4:7)?"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은 은혜의 신학을 말하고 실천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그것이 겸손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것이다.

#### v. 하나님의 승리는 고무적이다 (삼상 30:26-31 God's Victory Is Encouraging)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는 또한 뱀처럼 지혜롭다. 이 조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경적 믿음은 문 앞에서 우리의 뇌를 점검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것을 사용한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말렉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는데, 그 중에는 그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다(삼상 30:26a). 적어도 그들은 다윗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을 왕래하였기 때문이었다(삼상 30:31). 저자는 수령자들의 주소 목록(삼상 30:27-31a)을 포함한다. 그것들은 주로 헤브론 주변과 헤브론 남쪽에 있는 유다의 남방 지역에 있는 곳들이었다.<sup>14</sup> 다윗의 선물은 공정한 것이었다.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아말렉의 습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아말렉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sup>15</sup> 그러나 다윗의 선물들은 책략적이기도 했다. 그것들은 다윗으로 친구들을 얻게 하고 지지를 받게 하며 그가 유다에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수월하게 해 주었다(삼하 2:1-4). 그것에

---

<sup>14</sup> 일부 장소들은 정확히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앓달(삼상 30:27)은 헤브론에서 남쪽/남서쪽으로 12 마일쯤 떨어져 있었다. 에스드모아(삼상 30:28)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8 마일 떨어져 있었다. 보르-아산(삼상 30:30)은 브엘세바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 [역자주: 삼상 30:30 에 나오는 한글 성경들의 "고라산"은 여러 중세사본들(עֲשָׂרֵי כֹּוֹרֵי; KJV Chorashan)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번역의 "보라산"은 대부분의 영어성경들이 MT עֲשָׂרֵי כֹּוֹרֵי를 따라 Bor-sahan 으로 번역한 것과 같다.] 장소들의 위치와 이름에 대한 정정들에 대해서는 McCarter, *1 Samuel*, 436 그리고 Robert P. Gordon, *1 & 2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01 을 보라.

<sup>15</sup> Baldwin, *1 & 2 Samuel*, 169.

어떤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눅 16:9 참조).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고 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는 다윗의 승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아말렉 무리들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들의 목록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사소한 에피소드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문이 다윗의 승리가 중심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30 장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다윗의 승리를 이 내러티브의 중앙에 두고 있는지 주목하라.

시글락—파괴, 삼상 30:1-6a

여호와의 인도를 구함, 삼상 30:6b-8

군사들의 분리, 삼상 30:9-10

발견, 삼상 30:11-15

승리, 삼상 30:16-17

회복, 삼상 30:18-20

군사들의 재회, 삼상 30:21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함, 삼상 30:22-25

시글락—배분, 삼상 30:26-31

우리가 이 구조가 너무 양식화되고 인위적인 것으로 치부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은 것이 삼상 30:18-20 에서 강조되는 방식을 여전히 다루어야 한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그의 두 아내를 포함한 모든 것을 구원했다. 어리든 나이 많은, 아들이든 딸이든, 빼앗겼던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다. 우리가 요점을 놓칠까 봐 저자는 “**모든 것을**<sup>16</sup>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삼상 30:19b).”라고 요약한다. 저자는 여호와께서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구원하리라(삼상 30:8)”고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요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다윗은 온전히 그리고 전부 구원했다. (삼상 30:8 에서 사용된 [나찰] (“구원하다”)이 어떻게 삼상 30:18 에서 다시 두 번

---

<sup>16</sup> [역자 주] 히브리어 본문 [하콜 헤시브 다비드 = 목적어+동사+주어]에서 강조되어 있는 [하콜] (“그 모든 것, 전부”)은 저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영어 표현 “the whole shooting match, 전부, 모든 것”이 나타내는 개념과 같다.

사용되었는지<sup>17</sup> 주목하라.)<sup>18</sup>

그러나 다윗이 그 승리의 중요성을 포착한 것은 유다의 여러 장로들에게 인사하는 단 한 줄의 문 가운데 잘 드러난다. “여호와와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항상 그러했다(출 17:8-16; 신 25:17-19 그리고 사무엘상 15 장에 대한 나의 주해를 보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여호와와 원수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양떼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되신 분을 상대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고대 갈등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갈등은 더 큰 전쟁의 징후이다. 여호와와 백성과 여호와와 원수들이 있다. 두 나라, 곧 여호와와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있다. 두 인류, 곧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 여기 사무엘상 30 장에서 여호와와 원수들이 격퇴되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일화가 아니라 약속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의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시 110:1)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축소 모형 시나리오이다. 여기 하나님의 승리는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종 승리의 예고이고 담보이기 때문이다. 앤드류 멜빌이 스코틀랜드 개혁 주의 목회자들을 교수형시키거나 추방하겠다는 모든 백작의 위협을 감히 경멸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 때문이다. 멜빌은 말했다. “체, 각하, 그런 식으로 당신의 신하들을 위협하십시오. 내가 공중에서 썩든 땅에서 썩든 그것은 나에게 똑같은 일입니다.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의 진리를 매달거나 추방하는 것은 당신의 권한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sup>19</sup> 여호와와 원수가 멸망할 것을 아는 것(시 92:9)은 하나님 백성에게 적의 모든 위협에 대한 거룩한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일

---

<sup>17</sup> [역자 주] 삼상 30:8, 18 에 세 번 사용된 동사 [나찰]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8 절에서 “도로 찾다”, 18 절에서 “도로 찾다”와 “구원하다”로 번역했고, YLT 는 세 번 모두 “deliver”로 번역했으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recover 와 rescue 를 번갈아 사용하여 번역했다. 삼상 30:19 의 동사 [헤시브]에 대해 개역개정은 “도로 찾아왔다”로 번역했고, YLT 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bring back”으로 번역했고, KJV 는 “recover”로 번역했다. 같은 단어의 번역을 통일한다면 [나찰]은 “구원하다, 도로 찾다, 구해 내다”로, [헤시브]는 “회복하다, 도로 찾아오다”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다.

<sup>18</sup>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왔다. 삼상 30:20 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그의 개인 전리품으로 지정된 전리품을 모았음을 나타낸다. 본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하다. 이 전리품에서 다윗은 유다의 여러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sup>19</sup> J. D. Douglas, *Light in the North: The Story of the Scottish Covenanters* (Grand Rapids: Eerdmans, 1964), 18.

어떻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사무엘상 30 장은 긴 장으로 많은 것을 다룬다. 그것은 비극으로 시작하여 승리로 끝난다. 여호와께는 그렇게 하시는 길이 있다.

#### V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시간을 내어 시편 1 권(시편 1-41 편)을 통독하며 표제에 다윗이 언급된 것에 유의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된 것이 다윗에게 고난과 문제들로부터 면제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라. 또한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로 몰아갔음을 기억하라.
2. 때때로 설교자들은 모든 청중에게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들의 문제가 끝날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증언에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준 적이 있는가?
3.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두 가지 큰 방편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삶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숙고하라.
4. "작은 섭리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5.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요 1:16 개역개정)." 여러분은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할 때 주로 관련되어 있고 그 삶의 전체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

## 29. 끝인가? (삼상 31 장 The End?)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길보아 전투에 이르렀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어떤 이유로 지연된 예정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아나운서처럼 시작한다. 삼상 31:1 의 첫 동사는 분사로서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RSV, NIV, NKJV 처럼 과거 시제(“fought”)로 번역되어서는 안 되고, ESV 와 NASB 의 “were fighting”처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우리 독자는 조금 늦게 도착했으므로 상황을 따라잡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내레이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지각하게 한 것 같다는 직감이 든다. 나는 그가 길보아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고 느낀다. 그는 사무엘상 28 장 바로 다음에 길보아 전투를 연대순으로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었다. 대신 저자는 우리를 다윗에게로 돌려 더 일찍 일어났던 일을 보도록 했다. 그는 우리가 길보아로 늦게 돌아오기 전에 두 장(삼상 29-30 장)을 할애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한다. 길보아 전투는 너무 슬프고 비극적이고 어두운 이야기이므로, 저자는 그것을 말하기를 싫어한다. 그는 가능한 한 문학적으로 그것을 질질 끌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연기될 수 없었다. 이것마저도 이야기해야 했다.<sup>1</sup>

사실, 이야기해 줄 것이 많지 않다. 이 모든 것은 한 줄로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삼상 31:1b).” 히브리어 내러티브는 자주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간결한 요약의 다음 세부사항을 가지고 자세히 그것을 묘사한다. 이제 곧 세부 사항이 주어질 것이다. 나쁜 꿈처럼 우리는 그 끝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저자는 처음에 무뚝뚝하고 피비린내 나는 개요를 주었다. 다윗은 아벡(삼상 29 장)과 시글락(삼상 30 장)에서 모두 구원을 즐겼지만,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길보아에서는 여호와의 적들(참고, 삼상 30:26)이 승리한다.

사무엘상 31 장의 증언은 비극, 진리, 수치, 감사에 중점을 둔다. 나는 이 주제들을 자세히 다루며 본문의 가르침을 요약할 것이다.

### I. 비극: 여호와의 종의 신실함 (삼상 31:2 Tragedy: The Steadfastness of Yahweh’s Servant)

사무엘상 31 장은 자주 비극적 내러티브라고 불린다.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그의

---

<sup>1</sup> 사무엘상 27-31 장의 주요 장소와 연관성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삼상 27 장—가드의 다윗, 절박함; 삼상 28 장—엔돌의 사울, 절박함; 삼상 29 장—아벡의 다윗, 구원; 삼상 30 장—시글락의 다윗, 절망; 삼상 31 장—길보아의 사울, 죽음. 삼상 28 장의 주해에 나오는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26 강의 “II. 더 가벼운 짐들” 부분)을 참고하라.

최후를 넘기지 암시한다. 사람들이 이 장을 비극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나는 그 비극이 삼상 31:2 에 있다고 제안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삼상 31:2)

사실, 요나단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 중 맨 먼저 언급된 사람이다. 나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이 적나라한 통지에 대해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할 것이다(삼하 1 장). 그러나 요나단이 이전 내러티브들(참조, 삼상 14 장, 18-20 장, 23 장)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사망 통지는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이미 설명한 적이 있는 것(사무엘상 14 장의 주해[13 강 슬픈 성공]에 나오는 “비극의 기운” 부분 참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요나단의 부고가 있다. 그는 다윗의 참된 친구이자 사울의 신실한 아들이었다. 그는 다윗에게 왕권을 넘겼고(삼상 18:1-4) 사울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 참담한 대실패에서 요나단은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배정한 곳, 곧 그의 아버지 곁에 있었다. 내가 전에 논평했듯이, 그것은 전혀 비극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것에 무슨 비극이 있다는 말인가? 요나단이 잃을 수 없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질 수 없는 [세상] 나라를 포기한 것은 비극이었는가?

## II. 진리: 여호와의 위협의 성취 (삼상 31:3-7 Truth: The fulfillment of Yahweh's Threat)

여기에 사용한 동사들은 잔인한 재앙 이야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도망하다**([누스] to flee 3 번: 삼상 31:1, 7[두 번]), **엎드려지다/쓰러지다**([나팔] to fall/fallen 4 번: 삼상 31:1, 4, 5, 8),<sup>2</sup> **쳐서 죽이다**([나카] to strike down 1 번: 삼상 31:2), **몸부림치다/중상을 입다**([홀] to writhe/wounded 1 번: 삼상 31:3), **찌르다**([다카르] to pierce through 2 번: 삼상 31:4[두 번]), **죽다**([무트] to die 4 번: 삼상 31:5[두 번], 6, 7), **벗기다**([파샤트] to strip 2 번: 삼상 31:8, 9), **자르다/베다**([카라트] to cut off 1 번: 삼상 31:9), **못 박다**([타카] to nail 1 번: 삼상 31:10) 등등. 전투가 한창 때에 중상을 입은 사울은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한다(삼상 31:4a).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의 칼에 찔려 죽은 방식으로(삿 9:54)

<sup>2</sup> [역자 주] 개역개정에는 동사 [나팔]을 1, 4, 5 절에서 “엎드려지다”로 번역하고 8 절에서 “죽은”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동사 회수 계산에 어려움을 준다. 삼상 31:8 의 [노플림]에 대해 개역개정에는 “죽은”으로, 쉬운성경은 “죽어 있는”으로,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쓰러져 있는”으로, 우리말성경은 “쓰러져 죽어 있는”으로 번역했다.

죽으려고 한다.<sup>3</sup> 그러나 사울의 무기 든 자는 그대로 따르려 하지 않았다(삼상 31:4b). 사울이 여호와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칼에 몸을 던졌다(삼상 31:4c).

삼상 31:5-7 에서 “죽다”는 뜻의 동사 [무트]가 4 번 사용되었다.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고, 그의 무기 든 자가 죽었고, 그의 모든 경호원이<sup>4</sup> 죽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슬프기 때문이 아니라 “성가셨던”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삼상 28:19; 참조, 삼상 15:28)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sup>5</sup> 하나님의 말씀이 흡니와 비느하스의 종말을 선언하고(삼상 2:34) 그들이 죽임당한 것을 “보여주듯이”(삼상 4:11),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행해졌다. 이스라엘은 길보아에서 쓰러질 수 있다. 사울은 자기의 칼 위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확실히 이루어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기쁜 성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위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두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삼상 15:28; 28:17-19)은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분이 이미 선언하셨던 것의 범위 안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정 아래 있다(예: 출 4:21b)는 것을 알면, 바로가 큰 소리치는 것을 참는 것은 훨씬 더 쉽다. 어쨌든 사울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윗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똑같이 확신할 수 있다. 어둠이나 빛 속에서 중요한 것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sup>6</sup>

---

<sup>3</sup> 사울과 두 사사(아비멜렉과 삼손) 사이의 병행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Sam Dragga, “In the Shadow of the Judges: The Failure of Sau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8 (1987): 43 을 보라.

<sup>4</sup> 여기 “모든 경호원”은 삼상 31:6 의 “그의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그의 모든 사람”은 군대 전체가 아니라 왕의 정예 부대를 가리킨다.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279 을 참고하라.

<sup>5</sup>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288.

<sup>6</sup> 길보아 산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삼상 8:7-8)의 어리석음을 드러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스라엘은 왕을 갈망하고 왕정에 침을 흘렸다. 사무엘상 8 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고 문제가 방어이고 해결책이 정치적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것을 진보라고 불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셨다. 사무엘상 31 장은 (그와 같은) 정치적 과정에 대한 신뢰가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보여준다. 다곤과 같은 어떤 우상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다른 우상들은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는다.

### III. 수치: 여호와와 명예의 문제 (삼상 31:8-10 Shame: The Problem of Yahweh's Honor)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 산으로 몰려와 이스라엘의 시신들로부터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들은 최고의 트로피들을 발견하고(삼상 31:8b)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망쳐 놓는다. 적어도 그들은 사울의 몸을 그렇게 한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다. 우리는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문법과 지리에 대해 깜짝 놀란다(삼상 31:9b).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그들의 고국 블레셋 땅 사방으로 보냈는가? 아니면 그들은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북쪽에 두고 (예, 전령들을 통해) 전언을 보내 그들의 우상 신전들에 그 좋은 소식을 전했는가?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너무 분명하다. 우상이 이겼다(삼상 31:9b). 아스타르트가 승리했다! 피투성이의 머리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패배하셨다. 사울의 갑옷은 대적의 신전에 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을 보호하실 수 없었다. 언론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호와와 왕과 백성이 완패하였다면, 그들의 하나님도 완패하신 것이다. 블레셋 우상들이 그것들 앞에 전리품이 놓였을 때 침도 흘릴 수 없다는 것을 신경쓰지 말라. 마치 에벤에셀(삼상 4:1-5:2)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다시 이방인 전도사들은 블레셋 전역을 달리며 “여호와와 패자다.”라고 외쳤다.

이 본문의 슬픔은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더 깊은 슬픔이 있다. 모든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애도한다. 이스라엘의 패배보다 더 나쁜 것은 여호와와 치욕이다.

하나님의 명성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에스더 에드워즈 부부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이러한 열정의 두드러진 예를 볼 수 있다. 요나단 에드워즈의 딸 에스더는 남편 아론(악명높은 부통령의 아버지)과 사별했다. 그는 성령님의 밝고 빛나는 등불이었고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었고 마흔 한 살에 죽었다. 에스더의 슬픔은 불안과 거룩한 걱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오, 나는 두렵습니다. 나의 처신이 나의 하나님과 내가 고백하는 종교에 불명예를 가져올까 봐 두렵습니다.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오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죽고 싶습니다. 나는 극복되었습니다. 한 번 더 비는 마음으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생각해 내실 때 그들이 그들의 심히 괴로워하는 딸(이제는 외로운

과부)이나 그녀의 아버지없는 자녀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립니다.<sup>7</sup>

여호와와 그의 명예는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로서 교회를 포함하든 개인 신자를 포함하든, 길보아 산에서든 뉴 저지에서든, 주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든 장로교인들이든, 그것은 중요하다. 여호와 자신의 명예는 우리의 의제 중 으뜸이 되어야 한다.

#### IV. 감사: 여호와와 백성의 친절 (삼상 31:11-13 Gratitude: The Kindness of Yahweh's People)

사울의 대열이 길보아에서 갈기갈기 찢겼을 때,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버리고 떠났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삼상 31:7a)” 사람들, 즉 길보아 산 북쪽으로 이스라엘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즉,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살았다. 이 시점에 블레셋의 지배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알기 어렵다. 그들은 적어도 갈릴리 지파들을 에스드렐론 평야 남쪽에 있는 지파들과 분리되게 한 것 같다. 그들은 전투 현장의 동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고 요단강 서쪽 지역에 두드러진 요새 성읍 벤산을 장악했다.<sup>8</sup> 훼손된 네 개의 이스라엘 사람 시신들이 그 성벽에 걸려있다.

삼상 31:11-13 은 우리가 이 거친 장에서 부드러운 논평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온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들었다. 그들 중 강하고 대담한 몇몇 사람들은 밤새도록 벤산으로 달려가서 성벽에서 썩어가는 시체들을 내려 가지고 야베스 길르앗으로 돌아왔다.<sup>9</sup> 그들은 체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야베스 길르앗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고 벤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10 마일 떨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20-22 마일을 왕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용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담한 일격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설명해준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 암몬 왕 나하스는 어느 블레셋 사람 못지 않게

---

<sup>7</sup> Iain H. Murray, *Jonathan Edwards: A New Biograph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434.

<sup>8</sup> 벤산의 전략적인 위치와 고고학적 역사에 대해서는 Keith N. Schoville, *Biblical Archaeology in Focus* (Grand Rapids: Baker, 1978), 329 이하를 보라.

<sup>9</sup> 시체를 태우는 것은 정상적인 히브리인의 관습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수도 있다.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233: “시체는 낮의 더위에 빠르게 일어나는 부패의 과정에 의해서 그리고 새들의 파괴에 의해서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이다. 시체의 훼손을 고치고 매장을 위해 뼈를 구해내는 것은 중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매장 의식들이 호머 시대의 그리스인들(예: 일리아드 23) 사이에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는 A. F. Rainey, “Beth-shean,” *ISBE*, rev. ed., 1:477 을 참고하라.

능숙한 절단자였지만(삼상 11:2), 그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위협할 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울은 진군하여 그들을 구원했다(삼상 11:6). 그것도 밤에 진군한 것이었다(삼상 11:11). 사울의 통치는 야베스에 대한 그의 구원으로 시작하여 사울에 대한 야베스의 “구원”으로 끝난다(삼상 31 장). 여호와와 영은 사울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사울은 그들의 구원자이었고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때가 있었다. 적절한 장례와 금식이 뒤따른다(삼상 31:13b).<sup>10</sup>

그것은 감사의 빛이었다. 그것을 갚는 것이 길보아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삼상 31:11-13 을 읽은 후 적어도 이 전체적인 혼란 속에서 무언가 옳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감사는 그것이 무언가를 바꾸든 말든 그것 자체의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계속 지켜보던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있었다(막 15:40-41). 그 여인들은 그분이 무덤에 놓여 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막 15:47)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보고 있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져갈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갔다(막 16:1-3). 사랑은 할 수 있는 친절을 제공한다. 그것은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왕이신 분에 대해 잊지 않는다.

사무엘상은 그 자체로 완전한 성경 “책”이 아니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하나의 완전한 책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1 장 다음에 부과된 “책들”의 구분에 대한 적절한 것이 있다.

그 비극을 웃어넘기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유행가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존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그 그림은 거의 밝지 않다. 지도부는 전멸했고, 영토는 비워졌다. 일부는 도망갔지만 다른 일부는 도망가지 못했다. 그들의 몸은 길보아의 비탈에 흩어져 있었다. 그 그림은 슬픈 광경이다.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다(민 27:15-17). 사실, 사무엘상은 그저 실망이 연속되는 슬픈 책이다. 불경건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삼상 1-4 장), 예언하는 지도자에 대한 거부(삼상 8, 12 장), 다스리는 지도자의 붕괴(삼상 13-31 장) 등등. 여기에 연속되는 실패를 겪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이 흩어진 양들을 위한 한 목자를 택하셨다(참고, 삼하 5:2; 대상 11:2; 겔 34:23; 37:24). 지금 길보아 만큼 음울하게

---

<sup>10</sup> 사무엘상 11 장과 31 장 사이의 유사점과 대조점에 대해서는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1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628 그리고 Karl Gutbrod (*Das Buch vom König*,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4th ed. [Stuttgart: Calwer, 1975], 254 을 참고하라.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삼상 16:7).

####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요나단의 죽음은 비극으로도 볼 수 있고 더 나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어떤 명백한 비극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가?
2.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서도 진리에 거의 관심이 없다. "미안합니다. 사장님은 외출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는 당신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 진리가 주된 미덕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이 총체적이라는 사실을 반성해보라.
3. 하나님의 명예는 여러분의 의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4. 사무엘상에서 배운 주요 가르침을 항목화하라. 이것에 대한 기록을 가까이 두고 "곧 잊어버리기 쉬우니" 얼마동안 여러분의 묵상에 그것을 사용하라.